

국립국어원 2007-1-22

발간 등록 번호
11-1370252-000070-14

# 2007년 전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

연구 책임자 : 소강춘

연구 보조원 : 주경미

김영철

조사 지역 :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국립국어원

#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2007년도 전북 지역어 조사 및 전사’에 관하여 위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의하여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7년 12월 20일

연구책임자 : 소 강 춘

연구보조원 : 주 경 미

김 영 철

2007년  
전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  
-군산시 편-

## 목 차

1. 조사과정 .....	7
1.1. 조사 지점 개관 .....	7
1.2. 조사 기간 .....	7
1.3. 제보자 .....	7
1.4. 조사자 .....	8
1.5. 전사 .....	10
2. 전사 원칙 .....	12
2.1. 구술 발화 전사 .....	12
2.2. 어휘 항목 전사 .....	12
2.3. 음운 항목 전사 .....	13
2.4. 문법 항목 전사 .....	13
2.5. 표기 방법 .....	13
3. 전사 자료 .....	15
제1편 구술 발화 .....	17
1.1. 조사 마을의 환경과 배경 .....	17
1.2. 일생 의례(임 ) .....	24
1.3. 생업 활동 .....	42
1.2. 일생 의례(이 ) .....	63
제2편 어휘 .....	131
2.1. 농경 .....	131
2.2. 음식 .....	136
2.3. 가옥 .....	139

2.4. 의복 .....	147
2.5. 민속 .....	150
2.6. 인체 .....	155
2.7. 육아 .....	161
2.8. 친족 .....	163
2.9. 동물 .....	167
2.10. 식물 .....	173
2.11. 자연 .....	176
 <b>제3편 음운 .....</b>	<b>182</b>
3.1. 음운 체계 .....	182
3.2. 음운 과정 .....	187
 <b>제4편 문법 .....</b>	<b>214</b>
4.1. 대명사 .....	214
4.2. 조사 .....	216
4.3. 종결어미 .....	217
4.4. 연결어미 .....	219
4.5. 주체 존대 .....	220
4.6. 시제 .....	220
4.7. 부정 .....	221
4.8. 사동과 피동 .....	221
4.9. 보조용언 .....	222
4.10. 부사 .....	223
4.11. 관용적 표현 .....	224

#### 4. 제출 자료(별첨)

- 1) 보고서 100부
- 2) 보존용 48,000hz, 전사파일용 16,000hz 파일 및 전사 trs 파일
- 3) 조사된 질문지
- 4) 지역어 조사 정보 파일
- 5) 제보자 조사표
- 6) 지역어 자료 활용 동의서

# 1. 조사과정

## 1.1. 조사 지점 개관

이번에 선정한 조사지점은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이다. 원래 전라북도 5시, 13군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5년에 몇 개의 시군이 통합되었는데, 그때 군산시와 옥구군이 통합되어 군산시가 되었다.

군산시와 옥구군은 백제시대에는 ‘마서랑현, 부부리현, 시산군’으로 구분되었고,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는 ‘옥구현, 회미현’ 조선초기(1403)에는 ‘옥구현, 임피현’, 대한제국(1906) 때는 ‘옥구부, 임피군’이었다. 일제시대(1914) 때는 ‘군산부, 옥구군’으로 나뉘었다가 해방직후(1949)에는 ‘군산시, 옥구군’으로 개칭되었다. 1995년에 군산시로 통합되었다.

옥구군은 군산시를 둘러싸고 있던 군으로, 동쪽은 익산군과 이리시, 남쪽은 바다 건너 김제군, 서쪽은 바다, 북쪽은 군산시와 금강 건너 충청남도 서천군과 연하고 있다.

대야면(大野面)은 옥구군 1읍, 9면의 하나로 지경, 북교, 산월, 보덕, 죽산, 광교, 접산 7개 리로 되어 있다. 동쪽은 익산군 오산면, 남쪽은 만경간 건너 김제군 청하면, 만경면, 서쪽은 회현면, 개정면, 북쪽은 성산면과 임피면과 연하고 있다.

산월리(山月里)는 본래 임피군 남삼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서악리, 오동리, 남흥리, 오산리, 백월리, 석화리 일부와 서삼면의 장산리 일부를 병합하여 오산과 백월의 이름을 따서 산월리라 하여 옥구군 대야면에 편입되었다.

## 1.2. 조사 기간

2007년 8월 7일-2007년 10월 27일

## 1.3. 제보자

(1) 주제보자

이름	이
성별	여
나이	74
출생지	전북 군산시 성산면
거주지	전북 군산시 대야면
선대거주지	전북 군산시 성산면
직업	농업
경력	
학력	보통학교 졸업
병역	
제보자 소개 과정	대야면 이장 소개
제보자의 특기 사항	구어와 신어를 구별하여 각각 제보해 줌
제보자의 음성 특징	영리하고 발음도 매우 양호함

## (2) 보조 제보자

이름	임
성별	남
나이	74
출생지	전북 군산시 대야면
거주지	전북 군산시 대야면
선대거주지	전북 군산시 대야면
직업	농업
경력	
학력	보통학교 졸업
병역	육군 제대
제보자 소개 과정	대야면 이장의 소개
제보자의 특기 사항	농업과 생업에 관한 풍부한 내용을 알고 있음.
제보자의 음성 특징	발음 양호함

## 1.4. 조사자

(1) 이름 : 소강춘(전주대학교 교수)

주경미(전주대학교 교수)

김영철(전주대학교 객원교수)

(2) 조사 일시 : 2007년 8월 7일-2007년 10월 27일

(3) 조사 장소 : 주제보자(전북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724-1) 및

보조제보자의 집(전북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719번지)

(4) 조사 내용

2007년 8월 7일 : 구술발화

2007년 8월 17일 : 어휘

2007년 8월 31일 : 문법

2007년 9월 7일 : 구술발화, 어휘

2007년 9월 14일 : 어휘

2007년 9월 28일 : 어휘

2007년 9월 29일 : 어휘

2007년 9월 30일 : 어휘

2007년 10월 5일 : 어휘

2007년 10월 6일 : 어휘, 구술발화

2007년 10월 12일 : 음운

2007년 10월 13일 : 음운

2007년 10월 19일 : 문법, 구술발화

2007년 10월 20일 : 문법, 구술발화

2007년 10월 26일 : 추가조사

2007년 10월 27일 : 추가, 확인조사

TAPE 번호	파 일 명	조사항목	녹음시간	제보자	조사자	조사일
1	SJB_GS_01	구술발화	1:44:05	임	소강춘/김영철	2007. 8. 7
2	SJB_GS_02	어휘	2:02:10	임	소강춘/김영철	2007. 8. 17
3	SJB_GS_03	어휘	0:42:30	임	소강춘/김영철	2007. 8. 17
4	SJB_GS_04	문법	2:02:10	임	소강춘/김영철	2007. 8. 31
5	SJB_GS_05	문법	1:12:20	임	소강춘/김영철	2007. 8. 31
6	SJB_GS_06	구술발화	2:01:30	이	소강춘/주경미	2007. 9. 7
7	SJB_GS_07	어휘	1:54:40	이	소강춘/주경미	2007. 9. 7
8	SJB_GS_08	어휘	2:01:25	이	소강춘/주경미	2007. 9. 14
9	SJB_GS_09	어휘	2:02:25	이	소강춘/주경미	2007. 9. 28
10	SJB_GS_10	어휘	1:44:05	이	소강춘/주경미	2007. 9. 29
11	SJB_GS_11	어휘	1:51:10	이	소강춘/주경미	2007. 9. 30
12	SJB_GS_12	어휘	1:50:55	이	소강춘/주경미	2007. 9. 30
13	SJB_GS_13	어휘	1:27:05	이	소강춘/주경미	2007. 10. 5
14	SJB_GS_14	어휘	2:02:25	이	소강춘/주경미	2007. 10. 5
15	SJB_GS_15	어휘	2:02:35	이	소강춘/주경미	2007. 10. 6
16	SJB_GS_16	어휘 구술발화	2:02:40	이	소강춘/주경미	2007. 10. 6
17	SJB_GS_17	음운	2:02:30	이	소강춘/주경미	2007. 10. 12
18	SJB_GS_18	음운	2:00:00	이	소강춘/주경미	2007. 10. 12
19	SJB_GS_19	음운	1:57:30	이	소강춘/주경미	2007. 10. 13
20	SJB_GS_20	음운	0:30:35	이	소강춘/주경미	2007. 10. 13
21	SJB_GS_21	구술발화	1:47:40	이	소강춘/주경미	2007. 10. 19
22	SJB_GS_22	구술발화	1:41:05	이	소강춘/주경미	2007. 10. 19
23	SJB_GS_23	구술발화	0:40:00	이	소강춘/주경미	2007. 10. 20
24	SJB_GS_24	문법	1:50:00	이	소강춘/주경미	2007. 10. 20
25	SJB_GS_25	추가조사	1:24:00	임	소강춘/김영철	2007. 10. 26
26	SJB_GS_26	추가조사	0:25:00	임	소강춘/김영철	2007. 10. 27

## 1.5. 전사

### (1) 1차 전사(2007년 9월·10월)

구술발화: 소강춘

어휘: 김영철/주경미

음운: 주경미

문법: 주경미



(2) 1차 점검(2007년 10월)

구술발화: 소강춘 / 주경미

어휘: 김영철 / 주경미

음운: 주경미

문법: 김영철

(3) 2차 점검(2007년 11월)

구술발화: 소강춘

어휘: 소강춘

음운: 소강춘

문법: 소강춘

(4) 3차 점검(2007년 12월)

구술발화: 소강춘

어휘: 소강춘

음운: 소강춘

문법: 소강춘

## 2. 전사 원칙

### 2.1. 구술 발화 전사

구술 발화는 4시간 정도의 분량을 선정하여 전사한 것이다. 구술 발화는 문장 단위로 분절(segmentation)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각 분절 단위의 끝은 반드시 문장 종결 부호(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로 마무리하였다. 제보자의 이야기 중에 조사자의 말이 들어가더라도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조사자 사이에 문장부호를 찍지 않았다. 내용이 전환될 경우,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을 모두 전사하였다. 이야기가 중간에 끊겨 내용이 전환되면 문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문장을 마무리하였다. 의미 내용상 분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분절 내에서 문장이 끝날 때까지 입력하고 문장부호를 넣은 다음 이어서 { } 안에 지역어 문장에 대한 표준어 대역을 넣고 문장 종결 부호를 넣었다.

표준어에 대응되는 어휘나 표현이 없거나 어감이 달라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그 내용을 기술하였다. 분절을 하고 전사하는 경우 분절 단위로 전사 번호를 부여하였다. 전사 번호는 분절된 문장의 맨 앞에 입력하고, 발화자 표시는 전사 번호 다음에 한 칸을 띄고 “@”(조사자)나 “#”(제보자)와 같은 부호를 입력하였다. 구술 참여자가 여럿일 경우에는 각 구술자를 구별하기 위해 발화 단위 앞에 “#1, #2...” 등의 발화자 표시 부호를 입력하였다. 음성 전사의 경우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추측이 가능한 부분은 [x x]안에 전사하고 음성 청취와 전사가 불가능하면 음절, 혹은 모라(mora) 수만큼 \*\*\*로 표시하였다. 표준어 대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였다. 구술 발화 질문지와 무관한 내용은 항목 번호로 “=1”을 부여하고 문장 단위로 전사하였다.

### 2.2. 어휘 항목 전사

- ① 조사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 어휘는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따라서 곡용 어미나 활용 어미가 연결된 경우에는 그들 어미가 포함된 부분까지 전사하였다.
- ② 지역어 어절이 표준어형으로는 띄어 써야 할 경우라도 하나의 발화 단위로 판단되면 지역어의 음성 전사에서는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③ 하나의 표제어에 여러 개의 방언형이 나타나는 경우 동일한 항목 번호를 부여하고 전사하였다.
- ④ <주의>를 통하여 조사된 지역어형은 별도의 항목으로 전사하지 않았으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제 항목과 관련된 지역어 정보를 (+ ) 안에 기록하였

다.

- ⑤ 질문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2”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⑥ 지역어형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어 응답란에 “\*” 표시, 지시 대상은 없는데 이름만 있는 경우에는 응답형 뒤에 “&” 표시를 하였다.
- ⑦ 지역어 응답형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친구형은 응답형 뒤에 (+ 신), (+ 구)로 표시하였다.
- ⑧ 사용 빈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응답형 뒤에 (+ 다), (+ 소)로 사용 빈도 차이를 표시하였다.
- ⑨ 지역어형이 비칭과 존칭으로 구별될 때 비칭은 응답형 뒤에 (+ 비)로, 존칭은 응답형 뒤에 (+ 존)으로 표시하였다.
- ⑩ 조사 항목에 대한 지역어형이 두 개 이상이고 사용 계층이 노년층과 젊은층으로 구분되는 경우 응답형 뒤에 (+ 노), (+ 유)로 표시하였다.

## 2.3. 음운 항목 전사

- ① 조사된 지역어의 어간과 어미가 통합된 음성형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어미를 선택하여 조사하도록 제시한 항목에서는(‘-고(-더라)’, ‘-아/어서(-아/어도)’) 조사하기 쉬운 어미를 선택하고 그 결과를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③ 질문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 “=3”을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2.4. 문법 항목 전사

- ① 표제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가 포함된 부분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표제 항목에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4”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2.5 표기 방법

- ① ‘위’가 단모음 [y]로 실현되거나 상향 이중모음 [wi]로 실현되더라도 모두 ‘위’로 전사하되 (+ ) 안에 그 사실을 밝혀주었다.
- ② ‘외’가 단모음 [ø]로 실현되면 ‘외’로 전사하고, 이중모음 [we]로 실현되면 ‘웨’로 전사하였다.
- ③ 비모음은 해당하는 음절 다음에 ~ 표시를 하였다.
- ④ 장음은 “:”, 인상적 장음은 “::” 등으로 표시하였다.



2007년 전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

### 3. 전사 자료

# 제1편 구술 발화

[임완순 할아버지의 삶]

## 1.1. 조사 마을의 환경과 배경

### 1.1.1. 마을 들여다보기

10101 @ 이 마으레서 오래동안 사셔짜나요?{이 마을에서 오래동안 사셨잖아요?}

10101 # 그러쵸.(그렇지요.)

10101 @ 이 마으리 언제 어떠케 이 만드러전은가? 그리고 주로 인제 주민드리 어떤 성씨를 가지고 인는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죠?{이 마을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 졌는가? 그리고 인제 주민들이 어떤 성씨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10101 # 성씨.{성씨.}

10101 @ 예, 예.{예, 예.}

10101 # 여개 지역이 한 이조 말년, 말씀 데는거 가터요. 저 외정도 여거 여거서는 단 자 이 주민드른 다 겨껴고 또 이 부락 이르미 옌나레는 승동이라 해쵸요. 승동.{여기 지역이 한 이조 말년, 말씀 되는 것 같아요. 저 왜정도 여기 여기서는 모두 겪었고 또 이 부락 이름이 옛날에는 승동이라 했어요. 승동.}

10101 @ 승동?{승동?}

10101 # 궁계 중이 마니 산다고 해서 그게 승동인데, 애 쭈크니 보며는 저 위애가 어 그 머야 미군기지가 이쵸요. 사내, 그미테가 갈공사, 또 그 미트로 조금 조금 내려오면 강법사, 이 부락 바로 우애가 운심사.{그러니까 중이 많이 산다고 해서 그것이 승동인데, 애 쪽 보면 저 위애가 그 뭐냐하면 미군기지가 있어요. 산애, 그 밑애가 갈공사 또 그 밑으로 조금 조금 내려오면 강법사, 이 부락 바로 위애가 운심사.}

10101 # 그래서 인자 그: 옌날 그 중드리, 중드리 이 아플 마니 지나다니고 머더고 해서 승동이라, 그거시 외정 머야 애: 그 드러와 가지고 오동, 여그가 중동인데 주로 애 승동이 중동으로 바뀌쵸요.{그래서 이제 그: 옛날 그 중들이, 중들이 이 앞을 많이 지나다니고 무엇하고 해서 승동이라, 그것이 왜정 뭐야 애: 그 들어와가지고 오동, 여기가 중동인데 주로 애 승동이 중동으로 바뀌었어.}

10101 # 성씨는 애: 한씨드리 마니 살고, 또 임씨, 바깥임, 풍천 임씨들이 주로 마니 살고 이쵸쵸요.{성시는 애: 한씨들이 많이 살고, 또 임씨, 바깥 임, 풍천 임씨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었어요.}

10101 @ 그러니까 예저네는 그 승동이라 해꾸마뇨?{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승동이  
라 했구만요?}

10101 # 예, 승동, 이조 말려메는 승동이라형 거 가터.{예, 승동, 이조말엽에는 승  
동이라 한 것 같아.}

10101 # 그 외정, 일제가 드러운 후부터 오동이네 중동이네, 궁게 중동이, 승동이,  
중동으로 베너고 그래쥬.{그 왜정 일제가 들어온 후부터 오동이네 중동이네,  
그러니까 중동이, 승동이, 중동으로 변하고 그랬지요.}

10102 @ 그러면 저기 이: 마을에 인제 이르메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주며네 인  
제 뭐 산이나 강이나 저수지나 뭐 거기에 관련된 혹시 뭐 거기에 관련된 혹  
시 뭐 유래 가튼 이야기가 이쓰면 말쓰를 해주시지요? {그러면 저기 이: 마을  
의 인제 이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주변에 인제 뭐 산이나 강이나 저수  
지나 뭐 거기에 관련된 혹시 뭐 유래 같은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  
지요?}

10102 # 애: 저쪽 중동 저: 머야 운심사 미테 산 맨 꼬테가 예 매와 가튼 바위가  
이썬썬썬.{예 저쪽 중동 저: 뭐야 운심사 밑에 산 맨 꼭대기에 매와 같은 바  
위가 있었어요}

10102 # 근데 거기에 그 매와 가튼 바위 그 주둥이지, 그것보고 머라고 혀, 이,  
입, 어: 이비 이비는 쪼글 가따가 그 그거슬 가따가 파괴를 시켜썬썬.{그런데  
거기에 그 매와 같은 바위 그 주둥이지, 그것보고 무엇이라고 하지, 이, 입,  
어: 입이 입 있는 쪽을 갈다가 그것을 파괴를 시켰어요.}

10102 # 그리고 이 지여개 또 머야, 그: 저내 내려오는 그 이야기가 머냐머는 여  
기 이 산 중가네 길이 인는데, 그거보고서나 무렐녕, 물구 문 열: 여:령, 고개  
가 인는데, 거기에가 이조시대때 그 이: 승동부락이라고 하는 이 중동에 줌  
저: 권세를 가진 사람이 사라썬, 사라썬썬썬.{그리고 이 지역에 또 뭐야, 그:  
전해 내려오는 그 이야기가 무엇이나면, 여기 이 산 중간에 길이 있는데, 그  
것을 보고서 물얼녕, 물구 문: 여:령, 고개가 있는데, 거기에가 이조시대 때  
그 이: 승동 부락이라고 하는 이 중동에 줌 저: 권세를 가진 사람이 살았어,  
살았었어요.}

10102 # 근데 그 고개를 너머가는 사람마다 거기에서 가따가 다 잡고 뭐야 그: 옰  
이조말 무려베 그 상놈과 양바네 그 행세를 거기서 가따 마니 부려썬썬.{그런  
데 그 고개를 넘어가는 사람마다 거기에서 다 잡고 뭐야 그: 이조 말 무렵에  
그 상놈과 양반 행세를 많이 부렸어요.}

10102 # 인자 상노미 지나가며는 거기서 하여튼 매질도 허고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거슬 다 꺼려해썬썬.{이제 상놈이 지나가며는 거기에서 하여튼 매질도 하고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것을 다 꺼려했어요.}

10102 # 지른 그 길빠끼 업써기 때무네 그래쎄.{길은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

10102 # 무렐령, 문... {무렐령, 문...}

10102 @ 상당히 그러면 그 당시에 양반과 상노매 어떤 경계가 확실해꾸마뇨?{상당히 그러면 그 당시에 양반과 상놈의 경계가 확실했구만요?}

10102 # 그래쎄, 그 당시에는 그래쎄요{그랬지, 그 당시에는 그랬었어}

10102 # 근데 그 지비 그 양바니 살고 있는 지비 지그믄 머야 다 혼저기 업써지고 지금도 보며는 주치또리 큰: 주추또리 이쎄요.{그런데 그 집이 그 양반이 집이 지금은 뭐야 다 혼적이 없어지고 지금도 보며는 주춧돌이 큰: 주춧돌이 있어요.}

10103 @ 그러면 인자 이 마을 사람드른 주로 무슨 일을 하면서 사라가시는지? {그러면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시는지?}

10103 # 순 농사이리래요, 농사일도 여기에는 바시 저끼 때미네 논농사 이를 마니 해쎄요.{순 농사일이라요, 농사일도 여기에는 밭이 적기 때문에 논 농사일을 많이 했어요.}

10103 @ 그러면 논농사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인제 다른 사람드리 일쏘니 필요할 꺼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어떤 뭐 모임 가튼 걸 만드셔가지고 같이 협동하시면서 자업을 하시는지? {그러면 논농사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일손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어떤 무슨 모임 같은 것을 만드셔서 같이 협동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는지?}

10103 # 어 궁게 생화리 뭐야, 저 여유가 인는 사람들, 부자드른 머스미라고 두어 짜나. 머슴, 머스를 두어꼬, 그러치 아느며는 품아시를 하고 또 그러치 아느며는 머야 그: 뭐라고할까, 공동자겍, 공동자거블 하고 그래쎄쎄.{어 그러니까 생활이 뭐야, 저 여유가 있는 사람들, 부자들은 머슴이라고 두었잖아. 머슴, 머슴을 두었고, 그렇지 않으면 품아시를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뭐야 그: 무엇이라고 할까, 공동작업, 공동 작업을 하고 그랬었지.}

10103 @ 그러면 그 공동자거비 혹시 뭐 이러케 계를 무더가지고 하는 그런 거슨 아닌지?{그러면 그 공동 작업이 혹시 뭐 이렇게 계를 묻어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닌지?}

10103 # 계:를 무든 것이 아니라 머야 그 해보다 그 머야 글:리비라고 허는 그 얘기가 이짜녀. 대개 칠월 시보일, 음력 칠월 시보이른 백중나리고 해가지고 그: 일허는 사람드리 한자리에 모여 가지고 그냥 술매기를 하쎄. 술매기.{계를 묻은 것이 아니라 뭐야 그 해보다 그 뭐야 걸립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대개 칠월 십오일, 음력 칠월 십오일은 백중날이라고 해가지고 그: 일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지고 그냥 술매기를 하지요. 술매기.}

10103 # 궁계 거기에 참서건 사람드른 다 술매기기에 참서카고 가치 놀기도 하고  
그래쫘쫘.{그러니까 거기에 참석 한 사람들은 다 술매기에 참석하고 같이 놀기  
도 하고 그랬었지요.}

10104 @ 여기 지금 이: 이 동네하고 다른 여파 이온똥네하고 서로 이러케 비교해  
가지고 이 동네가 조은 점, 자랑할만한 점, 혹시 트기한 점 그런게 인나요?  
{여기 지금 이: 이 동네하고 다른 옆에 이웃동네하고 서로 이렇게 비교해가지  
고 이 동네가 좋은 점, 자랑할 만 한 점, 혹시 특이한 점 그러한 것이 있나  
요?}

10104 # 자랑할:거슨 애: 생화리 좀 어려워도 그 교육너리 강해쫘쫘. 그러니까 트  
키 그 한씨들, 한씨드리 마니 산다고 헐는데, 한씨드리 그 머야 이 근동에 인  
는 사람보단도 이 부라게 인는 한씨들이 머리가 조아쫘쫘.{자랑할: 것은 예:  
생활이 좀 어려워도 그 교육열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그 한씨들, 한씨들  
이 많이 산다고 했는데, 한씨들이 그 무엇이냐 이 근동에 있는 사람보다도 이  
부락에 있는 한씨들이 머리가 좋았어요.}

10104 # 머야 그: 거기에서 뭐 대학교수도 나오고 훌렁한 사람드리 마니 나와쫘  
쫘.{뭐야 그: 거기에서 뭐 대학교수도 나오고 훌렁한 사람들 많이 나왔어요.}

10104 @ 예, 혹씨 뭐 이 근처에 뭐 문화재라든지 아니면 뭐 특빠리 그: 마으레서  
재배해서 나오는 어떤 물거니라든지, 아니면 인제 다른 동네에서 하지 안는  
어떤 독트칸 뭐 민속노리 가튼 것시 따로 인는지 궁금하네요? {예, 혹씨 뭐  
이 근처에 뭐 문화재라든지, 아니면 뭐 특별히 그 마을에서 재배해서 나오는  
어떤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동네에서 하지 않는 어떤 독특한 뭐 민  
속놀이 같은 것이 따로 있는지 궁금하네요?}

10104 # 민중놀이 그런거슨 여계가 거 발달하지 안코 이꼬, 거 머야 문화재라고  
허까.{민족놀이 그런 것은 여기가 그 발달하지 않고 있고, 그 무엇이야 문화  
재라고 할까.}

10104 # 그 머냐며는 저쪽 개정면으로 너머가는 고개가 인는데, 그 바위가 뭐야  
장수 발짜국가치 생겨쫘쫘.{그 무엇이냐 하면 저쪽 개정면으로 넘어가는 고개  
가 있는데, 그 바위가 뭐야 장수 발자국같이 생겼어요.}

10104 # 장수 발짜구기 이따고 해서 그게 장수 바위라고 하는 애, 장수발짜구기  
이쫘쫘, 발짜국.{장수 발자국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장수 바위라고 하는 예,  
장수발자국이 있어요, 발자국.}

10104 # 궁계 발쫘, 바위가 발짜기 가치 따커니 찌킨거가치 생겨 이쫘쫘.{그러니  
까 발짜국, 바위가 발자국 같이 딱하니 찍힌 것같이 생겨 있어요.}

10104 # 그래서 그것슬 가지구, 머야 그때 시, 군산시로 옥꾸구니 퍼넌되기 저내  
그 문화워네서 애 그거슬 어떠케 문화재로 머야 승격허까 어찌가 헐는데 그  
거시 시지부지 말고 이쫘쫘.{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이냐 그때 시, 군산시



로 옥구군이 편입되기 전에 그 문화원에서 애 그것을 어떻게 문화재로 뭐야 승격을 할까 어떻게 할까 호지부지 말고 있어요.}

10104 @ 예, 아 나름대로 또 그 마는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인는 바위가 데게꾸 마노.{예, 아 나름대로 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바위가 되겠구 만요.}

10104 # 그거슬 소개할만한 머시 그 이근방에는 이뜰 아내요. 그 뭐여.{그것을 소개할만한 무엇이 그 이 근방에 있지를 알아요. 그 뭐야.}

10105 @ 예, 지금 즉 마으늘 가마니 살펴보시면 어르시니 어려쓸 때하고 지금 이제 지금하고 비교해볼 때 마니 달라져쪄요.{예, 지금 즉 마을을 가만히 살펴 보시면 어르신이 어렸을 때하고 지금 이제 지금하고 비교해볼 때 많이 달라 졌지요?}

10105 # 그런디 이 지여기 딴 지역뽀단도 변화가 업쪄요, 발쪄니 업쪄.{그런데 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도 변화가 없어요, 발전이 없어.}

10105 @ 아:{아}

10105 # 머야, 그리고 조금 머야, 배우고 머더고 허며는 다 외지로 나가야 있지, 이 지방에 대해서, 그 머야, 신경을 쓰고 발전할라고 하는 그 의도드리 업쪄 요.{무엇이나 그리고 조금 배우고 무엇하고 하면은 다 외지로 나가야 있지, 이 지방에 대해서 그 무엇이나 신경을 쓰고 발전하려고 하는 그 의도들이 없 어요.}

10105 @ 아:{아:}

10105 # 별 발전쪄이 이뜰 아내요. 정말 여기가 옛날에는 정말 오일장도 스고 머 터고 해서 저 읍, 임피 읍내보단도 여기가 컸었는데 애, 지금은 뭐야 그대로: 여 그대로.{별 발전성이 있지 않아요. 정말 여기가 옛날에는 정말 오일장도 서고 무엇하고 해서 저 읍, 임피 읍내보다도 여기가 컸었는데 애, 지금은 무 엇이나 그대로야 그대로}

10105 # 머야 제일 처음에 그 발전할 기회가 이쪄 때가 언제냐면 군산대하기 제일 처음에 이 지역으로 올라고 그래쪄요.{무엇이나 제일 처음에 그 발전할 기회 가 있을 때가 언제냐 하면 군산대학이 제일 처음에 이 지역으로 오려고 그랬 어요.}

10105 # 근데 그 주민드리 너무나 요구가 또 마네쪄요. 그 여 저: 사나래 인는 안 정부라기라고 하는 그 주민드리 너무 요구가 심해꼬, 또 반대허는 사람드리 권장 너무나도 마나쪄요.{그런데 그 주민들이 너무나 요구가 많았어요. 그 여 저: 산 아래 있는 안정부락이라고 하는 그 주민들이 너무 요구가 심했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았어요.}

10105 @ 예:{예:}

10105 #그래가지고 군산대하기 군사니루 가게데쪄유.{그래가지고 군산대학이 군산

으로 가게 되었지요.}

10105 # 그 뒤로 머야, 서해대학, 호원대학, 군장대학 다 요리 올라고 해찌마는 또 머냐며는 지주드리 땅값을 너무 막 그냥 올려요.{그 뒤로 무엇이냐 서해대학, 호원대학, 군장대학 다 이곳으로 오려고 했지만은 지주들이 땅값을 너무 막 그냥 올려요.}

10105 # 그거시 머때메 올련나 허머는 음, 옥꾸구니 군산시로 퍼니퍼기 저네 애, 군산 그 머야 옥구군청이 이 아페 뱅마산이라고 인는데 그리 오기로 해췌췌요.{그것이 무엇 때문에 올렸나 하면은 음, 옥구군이 군산시로 편입하기 전에 예, 군산 그 무엇이냐 옥구군청이 이 앞에 뱅마산이라고 있는데 그리 오기로 했었어요.}

10105 # 그 바라매 그 토지꾼드리, 땅 투기하는 사람드리, 너도나도 막 그냥 부르는데로 막 그냥 다 주고 사췌요. 그러자 다 사고는 일년 후에 군산시로 다 퍼니비 되짚요.{그 바람에 그 토지꾼들이, 땅 투기하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막 그냥 부르는 대로 막 그냥 다 주고 샀어요. 그러자 다 사고는 일년후에 군산시로 다 편입이 되었잖아요.}

10105 @ 아:{아:}

10105 # 그래가지고 인는데, 그 사람드리 절때 미까구르는 머야, 땅을 내노치는 못하게따 해가지고, 하꼬나 시서리 온다고 허머는, 지가를 너무, 하여튼 올리는 바라매 다 여그에 오지를 모더고 이췌요.{그래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절대 밀지고는 무엇이냐, 땅을 내놓치는 못 하췌다 해가지고, 학교나 시설이 온다고 하면은, 지가를 너무, 하여튼 올리는 바람에 다 여기에 오지를 못하고 있지요.}

10105 # 시방 이 아페가 시 체육센터라고 해가지고 수영장이 이짜녀. 아페 건무리, 그거 하나는 저 아페 인는 부라게 이씨들 그게 종툰테 그 종, 이씨들이 그거를 가따가 시사해가지고 거그가 그거 하나 시방 세워진 거 뿌니여요. 요즘.{지금 그 앞에가 시 체육센터라고 해가지고 수영장이 있잖아요. 앞에 건물 이, 그거 하나는 저 앞에 있는 부락에 이씨들 그것이 종토인데 그 종, 이씨들이 그것을 샀다가 시사해가지고 거기에 그것 하나 지금 세워진 것 뿐이에요. 요즘.}

10105 @ 그러니까 마으레 큰 변화는 업꼬{그러니까 마을에 큰 변화는 없고}

10105 # 예, 변화는 업...{예, 변화는 없...}

10105 @ 저기 어느정도 성장을 하면 그 바끄로 다 인제 외지로 나가버리고...{저기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그 밖으로 다 이제 외지로 나가버리고...}

10105 # 예, 그러치요.{예, 그렇지요}

10105 @ 예, 예, 아 그런 현상이 버려져꾸만요. 예.{예, 예, 아 그러한 현상이 벌어졌구만요. 예.}

10105 # 그리고 바깥으로 나간 그 자녀드리 저 이 고향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를 쓸려고 하는 사람이 이쁠 안해요.{그리고 밖으로 나간 그 자녀들이 저 이 고향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힘을 쓸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10105 # 타지역 사람드른 그거시 아닌데...{타 지역 사람들은 그것이 아닌데...}

10105 # 아.이 머야, 이 너머에 인는 안정리에 안정부라기라고 하는 데는 외지에 나간 부니 독지가 하나 이써가지고 부라글 막 살리고 이써요. 지금.{아 이 무엇이야, 이 너머에 있는 안정리에 안정부라기라고 하는 데는 외지에 나간 분이 독지가가 하나 있어가지고 부라글 막 살리고 있어요. 지금.}

10105 # 부라게서 요구조꺼니 이쓰면 다 드러줘요 그 부니, 그런 부니 이써야 하는데 이 근방은 이쁠 안해.{부라에서 요구조건이 있으면 다 들어줘요 그 분이, 그런 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 근방에는 있지를 않아.}

10105 @ 그럼 과거에는 어르신이 어려쓸 때에는 전부 거 뭐 마을 저기 그 호수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마나습니까요?{그럼 과거에는 어르신이 어렸을 때에는 전부 그 뭐 마을 저기 그 호수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까요?}

10105 # 호수가 직, 그때나 지그미나 다: 고가 그대로 이써요.{호수가 직, 그때나 지금이나 다: 호가 그대로 있어요.}

10105 # 신축된 건무리 하나, 그거 또 그 머야 구 건무를 머야, 그 개조해 가지고 신축된 거시 하나, 둘, 셋 정도 바깥에 업써요. 세 가구 정도 {신축된 건물이 하나, 그것도 뭐야 구 건물을 뭐야, 그 개조해 가지고 신축된 것이 하나, 둘, 셋 정도 밖에 없어요.}

10105 @ 그러면 예저네 그 주택드른 전부 초가:...[그러면 예전에 그 주택들은 전부 초가...]

10105 # 초가지비어쥬.{초가집이었지요.}

10105 @ 초가지블 가지고 이따가 인제 박정희 정권 때.{초가집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박정희 정권 때.}

10105 # 예, 예 새마을운동 때 쓰레뜨로 다 지붕개량을 해꼬, 인제 담장도 인자 부로꼬로 싸고 머더고 허고 그러케 대써지요.{예, 예 새마을운동 때 슬레이트로 지붕개량을 했고, 이제 담장도 이제 불럭으로 쌓고 무엇하고 그렇게 되었었지요.}

10105 @ 예, 그러면 그 여기 이 동네에 한씨나 임씨드리 마니 사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름대로 그 분들 그: 가튼 성씨들끼리는 나름대로 어떤 뭐 지바네 풍습드리 따로 뭐 인나요?{예, 그러면 그 여기 이 동네에 한씨나 임씨들이 많이 사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름대로 그분들 그 같은 성씨들끼리는 나름대로 어떤 뭐 집안의 풍습들이 따로 뭐 있나요?}

10105 # 풍습:이라고 할까? 머 그거슨 그 선영들 위허는 데는 참 다 열씨미여.{풍습이라고 할까? 뭐 그것은 그 선영을 위하는 데는 참 다 열심이야.}

10105 # 선영들 위하는데는 머야, 그 집안끼리 다투거나 머 그런거 업꼬 다 화합하고 이꼬, 그른디 다 외지로 나가 가지고 한씨나 임씨도 매 까우 대들 아내요 인제. 다 나가고...{선영을 위하는 데는 뭐야 그 집안끼리 다투거나 뭐 그런 것 없고 다 화합하고 있고, 그런데 다 외지로 나가 가지고 한씨나 임씨도 몇 가구 되지 않아요. 이제, 다 나가고...}

10105 @ 변화가 매우 심했네요.{변화가 매우 심했네요.}

## 1.2. 일생 의례

### 1.2.1. 제보자의 출생과 성장

10201 @ 인제 어르신 얘기좀 해 주시죠?{이제 어르신 얘기 좀 해 주시죠?}

10201 @ 어르시니 인제, 출생에서 성장할 때까지, 지금까지 인자 태어나서 쪽 사러오신 그 과정에 대해서, 어디서 태어나시고 그 다오메 나이는 어터게 되시고, 그 다오메 주로 어디에서 성장을 하셔쓰며, 뭐 향년, 뭐 지갑, 형제, 부몬니메 고향, 부몬니미 하신 닐, 뭐 그런 거들 쪽 한번, 생각 나시는 대로.{어르신이 인제, 출생에서 성장할 때까지, 지금까지 이제 태어나서 쪽 살아오신 그 과정에 대해서, 어디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나이는 어떻게 되시고, 그 다음에 주로 어디에서 성장을 하셨으며, 뭐 학력, 뭐 직업, 형제, 부모님의 고향, 부모님이 하신 일, 뭐 그런 것을 쪽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10201 # 저야, 머야, 이: 부라게서 태어나꼬.{저야 뭐야 이 부락에서 태어났고.}

10201 @ 주소가 어터게 되지요?{주소는 어떻게 되지요?}

10201 #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칠백십일번지에서 태어나쎄. 그게 고향이여. 지금 현재는 칠백십구번이지마는 태어날 당시에는 칠백십일번 번지여, 그리고 제가 애: 여달, 일곱여달살 때에 서당을 다녀쥔쎄요.{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칠백십일번지에서 태어났어. 그게 고향이여. 지금 현재는 칠백구십번이지만 태어날 당시에는 칠백십일번 번지야, 그리고 제가 예 여덟, 일곱여덟살 때에 서당을 다녔었어요. }

10201 # 서당을, 여게서 한 일키로썸 떠러진 그 외덕이라고 하는 마으레 그리 서당을 인자 다니다가 애: 여달살 때 대야 초등학교, 여그 아페 인는, 아,여그, 여게 인자 이과글 해쎄쥔.{서당을, 여기서 한 일키로썸 떨어진 그 외덕이라고 하는 마을에 그리 서당을 인자 다니다가 애: 여덟살 때 대야 초등학교, 여기 앞에 있는, 아 여기 여기에 인자 입학을 했었지요.}

10201 @ 그러면 그 당시에도 초등학교도 용년제 연나요?{그러면 그 당시에도 초등학교도 육년제였나요?}

10201 # 그때 궁민하교여쎄쥔?{그때 국민학교였었지요?}

10201 @ 예, 궁민하꼬.{예, 국민학교.}

10201 # 궁민하꼬 유강년, 인자 머야, 그 용년제.{국민학교 육학년, 인자 뭐야 그 육년제.}

10201 @ 예, 예, 초등학교도 궁민하꼬도 여기 조립하시교.{예, 예, 초등학교도 국민학교도 여기 졸업하시교.}

10201 # 애애, 머야 이 초등학교 때에, 오학년 때에 해방을 만나썬요. 그래가지고 애, 머야 이년간 인제, 또 한글 배우고 모더고 해가지고 애, 인자 중학교를 드러가썬찌, 이리농림하꼬.{예 예, 뭐야 이 초등학교 때에, 오학년 때에 해방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예, 뭐야 이년간 이제, 또 한글 배우고 뵈하고 해가지고 예, 인자 중학교를 들어갔었지. 이리농림학교.}

10201 @ 아:{아:}

10201 # 이리 농림하꼬 인자 거게에 드가서 거게서 애, 삼학년 때 유기오를 당해쥬. 인자.{이리 농림학교 인자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애, 삼학년 때 육이오를 당했지요. 인자.}

10201 @ 아:{아:}

10201 # 그래서 그당시에는 기차가 업꼬 통하기 머야 저, 빠스도 업꼬 머허기 때 미네 여그서 그 익산까지 거리 다녀썬요. 그거시 이 도로로 다니는 거시 아니라 철길따라서 머야 머 가썬꼬, 그 유기오 때 머 통지가 오기를, 하꼬에 등록을 안허며는 제저글 시키네 하는 그거시 나와가지고 한번 가썬서요. 하꼬를 가터니, 가이들, 그 머야, 그 이북 아이드리 거기서 다 장아카고 이썬가지고 또 하꼬에서도 그 운동하는 학생드리 이썬썬요.{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차가 업고 통학이 뭐야 저, 버스도 업고 뵈 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익산까지 걸어 다녔어요. 그것이 이 도로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철길 따라서 뭐야 뵈 갔었고, 그 육이오 때 뵈 통지가 오기를 학교에, 등록을 안허며는 제적을 시키네 하는 그것이 나와가지고 한번 갔었어요. 학교를 갔더니, 그 아이들 그 뭐야, 그 이북 아이들이 거기서 다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또 학교에서도 그 운동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10201 # 그분드리 인자 매일 오야만이대네 어찌네 해가지고 거기서 대답만 허고서나 오다가 철길따라 오다가 또 막 그냥 그 공습, 그: 비행기로부터 막 그냥 저 그것보고 머라고허까. 그 사겨글 가따 바다썬요. 근데 다행이 그 당시에 머야 그 주금은 면허고 지배까지 와서 그 뒤로부터는 가터를 안해썬썬요. 하꼬를.{그분들이 인자 매일 와야만 되네 어찌네 해가지고 거기서 대답만 하고서나 오다가 철길 따라 오다가 또 막 그냥 그 공습, 그: 비행기로부터 막 그냥 저 그것보고 뵈라고 할까? 그 사격을 갈다 받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당시에 뵈야 그 죽음은 면하고 집에까지 와서 그 뒤로부터는 가지를 앓았었어요. 학교를.}

10201 # 그리고 그 유기오 때 이를 머야, 얘기하며는 참 정말로 말헬 수가 업썬

요. 왜 트키나 저하고 우리지퍼고 우리 큰집, 큰지비죠. 큰지비 그 주목을 바든 거시 머나 허며는, 사춘 때부가 군에서 이따가 후퇴하는 도중에 큰지배를 와따가 와서나 거기서 은신을 해썬요. 그거슬 어떠케 밀고를 해가지고서나 인자 거기서 재퍼가꼬 그 뒤로부터는 군인가족이라고 해가지고 큰지바고 우리 지븐 인자 머야 지적을 당해가지고 가이들 감시를 참 마니 바더썬요. 그런데 인자 그때만해도 나이가 열닐곱, 그정도 댕끼때민에 여그저그 동원하는데 빠지들아네요. 막: 그냥 여그저그 막 그래가지고 여그서 군산비행장에 상당히 머러요. 오십리정도 되요.{그리고 그 육이오 때 이를 뭐야, 이야기하면 참 정말로 말할 수가 없어요. 왜 특히나 저하고 우리집하고 우리 큰집, 큰집이죠. 큰집이 그 주목을 받은 것이 뭐냐 하며는, 사춘 때부가 군에서 있다가 후퇴하는 도중에 큰집에를 왔다가 거기서 은신을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밀고를 해가지고서나 인자 거기서 잡혀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군인가족이라고 해가지고 큰집하고 우리집은 인자 뭐야 지적을 당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감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런 것이 인자 그때만해도 나이가 열일곱, 그 정도 되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동원하는데 빠지지들 않아요. 막 그냥 여기저기 막 그래가지고 여기서 군산비행장에 상당히 멀어요. 오십리정도 돼요.}

10201 # 거그를 밤에 거러서 거거서 가따가 서해안쪽 산비탈, 비행장 그 산비탈을 호를 파요. 호를 파고 또 새벽에 또 거기서 보내면 오고 그거슬 두번, 제가 저, 가던 그나리 정말로 참 희기한 이리 이썬썬요. 우리가 서해안에 가가지고 섬도 구경을 못해꼬, 머야 구남도 구경을 못해꺼드뇨. 음.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가라고 해서 이러케 딱 올라서는데 섬이 막 여그저그 막 보이는거여.{거기를 밤에 걸어서 갔다가 서해안 쪽 산비탈, 비행장 그 산비탈을 호를 파요. 호를 파고 또 새벽에 또 거기서 보내면 오고 그것을 두 번, 제가 저, 가던 그날이 정말로 참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서해안에 가가지고 섬도 구경을 못했고, 뭐야 군함도 구경을 못했거든요. 음.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가라고 해서 이렇게 딱 올라서는데 섬이 막 여기저기 막 보이는 거야.}

10201 @ 예.{예.}

10201 # 그래서 거게서 막 구남이다 허고서나 주그라고 막 도망을 쳐썬요. 그래떠니 그 인민군드리 막 씹씩하면서 올라오는거요. 궁게 요리뜨면 구남인지알고, 그사람드른. 난 그냥 죽으나 사나 도망와끼 때민에 다행이지. 거기서 쥘혀쓰며는 어떠케썬 이제.{그래서 거기에서 막 군함이다 하고서나 죽으라고 막 도망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 인민군들이 막 씹씩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군함인지 알고, 그 사람들은. 난 그냥 죽으나 사나 도망쳐 왔기 때문에 다행이지. 거기서 잡혔으면 어떻겠어 이제.}

10201 # 그리고 그때 우리지배서 소를 쫓썬요. 모든 군수물썬를 시러나르기 위해서 동원된 기계가 소요. 소 우마차. 그거슬 아버니미 인자 그거슬 머야 소를 몰고 인자 군산에서 비행장까지 막: 포탄이고 머시고 시러나르는 판이야. 근

데 한버는 다행이 잘 가따왔는데 두번째가서는 이 양바니 도라오들 안해요. 소도 안오지 사람도 안오지.{그리고 그때 우리집에서 소를 키웠어요. 모든 군수물자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 동원된 기계가 소요. 소 우마차. 그것을 아버님이 인자 그것을 뭐야 소를 몰고 인자 군산에서 비행장까지 막 포탄이고 무엇이고 실어 나르는 판이야. 그런데 한번은 다행히 잘 갔다 왔는데 두번째 가서는 이 양반이 돌아오지를 않아요. 소도 안 오지 사람도 안 오지.}

10201 # 그 이튿날 인자 산에서나 어디 나가들 모허니께요. 그당시에는. 인제 보닝게 저 아페 저 무지개 아파트 저 여페 큰 도로에서 구르마 위에 사라미 탄는데 인자 사람이 오고 이썬요. 그래서 자세히 보닝게로 아버지요. 그래서나 인자 딱 쪼차가서는 인자 아버지를 가따가 인자 머야 이러케 딱 보닝게 발등이 이러케 딱 부어썬요. 막 그냥.{그래서 그 이튿날 인자 산에서나 어디 나가질 못하니까요. 그 당시에는. 인제 보니까 저 앞에 저 무지개 아파트 저 옆에 큰 도로에서 달구지 위에 사람이 탔는데 인자 사람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아버지요. 그래서 인자 딱 쫓아가서는 인자 아버지를 갈다가 인자 뭐야 이렇게 딱 보니까 발등이 이렇게 딱 부었어요. 막 그냥.}

10201 # 궁게 포탄소리에 소가 놀래가지고 튀는 바라메 그 머야 구르마 쇠발톱이라고 해짤아요. 예저네 한번, 거기에 갈려가지고서난 막 그냥 뼈가 상헌거여. {그러니까 포탄소리에 소가 놀라가지고 튀는 바람에 그 뭐야 달구지 쇠발톱이라고 했짤아요. 예전에 한번, 거기에 갈려가지고선 막 그냥 뼈가 상한 거야.}

10201 # 그런데, 그거슬 그 내 사촌 형님이, 아버니른 인자 업고서나 지브로 가고, 소를 내가 끌고 올라고 허닝게 그 인민군드리 머라고 허는고 허니, 이 소 또 가야한다 이거여 일허러. 애 그래도 아버지 친구가 그 엽부락에 그 머야 인민군 위원장 해썬는데, 그 부니 소도 굴머가지고 여그 심을 모썬게, 또 머야 주기라도 머겨가지고 다으메 가자 형게 주그머는 자바먹지 무시 걱정이냐 하면서, 아니 사정사정 해가지고 그 소를 가따가 내가 끄시고 와서 대나무 수페다가 감추어 노코 방우를 다 떼어썬요.{그런데, 그것을 그 내 사촌 형님이, 아버님은 인자 업고서나 집으로 가고, 소를 내가 끌고 오려고 하니까 그 인민군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니, 이 소 또 가야한다 이거야 일하러. 예 그래도 아버지 친구가 그 옆 부락에 그 뭐야 그 대야 인민군 위원장 했었는데, 그 분이 소도 굶어가지고 여기 힘을 못 쓰니까, 또 뭐야 죽이라도 먹여가지고 다음에 가자 하니까 죽으면 잡아먹지 무엇이 걱정이냐 하면서, 아니 사정사정 해가지고 그 소를 갈다가 내가 끌고 와서 대나무 숲에다가 감추어 놓고 방울을 다 떼었어요.}

10201 # 그 소리나는거 땡그랑 하는거, 그 그 방우를 떠어썬요. 띠고서나 소는 거 그다 가따노코 그뒤로 인민군드리 머야, 고모, 고모부 고모부를 시켜가지고 사촌형이 나와 동갑이에요. 나허고 사촌 형을 매일 차즈려와요. 여가 암만허

도 이상하다 혀가지고 머야 그 지배서 경계를 마니 허는데, 한버는 사촌 형하고 두리 이 대야 천주교 여패가 그 때에 내무소라고 이췌췌요. 거그서 막 사바다가 죄인들 죽치고 머하고 허는데, 두리 우연히 가다가 딱허니 보닝게 재퍼간 매부가 그 뜰여패 그냥 그 길 그 의자가튼 디다가 누퍼가지고서나 그 여패 인는 막 그냥 드러운 무를 주전자에다 퍼다가 막 그냥 막 맥히는겨여. {그 소리 나는 거 땡그랑 하는 거, 그 그 방울을 떼었어요. 떼고서나 소는 거기다 가져다 놓고, 그 뒤로 인민군들이 뭐야, 고모, 고모부 고모부를 시켜가지고 사촌형이 나와 동갑이에요. 나하고 사촌 형을 매일 찾으려 와요. 이것이 아무리해도 이상하다 해가지고 뭐야 그 집에서 경계를 많이 하는데, 한번은 사촌 형하고 둘이 이 대야 천주교 옆에가 그 때에 내무소라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막 잡아다가 죄인을 죽치고 뭐하고 하는데, 둘이 우연히 가다가 딱하니 보니까 잡혀간 매부가 그 도랑 옆에 그냥 그 길 그 의자같은 데다가 눕혀가지고서 그 옆에 있는 막 그냥 더러운 물을 주전자에다 퍼다가 막 그냥 막 먹이는 거야.}

10201 # 그거슬 보고서나 이렇게 하고 인는데, 거기에 보초서고 인는 노미 정말로 참 아무꺼도 모르는 사라미 보초를 서고 이쓰면서 우리를 찌려보고 인는겨요. 거게서 기가 주거가지고 그냥 그뒤로 도망와췌요. {그것을 보고서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초 서고 있는 놈이 정말로 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초를 서고 있으면서 우리를 찌려보고 있는 거요. 거기에서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그 뒤로 도망왔어요.}

10201 # 그래서 큰집 아래채에 나무판을 마니 인는데, 나무판을 가따가 싸노코 그 아래다가 굴 비스타게 해노아췌요. 나무판을 하나를 꼬지버내면 그리 드러가고 또 다꼬 그래가지고 인는데 거기서 한: 머야 이십오일을 일해췌요. 그 아내서 나오도 못허고. {그래서 큰집 아래채에 나무단을 많이 있는데, 나무단을 갖다가 싸놓고 그 아래다가 굴 비슷하게 해놓았어요. 나무단을 하나를 꼬집어내면 그리 들어가고 또 닫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한 뭐야 이십오일을 일했어요. 그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10201 # 거게는 바깥서 허는 일이 다들려요. 이 고모부라 하는 사라미 완순이 창순이 어디 가냐고 마려. 저녁마다 와서 이렇게 차저싸코. 궁게 아버지도 인제 상처가 이끼때문에 인자 마 즈도 못여 알기때무네 머여 동원도 모시기도 이꼬, 그 아내서 참: 대소변 다 거그 아내서 이꼬 뭐허고 인는데, 하루는 갑짜기 그 아픈 다리를 막 그냥 막 찢룩찢룩 하면서 막 그냥 아버니미 만세를 불르고 와요. 이자 사러다고 마려. 나오라고 막 그래가지고서나 나무느를 다 제치고서나 머야 나와췌는데. {거기에는 밖에서 하는 일이 다 들려요. 이 고모부라 하는 사람이 완순이 창순이 어디 갔냐고 말이야. 저녁마다 와서 이렇게 찾았었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인제 상처가 있기에 문에 인자 마 자기들도 알기 때문에 뭐야 동원도 못시키고 있고, 그 안에서 참 대소변 다 거기 안에서 있고



무엇하고 있는데, 하루는 갑자기 그 아픈 다리를 막 그냥 막 절룩절룩 하면서 막 그냥 아버님이 만세를 부르고 와요. 인자 살았다고 말이야. 나오라고 막 그래가지고 나무를 다 제치고서나 뭐야 나왔었는데.}

10201 # 그 때 이근방 참: 땡크가 막 그냥 머야 짹 차췌췌요. 이 초등학교 운동장에 짹차꼬, 이 근방에 도로변에 짹: 찬는데, 막 계속해서 포소리가 막 여파서 얘기하는 소리도 안들려췌요. 그때 그래가지고서나 그 정말로 여까지 와끼 때 무네 저 진격에서 와끼 때무네 그 토굴생활도 면하고 살어꼬, 정말로 참 고생만이 해췌췌요.{그때 이 근방 참 탱크가 막 그냥 뭐야 짹 찻었어요. 이 초등학교 운동장에 짹 찻고, 이 근방에 도로변에 짹: 찻는데, 막 계속해서 포 소리가 막 옆에서 얘기하는 소리도 안 들렸어요. 그때 그래가지고서나 그 정말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저 진격해서 왔기 때문에 그 토굴생활도 면하고 살았고, 정말로 참 고생 많이 했었어요.}

### 1.2.2. 결혼하기까지의 과정

10202 @ 예, 고생마니하췌꾸마뇨. 예. 그럼 어르신 인제 거론에 대한 말씀 좀 여췌췌요. 그: 거론하기까지 그 과정에 대해서 애 말씀 해주세요. 저기 그 부인께서는 어디 출신이고 애 또 주로 인제 어디에서 인제 쪽 생활했는지 머 그 거부터 좀 말쓰물 해 주시죠. 그리고 어떻게 만나서 거론 하췌는지, 예 그런 거들 예.{예, 고생 많이 하췌구만요. 예. 그럼 어르신 인제 결혼에 대한 말씀 좀 여췌췌요. 그 결혼하기까지 그 과정에 대해서 애 말씀 해주세요. 저기 그 부인께서는 어디 출신이고 애 또 주로 인제 어디에서 인제 쪽 생활했는지 뭐 그것부터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그리고 어떻게 만나서 결혼 하췌는지, 예 그런것들 예.}

10202# 그 때 저 머여, 저 이다복 그 지배서 그때 언뜻 췌매 얘기 해췌 안아췌요?{그 때 저 뭐야, 저 이다복 그 집에서 그때 언뜻 조금 얘기 했지 않았어요?}

10202 @ 예.{예.}

10202 # 그때 오췌지 안아췌요?{그때 오췌지 않았어요?}

10202 @ 예, 예, 근데 그때는 노그미 안되췌꼬 지금 좀 노금 좀 할려고요.{예, 애, 그런데 그때는 녹음이 안되었었고 지금 좀 녹음 좀 하려고요.}

10202 # 제가 이리농림하교를 조려블 해췌췌요. 조려번 뒤에 그 지배서 사는 사라미요. 그 머야 김용호라고 하는 사라미 광산에 아주 그냥 투기꾼여요. 아주 광산이라면 아주 미친 사라민데 그 부니 어떻게 우리 지배 와서나 접근을 해가지고, 아 하교도 조은 하교 나와쓰능게 취직을 시켜줄턴게 그 머야 좀 가치 따라다니게끔 해달라.{제가 이리농림학교를 졸업을 했었어요. 졸업한 뒤에 그 집에서 사는 사람이요. 그 뭐야 김용호라고 하는 사람이 광산에 아주 그냥 투

기꾼여요. 아주 광산이라면 아주 미친 사람인데 그 분이 어떻게 우리 집에 와서나 접근을 해가지고, 아 학교도 좋은 학교 나왔으니까 취직을 시켜줄테니까 그 뭐야 좀 같이 따라다니게끔 해달라.}

10202 # 궁게 인자 아버니른 그 당시에 머야 아무꺼도 모르고 하기 때무네, 더군다나 도청에 취직을 시켜준다고 허닝게로 얼마나 조커썌요. 한: 머야 얼마든지 하여튼 말야 데리고 다니면서 잘 좀 시머달라고{그러니까 인자 아버님은 그 당시에 뭐야 아무것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도청에 취직을 시켜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한 뭐야 얼마든지 하여튼 말이야 데리고 다니면서 잘 좀 심어달라고}

10202 # 궁게 그거시 머야. 우리 지배 대해서는 미끼가 되어썌요. 그부니 요구를 하며는 요구 허는대로 다 머야 그 여비도 대주고 머허고 헨는데, 여거시 머야 누구를 만나네, 누구를 만나네 머야 허면서 그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나 그 이용을 해 멨는데 한번은 전주 대동여관이라 하는 데에다 인자, 거그다 자리를 잡고 여기에서 머야 다 알아바가지고도 곧 도청에 취직을 시켜줄텐게 그썌 아러라고, 궁게 지배도 그러케허고 머허고 형게.{그러니까 그것이 뭐야. 우리 집에 대해서는 미끼가 되었어요. 그분이 요구를 하면은 요구하는 대로 다 뭐야 그 여비도 대주고 뭐하고 했는데, 이것이 뭐야 누구를 만나네, 누구를 만나네 뭐야 하면서 그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나 그 이용을 해 먹는데 한번은 전주 대동여관이라 하는 데에다 인자, 거기다 자리를 잡고 여기에서 뭐야 다 알아바가지고도 곧 도청에 취직을 시켜줄 테니까 그썌 알아라고, 그러니까 집에도 그렇게 하고 뭐하고 하니까.}

10202 # 이부니 덜고 우리 아버님한테 가서나 머이던지 머 할라머는 얼마들고 머허고 허닝게로 도라도라 해가지고 허는 거시, 아버니른 마 그냥 응, 솔썌커게 다 그냥 인는데로 대주고 대주고 그래썌요.{이분이 자주 우리 아버님한테 가서나 무엇이던지 할려면 얼마 들고 뭐하고 하니까 달라고 달라고 해가지고 허는 것이, 아버님은 마 그냥 응, 솔직하게 다 그냥 있는 대로 대주고 대주고 그랬어요.}

10202 # 그런데 그부니 아는 사라미 머야 경찰국짱 무슨 머야 비서라고 허면서 머행세를 부리고 다녀요. 근데 한버는 이리케 만난는데, 참 너 염녀하지 말라고 마려, 그 광산하는 사람 그사라미 머냐머는 김 저 이르미 김영호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부니, 그분하고 머야 합짜해가지고 그때 경찰국짱이 운주광산에서 머 노다지를 켄내, 머야 머 일, 십귀늘 켄내, 얼마 켄내, 해가지고 세상이 떠들썌 해썌썌요.{그런데 그분이 아는 사람이 뭐야 경찰국장 무슨 뭐야 비서라고 하면서 뭐 행세를 부리고 다녀요. 그런데 한번은 이렇게 만났는데, 참 너 염려하지 말라고 말이야, 그 광산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냐면 김 저 이름이 김영호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그분하고 뭐야 합자해가지고 그때 경찰국장이 운주광산에서 뭐 노다지를 켄내, 뭐야 뭐 일, 십 관을 켄내, 얼마 켄내,

해가지고 세상이 떠들썩 했었어요.}

10202 # 그런데 거기에서 이 머야 광산에 투기하는 사라마 김용호라는 사라마 그 근방을 가가지고 광, 광산을 하나 머야 차자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한테 와서 머라고 허는거니, 이 광산을 허며는 절대로 돈을 버는 거싱게, 거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고, 그리고 노다지 구더기가 아니고 망간쥬잉게. 그거슨 꾸준히 나오는 광맥이기 때민에 연좌할꺼 업따고.{그런데 거기에서 이 뭐야 광산에 투기하는 사람이 김용호라는 사람이 그 그 근방을 가가지고 광, 광산을 하나 뭐야 찾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니, 이 광산을 하면은 절대로 돈을 버는 것이니까, 그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고, 그리고 노다지 구덩이가 아니고 망간 줄이니까. 그것은 꾸준히 나오는 광맥이기 때문에 연좌할 것 없다고.}

10202 # 그래가지고서나 인자 또 거그서 해가지고서나 지배 인는 거슬 또 막 그냥 요구하면은 아버님은 오로지 하여튼 잘되게 험다게 허닝게로, 인는 거슬 가따다 그냥 바치고 그래썬요. 궁게 나랑 가따 광산에까지는 올라가덜 모더고, 그 밋에 머야 그 머야 지블 정하고 인는 그 하숙지비라헐까, 거기에서 인자 나는 기다리고 이꼬, 머더고 하는데 그 주위에 밤나무가 만해썬요.{그래가지고 인자 또 거기서 해가지고서 집에 있는 것을 또 막 그냥 요구하면은 아버님은 오로지 하여튼 잘되게 한다고 하니까, 있는 것을 갖다 다 그냥 받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광산에까지는 올라가질 못하고, 그 밋에 뭐야 집을 정하고 있는 그 하숙집이라고 할까, 거기에서 인자 나는 기다리고 있고, 무엇하고 하는데 그 주위에 밤나무가 많았어요.}

10202 # 그 밤나무를 가따가 인자 다니면서나 가을이라 밤도 주서서 모으고, 인자 그래썬데, 하루는 막 울면서 내려와요. 그 그: 머야 김용호라고 하는 사라마. 왜 이렇게 그러냐 항게 인자 클나따고. 어제 저녁게 그 빨찌산드리 그 광구, 광구 입꾸에다가 입꾸를 폭파해가지고 완저니 그 광구가 인자 모쓰게 되따고, 인자 우리는 인자 몸똥이라도 인자 여기서 나가야지 여기 이쓰... 머야 허들 묻헌다 이거여.{그 밤나무를 갖다가 인자 다니면서나 가을이라 밤도 주어서 모으고, 인자 그랬었는데, 하루는 막 울면서 내려와요. 그 그 뭐야 김용호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그러냐 하니까 인자 큰일 났다고. 어제 저녁에 그 빨찌산들이 그 광구, 광구 입꾸에다가 입꾸를 폭파해가지고 완전히 그 광구가 인자 못쓰게 되었다고, 인자 우리는 몸똥이라도 인자 여기서 나가야지 여기 있으... 뭐야 하지를 못한다 이것이야.}

10202 # 그래서 거기서 모은 밤보따리 한 푸대만 가지고 전주로 와썬썬요. 전주로 와가지고 거게서 머야 밤을 낸거시 그 며칠 그 유숙비 바께 안되썬썬요. 그러면서도 이부는 계속 도라다니면서 유의을 해요. 나를, 더 하여튼 머야 그 돈을 가따 지배서 요구를 허는건데, 그 대동여관에 이썬썬게 또 어터게 해서 싸를 한 가마니 또 지배서 부쳐가지고 지배서 가지고 오고, 근디 며칠 후에 행

발불명이 되쎄요 그 부니 또.{그래서 거기서 모은 밤 보따리를 한 부대만 가지고 전주로 왔었어요. 전주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뭐야 밤을 내놓은 것이 그 며칠 그 유숙비 밖에 안 되었었어요. 그러면서도 이분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유희를 해요. 나를, 더 하여튼 뭐야 그 돈을 갖다 집에서 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 대동여관에 있을 적에 또 어떻게 해서 쌀을 한 가마니 또 집에서 부쳐가지고 집에서 가지고 오고, 그런데 며칠 후에 행방불명이 되었어요. 그 분이 또.}

10202 # 인자 클나뜨마요. 인제 그런데 거게서나 인자 그 쌀 한가마니 머글 동안에는 그 여관에서도 인자 독식을 안는데 인자 떨어지고 나능게 머야 얘기를 허는거여. 어떠케 허냐 궁게 며칠만 기다리쇼. 꼭 가지고 올꺼요. 근데 그 바로 여쌍에 여관 여쌍에는 누가 이쎄냐며는 애: 병무 병무청이라고 허든가요. 그 설무에 인는 그 지권들이 거그에 인는데 그냥 아 절은 사라미 여관쌍에 이쎄가지고 나오지도 안꼬 정말로 참 이상한 노미 하나 이꺼든요.{인자 큰일 났더구만요. 인제 그런데 거기서나 인자 그 쌀 한가마니 먹을 동안에는 그 여관에서도 인자 독식을 앓는데 인자 떨어지고 나니까 뭐야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며칠만 기다리시오. 꼭 가지고 올 것이요. 그런데 그 바로 옆방에 여관 옆방에는 누가 있었냐 하면 예 병무 병무청이라고 하든가요. 그 설무에 있는 그 직원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냥 아 젊은 사람이 여관방에 있어가지고 나오지도 앓고 정말로 참 이상한 놈이 하나 있거든요.}

10202 # 한게 한버는 문구명을 뿌러보고서나 인자 내가 누어인는 거슬 보고 지호끼리 그래요. 어떤 노미 저 머야 저노미 어떤 노민가 참 수상헌데 그냥 매일 잠만자고 이따고 말여. 그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 머야 지반 하라버지되는 사라미 그 전주 내까에서 그 국수장사를 해쎄요. 그집또 참 곤란헌데 그 바메 어떠케 그 집브로 가따가 도망해서 나가가지고, 거게서 사실 얘기를 해쎄요. {하니까 한번은 문구명을 뚫어 보고서나 인자 내가 누어있는 것을 보고 저희끼리 그래요. 어떤 놈이 저 뭐야 저놈이 어떤 놈인가 참 수상헌데 그냥 매일 잠만 자고 있다고 말이야. 그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 뭐야 집안 할아버지되는 사람이 그 전주 넷가에서 국수장사를 했어요. 그 집도 참 곤란헌데 그 밤에 어떻게 그 집으로 갔다가 도망해서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사실 얘기를 했어요.}

10202 # 내가 김영호라는 사라만데 내가 이러케 생켜는데 나타나지도 안꼬 이거 정말로 참 머 지배 가지도 못허고꼬, 이러케 생켜다니까 헌께 거게에서 국수 파는데에서 쪼끔씩 주는 그거슬 머꼬서나 거게서 한 일개월을 지내쎄쎄요.{내가 김영호라는 사람한테 내가 이러케 생겼는데 나타나지도 앓고 이거 정말로 참 뭐 집에 가지도 못하겠고, 이러케 생겼다니까 하니까 거기에서 국수 파는데에서 조금씩 주는 그것을 먹고서나 거기에서 한 일 개월을 지냈었어요.}

10202 들리는 소무네 머야 관촌 머야 저수지를 망는 거게에 그 이 김용호라는 사

라미 또 감도그로 이따고 그래요.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야 가다가 거  
리며는 머야 잡혀갈복 잡고 그대는 여행중 업쓰며는 다니줄 모태썬요. 무조건  
전주에 가거나 머야 관촌이 어진가는 모르지마는 막 간... 머여 전라남... 그  
여수로 가는 차를 타썬요.{들리는 소문에 뭐야 관촌 뭐야 저수지를 막는 거기  
에 그 이 김용호라는 사람이 또 감독으로 있다고 그래요. 그런 소리가 들려  
요. 그래서 야 가다가 걸리면 뭐야 잡혀갈 복 잡고 그때는 여행중 없으면 다  
니지를 못했어요. 무조건 전주에 가거나 뭐야 관촌이 어딘가는 모르지만은 막  
간... 머여 전라남... 그 여수로 가는 차를 탔어요.}

10202 # 가거나 인자 관촌이 어디냐고 인자 머야 무러볼 싸라미 이썬야쥬. 그러다  
가 거게 이동경찰한테 걸려썬요. 그래 머야 증명을 내노라 이거요. 증명을 가  
따가 그때 인자 내놔떠니 어테를 가냐? 인자 관촌까지 간단고. 관촌 머더로  
가냐고 형게, 아버지 만나러 간다고, 궁게 김용호를 가따가 아버지로 인자 막  
해가지고 가는데, 이사람드리 자기네드리 머야 자리잡꼬인는 거그다 가따 끌  
어다가 거그다 안쳐요.{가거나 인자 관촌이 어디냐고 인자 뭐야 물어볼 사람  
이 있어야쥬. 그러다가 거기 이동경찰한테 걸렸어요. 그래 뭐야 증명을 내노  
라 이거요. 증명을 갖다가 그때 인자 내놓았더니 어디를 가냐? 인자 관촌까지  
간다고. 관촌 무엇하러 가냐고 하니까, 아버지 만나러 간다고, 그러니까 김용  
호를 갖다가 아버지로 인자 막 해가지고 가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뭐  
야 자리잡고 있는 거기에다 갖다 끌어다가 거기에다 앉쳐요.}

10202 # 아 인자 걸려꾸나 그러고거나 가는데, 나보고 부르더니 여그 관촌인게 빨  
리 내려 그러요. 아이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관촌에서 내려가지고 여그저기 막  
그냥 그 총들고 순 지켜서인 사라미 만애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심전  
리 공사판 공사판이 어디냐고, 아 궁게 누구 만나러 가냐향게, 김용호 만나러  
간다, 항 감독만나러 가네 함서나 그냥 무조건 통과요.{아 인자 걸렸구나 그  
러고거나 가는데, 나보고 부르더니 여기 관촌이니까 빨리 내려 그러요. 아이  
그래가지고서나 거기서 관촌에서 내려가지고 여기저기 막 그냥 총 들고 선  
지켜서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심전리 공사판 공사판  
이 어디냐고, 아 그러니까 누구 만나러 가냐 하니까, 김용호 만나러 간다, 항  
감독 만나러 가네 하면서나 그냥 무조건 통과요.}

10202 # 그래서 인자 그 심전리까지 가썬썬요. 가떠니 이 김용호라는 사라미 거게  
서 깜:짝 놀래요. 어터게 해서 저노미 여까지 차자완는가 해가지고, 그래가지  
고 나를 데꼬 온거시 어디냐 하며는 머야 지금 처가찌비 되쥬. 그지배에 그  
한산 인부를 인부들 사랑채가 큰:데, 거게에 한 십오명이 이썬디다. 인자 거기  
다 가따가 딱 허니 매끼고 그 집 머야 주인보고거나, 야 여기 허나 사람하나  
와썬게 이사람도 밥썬 준비해. 주라고 마려.{그래서 인자 그 심전리까지 갔었  
어요. 갔더니 이 김용호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깜짝 놀래요. 어떻게 해서 저놈  
이 여기까지 찾아 왔는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를 데리고 온 것이 어디냐

하면은 뭐야 지금 처가집이 되죠. 그 집에 그 향산 인부를 인부들 사랑채가 큰데, 거기에 한 십오명이 있습니다. 인자 거기에다 갖다가 딱 하니 맡기고 그 집 뭐야 주인보고서나, 야 여기 하나 사람하나 왔으니까 이 사람도 밥쯤 준비해. 주라고 말이야.}

10202 # 아이 그래서나 인자 거그서나 일은 못허고 어찌고 허닝게로 하루에 품삯 전표를 줘썬요. 그거시 금게 그 주인이 가마니 보닝게 아 이쁘장한 학생가튼 사라미 그 머야 한산 인부들 막 그냥 꺼치른 사람들허고 가치 인는 거시 안타까와뎐 모양이여. 애 지그므로 따지머는 장모지. 장모가 그냥 불쌍해가지고 그냥 그 방에 쫓만한 방하나 인는데 거게대가 머야 그 유숙을 허게끄림 만드러 줘썬요.{아이 그래서나 인자 거기서나 일은 못하고 어떻게 하니까 하루에 품삯 전표를 주었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아 예쁘장한 학생같은 사람이 그 뭐야 향산 인부들 막 그냥 거친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것이 안타까웠던 모양이여. 예, 지금으로 따지면 장모지. 장모가 그냥 불쌍해가지고 그냥 그 방에 조그마한 방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뭐야 그 유숙을 하게끔 만들어 주었어요.}

10202 # 거게서 한참 인는 동아네 머야 신문도 그 전북일보 신문도 거기서 보고 또 하루하루 그 전표 받는거 간조혈 때 되머는 그 돈도 차저서 인자 지브로 조메 보: 저 부쳐야 거따고, 모야노키도 하고, 아 그런데 하루 저녁게는 난데 업시 새벽, 새벽무려배 아 그 총을 드리대고서나 아븐 다 저진 군인드리 막 그 드러닥치는 거여.{거기서 한참 있는 동안에 뭐야 신문도 그 전북일보 신문도 거기서 보고 또 하루하루 그 전표 받는 것 계산할 때 되면 그 돈도 찾아서 인자 집으로 조금 보 저 부쳐야 겠다고, 모아놓기도 하고, 아 그런데 하루 저녁에는 난데없이 새벽, 새벽 무렵에 아 그 총을 들이대고서나 앞은 다 젖은 군인들이 막 그 들어닥치는 거여.}

10202 # 우리는 그런 거슬 상상을 못허거든요. 거그 사람드른 그 빨찌산이라고 마니 겨끈 사람드리지마는 나는 처음 당하는 일이요. 아이고 정말로 어이가 업썬서나 그냥, 발로 툭 허니 차는데 일어나 안자썬요. 안자마자 막 소늘 막 다 만져보고 경장을 허 이분드리. 그러다니 그 책상에 인는 신문을 다 모라 또 서랍을 가따가 또 여는게로 채어부칠 돈뭉치도 거가 인는거여. 돈도 다 그분드리 가지고 이꼬, 증명도 머시고 다 빼껴버려썬 가이거.{우리는 그런 것을 상상을 못했거든요. 거기 사람들은 그 빨찌산이라고 많이 겪은 사람들이지만은 나는 처음 당하는 일이요. 아이고 정말로 어이가 업어서나 그냥, 발로 툭 하니 차는데 일어나 앓았어요. 앓자마자 막 손을 막 다 만져보고 정색을 허 이분들이. 그러더니 그 책상에 있는 신문을 다 말아 또 서랍을 갖다가 또 여니까 채어부칠 돈뭉치도 거기에 있는 거여. 돈도 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고, 증명도 무엇이고 다 빼앗겨버렸어. 가진 것.}

10202 # 여가 나 지배 가야마니되? 안된다고, 금게 개머리판느로 어깨를 한번 치

는데 막 두번 말 모히게 생겨썬요. 그런데 음 좀이썬게로, 그 닭장에서 소리가 나건데 내가 자버줄튼게 가만 이쓰라 궁게 주인이 자버주면, 당신이 자버주면 안된다고 즈가 다 잡버 는는거여 그냥, 궁게 거기 그 지비이 담배지불 해썬는데 그부느로 어서 가따 그 풍년초라고 봉지담배 그거슬 가따 가자완는가, 그거슬 다 쏘다버리고 콜리엔이라고, 인자 말른 담배이짚요. 그걸로 다 교체해서 담는거요.{여기 나 집에 가야만 되? 안된다고, 그러니까 개머리판으로 어깨를 한번 치는데 막 두번 말 못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음 조금 있으니까, 그 닭장에서 소리가 나는데 내가 잡아줄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잡아주면, 당신이 잡아주면 안된다고 자기가 다 잡아 넣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거기 그 집이 담배집을 했었는데 그분으로 어서 갖다 그 풍년초라고 봉지담배 그것을 갖다 가져왔는가, 그것을 다 쏘아버리고 켈런이라고, 인자 마는 담배 있잖아요. 그걸로 다 교체해서 담는 거요.}

10202 # 아 좀 이떠니 또 머야 그 집 큰며느리가 아 여그 바깥서 무슨 소리가 난다고 그렇게 이놈드리 그냥 바로 엽드리드마뇨. 엽드려가지고 한참 좀 이떠니 도로 들와서 아무도 엽따고 험서나 인자 하는데, 아 좀 있승게 여자가 하나가 들와요. 하이 나보고서나 정말로 절은 동무 참 잘만나따고 하면서 아 여기 정말로 여파서나 통 꼬시는데 정말로 우리하고 가치 가며는 참 널모레면 해방되고 머 문제 엽슨게 가치 가자고 그냥.{아 조금 있더니 또 뭐야 그 집 큰며느리가 아 여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고 그러니까 이놈들이 그냥 바로 엽드리드만요. 엽드려가지고 한참 좀 있더니 다시 들어와서 아무도 없다고 하면서나 인자 하는데, 아 조금 있으니까 여자가 하나가 들어와요. 하이 나보고서나 정말로 젊은 동무 참 잘 만났다고 하면서 아 여기 정말로 옆에서나 통 꼬시는데 정말로 우리하고 같이 가면은 참 내일모레면 해방되고 뭐 문제없으니까 같이 가지고 그냥.}

10202 # 가치 가자 소리도 못... 머야 대답도 못히고 인는데 쪽허니 나가는데 끌코가요. 거기서 반향을 못히고썬요. 개머리판으로 한번 마진 뒤로부터는 머야 응, 궁게 빨찌산이라 소리는 인자 그때 아라썬요. 그게 이게 빨찌산이구나. 그 집 뒤를 산 능선을 타고 올라가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깔끄막에서 막 그냥 떠러져 버려썬요. 그냥 궁그는데 야 모르거따 막 그냥 끈나, 막 끈나는 데까지 굴거버려썬요.{같이 가자 소리도 못... 뭐야 대답도 못하고 있는데 쪽 하니 나가는데 끌고 가요. 거기서 반향을 못하겠어요. 개머리판으로 한번 맞은 뒤로부터는 뭐야 응, 그러니까 빨찌산이라 소리는 인자 그때 알았어요. 그것이 이것이 빨찌산이구나. 그 집 뒤를 산 능선을 타고 올라가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비탈에서 막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그냥 구르는데 야 모르겠다 막 그냥 끝나, 막 끝나는 데까지 굴러버렸어요.}

10202 # 그래가지고 딱허니 인는데 머 정신이 이썬야지요. 근데 아 소리만 나고서나 인자 나는 이러케 궁글어 버리고 그뒤로부터 아무 기적이 어썬요. 아이 한

참 인네, 이: 이썬더니 그때사 인자 닭 새벽 닭소리가 울려요. 아 여기가 바로 뒤구나. 가만히 본게로 까시덤불 소게가 그냥 걸려서나 그 소게가 쳐배켜 이 썬더만요.{그래가지고 딱하니 있는데 뭐 정신이 있었야지요. 그런데 아 소리 만 나고서나 인자 나는 이렇게 굴러 버리고 그 뒤로부터 아무 기척이 없어요. 아이 한참 있네, 이 있었더니 그때서나 인자 닭 새벽 닭소리가 울려요. 아 여기가 바로 뒤구나. 가만히 보니까 가시덤불 속에가 그냥 걸려서나 그 속에가 쳐박혀 있었더만요.}

10202 # 그래서나 인자 거기서 동이 터가지고서나 뿌식뿌식 해가지고서나 지비르 드론게 지비서는 야단나썬요. 인자 그때 별명이 학생이어썬요 학생. 그 주인, 학생 정말로 그 빨지산한테 끌려가가지고 인자 주거따 주거따 험서 지배서는 야단나썬썬요. 인자 그걸로 끝나는 거시 아니고 인자 임시레가 그 유격대라고 이썬가지고 어찌 나타나따 허며는 막 그냥 일개 사다니 막 쪼차 막 그냥 와 요.{그래서나 인자 거기서 동이 터가지고서나 부석부석 해가지고서나 짐으로 들어오니까 집에서는 야단났어요. 인자 그때 별명이 학생이었어요 학생. 그 주인, 학생 정말로 그 빨지산한테 끌려가가지고 인자 죽었다 죽었다 하면서 집에서는 야단이 났었어요. 인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자 임시레가 그 유격대라고 있어가지고 어찌 나타났다 하면은 막 그냥 일개 사단이 막 쫓아 막 그냥 와요.}

10202 # 아 거게서 내가 끌려가지고 허고 모허고 해끼 때무네 내가 또 증인이 되 가지고 그냥: 그 말 대답 허러댕기는데 또 한참 시간걸려썬요. 음, 그래가지고 인자 증명이고 머시고 빼껴끼 때무네 어떠께요. 정말로 인자 완전히 발이 무 껴쥬. 근데 그 사촌형이 어커게 소식을 알고서나 와썬요. 와가지고 머라고 허 는고니 증명이 업꼬 머더고 허닝게 너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증명하나 만드 러 올텅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서나 한 이십일 후에 돌아왔는데 가짜 제대쥬을 하나 만드러 가지고 와썬요.{아 거기에서 내가 끌려가지고 하고 뭐 하고 했기 때문에 내가 또 증인이 되어가지고 그냥 그 말 대답하러 다니는데 또 한참 시간 걸렸어요. 음, 그래가지고 인자 증명이고 무엇이고 빼앗겼기 때 문에 어떻게 해요. 정말로 인자 완전히 발이 뭉겼지요. 그런데 그 사촌형이 어떻게 소식을 알고서나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증명이 없고 무엇하 고 하니까 너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증명하나 만들어 올 테니까 염려하지 말 라고, 그래가지고서나 한 이십일 후에 돌아 왔는데 가짜 제대쥬을 하나 만들 어 가지고 왔어요.}

10202 # 위병제대 가짜 증명을, 음 그래서 그 증명을 가지고 인자 가짜 제대쥬을 가지고 행세를 하는거요. 그간 인자 경찰드리 인자 자브러 다니고 머더고 허 며는 나는 그 제대쥬으로 다 막 그냥 허고 오히려 가히들 한테 막 내가 대들 고 그래썬썬요. 근데 그지배 두체 처남이지 이제 두째 아드리 기피자여썬썬. 궁게 내 기피를 마니 시켜썬. 인제, 내가 막 그냥 막고서는 그냥 허며는 어디



로 숨어버리고 그러가지고 구니를 안가게 되고 궁게 그 근방에서도 인자 부락에서도 내가 노는 거시 참 아니꼽게 봐쎄요. 왜냐며는 그 지배 그 머야 안식구 처녀가 이끼 때무네 그 이놈드리 머야 다 그 질투를 허드만뇨.{위병제대가짜 증명을, 음 그래서 그 증명을 가지고 인자 가짜 제대증을 가지고 행세를 하는 거요. 그러니까 인자 경찰들이 인자 잡으러 다니고 뵈하고 하면은 나는 그 제대증으로 다 막 그냥 하고 오히려 그 아이들한테 막 내가 대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둘째 처남이지 이제 둘째 아들이 기피자였어요. 그러니까 내 기피를 많이 시켰어. 인제, 내가 막 그냥 막고서는, 그냥 하면은 어디로 숨어버리고 그러가지고 군인을 안 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 근방에서도 인자 부락에서도 내가 노는 것이 참 아니꼽게 봤어요. 왜냐 하면은 그 집에 그 뭐야 안식구 처녀가 있기 때문에 그 이놈들이 뭐야 다 그 질투를 하드만요.}

10202 @ 아, 어르신 잠깐만요. 제가 배터리가 다뛴기 때무네 잠시 쉬어따 하시쥬. 네 하시쥬.{아, 어르신 잠깐만요. 제가 배터리가 다 뵈었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 하시쥬. 네 하시쥬.}

10202 # 돼쎄요?{뵈었어요?}

10202 # 아 부라게 참 모뵈든 놈드리 이쎄가지고 질투를 하는거여. 한 노믄 머 백오십근짜리 매뵈지를 질머 지고서나 오리를 쉬지 안고서나 뵈었네, 한 노믄 전주농고 그 머야 깡패가 하나 인는데 최: 최기 하여튼 최기석인가 고놈이 이꼬, 그 심:썰다고 하는 노믄 강완처리라고 허는 사람이어꼬, 아 이놈드리 꼭 이따금 머야 기회를 노리고 인는거여. 인자 한버는 그 마을 아페가 큰 정자 나무가 인는데 거게서 여름에는 부락사람드리 다 모여서 그 머야 좌담도 하고 그래요.{아 부락에 참 못뵈든 놈들이 있어가지고 질투를 하는 거여. 한 놈은 뭐 백오십근짜리 멧뵈지를 쥔머 지고서나 오리를 쉬지 앓고서나 뵈었네, 한 놈은 전주농고 그 뭐야 깡패가 하나 있는데 최 최기 하여튼 최기석인가 그놈이 있고, 그 힘세다고 하는 놈은 강완철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아 이놈들이 꼭 이따금 뭐야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여. 인자 한번은 그 마을 앞애가 큰 정자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서 여름에는 부락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뭐야 좌담도 하고 그래요.}

10202 # 거게를 한번 나가쎄는데 음 아잉 거게서 요놈드리 그래요. 어이 머야 씨름이나 한번 해보라고 말여. 그렇게 이 매뵈지를 머야 지고서나 머야 지치지도 안는다는 고놈이 막 내가 해야 것다꼬 허고서나 뵈베요. 아니 심이 어떠케 쎄가 한소느로 드러따 놔따 하는데 정말로 큰닐나또만뇨. 인제, 고놈한테 인자 저따 하며는 거게서는 행시를 몬해요. 그래서 애 죽기아니면 살기다 해가지고 그냥 발로 벌티고 내려와따 또 발로 버티고 허다가 이노믄 막 돌리는거여 막 그냥 정신업시 돌려요.{거게를 한번 나갔었는데 음 아이 거기에서 이놈들이 그래요. 어이 뭐야 씨름이나 한번 해보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멧뵈지를 뭐야 지고서나 뭐야 지치지도 앓는다는 그놈이 막 내가 해야쥬다고 하고

서나 덤벼요. 아니 힘이 어떻게 센가 한손으로 들었다 놓았다 하는데 정말로 큰일났더만요. 인제, 그놈한테 인자 졌다 하면은 거기에서는 행세를 못해요. 그래서 애 죽기 아니면 살기다 해가지고 그냥 발로 버티고 내려왔다 또 발로 버티고 하다가 이놈은 막 돌리는 거여 막 그냥 정신없이 돌려요.}

10202 # 그: 발로 노으면서 바를 거등게로 그냥 올라 하면서 쓰러져요. 그렇게 그래서 이겼네요. 아 그렇게 또 허자고 그래요. 아 또 허고 머허고 그래요. 인자 그만허자구, 아 그러더니 거게 또 전주놓고 댕기는 그 깡패라고 허는 놈이 또 템베요. 허 그냥 나허고 허야지 안된다고, 아 좀 숨이나 숨이나 쉬며나 허자, 아니야 그냥 바로 허자고서나 막 또 부들드만, 아니 정말로 저 야단나또만요. 인제 나는 주어파 하고서나 막 심을 쓰면써나 그냥 압파리 압파리를 감꼬서나 그냥 주그라고 이를 앙물고서 미러떠니 그대로 떨어져 버려요.{그 발로 노으면서 발을 걸으니까 그냥 올라 하면서 쓰러져요. 그렇게 그래서 이겼네요. 아 그러니까 또 하자고 그래요. 아 또 하고 뭐하고 그래요. 인자. 그만 하자고, 아 그러더니 거기에 또 전주놓고 다니는 그 깡패라고 하는 놈이 또 덤벼요. 허 그냥 나하고 해야지 안 된다고, 아 좀 숨이나 숨이나 쉬면서 하자, 아니야 그냥 바로 하자고서나 막 또 붙들드만, 아니 정말로 저 야단났드만요. 인제 나는 죽었다 하고서나 막 힘을 쓰면서 그냥 앞다리 앞다리를 감고서나 그냥 죽으라고 이를 악물고서 밀어더니 그대로 떨어져 버려요.}

10202 # 그래떠니 그냥 하이고 여파 인는 어이 머야 그 주민드리 으른드리 참: 정말로 그러케 안판는디 심 췌다고 허면서나 그려. 아 그래서나 인자 거게 오래 이쓰면 안되게 생겨서 인자 지비로 와썬요. 와더니 이놈드리 통 뒤를 가따가 미행을 허는거요. 내가 지배가서나 또 뭘 자랑이나 허는가 허고서나 미행을 해뻔 모양이요.{그랬더니 그냥 하이고 옆에 있는 어이 뭐야 그 주민들이 어른들이 참 정말로 그렇게 안 보았는데 힘 세다고 하면서나 그래. 아 그래서 인자 거기에 오래 있으면 안 되게 생겨서 인자 집으로 왔어요. 왔더니 이놈들이 통 뒤를 갈다가 미행을 하는 거요. 내가 집에 가서나 또 뭘 자랑이나 하는가 하고서나 미행을 했던 모양이요.}

10202 # 근데 그 미테 그 지배에 이쁜 그 꼬마드리 그거슬 보고서나 내가 두론뒤에 와서 그때 내 별명이 학생이라고 했다고 하지 아나요. 학생이 그냥 누구도 이기고 누구도 이겨따고 말여. 인자 그러고서나 인자 끈난는데 그 뒤로부터 어터게든지 나를 골탕 메길라고 야단이여 그냥. 술도 그냥 메겨보고, 근데 술: 이고 머시고 당혈 사라미 이뜰 안해썬요. 나한테는.{그런데 그 밑에 그 집에 있던 그 꼬마들이 그것을 보고서나 내가 들어온 뒤에 와서 그때 내 별명이 학생이라고 했다고 하지 않아요. 학생이 그냥 누구도 이기고 누구도 이겼다고 말이야. 인자 그러고서나 인자 끝났는데 그 뒤로부터 어떻게 나를 골탕 먹이려고 야단이여 그냥. 술도 그냥 먹여보고 그런데 술이고 무엇이고 당해낼 사람이 있지 않았어요. 나한테는.}

10202 # 그래가지고서나 지탕해나가고서나 인는데 한버는 전주농고 다니는 사라마 나오라고 그러요. 딱허니 가봐더니 왜 사라마를 무시허냐 이거요. 내가 무어슬 무시했냐? 아니 허더니 한번 너 마썰 보야지 안되거따 그러요. 그러냐고 그러며는 너허고 나허고 두리 한:\*\* 업는데로 가자. 그래가지고 그 바로 집 저 뒤 골짜기에 도둑골이라고 허는데가 이썬요. 그 아주 음침한데. 그리 가치 가가지고 하여튼 니가 죽든디 내가 한 번 혀보자고.{그래가지고서나 지탕해나가고서나 있는데 한번은 전주농고 다니는 사람이 나오라고 그러요. 딱하니 가보았더니 왜 사라마를 무시하느냐 이거요. 내가 무엇을 무시했냐? 아니 하더니 한번 너 맛을 봐야지 안 되겠다 그러요. 그러냐고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둘이 한:\*\* 없는 데로 가자. 그래가지고 그 바로 집 저 뒤 골짜기에 도둑골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아주 음침한데. 그리 같이 가가지고 하여튼 내가 죽든지 내가 한번 혀보자고.}

10202 # 궁게 혼자 머 다니는 사라마 머 무서울꺼시 업썬요. 인자 그 때는. 그래 딱허니 거기를 가따가 딱 가서 어터게 혈래. 한번 혀보자고 허닝게로 소늘 자벼요, 그때사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인자 그 뒤로부터는 나를 건들들 안해썬요. 근데 거게 상사라 상사를 제대한 사라마 하나 인는데 나를 그래도 참 마니 사랑해썬요. 그 부니, 머 이쓰면 다 감춰주고 머허고 하여튼 그래썬는데 가만히 생각헌게 암만해도 여기 오래 이쓰며는 안되게 생겨썬요.{그러니까 혼자 뭐 다니는 사람이 뭐 무서울 것이 없어요. 인자 그때는. 그래 딱하니 거기를 갔다가 딱 가서 어떻게 할래. 한번 혀보자 하니까 손을 잡아요. 그때서야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인자 그 뒤로부터는 나를 건드리질 안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상사라 상사를 제대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나를 그래도 참 많이 사랑했어요. 그분이, 뭐 있으면 다 감춰주고 뭐하고 하여튼 그랬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무리해도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되게 생겼어요.}

10202 # 기피생활도 그 머야 저 어느 정도지 여기서 이런 행세를 더군다나 가짜 제대썬 가지고 인는 노미 그 머되거썬요. 그러자 사춘형이 또 오라해떠니 와썬요. 와가지고서나 인자 거그서 인자 떠나와썬요. 떠나가지고 여그 대야 와서 대야 지서에 가가지고 내가 임완수니라고 하는 사람민데요. 궁게 어 그 기피자, 왜 그 임완수니 기피잔데 그러. 아 내가 기 임완수니 저, 시방 구닌갈라고 와따고, 그래떠니 마침 그때 마침 지원자드리 머시 인는가 그 지원자들허고 가치 가라고 삼일을 또 시간을 줘요.{기피생활도 그 머야 저 어느 정도지 여기서 이런 행세를 더군다나 가짜 제대썬 가지고 있는 놈이 그 무엇이 되겠어요. 그러자 사춘형이 또 오라고 했더니 왔어요. 와가지고서나 인자 거기서 인자 떠나왔어요. 떠나가지고 여기 대야 와서 대야 지서에 가가지고 내가 임완수니라고 하는 사람민데요. 그러니까 어 그 기피자, 왜 그 임완수니 기피자인데 그래. 아 내가 기 임완수니 저, 지금 군인가려고 왔다고. 그랬더니 마침 그때 마침 지원자들이 몇이 인는가 그 지원자들하고 같이 가라고 삼일을 또

시간을 줘요.}

10202 # 어 그래서 저 부락에서 인자 송별회도 바꼬 인자 애: 구닌생활을 허게 된  
는데, 겨론헌 동기가 머냐며는 그때도 그 장모되는 사라미, 부니 그냥 어:터게  
자식보단도 더 사랑을 해요. 인자 어터게던지 그 따를 인자 매져줄라고 그러  
케 마음을 먹어떤가 한버는 우리 지배도 와따 가시고 그래썬요. 그래서 인자  
나는 거기서 나와가지고 구니를 가게 되는데 암만해도 지난 정이 이끼 때미  
네 그냥 말을수가 업데요. 그랬제, 휴가 가가지고서나 한번 가썬썬요.{어 그래  
서 저 부락에서 인자 송별회도 받고 인자 예 군인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결  
혼한 동기가 뭐냐면 그때도 그 장모되는 사람이, 분이 그냥 어떻게 자식보다  
도 더 사랑을 해요. 인자 어떻게든지 그 딸을 인자 맺어주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든가 한번은 우리 집에도 왔다 가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자 나는 거기  
서 나와가지고 군인을 가게 되었는데 아무리해도 지난 정이 있기 때문에 그  
냥 말을 수가 업데요. 그랬지요. 휴가 가가지고서나 한번 갔었어요.}

10202 # 가떠니 참 반가워허고 그냥 다으메 휴가 허며는 꼭 오라고 말여. 그러면  
서나 언제든지 가기만 허며는 친자식보단도 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두번째  
가가지고서는 머야 그 안식구를 가따가 그 머야 썬머대면 모양이여. 아 어떠  
케든지 한번 만나서 그 얘기를 드려보라고 말이요. 그래가지고서나 처으므로  
인자 대며늘 해썬썬요.{갔더니 참 반가워하고 그냥 다음에 휴가 하면은 꼭 오  
라고 말이야. 그러면서 언제든지 가기만 하면은 친자식보다도 더 생각을 해  
요. 그런데 두번째 가가지고서는 뭐야 그 안식구를 갖다가 그 뭐야 삶아댄 모  
양이야. 아 어떻게든지 한번 만나서 그 얘기를 들어보라고 말이요. 그래가지  
고서나 처음으로 인자 대면을 했었어요.}

10202 # 인자 그 지방은 그러케 곱게 큰 여자들허고는 남자드리 이야기를 못해썬  
요. 그때 예이가 거게 참 엄해썬는데. 그래가지고서나 거기서 승낙을 얻꼬 인  
자 그뒤로 인자 머야 서로 편지 연락도 허고 먼허고 해가지고 인자 날이 바  
꼬 겨론허게 돼썬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 생활하게 되썬니다. 겨론은.{인자  
그 지방은 그렇게 곱게 큰 여자들하고는 남자들이 이야기를 못했어요. 그때  
예이가 거기에 참 엄했었는데. 그래가지고서나 거기서 승낙을 얻고 인자 그  
뒤로 인자 뭐야 서로 편지 연락도 하고 뵈하고 해가지고 인자 날이 받고 결  
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10203 @ 그러면 그: 연애 겨론 도: 하면서 중매 겨론도 하면서 아마 연애 중매가  
그냥...{그러면 그 연애결혼도 하면서 중매결혼도 하면서 아마 연애 중매가 그  
냥...}

10203 # 그러썬. 저 머야 저 중매는 장모가 기썬. 인자 친정어머니가 중매고 그  
머야 연애라고 허며는 머여 서로 편지 와따가따허고 먼허고 그렇게 머 편지  
도 수업시 와따가따 해끼 때무네 머야 연애겨론이라고 헐 수 이썬 그.{그렇지

요. 저 뭐야 저 중매는 장모가 맞죠. 인자 친정어머니가 중매고 그 뭐야 연애라고 하면은 뭐여 서로 편지 왔다갔다 하고 뵈하고 그러니까 뭐 편지도 수없이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뭐야 연애결혼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

10203 @ 그러면 약혼식 가튼 거 안하셨어요?{그러면 약혼식 같은 것 안하셨어요?}

10203 # 약혼식도 해썬요. 약혼식은 간단하게 지배서 내가 인자 제대하고 가가지고, 지배서 그머야 금지와라고 자 시계하고 서로 교환하면서 그걸로 막 이 약혼식으로 인자 끝나썬요.}

10203 @ 예: 그러면 저 겨론하시기 저네 옛날 분드론 전부다 머 사주라든지 머 궁합이라든지, 다:.{예 그러면 저 결혼하시기 전에 옛날 분들은 전부다 뭐 사주라든지 뭐 궁합이라든지, 다.}

10203 # 근데 그거슬, 궁계 사주 궁합 그거슨 그 쟁인어르니 참 유식해썬요. 궁계 그 근방 머 사람들 사주 가튼 거 머 그런걸 머 어디 이사 허면 날 가튼 걸 바더주고 인자 그런 분이어썬는데 한번은 이런 머야 그 소리를 드러썬요. 내 골방에 인자 자물 자고 인는데 인자 막 그냥 그 양바니 반대를 해썬요. 궁계 머라고 얘기를 허는고니 그 이 나보고서나 처째는 궁합이 안조타 이거여. 궁합이 안조코 그 확시리 그 사람 성질을 가따가 그 안다고 허지마는 알지 못허지, 못허는데 거기서 여까지 백오십리요. 관촌에서 여그가 백오씨임리나 되는 먼길로 나는 따를 줄 수 업따 인자 그런식으로 인자 반대를 해썬요.}{그러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사주 궁합 그것은 그 장인어르니 참 유식했어요. 그러니까 그 근방 뭐 사람들 사주같은 것 뭐 그런 것 뭐 어디 이사하면 날 같은 것 받아주고 인자 그런 분이엇었는데 한번은 이런 머야 그 소리를 들엇어요. 내 골방에 인자 잠을 자고 있는데 인자 막 그냥 그 양반이 반대를 했엇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 그 이 나보고서나 처째는 궁합이 안 좋다 이거여. 궁합이 안 좋고 그 확실히 그 사람 성질을 갖다가 그 안다고 하지 만은 알지 못하지, 못하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백오십리요. 관촌에서 여기가 백오십리나 되는 먼 길로 나는 딸을 줄 수 업따 인자 그런 식으로 인자 반대를 했어요.}

10203 # 음 그런데 나중에는 쟁인 영감도 참 저한테 잘 허고 애 모든 거슬 다 흡조키 생각카고 이썬썬지요. 그 당시에는.}{음 그런데 나중에는 장인 영감도 참 저한테 잘 하고 애 모든 것을 다 흡족히 생각하고 있었엇지요. 그 당시에는.}

10203 @ 그 당시에 겨론하시고 머 혹시 싯혼여행 요즘 싯혼여행 마니 가지 안습니까? 그런 거또 가썬나요?{그 당시에 결혼하시고 머 혹시 싯혼여행 요즘 싯혼여행 요즘 많이 가지 안습니까? 그런 것도 가썬나요?}

10203 # 그당시에는 저는 싯식겨로니 아니고 구식으로 사모관대 쓰고 그 머야 그

겨로늘 해췌췌요. 그리고 머야 애 휴가 와가지고 겨론시글 해끼 때미네 머 여 그저그 다닐 그 시간 여유도 업췌췌, 그때.{그 당시에는 저는 신식 결혼이 아니고 구식으로 사모관대 쓰고 그 뭐야 그 결혼을 했었어요. 그리고 뭐야 예 휴가 와가지고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뭐 여기저기 다닐 그 시간 여유도 없었지,요 그때.}

10203 @ 그러면 그 때 구식겨론 하선는데 그당시에 요즘 겨론 예물이라고해서 시계, 반지 그런 거 주지 안습니까?{그러면 그 때 구식 결혼 하셨는데 그 당시에 요즘 결혼 예물이라고 해서 시계, 반지 그런 것 주지 않습니까?}

10203 # 함이라고 해가지고 함에다가 그 머야 신부에 대한 피료한 것 너:주고 인자 그래췌췌.{함이라고 해가지고 함에다가 그 뭐야 신부에 대한 필요한 것 넣어주고 인자 그랬었지요.}

### 1.3. 생업 활동

#### 1.3.1. 농농사

10301 @ 그: 겨론 머 혼례식때 그런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여쭙보도록 하게췌췌니다. 그 어: 어르신이 이제 여기 그 이고세서 쭉 생활하시면서 주로 농농사에 대해서 마니 이제 자겅을 하신거 가튼데, 농농사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드러봐쓰면 조케췌췌니다요. 어: 그 지그믄 굉장히 벼 품종이 다양하지만 예저네는 그 품종이 그다지 만치 아나췌? 그 머 벼가 익는 시기에 따라서 머 조생종이나, 아니면 머 중생종이나 만생종이나 이러케 보통 나뉘췌니까요?{그: 결혼 뒤 혼례식때 그런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여쭙어 보도록 하겅췌췌니다. 그 어 어르신이 이제 여기 그 이곳에서 쭉 생활하시면서 주로 농농사에 대해서 많이 이제 작업을 하신 거 같은데, 농농사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들어보았으면 좋겅췌췌니다요. 어 지금은 아주 벼 품종이 다양하지만 예전에는 그 품종이 그다지 많지 않았지요? 그 뭐 벼가 익는 시기에 따라서 뭐 조생종이나, 아니면 뭐 중생종이나 만생종이나 이렇게 보통 나누었습니까요?}

10301 # 옛날에는 그 머야 그 종자보고 그냥 머나락 차나락 그러케만 옛날에는 그러케 얘기 해췌췌요. 매벼하고 찰벼하고, 머나락 차나락.{옛날에는 그 뭐야 그 종자보고 그냥 매벼 찰벼 그렇게만 옛날에는 그렇게 이야기 했었어요. 매벼하고 찰벼하고, 매벼 찰벼.}

10301 @ 그러면 머나락은 좀 일찍?{그러면 매벼는 좀 일찍?}

10301 # 아녀 아녀, 머나락은 매벼.{아니야 아니야, 매벼는 매벼.}

10301 @ 아 예.{아 예.}

10301 # 차나락은 찰벼.{찰벼는 찰벼.}

10301 @ 예.{예.}

10301 # 그러케 구분혀요.{그렇게 구분해요.}

10301 @ 그러니까 그 벼의 종류를 말씀하시는구만뇨.{그러니까 그 벼의 종류를 말씀하시는구만요.}

10301 # 예.{예.}

10301 @ 아: 그러면 머 일찍 익꼬 늦게 익꼬 거기에 따라서 좀 나뉘지는 거 이써 나요?{아: 그러면 뭐 일찍 익고 늦게 익고 거기에 따라서 좀 나뉘지는 거 있었나요?}

10301 # 그 당시에는 그 품종이: 그 머야 단순허기 때미네 품종이 옛날에는 업써꼬 또 저 근래에 와가지고 머시 이써나며는 애: 통일벼라는 거시 이써꼬.{그 당시에는 그 품종이 그 뭐야 단순하기 때문에 품종이 옛날에는 없었고 또 저 근래에 와가지고 무엇이 있었나 하면은 예 통일벼라는 것이 있었고.}

10301 @ 통일벼요.{통일벼요.}

10301 # 예예. 그거시 통일벼라고 하는 거시 머냐며는, 그때 우리나라가 그 양곡이 달리고 그러기 때미네 그 필리핀에서 온 그 품종이 될꺼여. 그.{예예. 그것이 통일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때 우리나라가 그 양곡이 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필리핀에서 온 그 품종이 될 거요. 그}

10301 @ 예.{예.}

10301 # 예, 우리나라, 이 그거슨 수확은 만해요. 그런데 밤마시 아주 저질이어요.{예, 우리나라, 이 그것은 수확은 많아요. 그런데 밥맛이 아주 저질이에요.}

10301 @ 아:, 그러면 이 그 통일벼이면서 그러면 머 차나락에도 이 통일벼가 이써 나요?{아, 그러면 이 그 통일벼이면서 그러면 뭐 찰벼에도 이 통일벼가 있었나요?}

10301 # 그거슨 업써써요.{그것은 없었어요.}

10301 @ 어, 그면 머나락에만.{어, 그러면 메벼에만.}

10301 # 예, 예:.{예, 예:.}

10301 @ 예.{예.}

10301 # 그리고 머 지금 와서는 참 나락이 만치요. 지금 머 신동진벼네 머 그냥 그 벼종자 들기로 드르면 참 만해요. 저 거.{그리고 뭐 지금 와서는 참 나락이 많지요. 지금 뭐 신동진벼네 뭐 그냥 그 벼종자 들기로 들으면 참 많아요. 저 거.}

10301 @ 그러면 인제 조금 빨리 시머서 빨리 수확하고 좀 늦게.시머서...{그러면 이제 조금 빨리 심어서 빨리 수확하고 좀 늦게 심어서...}

10301 # 조생종은 빨리 심고 빨리 거두고, 또 중생종은 보통이고, 만생종은 늦게 까지 자라는 거지요.{조생종은 빨리 심고 빨리 거두고, 또 중생종은 보통이고,

만생종은 늦게까지 자라는 거지요.}

10301 @ 예, 아: 그러면 이지방에서는 아무래도 그 남쪽지방이니까 쫘 늦게 심고  
늦게 거둘 수 업썬나요?{예, 아, 그러면 이 지방에서는 아무래도 그 남쪽지방  
이니까 좀 늦게 심고 늦게 거둘 수 없었나요?}

10301 # 예게 중만:생 여그 여그여.{여기에, 중만생 여기 여기에.}

10301 @ 그러면 결구근 그 보리를 심고 나서 수확하고 나서 인자 그다음에 그다  
으메 벼를 시면나요 보통? 이근처에서는.{그러면 결국은 그 보리를 심고 나서  
수확하고 나서 인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벼를 심었나요 보통? 이 근처에서  
는.}

10301 # 옛날에는 그 보리꺼리라고 해가지고 저 머야 이썬썬요. 보리꼈도 보리꺼  
리즈메 느저요. 왜냐면 수확기 좀 느저 보리꺼리. 근데 지금에 와서는 품종이  
이끼때미네 보리꼈로 조생종이 이썬요. 그 빨리 되는 그 보리꺼레.{옛날에는  
그 보릿고개라고 해가지고 저 뭐야 있었어요. 보릿고개도 보릿고개썬에 늦어  
요. 왜냐하면 수확이 좀 늦어 보릿고개.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품종이 있기  
때문에 보릿고개로 조생종이 있어요. 그 빨리 되는 그 보릿고개에.}

10302 @ 어, 저희가 지난버네 그 쭉 그 농사에 대해서 좀 여쭙판는데, 그냥 그 그  
생각나시는데로 떠나게 그냥 그 벼농사를 짓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드  
러서 제일 처음 머 씨를 가따가 인제 하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수확 때까지  
예 간단하게 쫘 말씀 좀 해주시죠?{어, 저희가 지난번에 그 쭉 그 농사에 대  
해서 좀 여쭙어 보았는데, 그냥 그 그 생각나시는 대로 편하게 그냥 그 벼농  
사를 짓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 뭐 씨를 갖다가 이제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수확 때까지 예 간단하게 쫘 말씀 좀 해주시죠?}

10302 # 옛날에는 애 노를 논가리를 허는데 그 지그른 머 기계로 다허지마는 옛날  
에는 소가 쟁기로 노를 갈아가지고 그거슬 애 산중에는 씨래질이라고 허지만  
여게는 소스랑으로 다: 분쇠를 해서 머야 잘 고른 다으메 파늘 만드려요. 모  
파늘 만드려 가지고 거그다가 물을 가따가 애 댄 후에 그 벼씨를 애 담거따  
가 하루정도 머야 건지누며는 싸기 틀나고 그래요.{옛날에는 예 논을 논갈이  
를 하는데 그 지금은 뭐 기계로 다하지만은 옛날에는 소가 쟁기로 논을 갈아  
가지고 그것을 예 산중에는 씨래질이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쇠스랑으로 다 분  
쇄를 해서 뭐야 잘 고른 다음에 판을 만들어요. 모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다가 물을 갖다가 예 댄 후에 그 벼씨를 예 담갔다가 하루정도 뭐야 건져놓  
으면 싹이 트려고 그래요.}

10302 # 그노를 가따가 그 물위에다가 그 모판위에다가 뿌려요. 옛날에는 그래썬  
니다. 그래가지고 그노를 일개월 후에는 그 모를 썬다고 그래썬요. 손으로 일  
리히 다 뽑바썬요. 뽑바가지고 그노를 인제 지그른 다 기계가 이썬마는 옛날  
에는 다 손으로 시머썬요. 손으로 심는데 사라미 머야 모지라기 때미네 조합



이라고 해가지고 공동자집을 애 해썬썬요.{그놈을 갖다가 그 물위에다가 그 모판 위에다가 뿌려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놈을 일개월 후에는 그 모를 찢다고 그랬어요. 손으로 일일이 다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그놈을 인제 지금은 다 기계가 있지만은 옛날에는 다 손으로 심었어요. 손으로 심는데 사람이 뭐야 모자라기 때문에 조합이라고 해가지고 공동작업을 예 했었어요.}

10302 # 그 다오메 김도 초벌이꼬, 재벌이꼬, 망두리가 이꼬 그래썬요. 순 소느로, 호미로 다 인자 김매기도 해꼬, 그래가지고 인자 그거시 다 인자 끝난 다오메는 이제 추수때를 기다려가지고 추수를 해꼬, 지그른 애 머야 기계로 그 트랙타나 경운기로 노를 가른 다오메 다 기계로 가따 분쇄를 해요. 로타리를 헌 다오메 애: 모파를 만든 다오메 모상자에다가 또 흐글 다마가지고 상자위에 종자를 띄워서 그놈을 모판에다 노코 거기다 부식포나 비니루로 더퍼요.{그 다음에 김도 초벌 있고, 재벌 있고, 만두리가 있고 그랬어요. 순 손으로, 호미로 다 인자 김매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인자 그것이 다 인자 끝난 다음에는 이제 추수 때를 기다려가지고 추수를 했고, 지금은 예 뭐야 기계로 그 트랙타나 경운기로 노를 간 다음에 다 기계로 갖다 분쇄를 해요. 로타리를 한 다음에 예 모판을 만든 다음에 모 상자에다가 또 흙을 담아가지고 상자 위에 종자를 띄워서 그놈을 모판에다 놓고 거기다 부식포나 비닐로 덮어요.}

10302 # 그거슬 애 헌 다오메 한 이 머야 한달까지 안가고 어느정도 성장이 되며는 시물정도 되며는 기계로 이양기로 다: 모를 심게 되고, 머야 김매기가 업꼬 지그른 제초제라고 푸를 주기는 약이 이썬요. 벼만 살고 탄 푸른 주기는 약이 이끼 때미네 그거슬 주고 살충제도 다 기계로 다 살포합니다. 소니로 주는 거는 업썬요. 다 기계로 다 허고.{그것을 예 한 다음에 한 이 뭐야 한 달까지 안가고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기계로 이양기로 다 모를 심게 되고, 뭐야 김매기가 없고 지금은 제초제라고 풀을 죽이는 약이 있어요. 벼만 살고 다른 풀은 죽이는 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고 살충제도 다 기계로 살포합니다. 손으로 주는 것은 없어요. 다 기계로 다하고.}

10302 # 그래가지고 머야: 옛날에는 일리리 수확할 썬게는 나스로 벼를 비어썬마는 지그른 다 콤바이~라고, 다 기계로 다: 나라글 수확하고 또 옛날에는 머야 그: 타작글 가따가 하는 거또 머야 홀테라고 해가지고 나라글 홀턴는데 지그른 콤바이로 자집을 허며는 다: 머야 나라갈만 분리대서 나오기 때무네 정말로 지그른 참 농사 지끼 편리하썬. 다. 그 그래가지고 그거슬 건조기에 말리든지 태양여레 말려가지고 저장허면 농사는 끝나는 거지.{그래가지고 뭐야 옛날에는 일일이 수확할 적에는 낫으로 벼를 베었지만은 지금은 다 콤바인이라고, 다 기계로 다 나라글 수확하고 또 옛날에는 뭐야 그 타작을 갖다가 하는 것도 뭐야 홀테라고 해가지고 나라글 훑었는데 지금은 콤바인으로 작업을 하면은 다 뭐야 벼 알만 분리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정말로 지금은 참 농사짓기

편리하죠. 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건조기에 말리든지 태양열에 말려가지고 저장하면 농사는 끝나는 거지.}

10302 @ 근까 인제, 옛날하고 지금하고 농사 짓는 방법이 정말 마니 다른데 그 옛날에 농사 저 쓸 때는 정말 힘드러쥬넌네요?{그러니까 이제, 옛날하고 지금하고 농사짓는 방법이 정말 많이 다른데 그 옛날에 농사지었을 때는 정말 힘들었쥬넌네요?}

10302 # 아이 정말 힘드러.{아이 정말 힘들어.}

10302 @ 어 콤바인이나 경운기가 업쓰니까 콤바인, 경운기에 대신할 만한 그런 농기구가 이썬썬꺼 아릅니까?{어 콤바인이나 경운기가 없으니까 콤바인, 경운기에 대신할 만한 그런 농기구가 있었을 것 아릅니까?}

10302 # 옛날에? 옛날에는 다 소노로 다 해썬.{옛날에? 옛날에는 다 손으로 다 했어.}

10302 @ 소노로 다 하시니까 머, 때로는 삽또 피료하고 때로는 호미도 피료하고 머 여러가지가 피료해쥬넌네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간다니 한번.{손으로 다 하시니까 뭐, 때로는 삽도 필요하고 때로는 호미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필요했쥬넌네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간다니 한번.}

10302 # 옛날에는 논 꾸미는디도 그: 쟁기로 가라가지고서나 두더글 지어나끼 때미네 산중에서는 땅이 사서기라 쓰래지를 할 수가 이썬요. 쓰래라고 인는 그 농기구를 가지고. 쓰래지를 할 수 이썬머는 여그 이 평야지대에서는 땅이 단단하고 차지기 때미네 쓰래지를 못해요. 다 밀려버려요. 그래서 소스락으로 그 두덕진거슬 다 분쇄하면서 골라요. 골라가지고 거그다가 모를 심꼬 또 머야 제초, 그 자겹도 그 호미로 일리히 다 팝니다. 노늘 그냥{옛날에는 논 꾸미는데도 그 쟁기로 갈아가지고 언덕을 지어놓았기 때문에 산중에서는 땅이 사석이라 썬레질을 할 수 가 있어요. 썬레라고 인는 그 농기구를 가지고. 썬레질을 할 수 있으면 여기 이 평야지대에서는 땅이 단단하고 차지기 때문에 썬레질을 못해요. 다 밀려버려요. 그래서 쇠스랑으로 그 언덕진 것을 다 분쇄하면서 골라요. 골라가지고 거기다가 모를 심고 또 머야 제초, 그 작업도 그 호미로 일일이 다 팝니다. 논을 그냥}

10302 # 그 세골 네골 자버가지고 쪽허니 그냥 파고 또 나중에 세번째 가서는 소노로 인자 만두리라고 해가지고 푸를 다 흙쳐내요. 옛날에는 그래썬요. 지그른 다 기계가 허기 때무네 머{그 세 골 네 골 잡아가지고 쪽 하니 그냥 파고 또 나중에 세번째 가서는 손으로 인자 만두리라고 해가지고 풀을 다 흙쳐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다 기계가 하기 때문에 뭐}

10303 @ 그: 옛날 전통저긴 모내기 방법 할때요? 그: 어떤 그 순서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쓰를 해주시게썬요. 머 방금저네 썬레 말썬도 하시고 그랜는데어: 예저네 이양기:는 업썬쥬?{그 옛날 전통적인 모내기 방법 할 때요? 그 어

편 그 순서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뭐 방금 전에 씨  
레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어 예전에 이양기는 없었죠?}

10303 # 옛날에는 이양기가 업써쎄요.{옛날에는 이양기가 없었어요.}

10303 @ 음, 머 혹시 머 줄모나 벌모 머 그런거또 혹시 드려보셨쎄요?{음, 뭐 혹  
시 뭐 줄모나 벌모 뭐 그런 것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10303 # 근데 저: 헛틀모 막심는 거, 줄 업써 심는거슨 그냥 막심는다고 허고, 줄  
모는 줄모라고 그러고.{그런데 저 헛틀모 막 심는 거, 줄 없이 심는 것은 그  
냥 막 심는다고 하고, 줄모는 줄모라고 그러고.}

10303 @ 아 주레다 이러케 표시해 가지고.{아 줄에다 이렇게 표시해 가지고.}

10303 # 예, 저.{예, 저.}

10303 @ 일률찌그로 심는 걸.{일률적으로 심는 걸.}

10303 # 예, 일률찌그로. 줄모도 인제 그 베게 심는거:시 또 이쥬. 일곱치네 여달  
치네 머 하여튼 그 논 지리에 따라서 다 또 줄도 너꼬 조꼬 그래쎄요.{예, 일  
률적으로. 줄모도 인제 그 베게 심는 것이 또 있지요. 일곱 치네 여덟 치네  
뭐 하여튼 그 논 지리에 따라서 다 또 줄도 넣고 좋고 그랬어요.}

10303 @ 어 혹시 머 고무래 그런?{어 혹시 뭐 고무래 그런?}

10303 # 고무래? 고무래라면 그: 그런거슨 이근방에 머.{고무래? 고무래라면 그  
그런 것은 이 근방에 뭐.}

10304 @ 그: 농사지을 때에 농구기 농기구드리 마니 이찌 안습니까? 머 보시면  
아시게찌만 삽또 이꼬 팽이도 이꼬 꼬쟁이도 이꼬 쇠스랑도 이꼬:, 머 이런  
거뜨리 그: 논농사에도 쓰이고 반농사에도 쓰연나요?{그 농사지을 때에 농구  
기 농기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삽도 있고 곡괭이  
도 있고 쇠스랑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그 논농사에도 쓰이고 밭농사에도 쓰  
였나요?}

10304 # 반농사에서 쓰여요.{밭농사에서 쓰여요.}

10304 @ 아 그러면 그 쓰이는 용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이쥬꺼 아십니까? 머 삽  
은 땅을 팔 때 쓴다든지 물꼬, 물꼬를 한다든지 그럴 때도 사용이 된나요?{아  
그러면 그 쓰이는 용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것 아십니까? 뭐 삽은 땅을  
팔 때 쓴다든지 물꼬, 물꼬를 한다든지 그럴 때도 사용이 되었나요?}

10304 # 아 그렇게 저 소스랑은 대개 땅고르는데 파고, 바까튼 거슨 파고 또 글르  
는데 쓰고, 땅은 골르는데 쓰고, 삽은 그 머야 물꼬 또 삽을 가지고 바또 팔  
수 이쎄요. 파고 용도가 머야 만치요. 사비고 소스랑이고 다.{아 그러니까 저  
쇠스랑은 대개 땅 고르는데 파고, 밭 같은 것은 파고 또 그러는데 쓰고, 땅은  
고르는데 쓰고, 삽은 그 머야 물꼬 또 삽을 가지고 밭도 팔 수 있어요. 파고  
용도가 머야 많지요. 삽이고 쇠스랑이고 다.}

10304 @ 꼬쟁이도?{곡괭이도?}

10304 # 고쟁이는 대개 애: 그거또 땅은 파지마는 콩 가튼거 심는데 논두떠기나 애: 머야 그 타가지고 거그다 가따 종자를 가따가 는는데 고쟁이도 피료하고 또 고을: 치는데 고를 고를 치는데 밭 고우 고우를 추는 데에도 고쟁이가 피료하고, 그러고 대개 머야 강헌 풀뿌리 가튼 거또 그걸로 가따 다 캐서 쓰기도 하고 그래쎄요.{곡쟁이는 대개 예 그것도 땅은 파지만은 콩 같은 것 심는데 논두둑이나 예 뭐야 그 타가지고 거기다 갖다 종자를 갖다가 놓는데 곡쟁이도 필요하고 또 골 치는데 골을 골을 치는데 밭 고우 골을 추는 데에도 곡쟁이가 필요하고, 그러고 대개 뭐야 강한 풀뿌리 같은 것도 그걸로 갖다 다 캐서 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10304 @ 그러면 호미는 어느 때?{그러면 호미는 어느 때?}

10304 # 호미는 주로 반 저 제초자겅 반매는 데, 반매고 논매는 데 옛날에는 써서. 궁게 바호미가 이꼬 논호미가 이꼬 그래요.{호미는 주로 반 저 제초작업 밭 매는 데, 밭 매는 논 매는 데 옛날에는 썼어. 그러니까 밭 호미가 있고 논 호미가 있고 그래요.}

10305 @ 그: 예저에는 그 천수답이라고 해가지고 하늘에서 인제 그 비가 내려야 마니 농사를 마니 지찌 안습니까요? 그러다가 인제 저수지 만드러가지고 인제 그 수로를 만드러서 노네 무를 대게 되는데, 노네 무를 댈 때 사용하는 도구가 여러가지 이찌 안습니까요? 어떤 도구가 이썬을까요? 머 예를 드려서 저기 머 용두레라든지 그런 건 여기서 썬 보쎄는지?{그 예전에는 그 천수답이라고 해가지고 하늘에서 인제 그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요? 그러다가 인제 저수지 만들어 가지고 인제 그 수로를 만들어서 논에 물을 대게 되는데, 논에 물을 댈 때 사용하는 도구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요? 어떤 도구가 있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용두레라든지 그런 것은 여기서 썬 보쎄는지?}

10305 # 용두레 가튼거 그런거슨 이근방에 쓰이는데가 이찌 안코, 그 울: 인자 수차라고 하지 수차, 궁게 물자새라고 허는데, 여그에는 물 물자새, 물자새를 가지고 그 푸머서 노네 올리고 그리고 그거또 묻허는 디는 천수다비라고 해썬. 천수답. 하늘만 바라보고 인는 논 천수다비 이꼬 대개.{용두레 같은 것 그런 것은 이 근방에 쓰이는 데가 있지 않고, 그 울 인자 수차라고 하지 수차, 그러니까 무자위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물 무자위, 무자위를 가지고 그 품어서 논에 올리고 그리고 그것도 못하는 데는 천수답이라고 했어. 천수답.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논 천수답이 있고 대개.}

10305 @ 그럼 물자새를 무를 가따가 끄러올릴려면 저: 쪽에서 인제 무를 가두는 고시 이썬꺼 아님니까요? 거기서 인자 무를 흘려주야마니 여기서 인자 무를 그 물자새로 푸게되게썬요?(그럼 무자위를 물을 갖다가 끌어올리려면 저 쪽에서 인제 물을 가두는 곳이 있을 것 아님니까요? 거기서 인자 물을 흘려주어

야만이 여기서 인자 물을 그 물자새로 푸게 되겠지요?)

10305 # 그렇게 이게 수로에가 무리 저장이 되 이쓸때 그거를 푸며 올리는 거시고, 대개 이 애 이지여근 저수지가 위애가 이쓰며는 무리 흘러가지고서나 다 자연 자동저그로 드가게처럼 되이썬요. 궁게 노퍽디에서 미트로 흘르기 때미네 고꼴마다 마가 가지고 인자 그거를 허는 디가 이꼬, 안되는 데는 그 양수기 무를 또 푸며, 기계로 푸며 올리는 데도 이꼬. 궁게 이 수차 그 머야 그 물자새 그거슨 좀 평지에 인는데 그런데서 마니 사용해쥬. 이 이 꼴짜 가튼데서는 그거시 업썬요.{그러니까 이것 수로에가 물이 저장이 되 있을 때 그것을 품어 올리는 것이고, 대개 이 예 이 지역은 저수지가 위애가 있으면 물이 흘러가지고서나 다 자연 자동적으로 들어가게처럼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데에서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곳곳마다 막아 가지고 인자 그것을 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는 그 양수기 물을 또 품어, 기계로 품어 올리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수차 그 뭐야 그 무자위 그것은 좀 평지에 있는데 그런데서 많이 사용했지요. 이 이 골짜기 같은 데서는 그것이 없어요.}

10305 @ 야: 어르신도 그러면 물자새 가튼 거 별로 사용 안하셔쥬네요?{야: 어르신도 그러면 무자위 같은 것 별로 사용 안하쥬겠네요?}

10305 # 엔나레 저 이 평야지, 지대 농사질쥬게는 그거를 사용해쥬니다마는 이고 세는 그 그거시 업썬요. 그 평야지에서 그거를 마니 사용.{옛날에 저 이 평야지, 지대 농사지를 적에는 그것을 사용해쥬니다만 이곳에는 그 그것이 없어요. 그 평야지에서 그것을 많이 사용.}

10306 @ 음: 예저네는 그: 모내기를 하고나서 노네 푸리 나지 안쥬니까요? 그러면 무어스로 어떠케 헐는지?{음 예전에는 그 모내기를 하고나서 논에 풀이 나지 안쥬니까요? 그러면 무엇으로 어떻게 했는지?}

10306 # 궁게 초벌, 재벌, 그 만두레라고 아까 해쥬 안애쥬. 궁게 초벌과 재버른 호미로 가타가 푸를 가따가 그냥 가치 막 글거서나 어퍼버려요. 초벌하고 재버른 그리고 만두레는 제일 마지막에 소느로 그 푸를 다 움켜서 업쥬는거 그. 내{그러니까 초벌, 재벌, 그 만두레라고 아까 했지 안았어. 그러니까 초벌과 재벌은 호미로 갖다가 풀을 갖다가 그냥 같이 막 긁어서나 얹어버려요. 초벌하고 재벌은 그리고 만두레는 제일 마지막에 손으로 그 풀을 다 움켜서 없애는 것 그. 내}

10306 @ 아 그러니까 만두레는 푸리 크기 때무네?{아 그러니까 만두레는 풀이 크기 때문에?}

10306 # 아니 나중의 나중에 마중 예: 마주마게. 궁게 초벌과 재버를 가따가 허고 서도 그 나머지 풀 그때까지 사라인은 푸른 인자 손으로 다 인자 제거해. 그 때는 호미지를 몬해요. 뿌리가 벼 뿌리가 빠더이끼 때미네 호미지를 몬해.{아니 나중의 나중에 마중 예 마지막에. 그러니까 초벌과 재벌을 갖다가 하고서

도 그 나머지 풀 그때까지 살아있는 풀은 인자 손으로 다 인자 제거해. 그때는 호미질을 못해요. 뿌리가 벼 뿌리가 뻗어있기 때문에 호미질을 못해.}

### 1.3.2. 밭농사

10307 @ 그러면 인제 어르시니 밭농사도 쫓 하십니까?{그러면 인제 어르신이 밭농사도 쫓 하셨습니까?}

10307 # 밭농사도 쫓 해쥬요.{밭농사도 쫓 했지요.}

10307 @ 예,예 그러면 밭농사:를 이제 지을 때 주로 이제 밭농사로 짓는 곡식이 주로 어떤 거 연나요?{예, 예 그러면 밭농사를 이제 지을 때 주로 이제 밭농사로 짓는 곡식이 주로 어떤 것이었나요?}

10307 # 예, 이근방에서는 대개 콩하고 국 고구마, 하지감자, 고추. 인자 근래 와서는 땅콩도 이꼬 생강도 이꼬 그러지마는 그거슨 대규모로 허들 안코 쪼만 썩, 이거 바시 이근방에 이케 만치를 안끼 때미네 머야 소규모로 보야 마니 되요.{예, 이 근방에서는 대개 콩하고 국 고구마, 하지감자, 고추, 인자 근래 와서는 땅콩도 있고 생강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것은 대규모로 하지를 앓고 조금씩, 이것 밭이 이 근방에 이렇게 많지를 앓기 때문에 뭐야 소규모로 보아야 되요.}

10307 @ 그러면 인제 우리가 그 밭농사를 질러면 예를 드려서 머 고구마라든지 머 고추라든지 계절에 따라서 시르 쥬 아십니까요?{그러면 인제 우리가 그 밭농사를 지으려면 예를 들어서 뭐 고구마라든지 뭐 고추라든지 계절에 따라서 심을 것 아십니까요?}

10307 # 그러쥬요.{그렇지요}

10308 @ 예, 예. 그러면 인제 그 그 어떤 그 시정에 맞춰서 밭농사를 짓는 그 절차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쫓 해주십시오.{예, 예, 그러면 인제 그 그 어떤 그 시정에 맞추어서 밭농사를 짓는 그 절차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쫓 해주십시오.}

10308 # 밭농사에 대해서 절차가? 머야 애: {밭농사에 대해서 절차가? 뭐야 예.}

10308 @ 뭐 이런거시쥬. 인제 뭐 씨를 뿌리고 뭐.{뭐 이런 것이쥬. 인제 뭐 씨를 뿌리고 뭐.}

10308 # 궁게 해동을 하며는 어디까지나 땅을 가라야마니 되자녀. 겨울 겨울을 한 다음에. 궁게 그 대개 사월 십오일 후에 모든 장무리 자랄수 이케크림 되쥬요. 여게가 제일 마지막 상강이: 한 사월 십오일 경이라 그래요. 인제 서리 피해가 이끼 때미네 대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월 십오일 후에 모든 장무를 가따가 심는 거시 애 제일 안전하고.{그러니까 해동을 하면은 어디까지나 땅을 갈아야만이 되쥬야요. 겨울 겨울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 대개 사월

십오일 후에 모든 작물이 자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제일 마지막 제일 마지막 상강이 한 사월 십오일 경이라 그래요. 인제 서리 피해가 있기 때문에 대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월 십오일 후에 모든 작물을 갖다가 심는 것이 예 제일 안전하고.}

10308 @ 그러면요 사월 십오일 이후에 그 상강이 지나고 나서 서리 피해가 업쓸 때 인제 반농사를 지기 시작하는데 어: 씨를 뿌리고 또 씨가 어느정도 인제 그 성장해서 저 씨가 나오면 머 김매기도 해주어 할 꺼 가꼬 그런 거뜨리 쫘 인나요?{그러면요 사월 십오일 이후에 그 상강이 지나고 나서 서리 피해가 없을 때 인제 밭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어 씨를 뿌리고 또 씨가 어느 정도 인제 그 성장해서 저 싹이 나오면 뭐 김매기도 해주어야 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쫘 있나요?}

10308 # 거 인짤아요. 그거 또 머야 그 사월 십오일이라고 했는데 고추나 오이, 그 저 트콩장무른 그 머야 온상 재배를 해요. 온상 씨아스로 인자 키워서 온상 재배를 한 다으메 사월 십오일경부터 정식그로 인자 원겨나요. 바트로다. 그 머야 정식그로 인자 나오게 되는데 애: 풀매기 가튼 거 그거 그거슨 대개 요즈메는 애: 비뉴니로 보토를 혀 더퍼버려요. 다. 더퍼가지고 그 간격에 마춰서나 다 장무를 가따가 심게 되죠.{거 있잖아요. 그것 또 뭐야 그 사월 십오일이라고 했는데 고추나 오이, 그 저 특용작물은 그 뭐야 온상 재배를 해요. 온상 씨앗으로 인자 키워서 온상 재배를 한 다음에 사월 십오일 경부터 정식으로 인자 옮겨놓아요. 밭으로다. 그 뭐야 정식으로 인자 나오게 되는데 예 풀매기 같은 것 그거 그것은 대개 요즘에는 예: 비닐로 보토를 해 덮어버려요. 다. 덮어가지고 그 간격에 맞추어서나 다 작물을 갖다가 심게 되죠.}

10308 @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해년마다 또가튼 장무를 심으신거예요? 아니면 이러케 인제.{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해년마다 똑같은 작물을 심으신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인제.}

10308 # 저 머야 가튼 장무를 계속 시므며는 그 머야 그 며녁성이 저 이러가지고 그 땅심이 멀 바껴줘야마니 텅게, 그 삼년마네 판디로 옮겨 심는 거시 그게 정상이에요. 궁게 계속 심꼬 머더고 허며는 그 병이 만예요. 고추 가튼 거슨 머 특별리 더 병이 더 만치요 인자. 그거슨. 연작허면는 안되. 머이던지. 머 {저 뭐야 같은 작물을 계속 심으면 그 뭐야 그 면역성이 저 잃어가지고 그 땅 힘이 무엇을 바꿔주어야만이 되니까, 그 삼년만에 다른 곳으로 옮겨 심는 것이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심고 무엇하고 하면은 그 병이 많아요. 고추 같은 것은 뭐 특별히 더 병이 더 많지요. 인자. 그것은. 연작하면은 안 돼. 무엇이든지. 뭐}

10308 @ 그러니까 머 콩이든 머 감자든 고구마든 계속해서 연작이 안된다 이 말 쫘민가요?{그러니까 뭐 콩이든 뭐 감자든 고구마든 계속해서 연작이 안 된다 이 말쫘민가요?}

- 10308 # 궁계 특벼리 그 머야 그 머야 고추 가튼 거 생강 그런 거시 애: 연작글 허며는 안되고, 그래도 고구마나 콩은 벨 그 지장을 업는거 가타요. 여그 토질로 바서는. 계속 그냥 거그다 심꼬 심꼬 해도 벨 지장은 업썬요. 그러나 이 고추는 정말로 생강 가튼 거슨 연작글 허며는 확실히 병이, 그건 심해요.{그러니까 특별히 그 뭐야 그 머야 고추 같은 것 생강 그런 것이 예 연작을 하면은 안 되고, 그래도 고구마나 콩은 벨 지장을 업는 거 같아요. 여기 토질로 보아서는. 계속 그냥 거기에다 심고 심고 해도 벨 지장은 업어요. 그러나 이 고추는 정말로 생강 같은 것은 연작을 하면은 확실히 병이, 그것은 심해요.}
- 10308 @ 그러면 우리가 인제 예를 드려서 보리를 심는다 해썬때요. 그 보리:농사에 대해서 인제, 그 또 혹시 밀농사도 저 보썬썬요?{그러면 우리가 인제 예를 들어서 보리를 심는다 했을 때요. 그 보리농사에 대해서 인제, 그 또 혹시 밀농사도 지어 보썬썬어요?}
- 10308 # 엔날레는 밀농사 썬 지어봐썬. 그거시 보리보단 썬 수확이 느껴요.{옛날에는 밀농사 썬 지어보았썬. 그것이 썬 수확이 늦어요.}
- 10308 @ 아:{아:}
- 10308 # 그러기 때미네 바테는 가능하지마는 노네 하며는 모심는데 썬 지장이 이썬요. 느끼 때미네.{그렇기 때문에 밭에는 가능하지만은 논에 하면은 모심는데 썬 지장이 있어요. 늦기 때문에.}
- 10309 @ 예. 음 그러면 보리농사 질 때 보리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이썬니까요? {예, 음 그러면 보리농사 지을 때 보리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썬니까요?}
- 10309 # 예, 보리에도 메보리가 이꼬 찰보리가 이꼬 꺾보리가 이꼬 그래요.{예, 보리에도 메보리가 있고 꺾보리가 있고 그래요.}
- 10309 @ 꺾보리?{꺾보리?}
- 10309 # 꺾보리는 그 맥주용으로 마니 드러가썬. 응. 꺾보리 꺾보리 그려썬.{꺾보리는 그 맥주용으로 많이 들어가썬. 응, 꺾보리 꺾보리 그러지요.}
- 10309 @ 그럼 혹시 그 계절에 따라서 보리가 머 따로 또 나뉘썬 수도 인나요? 뭐 봄보리냐? 뭐 가을보리냐?{그럼 혹시 그 계절에 따라서 보리가 뭐 따로 또 나뉘썬 수도 있나요?}
- 10309 # 그러체. 가을에 저 머야 벼 수확한 다옴에 허는 거슨 가을보리로 허고, 또 보메 그 노네는 봄보리를 잘 안 갈어요. 봄 그 바테는 봄보리를 갈안는데 엔날레는 봄보리도 갈아썬는데 이 근래와서는 봄보리를 갈지 안꼬 이썬요. 가을보리 봄보리는 이썬요.{그렇지요. 가을에 저 뭐야 벼 수확한 다음에 하는 것은 가을보리로 하고, 또 봄에 그 논에는 봄보리를 잘 안 갈아요. 봄 그 밭에는 봄보리를 갈았는데 옛날에는 봄보리도 갈았었는데 이 근래 와서는 봄보리를 갈지 앓고 있어요.}
- 10309 @ 음, 궁계 인자 봄에 심느냐 가을에 심느냐에 따라서 이러케.{음, 그러니



까 인자 봄에 심느냐 가을에 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10309 # 그러쵸. 그 명칭이 틀려요.{그렇지요. 그 명칭이 틀려요.}

10309 @ 아, 예, 예 아 그리고 예저네는 어 노네다가 심어찌만 요즈메는 노네 안 심꼬 주로 바테다가 심는.{아, 예, 예 아 그리고 예전에는 어 논에다가 심었지만 요즘에는 논에 안 심고 주로 밭에다가 심는.}

10309 # 예, 봄보리는?{예, 봄보리는?}

10310 @ 아, 그 보리농사하고 밀농사 짓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셔쓰면 하는데?{아, 그 보리농사하고 밀농사 짓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10310 # 여 보리농사나 밀농사나 그 재배 방버븐 가터요. 가튼데 밀이 조메 수확이 느즌 거시고, 또 비료에 좀 강해 그 노미. 보리는 비료가 좀 과하 과하면 그 썰리는 도복이 심헌데 미른 그거시 좀 강해요.{여 보리농사나 밀농사나 그 재배 방법은 같아요. 같은데 밀이 조금 수확이 늦은 것이고, 또 비료에 좀 강해 그 노미. 보리는 비료가 좀 과하 과하면 그 쓰러지는 도복이 심헌데 밀은 그것이 좀 강해요.}

10310 @ 그러면 인제 그 보리농사를, 밀농사를 지을 때 인제 그 받갈기부터 그 씨를 뿌릴때까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대로 말씀 좀 해주시죠?{그러면 인제 그 보리농사를, 밀농사를 지을 때 인제 그 밭 갈기부터 그 씨를 뿌릴 때까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주시죠?}

10310 # 그거슨 머야 바슬 가르며는 그 머야 바뿌리는 바뿌리를 얘기합니까?{그것은 뭐야 밭을 갈면 그 뭐야 밭보리는 밭보리를 얘기합니까?}

10310 @ 예, 예.{예, 예}

10310 # 논 논 논보리도.,{논 논 논보리도,}

10310 @ 머 그냥 그 하신 점,{뭐 그냥 그 하신 점,}

10310 # 바뿌리는 그 고를 타야만 되요. 고를 고를.{밭보리는 그 골을 타야만 되요. 골을 골을.}

10310 @ 예, 예가. {예, 예가.}

10310 # 간간히 고를 타고 거기다가 뿌리는데 논보리는 지그몬 머야 널룬 두덕을 만드려요. 그리 그 위에다가 그 종자를 빼고 또 애: 호글 좀 보토를 해야마니 되는데 좀 그게 머야 지그몬 윈 바다게다 종자를 빼고 머야 노타리로 허며는 호기 자동저그로 튀어 너머서 보리를 더깨커림 되이썬요.{간간히 골을 타고 거기다가 뿌리는데 논보리는 지금은 뭐야 넓은 두덕을 만들어요. 그리 그 위에다가 그 종자를 뿌리고 또 예 흙을 좀 보토를 해야만 되는데 좀 그게 뭐야 지금은 윈 바닥에다 종자를 뿌리고 뭐야 노타리로 하면은 흙이 자동적으로 뛰어 넘어서 보리를 덮게 되어있어요.}

10310 # 이게 그거슬 허기 저네 비료를 또 주야마니 되고 근데 비료를 주야허고

또 제초제 약글 또 줍니다. 그 독새기라고 허는 푸리 인는데, 그 푸를 주기는 약글 또 해주 인자 제초제를 주며는 그 독새기 푸리 나지 안해요. 음 그다르메 월동허는데 머야 해동이 되며는 그 밭바주기 가튼거 또 호글 더 시 씨워 주는 거 그리고 비료도 또 인자 우꺼르믈 주고 나며는 하지 무렵 대개 유월 초순에 다 수확을 하게 되지요. 인자. 보리는 하지가 보리 환갑이다 이케 엔날부터 말이 이씨찌.{이케 그것을 하기 전에 비료를 또 주어야 하고, 또 제초제 약을 또 줍니다. 그 독새풀이라고 하는 풀이 있는데, 그 풀을 죽이는 약을 또 해주 인자 제초제를 주면은 그 독새풀 풀이 나지 않아요. 음 그다음에 월동하는데 뭐야 해동이 되면 그 밭아주기 같은 것 또 흙을 더 시 씨워주는 것 그리고 비료도 또 인자 웃거름을 주고 나면은 하지 무렵 대개 유월 초순에 다 수확을 하게 되지요. 인자. 보리는 하지가 보리 환갑이다. 이렇게 옛날부터 말이 있었지.}

10311 @ 그러면 그 보리밭끼를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네 보리밭끼를 하지요?{그러면 그 보리밟기를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보리밟기를 하지요?}

10311 # 예?{예?}

10311 @ 보리밭끼?{보리밟기?}

10311 # 예: 보리밟기 그거슨 그 여르메 머야 얼 부러가지고 뿌리가 떠 이씨요. 인자 그거슬 인자 밭브며는 지며네 딱 늘어부끼 때미네 그 활착하는데 인자 도우미 되쥬. 보리에 대해서. 보리밟기 해주는 거슨 아주 중요해요. 그거슨. {예 보리밟기 그것은 그 여름에 뭐야 얼 불어가지고 뿌리가 떠 있어요. 인자 그것을 인자 밟으면 지면에 딱 늘어부끼 때문에 그 활착하는데 인자 도움이 되쥬. 보리에 대해서. 보리밟기 해주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것은.}

10311 @ 그러면 예저네 혹시 보리 밭브실때 머 부른 노래 가튼 게 따로 이쨌나요?{그러면 예전에 혹시 보리 밟으실 때 뭐 부른 노래 같은 것이 따로 있었나요?}

10311 # 예?{예?}

10311 @ 예저네 보리밭끼 할 때 혹시 어 옛날 분드리라든지 어르시니 그냥 그 보리밭끼 하는 생가기, 시간도 마니 걸리고 힘이 들지 안습니까요? 그때 인제 그 흥겹게 하기 위해서 혹시 노래라든지 그런걸.{예전에 보리밟기 할 때 혹시 어 옛날 분들이라든지 어른신이 그냥 그 보리밟기 하는 생각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이 들지 않습니까요? 그때 인제 그 흥겹게 하기 위해서 혹시 노래라든지 그런 것을.}

10311 # 노래는 업씨찌마는.{노래는 없었지만은.}

10311 @ 예.{예.}

10311 # 그 머야 이 학생덜, 학생덜 동원시켜 가지고 그냥 머야 보리밟기도 호고

부락: 사람들 전체저그로 나와가지고 허는 거슨 그 벨로 업썰썰요.{그 뭐야 이 학생들, 학생들 동원시켜 가지고 그냥 뭐야 보리밟기도 하고 부락 사람들 전체적으로 나와가지고 하는 것은 그 별로 없었어요.}

10311 @ 예.{예.}

10311 # 예, 무슨 기관네 그 인원들 인위를 동원시켜 가지고 반는 거슬 마니 해썰썰. 여그는.{예, 무슨 기관에 그 원인들 인원을 동원시켜 가지고 밟는 것을 많이 했었지요. 여기는.}

10311 @ 음. 그러니까 학생들 동원이라든지 어떤 기관에서 나와가지고 노력봉사 차원에서 한 거시지 마을 사람드리 이러케 한꺼버네 모여가지고.{음. 그러니까 학생들 동원이라든지 어떤 기관에서 나와가지고 노력봉사 차원에서 한 것이지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10311 # 그런 이른 업썰썰요.{그런 일은 없었어요.}

10311 @ 아 업썰썰요?{아 없었어요?}

10311 # 애, 개이니 머야 시간나는 대로 좀 밟는 거슨 모르지마는 인자 주민들 그냥 거 가치 한 거슨 여그 아지근 업썰썰요.{예, 개인이 뭐야 시간 나는 대로 좀 밟는 것은 모르지만은 인자 주민들 그냥 거 같이 한 것은 여기 아직은 없었어요.}

10312 @ 보통 반농사를 하실때요? 김매기는 보통 몇 뼘이나 하시는지?{보통 밭농사를 하실 때요?}

10312 # 반농사에 김매기는 수가 업썰썰요. 풀 자라는 데로 그냥 허야마니 때미네 수가 업썰썰요.{밭농사에 김매기는 수가 없어요. 풀 자라는 대로 그냥 해야만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10313 @ 음 어: 아마도 좀 어리서썰때 그 어떤 서리라고 하지 안습니까? 콩서리, 머 밀서리, 머 닥서리 그런 거 혹시 해 보셨는지 그런 게 이쓰면 말썸 좀 해주시죠?{음 어 아마도 좀 어리셨을 때 그 어떤 서리라고 하지 안습니까? 콩서리, 뭐 밀서리, 뭐 닥서리 그런 것 혹시 해 보셨는지 그런 것이 있으면 말썸 좀 해주시죠?}

10313 # 옐나레는 그 머야 생화리 곤란해서 그랜나 어쨌나 머야 닥서리 가튼거또 머야 이따금 하고 또 밀서리, 콩서리, 보리서리 그건 것 머야 다 하고 이썰. 그거슨 옐나레는 다 해썰썰요. 그 한쪽 모퉁이 가가지고 보리 이삭 찢르다가 밀이삭 찢르다가 콩도 거두다가 인자 불퍼 노코 인자 그거슬 자 익코가지고 인자 멎는 그런 일드른 옐나레 애: 어디고 다 해썰썰꺼요.{옛날에는 그 뭐야 생활이 곤란해서 그랬나 어쨌나 뭐야 닥서리 같은 것도 뭐야 이따금 하고 또 밀서리, 콩서리, 보리서리 그것은 것 뭐야 다 하고 있지요. 그것은 옛날에는 다 했었어요. 그 한쪽 모퉁이 가가지고 보리 이삭 잘라다가 밀 이삭 잘라다가

콩도 거두어 인자 불 펴놓고 인자 그것을 자 익혀가지고 인자 먹는 그런 일들은 옛날에 예 어디고 다 했었을 거예요.}

10313 @ 근데: 그 콩이나 밀이나 이런 거슨 쉽게 우리가 구어 머글수 인는데 그런데 닭서리는 어터케 하쨌쨌요.{그런데 그 콩이나 밀이나 이런 것은 쉽게 우리가 구워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닭서리는 어떻게 하쨌어요?}

10313 # 아 닭서리도 머야 개인 지배는 머야 그 안방에서는 먹들모허고, 사랑방이나 인자 그 운 그 인적이 드문데 그런데 가서나 인자 해머꼬 그래쨌제. 개인 지배서는 머야 그러케 허는 사람도 이끼는 인는데 그런 거슨 아주 드물고 대개 사랑방 사랑방에서 마니.{아 닭서리도 뭐야 개인 집에는 뭐야 그 안방에서는 먹지를 못하고, 사랑방이나 인자 그 운 그 인적이 드문데 그런데 가서나 인자 해먹고 그랬었지. 개인 집에서는 뭐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것은 아주 드물고 대개 사랑방 사랑방에서 많이.}

10313 @ 그러면 예저네는 그 저 닭 가튼거또 이러케 닭장에 노치안코 그냥 보통 이러케 푸러 난나요. 그러니까 서리가 가능했...{그런데 예전에는 그 저 닭 같은 것도 이렇게 닭장에 놓지 않고 그냥 보통 이렇게 풀어 놓았나요. 그러니까 서리가 가능했...}

10313 # 아니쨌. 인자 닭장이 이꼬 닭우리 이쨌요. 닭우리. 닭우리 이제 가두노키 때미네 머야 저 그 잡끼가 시어요. 그거슨 도망안다니고 그 우리에 드러인는 거 손만 너머는 다 잡히는거지 머. 그리고 심지어 심은 사람드른 그 닭짱우리 둥그러케 대나무로 여껴쨌요. 그고 가운데다가 막때기를 느 가지고 다기 그 켜 머야 거게 올라서서 머야 자게커럼 만드른 그 닭우리 인는데 심지어 그거슬 가따 막 우리채 들고 나가가지고서나 가지가는 사라미 이쓰유. 아주 그 시궁게 시망시런 사람도 예나레 마니 이쨌쨌요.{아니쨌. 인자 닭장이 있고 닭우리 있어요. 닭우리 이제 가둬놓기 때문에 뭐야 저 그 잡끼가 쉬워요. 그것은 도망 안 다니고 그 우리에 들어있는 것 손만 넣으면 다 잡히는 거지 뭐. 그리고 심지어 심한 사람은 그 닭장우리 둥그렇게 대나무로 엮었어요. 그고 가운데다가 막대기를 넣어 가지고 닭이 그 쫓 뭐야 거기에 올라서서 뭐야 자게끔 만든 그 닭우리 있는데 심지어 그것을 갖다 막 우리채 들고 나가가지고서나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 시 그러니까 시망스런 사람도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10314 @ 예: 아: 저 그러면 저 그 밭농사 그 지으면 수확하면 인제 그 보리지비라든지 밀지비 나올꺼 아님니까요? 그걸 가지고 인제 머 불도 때기도 해쨌제만 또 이러케 만드는데 머가 이쨌쨌까요? {예: 아: 저 그러면 저 그 밭농사 지으면 수확하면 인제 그 보리지비라든지 밀지비 나올 것 아님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인제 뭐 불도 때기도 했쨌지만 또 이렇게 만드는데 머가 있었을까요?}

10314 # 그거슬 보리:때를 머야 엔나레는 연료로 마니 사용을 해쥬. 또 거기서 그 비올때 덩는 그거보고 도리라고 허는가요? 도리? 도리 도, 도랭이 도리? 도랭인가 도린가 그거슬 만드러가지고 비올 저게 이러케 걸치며는 애: 보리때로도 현거 이꼬, 대개 떠풀로 마니 허쥬. 그거슬 떠풀로. 그리고 저 머여 밀짚모자가튼거또 인자 저버가지고 허는데 보리때로 한때는 허기도 허고 그래쥬요. 그 밀짚모자를 저 밀짚모자가 아니라 보리때모자쥬. 그러케 되면.{그것을 보릿대를 뭐야 옛날에는 연료로 많이 사용을 해지요. 또 거기서 그 비올 때 덩는, 그것보고 도리라고 하는가요? 도리? 도리 도, 도롱이 도리? 도롱이인가 도린가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비올 적에 이렇게 걸치면 예 보릿대로도 한 것 있고, 대개 테풀로 많이 하쥬. 그것을 떼풀로. 그리고 저 뭐야 밀짚모자 같은 것도 인자 접어가지고 허는데 보릿대로 한 때는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밀짚모자를 저 밀짚모자가 아니라 보릿대 모자쥬. 그렇게 되면.}

10314 @ 예, 예. 아: 직접 예저네 그럼 만드러 보시기도 하셔쥬요.{예, 예. 아 직접 예전에 그럼 만들어 보시기도 하쥬어요.}

10314 # 그거슨 머여 저 허덜 못해쥬. 우리는.{그것은 뭐야 저 하지를 못했쥬. 우리는.}

10314 @ 기수리 이써야마니 그건 가능한 일이그마뇨.{기술이 있어야만 그것은 가능한 일이그만요.}

10314 # 머 그러쥬. 어느정도 기수리 이써야제.{뭐 그렇쥬. 어느 정도 기술이 있어야지.}

10315 @ 예: 여기서 반농사 지실때 인제 머 마니 하신거시 인제 머 그 요 요글래 드러서 머 생강이라든지 머 땅콩가튼 거 하쥬쥬만 엔나레는 머 고구마, 머 곤추 애.{예 여기서 밭농사 지으실 때 인제 뭐 많이 하신 것이 인제 뭐 그 요 요 근래 들어서 뭐 생강이라든지 뭐 땅콩 같은 것 하쥬지만 옛날에는 뭐 고구마, 뭐 고추 예.}

10315 # 고구마, 고추, 콩 그 세가지.{고구마, 고추, 콩 그 세가지.}

10315 @ 예:.{예.}

10315 # 그 강냉이 가튼거또 반주위로 쪽허니 심어찌 원 바닥게는 심지를 안해쥬쥬요.{그 강냉이 같은 것도 밭 주위로 쪽 하니 심었지. 원 바닥에는 심지를 안했었어요.}

10315 @ 예: 그러면 예를 드러서 인제 고구마 가튼 경우에는 그 재배 방버비 어터게 되는지?{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제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그 재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10315 # 고구마 재배는 그 싸글 내기 위해서 고구마 종자 조은 거슬 태캐가지고 그 퇴비를 가따가 그 머 밭열 애 여를 내기위해서 퇴비를 가따가 밭테가 노코 그 위에다가 호글 덩고 그 씨감자를 거그 위에다가 머여 바거요. 그러면

그 열에 이해서 그 고구마에서 싹이 납니다. 그 싹을 잘라다가 인자 고구마 받 뚜껑 만드려 고구마 뚜껑 만드려요. 그 위에다 시르면 되죠. 그거슨.{고구마 재배는 그 싹을 내기 위해서 고구마 종자 좋은 것을 택해가지고 그 퇴비를 갖다가 그 뭐 밭열 예 열을 내기 위해서 퇴비를 갖다가 밑에다 놓고 그 위에다가 흙을 덮고 그 씨감자를 거기 위에다가 뭐야 박아요. 그러면 그 열에 의해서 그 고구마에서 싹이 납니다. 그 싹을 잘라다가 인자 고구마 받뚜껑을 만들어 고구마 독을 만드려요. 그 위에다 심으면 되죠. 그것은.}

10315 @ 그러면 그: 그 싹 하나에 고구마가 하나를 하나가 열리는 가요, 아니면 거기서 잔뜩 열리는 가요?{그러면 그 그 싹 하나에 고구마가 하나를 하나가 열리는 가요, 아니면 거기서 잔뜩 열리는 가요?}

10315 # 고구마: 저 순 하나가 그 허며는 대개 세마디 내지 네마디 정도를 잘라가지고 심는데, 마디마다 뿌리가 나오는가, 마디마다 뿌리가 나오면 거기서 그 뿌리가 그 고구마가 달리제, 인제.{고구마 저 순 하나가 그 하면은 대개 세마디 내지 네 마디 정도를 잘라가지고 심는데, 마디마다 뿌리가 나오는가, 마디마다 뿌리가 나오면 거기서 그 뿌리가 그 고구마가 달리, 인제.}

10316 @ 그러면 어르시는 머 저기 과일 가튼거는 재배는 안해보셨나요?{그러면머 어르신은 뭐 저기 과일 같은 것은 재배는 안해보셨나요?}

10316 # 감나무 정도 그 정도제. 여게는 머 판 과일나무가 이쁠 아녀, 대추나무하고 감나무, 밤나무 그 세 가지.{감나무 정도 그 정도지. 여기는 뭐 다른 과일 나무가 있지를 앓아, 대추나무하고 감나무, 밤나무 그 세 가지.}

10316 @ 그럼 혹시 그: 바테다가 머 수박이나 머 참외 가튼거 그런거 해보신저근 업쓰세요?{그럼 혹시 그 밭에다가 뭐 수박이나 뭐 참외 같은 것 그런 것 해보신 적은 업쓰세요?}

10316 # 이근방에 저 하는 사لامي 좀 드뭅니다. 그 바시 조메 널누야마니 수박이나 바그 저 오이 가튼거또 허는데 그러거슨 이 근방에는 그러케 허덜 안해요.{이 근방에 저 하는 사람이 좀 드뭅니다. 그 밭이 조금 넓어야만 수박이나 박으 저 오이 같은 것도 하는데 그런 것은 이 근방에는 그렇게 하지를 앓아요.}

10317 @ 그: 바테다가 농사를 지실 때 보면 인제 쓸모없는 폴드리 마니 나지 안습니까요? 그: 두렁이라든지 바뚜게 애 그런 인제 풀이름 머: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인제 제가 직접 사진 가튼거슬 보여 드려야는데 그런게 업써가지고 마니 나는 그 풀, 바테나는 풀이르미 주로 무언무어시 마니 나는지 아시는데로 좀 말쓰를 해 주시지요?{그 밭에다가 농사를 지으실 때 보면 인제 쓸모없는 풀들이 많이 나지 안습니까요? 그 두렁이라든지 밭독에 예 그런 인제 풀이름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인제 제가 직접 사진 같은 것을 보여드려야

는데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많이 나는 그 풀, 밭에 나는 풀이름이 주로 무엇 무엇이 많이 나는지 아시는 대로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10317 # 바테나는 푸리 바라구 풀, 바라구, 왕골 풀, 담배초리.{밭에 나는 풀이 바랭이 풀, 바랭이, 왕골 풀, 담배초리.}

10317 @ 담배?{담배?}

10317 # 초리.{초리.}

10317 @ 담배초리요?{담배초리요?}

10317 # 예.{예.}

10317 @ 바라구, 왕골, 머 담배초리 보통 이런 거드리 마니 나왔는가요? 아: 그러면 이런거드른 저 해년마다 농사지을때마다 계속 나온다라는 거슨 굉장히 애드리 그: 그 성장이 왕성허그마뇨?{바랭이, 왕골, 뭐 담배초리 보통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가요? 아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저 해년마다 농사지을 때마다 계속 나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애들이 그 그 성장이 왕성하구만요?}

10317 # 왕성허고 그 하여튼 머야 그 완전히 제거를 해도 그 이드매 또 나요. 그 머야 그 씨아시이 다 어디로 날러오는가 어찌는가 머야 완저니 메따고 허고 제초제를 줘가지고 다 주겨도 또 그 이드매 가면 또 푸리 또 나요.{왕성하고 그 하여튼 뭐야 그 완전히 제거를 해도 그 이듬해 또 나요. 그 뭐야 그 씨앗이 다 어디로 날라오는가 어찌는가 뭐야 완전히 땀다고 하고 제초제를 줘가지고 다 죽여도 또 그 이듬해 가면 또 풀이 또 나요.}

### 1.3.3. 가을걷이와 겨우살이

10318 @ 인제 그: 농사를 인제 거의 지꼬서 수확을 하지 안습니까요? 그러면 예저네 그 탈곡해면 그런 방식과 지금 탈곡하는 방법 중에서 그 기구라든지 방법이 마니 달라져쥬? 그러면 예저네 그 그 벼를 베고서 타작할 때 그리고 갈무리 할때까지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인제 그 농사를 인제 거의 짓고서 수확을 하지 안습니까요? 그러면 예전에 그 탈곡했던 그런 방식과 지금 탈곡하는 방법 중에서 그 기구라든지 방법이 많이 달라졌지요? 그러면 예전에 그 그 벼를 베고서 타작할 때 그리고 갈무리할 때까지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10318 # 옛날?{옛날?}

10318 @ 예.{예.}

10318 # 옛날에 벼를 다 베서 그 말리 말리잔녀. 말리는거또 궁게 줄가리가 이꼬, 세벌가리가 이썬요. 음, 줄가리는 제일 처음에 애 나라글 벼가지고 다늘 진다으메 한줄로 쭉허니 논뚝에다가 세우는 거슬 줄가리, 세벌가리는 이사가 어느정도 말려썬, 마르며는 그거슬 그 접츠레 가지고 미뿌분이 여팩로 다: 나오게 세벌가리를 험니다.{옛날에 벼를 다 베서 그 말리 말리잖아요. 말리는 것

도 그러니까 줄가리가 있고, 세벌가리가 있어요. 음, 줄가리는 제일 처음에 예 나락을 베어가지고 단을 진 다음에 한 줄로 쪽 하니 논둑에다가 세우는 것을 줄가리, 세벌가리는 이삭이 어느 정도 말렸은, 마르면 그것을 그 겹으로 쌓아가지고 밀 부분이 옆으로 다 나오게 세벌가리를 합니다.}

10318 # 그래가지고 그거슬 애 운바늘 해서 인제 벼늘을 싼다고 하죠. 벼늘, 벼늘을 싸가지고 거기서 나를 자버서 인제 타작을 허는데 대개 주로 홀테, 혼테를 가지고 그 사라미 일리리 잡아댕겨서 나라글 그 머야 탈곡을 허는데, 타작을 허는데 애: 그거슬 애: 혼자하기가 심들고 머허기 때미네 부락 사라를 삼니다. 또 이운 사람드를 사가지고 그 홀는 양대로 품싸글 주면서 그 애: 나락 타자글 가따가 하고 이썸니다. 또?{그래가지고 그것을 예 운반을 해서 인제 벼가리를 싼다고 하죠. 벼가리, 벼가리를 싼아가지고 거기서 낱을 잡아서 인제 타작을 하는데 대개 주로 홀테, 홀테를 가지고 그 사람이 일일이 잡아당겨서 나락을 그 뭐야 탈곡을 하는데, 타작을 하는데 예 그것을 예 혼자하기가 힘들고 뭐하기 때문에 부락 사람을 삼니다. 또 이웃 사람들을 사가지고 그 홀는 양대로 품샷을 주면서 그 예 나락 타작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10318 @ 근데 요즈믄 과거에는 그래찌만 요즈믄 인제 그: 상당히 마니 바껴져찌 안습니까?{그런데 요즘은 과거에는 그랬지만 요즘은 인제 그 상당히 많이 바뀌지지 않습니까?}

10318 # 요즈메는 타작 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그 �바~이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하여튼 한번 지나가며는 다 타자기 되가지고 나락 벼알이 그냥 다 쏘다져 나오기 때미네 그거슬 머야 그: 옰나레는 논뚜게서 그냥 직접 마 저 말려가지고 완저니 말린 다으메 타작을 헐는데, 지그믄 콤편으로 타자글 해가지고 건조기나 그 머야 그 해뻬때 인자 멍서게 이에 말린 말려요. 건조기로 머야 대개 말리고 이썸.{요즘에는 타작 하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그 콤편이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하여튼 한번 지나가면 다 타작이 되가지고 나락 벼알이 그냥 다 쏘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뭐야 그 옛날에는 논둑에서 그냥 직접 마 저 말려가지고 완전히 마른 다음에 타작을 헐는데, 지금은 콤편으로 타작을 해가지고 건조기나 그 뭐야 그 햇볕에 인자 멍석에 이에 말린 말려요. 건조기로 뭐야 대개 말리고 있썸.}

10318 @ 인자 벼는 그러구요. 그러면 인자 보리와 밀 가따가 수확하고 난 다으메 타자글 해서 갈무리 할 때까지 그 과정도 말쓰믄 좀 해주시쥬?{인자 벼는 그렇고요. 그러면 인자 보리와 밀 갖다가 수확하고 난 다음에 타작을 해서 갈무리 할 때까지 그 과정도 말쓰믄 해주시쥬?}

10318 # 보리와 밀 갈무리는 머슬 가따 얘기허는가요? {보리와 밀 갈무리는 무엇을 갖다가 얘기하는가요?}

10318 @ 그러니까 인제 그 그 벼를 가따가 베고서 타작하고, 인제 그 끈날때까지 과정을 아마 보리나 밀도.{그러니까 인제 그 그 벼를 갖다가 베고서 타작하



고, 인제 그 끝날 때까지 과정을 아마 보리나 밀도.}

10318 # 저네 저네는 머야 보리를 음: 머야 수화글 하는데 다 그거슬 단늘 만드려  
가지고 또 건조를 시킨 다옴에 타자글 허는데, 머야 엔나레는 엔나레는 개산  
길이라고 해썬요. 보리판을 그 절구통 가튼 거 뉘어노코 거그다가 막 꽤가지  
고 떠러지는거또 이꼬 또 홀테로 가따 홀터가지고 애 그거슬 그 이사글 모가  
지로만 떠러지는데, 그거슬 도리채로 바습니다. 바셔가지고 그거슬 정서를 해  
서 인자 수화글 하며는 인자 되요. 밀도 마찬가지로요.{전에 전에는 뭐야 보리  
를 음 뭐야 수화글 하는데 다 그것을 단을 만들어가지고 또 건조를 시킨 다  
옴에 타작을 하는데 뭐야 옛날에는 옛날에는 개상질이라고 했어요. 보릿단을  
그 절구통 같은 것 뉘여 놓고 거기다가 막 꽤가지고 떨어지는 것도 있고 또  
홀테로 갖다 훑어가지고 예 그것을 그 이삭을 모가지로만 떨어지는데, 그것을  
도리깨로 바습니다. 바쉬가지고 그것을 정선을 해서 인자 수화글 하면은 인자  
돼요. 밀도 마찬가지요.}

10318 @ 음, 그러면 콩이나 그런거또 팔 가든거또 그: 수화할 때, 타작할 때 그  
가튼 방법으로 한가요?{음, 그러면 콩이나 그런 것도 팔 같은 것도 그 수화할  
때, 타작할 때 그 같은 방법으로 한가요?}

10318 # 궁게 파시나 콩도 다 다늘 지어서, 다 그거슬 완저니 말려가지고 애 머야  
마당에나 좀 장소가 넓는다다가 노코 도리채로 다 바수요. 바수가지고 다 수  
화글 하게크림 되이쥬.{그러니까 팔이나 콩도 다 단을 지어서, 다 그것을 완  
전히 말려가지고 예 뭐야 마당에나 좀 장소가 넓은 데다가 놓고 도리깨로 다  
바썬요. 바쉬가지고 다 수화글 하게끔 돼있쥬.}

10318 @ 그러면 도리채로 치면 인제 알고기 따로 떠러지고 그럼 껍질도 남쥬네  
요?{그러면 도리깨로 치면 인제 알곡이 따로 떨어지고 그럼 껍질도 남쥬네  
요?}

10318 # 껍질 남쥬.{껍질 남지요.}

10318 @ 아 그러면 그걸 분리를 해야할 꺼 아닙니까? 따로따로.{아 그러면 그것  
을 분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10318 # 그거슬 머 저 완저니 그 머야 처옴에는 갈기로 거더내고, 그 다옴에 사  
래, 사래라고 이썬요. 그 사래가 구멍이 큰데 머야 예지간한 검부른 다 걸리  
고 미트로 다 처져요. 저 사래로 헌 다옴에 풍노라고 이썬요. 풍노. 풍노로 인  
자 정선을 허던지, 그러치 아느면 풍선 머여 풍석찌리라고 그러요. 풍석찢. 풍  
석찌를 해가지고 그 바람을 일으켜서 그거슬 다 날려가지고 어 수화글 하게  
커림 되요. 음.{그것을 뭐 저 완전히 그 뭐야 처음에는 갈기로 걷어내고, 그  
다음에 사래, 사래라고 있어요. 그 사래가 구멍이 큰데 뭐야 어지간한 검불은  
다 걸리고 밀으로 다 처져요. 저 사래로 한 다음에 풍구라고 있어요. 풍구 풍  
구로 인자 정선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풍선 뭐야 풍석질이라고 그래요. 풍  
석질. 풍석질을 해가지고 그 바람을 일으켜서 그것을 다 날려가지고 어 수화

을 하게끔 해요. 음.}

10318 @ 애 제가 그런 쪼개 잘 모르기 때무네 어르시니 말씀하셔도 아하 그러케 할 수도 이께따. 그 정도만 생각이 들지 애 직접 안해보기 때무네 그러니까 질문이 좀 어설풀수도 이씀니다요. 어: 그: 제가 쭉 하기에는 제가 쪼끔 부족한 면이 이기 때무네 나머지 부분드른 좀 나중에 또 보완해서 더 잘하시는 부니 하실 수 이쁜지 아니면 제가 좀더 인제 여쭙봐가지고, 어 나중에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모르는데 자꾸 여쭙보면 어르신은 설명을 잘해주시는데 제가 잘 모르기 때무네 어떤 중간중간에 어떤 과정이라든지 순서 가튼걸 제가 잘 모르기 때무네 자세하게 여쭙보는데도 쪼 한계가 이출꺼 가꾸마뇨. 애 그점 감안하시고요 어: 또 계속해서 그 한가지만 또 여쭙보면 별로 재미가 업찌 안습니까? 그러니까 인제 아: 그 제가 좀더 공부를 좀 한 다음에 여 여쭙보는 거시 나올꺼 가튼 생각이 드는구만요. 일따는 좀 스톱블 하고요.{예 제가 그런 쪽에 잘 모르기 때문에 어르신이 말씀하셔도 아하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 정도만 생각이 들지 예 직접 안 해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문이 좀 어설풀 수도 있습니다요. 어 그 제가 쭉 하기에는 제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좀 나중에 또 보완해서 더 잘하시는 분이 하실 수 있든지 아니면 제가 좀 더 인제 여쭙봐가지고, 어 나중에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모르는데 자꾸 여쭙보면 어르신은 설명을 잘해주시는데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중간중간에 어떤 과정이라든지 순서 같은 것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여쭙보는데도 쪼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점 감안하시고요. 어 또 계속해서 그 한 가지만 또 여쭙보면 별로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제 아 그 제가 좀 더 공부를 좀 한 다음에 여 여쭙보는 것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좀 스톱을 하고요.}

## [이다복 할머니의 삶]

### 1.2. 일생 의례

#### 1.2.1. 제보자의 출생과 성장

10201 @ 태어나서 인제 지금까지 사라오싱거.{태어나서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

10201 # 응, 나 태어나서?{응, 나 태어나서?}

10201 @ 어디서 태어나서썸요?{어디서 태어나셨어요?}

10201 # 나, 거시기 성산.{나, 거시기, 성산}

10201 @ 성산?{성산} 성산리?{성산리}

10201 @ 군산, 옥꾸군? #옥꾸군. @ 옥꾸군 성산면? # 옥꾸군 성산면 고암니 식천뿌락.{군산, 옥구군? 옥구군. 옥구군 성산면? 옥구군 성산면 고암리 식천부락.}

10201 @ 거기서 인제 시집 오실 때까지 다, 계속 사셔따는 거쥬? 어디 안나가시고? {거기서 이제, 시집 오실 때까지 다, 계속 사셨다는 거쥬? 어디 안 나가시고?}

10201 # 그릴찌, 그냥.{그랬지, 그냥.}

10201 # 시지볼때 거그서 살다가 기양 일로 용거지.{시집 올 때 거기서 살다가 그냥 이리로 온 거지.}

10201 @ 그림 거기하고 여기하고 거러서 어느 정도 걸려요?{그러면, 거기하고 여기하고 걸어서 어느 정도 걸려요?}

10201 # 거러서?{걸어서?}

10201 # 이십니?{이십 리.}

10201 @ 아, 이십니정도 돼요? {아, 이십 리 정도 돼요?}

10201 # 이십니 정도 돼. 거러서 이십니. {이십 리 정도 돼. 걸어서 이십 리}

10201 # 그저네는 내가 여그 대, 여그 대야이서 광복싸를 너머서, 광복싸를 너머는 그저, 아살리라는 디가 이썸.{그 전에는 내가 여기 대야에서 광복사를 넘어서, 광복사를 넘으면 그저, 아산리라는 데가 있어.}

10201 # 광복싸 절 뒤루 너무먼, 아살리라는 디가 이꼬, 또 거시커머는 또 방주꾸리라는 디가 이썸.{광복사 절 뒤로 넘으면, 아산리라는 데가 있고, 또 방죽골이라는 데가 있어.}

10201 # 방주꾸 너머서 또 와동이 이썸. 와동씨 인자 저짜그로 너머가머는 게가, 와동씨 저짜그로 너머가면, 아르시능가 모르건네, 최호테기네 지비라구 이꺼든. {방죽골 넘어서 또 와동이 있어. 와동에서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면은 거기가, 와동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면, 아시능가 모르겠네, 최호덕이네 집이라고

있거든.}

10201 # 몰르죠? 아주 오디기, 오디기 옛날부터, 이 강기 걸리면 최오테기네 집  
까라고, 거거 어더머그라고 그러거든.{몰르죠? 아주 호덕이, 호덕이, 옛날부  
터, 감기에 걸리면 최호덕이네 집 가라고, 거기서 얼어먹으라고 그랬거든.}

10201 @ 아, 왜요?{아, 왜요?}

10201 # 원청 부장계, 그게 맨백씩 짜리 지빙계 인저, 그집 부장계.{엄청 부자이니  
까, 그게 몇 백 석짜리 집이니까, 이제 그 집 부자이니까.}

10201 @ 대아들 다 그집꺼여꾼네. {대야들 다 그 집 것이었겠네.}

10201 # 아녀, 이짜그로 거시건는다. {아녀, 이쪽으로 거시기했는데.}

10201 # 암튼 얼마나 부자여썬는가, 최호테기, 최호테기, 나 생기나서부터 최호테  
기 최호테기.{아무튼 얼마나 부자였었는가, 최호덕이, 최호덕이, 나 생겨나서  
부터 최호덕이, 최호덕이.}

10201 # 근디 최호테기 집뒤편히서 가머는 그애가 우리 동네가 나와.{그런데 최호  
덕이 집 뒤로해서 가면 우리 동네가 나와.}

10201 # 궁계 여그서 이십니를 잡꾸 땡기썬썬.{그러니까 여기서 이십 리를 잡고  
다녔었어.}

10201 @ 그러면 인제 아침 머꾸 이러케 오머는 점심 아네 도차카건네.{그러면 이  
제, 아침 먹고 이렇게 오면은 점심 안에 도착하겠네.}

10201 # 글썬. 점심 아네 도차커썬.{그렇썬. 점심 안에 도착하썬.}

10201 # 애기 어꼬, 그리구 인자 가는거야.{아기 업고, 그리고 이제 가는 거야.}

10201 # 그저니는 애기를 걸리구, 어:꼬, 어 친정 갈 때. 애기를 인자 하나 걸리고,  
하나 어:꾸. {그 전에는 아기를 걸리고, 업고, 응, 친정 갈 때 아기를 이제 하  
나 걸리고, 하나 업고.}

10201 # 둘 또 생기나면 또 둘 걸리고, 하나 업꼬,{둘 생겨나면 또 둘 걸리고, 하  
나 업고.}

10201 # 그 친정이 갈라면 그 무덜 다 데꾸 땡긴가 몰라 내가, 지방 생가거면.{그  
친정에 가려면, 그 뭐하러 다 데리고 다녔는가 몰라 내가, 지금 생각하면.}

10201 # 아 새끼들 다 텔꾸 땡겨썬. 큰놈 하나는 띠노코 가면 쓸까니 근디.{아 새  
끼들을 다 데리고 다녔어. 큰놈 하나는 띠놓고 가면 쓸 것 아니야 그런데.}

10201 # 또 애드리 안 떠리질라고 또 우네.{또 아이들이 안 떨어지려고 또 우네.}

10201 # 궁계 인자 오르신네드른 다 디리꾸 가거라, 디리꾸 가라. 그러면 인자 그  
놈 아장아장 걸려서 또, 아이고...{그러니까 이제 어른신네들은 다 데리고 가  
거라, 데리고 가라. 그러면 이제 그놈 아장아장 걸려서 또, 아이고...}

10201 # 이 광복씨가 어, 또 얼마나 지방은 그기또 기리 조은, 날쳐져썬요.{이 광  
복사가 또 얼마나, 지금은 그것도 길이 좋은, 낮혀졌어요.}

10201 # 옛날에는 거:가 기리 노파썬. 그야꼬 거기서 올라갈라면 시미 드러, 이런  
사람도, 근디, 근디 점머썬계 인자 땡견는데, 그 걸로 거러땡겨썬서.{옛날에는

거기가 길이 높았어. 그래 가지고 거기로 올라가려면 힘이 들어, 이런 사람도, 그런데, 그런데 짧았으니까 이제 다녔는데, 그 거기로 걸어다녔었어.}

10201 # 그리자꾸 인자 애기 그러케 둘 혀서 인자 걸리고 업:꼬, 그러고 인자 친정으로 가.{그래 가지고 이제 아기 그렇게 둘 해서 걸리고 업고, 그렇게 이제 친정으로 가.}

10201 # 친정을 가머는 따왈따고 인자 어머니가 그냥 밥, 따순 밥 혀 가지고 줘, 주면 인자 그눔 먹꼬 인자 친정에서 인자 가면 잠만 자지 머.{친정을 가면은 딸 왔다고 이제 어머니가 그냥 밥, 따뜻한 밥 해가지고 줘. 주면 이제 그눔 먹고, 이제 친정에서 이제 가면 잠만 자지 뭐.}

10201 # 시대기서 이 거시혀니까, 왜 친정 가면 잠만 와. 흐니 잠만 오는 거야.{시택에서 이 거시기하니까, 왜 친정 가면 잠만 와. 계속 잠만 오는 거야.}

10201 # 그러구는 인자 시지비서 인자 바느질 못따 형거, 으르신네더 온, 인자 명주웁까튼 거,{그렇게 하고는 이제 시집에서 이제 바느질 못 다 한 것, 으르신네들 옷, 명주옷 같은 거.}

10201 @ 그러케 친정 가서.{그렇게 친정 가서.}

10201 # 그리고 인자 가서는 인자 잠만 자.{그리고 이제 가서는 이제 잠만 자.}

10201 # 으르신네드리 만응게, 우리 하라버지는 꼭 겨으레는 꼭 멍지, 이케 바지저구리다가 텃저구리도 명지로 혀써.{으르신네들이 많으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꼭 겨울에는 꼭 명주, 이렇게 바지저고리에다가 텃저고리도 명주로 했어.}

10201 # 그르케 히고, 두루마기도 멘지 두루마기야. 솜두루마기를 이브시는데, 명지 솜두루매글 그케 이브시머는.{그렇게 하고, 두루마기도 명주 두루마기야. 솜두루마기를 입으시는데, 명주 솜두루마기를 그렇게 입으시면은.}

10201 # 우리 친정 자그매가 바느지를 잘 해써서.{우리 친정 작은엄마가 바느질을 잘 했었어.}

10201 # 그런디 인자, 내가 그눔을 다 싸가지고 가.{그런데 이제, 내가 그것을 다 싸가지고 가.}

10201 # 싸가지고 가면 인자 우리 자그매가 그눔 다 해서 푸지겨서, 다 해서인자, 바느질 다 혀봐.{싸가지고 가면 이제, 우리 작은엄마가 그것을 다 해서 풀질 해서, 다 해서 이제 바느질 다 해 봐.}

10201 # 나 친정으 가서 인자 한 여를씩 이쓰머는 그러면 인자 내가, 나는 잠만 자.{나 친정에 가서 이제 한 열흘씩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내가, 나는 잠만 자.}

10201 # 궁게, 따리니까 인자 너 인저 심드룽게 잠만 자는가보다 생각허겄찌.{그러니까, 딸이니까 이제 너 이제 힘드니까 잠만 자는가보다 생각하겠지.}

10201 # 그리구는 인자 그러케 해서 인자 친정에 이따가서네 인자 와.{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친정에 있다가 이제 와.}

10201 # 와가꾸는, 또 친정으 가서 이케 바느질 히가꼬면 그도 항근 가벼따고, 지

비로 오머는.{와 가지고는, 또 친정에 가서 이렇게 바느질 해 가지고 오면 그  
래도 한결 가볍다고, 집으로 오머은.}

10201 # 그러키서 인자 하라버지 오시 켈로 문제니까. 그러케리서 인자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할아버지 옷이 제일 문제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드리고.}

10201 @ 대개 여흥정도 이써썩요.?{대개 열흥 정도 있었어요?}

10201 # 어, 그러케 인자 이따 오라고 그라, 어머이가, 시어머이가, 그케 이따 오  
라고, 가서 썩따오라고 {응, 그렇게 이제 있다 오라고 그라, 어머니가, 시어머  
니가, 그렇게 있다 오라고, 가서 쉬었다 오라고.}

10201 # 그러케 허먼 가따가 그러케 이따 오고,{그렇게 하면 갔다가 그렇게 있다  
가 오고.}

10201 # 거러케 허다가는 인자, 우리 지비 인자, 저 서항리여썩는데, 그 때만 해도  
우리 아번님 인자 제재소 다니시고, 우리가 인자 농사를 이케 저썩썩요. 농사  
를 전는데, 그놈 가지면 이케 충분히 생화를 허썩썩, 생활 허썩썩네.{그렇게  
하다가는 이제, 우리 집이, 이제, 저 서항리였었는데, 그 때만 해도 우리 아버  
님 이제 제재소 다니시고, 우리가 이제 농사를 이렇게 썩었어요. 농사를 썩는  
데, 그놈 가지면 이렇게 충분히 생활을 했었어. 생활 했었는데.}

10201 # 아드리 새명제에다가 따리 다서시얼꺼던, 근디 누가 이케 돈 버는 사라미  
읍썩. 돈 버는 사람 읍꾸, 아번니미 이케이케 제재소 다니시구 농사 지쿠해가  
꾸 인저 살리믈, 생화를 혈랑게 심들드라구.{아들이 삼형제에다가 딸이 다섯  
이었거든. 그런데 누가 이렇게 돈 버는 사람이 없어. 돈 버는 사람 없고, 아버  
님이 이렇게 이렇게 제재소 다니시고 농사 짓고 해가지고 이제 살림을, 생활  
을 하려니까 힘들더라고.}

10201 # 그리가지구 인자, 나는 애기 인자, 애기 둘, 썩 나쿠, 따루 나와썩. 따루  
나와서 인자 우리 내우가니 사능거야, 막빠리해가꾸 애덜 데리꾸.{그래서 이  
제, 나는 애기 이제, 애기 둘, 셋 낳고, 따로 나왔지. 따로 나와서 이제 우리  
내외간에 사는 거야. 막별이 해가지고 애들 데리고.}

10201 # 인자 그러케히서 살랑게 또 얼마: 또 시미 드러. 또 뭇 고정저긴 생화리,  
저 거시기 읍는데, 그리가지구 인자 그리키 해가꾸, 살다가 인자 중해썩, 중해  
썩까지는 마썩썩. {이제 그렇게 해서 살려고 하니까 또 얼마나 또 힘이 들어.  
또 뭇 고정적인 생활이, 저 거시기 읍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  
고, 살다가 이제 중학교, 중학교까지는 마썩지.}

10201 # 고등해썩를 몬느코.{고등학교를 못 넣고.}

### 1.2.2. 결혼하기까지의 과정

10202 @ 겨론하능거부터 한번.{결혼하는 것부터 한번.}

10202 # 인저 처으메.{이제 처음에.}

10202 @ 어터케 겨호늘 하게 된는지.{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는지.}

10202 # 우리 저 거시기, 우리 실랑네 고모가, 지금 내 시고모지.{우리 저, 거시기 우리 신랑네 고모가, 지금 내 시고모지.}

10202 @ 어르신 바깥 어르는 어디서 사셨쎄요?{어르신 바깥 어른은 어디서 사셨어요?}

10202 # 여 서항니서.{여기, 서학리에서.}

10202 @ 서항니도 옥꾸구니예요?{서학리도 옥구군이예요?}

10202 # 어 여그여 여그 대야, 여그, @ 아 대야면? # 쩌 산월리 저쪽, 그 산월리 서학부락.{어, 여기여 여기, 대야 여기. @ 아 대야면? # 저 산월리 저쪽, 그 산월리 서학부락.}

10202 @ 그리고 여기서 계속 사시고, 다른 데서 이러케 이사.{그리고 여기서 계속 사시고, 다른 데서 이렇게 이사?}

10202 # 앵, 이사 안 와쎄.{응, 이사 안 왔어.}

10203 # 그리가지구는 인자{그래가지고는 이제,}

10203 # 처으메, 그 인자 시고모 아드리 중매를 섰쎄.{처음에, 그 이제 시고모 아들이 중매를 섰어.}

10203 @ 시고모 아들? # 응, 시고모 아드리여. 그렇게 인자 우리 거시기지. 우리 아저씨 내사춘 형이지.{시고모 아들? 응 시고모 아들이여. 그러니까 이제 우리 거시기지. 우리 아저씨 내사춘형이지.}

10203 # 그 양반이로, 우리 친정뽕이서 사러꺼든, 그래가꾸 인자 중매를 섰쎄, 중매를 선는디, 그 양바니 저 조타형게,{그 양반이 우리 친정 동네에서 살았거든, 그래 가지고 이제 중매를 섰어. 중매를 섰는데, 그 양반이 저 좋다고 하니까,}

10203 # 그땐 우리 아버지가 안 계셔쎄쎄. 나 계론힐 때는, 아버지가. 그게 내가 인저 이십, 스무삼사레 계론 혈라고 해쎄는데 아버지가 도라가셔서 게로늘 모더고 인저, 그 때는 삼년 보글 버스야자나, 궁게 인자 보글 버스야 게로늘 헨다고 히가꼬 게로늘 모더고 인자.{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안 계셨어. 나 결혼할 때는 아버지가. 그게 내가 이제 이십, 스무세 살에 결혼 하려고 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결혼을 못하고 이제, 그 때는 삼년 복을 벗어야잖아, 그러니까 이제 복을 벗어야 결혼을 한다고 해가지고 결혼을 못하고, 이제}

10203 # 내가 스물세사레 겨로늘 현는디. 그러케 해서 인자 중매가 드뤄가지고 헨는디, 우리 어머니가 인자 승나글 허시드라고. 나는 그때만 해도 임씨가 침드러본 성이거든{내가 스물세 살에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중매가 들어와 가지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승낙을 하시더라고. 나는 그 때만

해도 임씨가 처음 들어본 성이었거든.}

10203 @ 임씨설쵸요?{임씨셨어요?}

10203 # 처음 드리본 성이라, 허이 임씨도 다 인네, 그러구서니 오르기 올엄니가 저케 승나글 허지? 쌍놈 아인가? 내 생각히쵸. 우리 어머니는 양반 쌍뇌를 경쟁이 거시기하시더라고.{처음 들어본 성이라, 어이 임씨도 다 있네. 그리고 어떻게 우리 엄마가 저렇게 승낙을 하지? 상놈 아인가? 내 생각했어. 우리 어머니는 양반, 상놈을 핑장히 거시기 하시더라고.}

10203 # 쌍노미 아닝가벼, 우리 어머니가 승낙 허시는 거 보니, 내 소그로 짐작하고 이쵸쵸.{상놈이 아닝가봐, 우리 어머니가 승낙하시는 것을 보니, 내 속으로 짐작하고 있었어.}

10203 # 하루 인자, 순 보러 온다고 하시드라고, 여르민디. 근디 순보러 오시는데, 우리 인자, 우리 거시기, 그 중매쟁이가 얘기를 허는거여, 메친날 선보러 온다고, 여르메.{하루 이제, 선보러 온다고 하시더라고, 여름인데. 그런데 선보러 오시는데, 우리 이제, 우리 거시기, 그 중매쟁이가 얘기를 하는 거야. 며칠날 선보러 온다고, 여름에.}

10203 # 그리서 인자 순보러 온다가서 오능가보다 인자 나는 그릴쵸. 그리구 이쵸게 우리 시외할머니, 우리 어머니 친정 어머니지, 시어머니, 시외할머니하고 우리 할머니하고 그러케 오셨더라고 선 보러.{그래서 이제 선 보러 온다고 해서 오는가보다 이제 나는 그랬어. 그리고 있으니까 우리 시외할머니, 우리 어머니 친정어머니지, 시어머니, 시외할머니하고 우리 할머니하고 그렇게 오셨더라고, 선 보러.}

10203 # 그리가지구 오셔서 인자 점시를 허서 디리고, 그리서 인자 점시를 잡수꾸 인자 가쵸쵸. 가쵸는데, 며칠 이쵸게로 열래기 와떠라고, 사주 보낸다고, 사주 보낸다고{그래가지고 오셔서 이제 점심을 해서 드리고, 그래서 이제 점심을 잡숫고 이제 가쵸어. 가쵸는데, 며칠 있으니까 연락이 왔더라고. 사주 보낸다고, 사주 보낸다고.}

10203 @ 사주를 보낸다는 얘기는 허라글 다 해따는 거쵸? # 어, 영, {사주를 보낸다는 얘기를 허락을 다 했다는 거쵸? # 응.}

10203 # 그러면서 신랑 선보러 그 아니 오라고, 신랑 선보러 오라고 그러면서 인자, 거시기더라고, 궁게 인자.{그러면서 신랑 선 보러 그 안에 오라고, 신랑 선보러 오라고 그러면서 이제, 거시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10203 # 우리 자그나버지가 서늘 봐쵸, 우리 신랑이, 서늘, 그리더니, 팬찬타고 그러거시더라고, 그리서 그양, 허자고 그러더라고, 인자 형수보고, 우리 어머니 보고,{우리 작은아버지가 선을 봤어. 우리 신랑이, 선을. 그리더니 팬찮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하자고 그러더라고, 이제 형수보고, 우리 어머니보고,}

10203 # 근디 인저 우리 어머니가 싱낙허셔가꾸 허는데, 만쵸보자 쏘리는 안혀,



맡쨌본다 쓰리는 안혀, 근디 네 소그로 쪽 궁금허더라고, 남자가 어터케 생긴 나 쇼고 궁금헌디, 또 내가 나설쭈가 인나.{그런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승낙 하셔가지고 하는데, 맞선보자는 소리는 안해, 맞선본다 소리는 안해. 그런데 네 속으로 조금 궁금하더라고, 남자가 어떻게 생겼나 속으로 궁금한데, 또 내가 나설 수가 있나.}

10203 # 하 으르니 허시는 대로 암마또 안코 그양 따러만 줘쭈. 그리떠니 사주가 와떠라구. 사주가 완논디, 뭘시 완냐허며는, 거시기가 와쭈, 비로도에다가 양 단저구리가 와쭈. 그 때는 그게 유행이어쭈쭈, 비로도 양단이.{하, 어른이 하시는 대로 아무 말도 앓고 그냥 따라만 쫓지. 그랬더니 사주가 왔더라고. 사주가 왔는데, 무엇이 왔냐 하면은, 거시기가 왔어. 비로도에다가 양단 저고리가 왔어. 그 때는 그게 유행이었었어. 비로도 양단이.}

10203 @ 사주를 보내면서, 그, 그거또, 가치, 그런 물건도 가치 보내는 거예요? 사주라는 거 원래 생년월일 이런거, 며칠 며칠썩 며씨에 나따 이거 정는거 아닌가요?{사주를 보내면서, 그, 그것도 같이, 그런 물건도 같이 보내는 거예요? 사주라는 것이 원래 생년월일 이런것, 몇 월 며칠 생, 몇 시에 낳았다, 이거 적는 것이 아닌가요?}

10203 # 그거, 그거 허구, 인자 오단버를 이케 늘치, 응, 늘치. 그러케 해가꾸서 인자 가좌뜨라구. 그리서 인자.{그거, 그것 하고, 이제 옷 한 벌을 이렇게 넣지. 응, 넣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10203 @ 비로도가 와쭈 때 바다본 기부니 어떠셔쭈요. # 어, 비로도가 그 때 비로도 치마 향가메 삼, 삼 마뉘, 삼마뉘닌가, 삼쳐뉘닌가, 삼쳐뉘닌가봐.{비로드가 왔을 때 받아본 기분이 어떠셨어요? 어, 비로드가 그 때 비로도 치마 한 갑에 삼, 삼만 원, 삼만 원인가 삼천 원인가. 삼천 원인가봐.}

10203 @ 굉장히 비싸쨌네요.{굉장히 비쌌었네요.}

10203 # 경장히 비싸쭈요, 그 때는. 게 그게 삼쳐뉘니어쨌능가베, 아마 그 때 비로도.{굉장히 비쌌어요, 그 때는. 그게 삼천 원이었었는가봐, 아마 그때 비로도.}

10203 # 그리가꾸 양단 저구리헐꺼 가좌뜨라구. 그리서 인자 사주 바더노코, 인자, 나중에 겨로늘 허기루 약쏘글 히쭈. 근디 생전 실랑이 안 나타나는거야. 생전 실랑이 안 나타나는 거야.{그래 가지고 양단 저고리 할 것을 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사주 받아놓고, 이제 , 나중에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 그런데 생전 신랑이 안 나타나는 거야. 생전 신랑이 안 나타나는 거야.}

10203 # 실랑이 안 나타나서, 내 소그로 막 항상 인저 궁금히쭈. 도대체 실랑이 어터케 생긴 사라민디 도데쳐, 그도 모기라도 한버니라도 와서 본다고 헐 파닌디. 그러케 거시거능가 소그로 그리꺼든. 그랜논디.{신랑이 안 나타나서, 내 속으로 막 항상 이제 궁금해했어. 도대체 신랑이 어떻게 생긴 사람인데 도대체, 그래도 목이라도 한번이라도 와서 본다고 할 참인데. 그렇게 거시기하

는가 속으로 그랬거든. 그랬는데.}

10203 # 그 시방 생각거면 내가 실랑보다 내가 좀, 바랜는가봐, 좀 까전는가봐. 그런 생각 허는거 허면, 우리 실랑보다 내가 좀 까전는가봐. 그리서인자.{그, 지금 생각하면 내가 신랑보다 내가 좀 바랐는가봐. 좀 까졌는가봐. 그런 생각하는 것을 보면 우리 신랑보다 내가 좀 까졌는가봐. 그래서 이제.}

10203 # 그러구서 인자 게론 날짜를 딱 바더써. 게론 날짜를 바다가꾸 인자 게론 시글 허는디, 남자가 저기허더라구, 시방 거시거면, 저기야, 찌프차야, 찌프차, 찌프차 이 네모징거 이짜나, 그 찌프차를 타고 오고, 저 거시기를 또 가파써. 뭘시냐, 일력꾸. 어-, 일력꾸를 가파써.{그렇게 하고서 이제 결혼 날짜를 딱 받았어. 결혼 날짜를 받아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남자가 저기 하더라고, 지금으로 치면 지프차야, 지프차. 지프차 이 네모진 거 있잖아. 그 지프차를 타고 오고, 저 거시기를 가지고 왔어. 뭇이나, 인력거, 응, 인력거를 가지고 왔어.}

10203 # 일력꾸를 가판는디, 들머는 이거 일력꾸를 뭇더러 가판는가 몰르거써. 거 차에다 다 못타게 일력꾸를 가판나. 시방 생각거면 그거또 궁금허데. 그때 무려나 보꺼신디.{인력거를 가지고 왔는데, 생각이 들머는 이거 인력거를 뭇더러 가지고 왔는가 모르겠어. 거 차에다 다 못 타니까 인력거를 가지고 왔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궁금하데. 그때 물어나 볼 것인데.}

10203 # 그래가꾸인자 게론시글 혀짜나. 게론시글 현는디{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했잖아. 결혼식을 했는데}

10203 @ 그러면 겨론식 하러 실랑이 올 때 가마타고 옹게 아니라 차를 타고 와써?{그러면 결혼식 하러 신랑이 올 때 가마 타고 온 것이 아니라 차를 타고 왔어?}

10203 # 궁게 찌차를 타고 와써. 찌차를 타고 와가꾸서 저기 힌는디.{그러니까 지프차를 타고 왔어. 지프차를 타고 와가지고서 저기 했는데.}

10203 @ 그러면 결국 겨론싱날 처음 얼굴을 봉거네? {그러면 결국 결혼식날 처음 얼굴을 본 거네?}

10203 # 그글치. 게론싱날도 바메, 바메도, 그때는 옴나레 천날빼미라고 해서 인자 막, 뒤에서 사람드리 다 옴든는다고 막, 거시거자나, 문꾸넉 똥꾸 막 그러자나. 근디 실랑 얼굴을 못 쳐다보겠써 내가. 왜 이케 또 내가 궁금헐는디 실랑 얼굴을 못쳐다보겠써. 근디 인자.{그렇지. 결혼식날도 밤에, 밤에도. 그때는 옛날에 첫날밤이라고 해서 이제 막, 뒤에서 사람들이 옴든는다고 막, 거시기 하잖아, 문구멍 뚫고 막 그러잖아. 그런데 신랑 얼굴을 못 쳐다보겠써. 왜 그렇게 또, 내가 궁금해 했는데, 신랑 얼굴을 못 쳐다보겠써. 그런데 이제}

10203 # 상을 하나 이케 가따놔뜨라구. 뭇 수러구 뭇 과이러구 가따 놔뜨라구. 근디 나를 수를 한잔 주는디, 실랑이 수를 한잔 주는디, 내가 그 수를 한 모그민가 마시고 기양 놔써써. 노코는 나중이 내가 인자 실랑 술 한잔 줘써. 그때

니 자기는 다 먹더라구.{상을 하나 이렇게 가져다 왔더라고. 뭐 술하고 뭐 과일하고 갖다 왔더라고. 그런데 나를 술을 한 잔 주는데, 신랑이 술을 한 잔 주는데, 내가 그 술을 한 모금인가 마시고 그냥 왔었어. 놓고는 나중에 내가 이제 신랑 술 한 잔 줬지. 그랬더니 자기는 다 먹더라고.}

10203 # 다 먹꼬서 인자, 막 뒤서 주저주저 허닝까 실랑이, 아 그 문꾸넉 뚜르먼 어찌 내서 두지, 막 그거 지키는거야. 문꾸르 돌릉거 그런건만 지키는거야. 아 이고 참 극성시런네, 내 소그로. 참 극성시런네. 그러구서 인자.{다 먹고서 이제, 막 뒤에서 주절주절 하니까 신랑이, 아 그 문구멍 뚫으면 어때 내쳐 두지, 막 그것을 지키는 거야. 문구멍 뚫는 거 그런 것만 지키는 거야. 아이고 참 극성스럽네, 내 속으로. 참 극성스럽네. 그러구서 이제.}

10203 # 나는 그양 가마니 안자씨씨. 안자떠니 나중에 인자 저기 히찌, 시간 데가 꾸 인자. 궁게 내가 술 한잔 주고, 내가 자기한테 술 한 잔 바더 머건는디 나는 한 모그민가 마시고 그양 마러씨씨.{나는 그냥 가만이 앉아 있었어. 앉았더니 나중에 이제 저기 했지. 시간 되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내가 술 한 잔 주고, 내가 자기한테 술 한 잔 받아먹었는데 나는 한 모금인가 마시고 그냥 말았었어.}

10203 # 말고는 인자, 나중에 인자 원삼 벅꼬, 그때도 원삼 쪽뚜리여씨씨. 거놈 벅꼬서 기양 인자, 자씨. 인자 내우가니 자씨.{말고는 이제, 나중에 이제 원삼 벗고, 그때로 원삼 족두리였었어. 그놈 벗고서 그냥 이제 잤어.}

10203 # 내우가니 자는디 내가 실랑 얼굴을 똑빠루 몬치다봐씨씨. 몬치다보고 온제 치다봐냐머는 새밀날, 어, 친정으 가면서 그때 내가 실랑 얼굴 치다봉거야. {내외간에 자는데 내가 신랑 얼굴을 똑바로 몬 쳐다봤었어. 못 쳐다보고 언제 쳐다봤냐면은 삼일 날, 어, 친정에 가면서 그때 내가 신랑 얼굴 쳐다본 거야.}

10203 @ 그때 실랑 딱 보닝까 느끼미 어떠씨요? # 마메 안 드러.{그때 신랑 딱 보니까 느낌이 어떠셨어요? # 마음에 안 들어.}

10203 # 난두 안 이쁘디, 실랑이 이쁜 거슨 그만두고 쯔 생화려기 업게 생긴뜨라구, 신랑이. 그 내가 딱 보닝까 그게 느껴지더라구, 그래 가지고 지비로,{나도 안 예쁜데, 신랑이 예쁜 것은 그만 두고 쯔 생활력이 없게 생겼더라고, 신랑이. 그 내가 딱 보니까 그게 느껴지더라고. 그래 가지고 집으로,}

10203 @ 그러면 인제 겨론시근 원삼쪽뚜리 입꼬 전통저그로 하고 .{그러면 이제 결혼식은 원삼족두리 입고 전통적으로 하고.}

10203 # 원삼쪽뚜리 입꼬 옛날 겨론시근 인자 현찌.{원삼 족두리 입고 옛날 결혼식은 이제 했지.}

10203 @ 그러면 인제 친정찌베서 사밀 이따가.{그러면 이제 친정집에서 삼 일 있다가.}

10203 # 아녀, 사밀, 바루 와찌.{아니야, 삼 일, 바로 왔지.}

10203 @ 하루뻘 자고? {하룻밤 자고?}

- 10203 # 아니 하루빔 안 자써, 친정지비서. 계론식 하고 바루 와써, 이쪼그로.{아니 하룻밤 안 잤어, 친정집에서. 결혼식 하고 바로 왔어, 이쪽으로.}
- 10203 # 요기루 바루 와가꾸 여기서 인자 천날빔 자고, 인자 새밀날 친정에서 데릴러 오잔나, 거시기를. 저 그 근치니냐 뭐냐, {여기로 바로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첫날밤 자고, 이제 삼일날 친정에서 데릴러 오잖아, 거시기를. 저 그 근친이냐 뭐냐.}
- 10203 # 우리 사촌오빠가 텔러 와떠라구 새밀날. 그리가꾸서인자 새밀날 내가 친정으로 가쪼.{우리 사촌오빠가 데릴러 왔더라고, 삼일날. 그래가지고 이제 삼일날 내가 친정으로 갔지.}
- 10203 # 가가꾸 인자 그날 쪼녀기는 또 실랑 다리멍는다고 친정동네서 또 날리자나, 신랑 다리멍는다고.{가갔고 이제 그날 저녁에는 또 신랑 달아 먹는다고 친정동네서 또 난리잖아, 신랑 달아먹는다고.}
- 10203 # 그러고 막 실랑 다리 거투미고 막 목침인가 멀로 막 때리고, 그리다봉게 우리 엄니가 때리지 말라구 막, 내가 거시기 수리랑 널팅게 때리지 말라고, 그리가꾸서.{그렇게 하고 막 신랑 다리 거투 메고 막 목침인가 뭇로 막 때리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때리지 말라고, 막, 내가 거시기 술이랑 널 터이니 때리지 말라고, 그래갖고.}
- 10203 @ 그러면 인제 친정에서 이러케 그 훌레식 하고 시대게 와서, 그러면 시대게, 시대그로 갈 때도 쪼차 타고 가서쪼네, 그럼.{그러면 이제 친정에서 이러케 그 훌레식 하고, 시택에 와서, 그러면 시택에, 시택으로 갈 때도 지프차 타고 가쪼쪼네, 그럼.}
- 10203 # 그리쪼 쪼차 타구 와쪼. 나 차타고 와쪼. 그 나는 가매는 안 타 봐쪼.{그렇지. 지프차 타고 왔지. 나 차 타고 왔지. 그래서 나는 가마는 안 타 봤어.}
- 10203 @ 그러쪼쪼네.{그러쪼쪼네.}
- 10203 # 가매 타고 시편는디, 가매를 안 타쪼. 그 쪼차가 와떠라고. 그리가꾸서네 궁게 인자 그 따러온 사람드른, 몰르거쪼 거러완는가 해튼 어쪼는가 몰라, 여러시 와쪼는디.{가마 타고 싶었는데, 가마를 안 탔어. 그 지프차가 왔더라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제 그 따러온 사람들은, 모르겠어 걸어왔는가 하여튼 어쪼는가 몰라, 여럿이 왔었는데.}
- 10203 @ 그러면 쪼나레 그러케 쪼차 타고 오는 그런게 혼하지는 아나쪼꺼 아네요?{그러면 옛날에 그렇게 지프차 타고 오는 그런 것이 혼하지는 았았을 것 아네요?}
- 10203 # 안 흐내쪼. 그 그저니, 그때도 일력꾸가 이꼬, 저 가매가 이쪼쪼. 근디 그 쪼차를 가파떠라구. 그리가지고 인자, 그리가꾸. {안 혼했어. 그 그전에, 그때도 인력거가 있고, 저 가마가 있었어. 그런데 그 지프차를 가지고 왔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래갖고.}
- 10203 @ 그리고 인제 가따가 와서 인제 그날 실랑 얼구를 봐따구요?{그리고 이제

갔다가 와서 이제 그날 신랑 얼굴을 봤다구요?}

10203 # 그날 인자 실랑 얼굴을 봐쥬. 근데 생화려기 업게 생겨쥬 내가 딱 보니까. 내가 쭈 뭉쭈 알긴 아려능가봐. {그날 이제 신랑 얼굴을 봤지. 그런데 생활력이 없게 생겼어, 내가 딱 보니까. 내가 좀 뭉 좀 알긴 알았는가봐.}

10203 # 그리떠니 아잉게 아니라 사르면서 봉게 생화려기 업는거야, 남자가. 생화려기 업쥬가꼬 우리 실랑은 참, 이러케 애드른, 벌쥬 애드리 세шина 생겨나고 허머는 참 누니 깜빡 떠질 때가 아녀? 근디 그게 아냐. {그랬더니 아닝게 아니라 살면서 보니까 생활력이 업는 거야, 남자가. 생활력이 업어갓고 우리 신랑은 참, 이렇게 애들은, 벌쥬 애들이 셋이나 생겨나고 하면은 참 눈이 깜빡 떠질 때가 아녀? 그런데 그게 아냐.}

10203 # 그게 아이니까 내가 참 폭포거더라고. 으르신네 미티서 다 살란디, 으른들 눈치만 보이지 어쥬. 내 식구가 벌쥬 메시여, 쉐 넌, 다쉴 썩꾸자나.{그게 아니니까 내가 참 답답하더라고. 으르신네 밑에서 다 사는데, 으른들 눈치만 보이지 어쥬. 내 식구가 벌쥬 몇이여, 셋, 넷, 다섯 식구잖아.}

10203 # 다쉴 썩꾸나 되는데 워티까. 나중이는 인자 살다가 나가쥬. 우리 두리 따로 살리믈 허쥬. 애기 쉐나코.{다섯 식구나 되는데 어떡해. 나중에는 이제 살다가 나갔어. 우리 둘이 따로 살림을 했어. 아기 셋 낳고.}

10204 @ 그러면 거론 인제 호닌하고 그럴 때 이케 예무리라고 그래야되나 요즘말로 하면?{그러면 결혼, 이제 혼인하고 그럴 때 이렇게 예물이라고 그래야 되나, 요즘말로 하면?}

10204 # 함.{함.}

10204 @ 함? 그러면 뭉, 옐나레 뭉가 드려이쥬쥬.{함? 그러면 뭉, 옐날에 뭉가 들어 있었어?}

10204 # 거기 뭉가 드려냐며는 인자, 인자 그거는 다 즈그 마미야. 응 인자 명지가튼거또 인자 한필 는는 사람 이꼬. 모시도 는는 사람 이꼬. 난 저기 해뜨만. 모시 느쿠, 저 오단벌 허서 느꼬, 유통허고 그 저 거시기. 오단벌 허서 느쿠. 그리케 해서 가파떠만. 반지 하나 느쿠 그리뜨만.{기에 뭉가 들었느냐면 이제, 이제 그것은 다 자기 맘이야. 응, 이제 명주 같은 것도 이제 한 필 넣는 사람 있고. 모시도 넣는 사람 있고. 난 저기 했더만. 모시 넣고, 저 옷 한 벌 해서 넣고. 유통하고 그 저 거시기. 옷 한 벌 해서 넣고. 그렇게 해서 갓고왔더만. 반지 하나 넣고 그랬더만.}

10204 @ 이진 인제 실랑 썩비서 신부한테 해 주는거쥬?{이진 이제 신랑 집에서 신부한테 해 주는 거쥬?}

10204 # 실랑썩비서 허온 거여. 궁게 나는 인저 그 때 저 거시기서 관대보끄믈 해주야거든. 관대보끄미 뭉냐면 남자 인자 양보글 한벌 허주는거야.{신랑집에서 해온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때 저 거시기서 관대복을 해주어야 하거든.}

관대복이 뭐냐면 남자 이제 약복을 한 벌 해주는 거야.}

10204 # 그때 인자 관대보끄미 그때 인자 유행히써거든.{그때 이제 관대복이 그때 이제 유행했었거든.}

10204 # 근디 우리 친정이 그때 살리미 경정미 이게 쫘딱 헐때야. 그러니까 우리 친정에서 그거슬 모대써. 그러니까 시집 오니까 시지비서 은그니 나를 거시기 드만.{그런데 우리 친정이 그 때 살림이 굉장히 이렇게 쫘딱 할 때야. 그러니까 우리 친정에서 그것을 못 했어. 그러니까 시집오니까 시집에서 은근히 나를 거시기하더만.}

10204 # 궁게 아녀. 얼구리 다 보이더라구. 그리두, 어트게 산다는 지비라고 게로 늘 현는데 그케 인자 아무꺼또 안허니까. 그러구 인자 이불 양금, 이불 양그믐 이불 두 채. 그케 이불 양그미여.{그러니까 아녀. 얼굴이 다 보이더라구. 그래도 어떻게 산다는 집이라고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아무것도 안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불 양금, 이불 양금은 이불 두 채. 그케 이불 양금이야.}

10204 @ 그거를 그 시어른꺼뚜 해야되는거죠?{그것을 그 시어른 것도 해야되는 거죠?}

10204 # 어, 시어른꺼뚜 히야허는데 그때는 인저 시어른꺼 허는 사라믐 허고 안는 사라믐 안했는데, 나는 인저 우리 시으른 꺼슨 온만 허써써. 온만 허구서는, 그거슨 안코, 그러구서 인자 내 이불만 두 채 허고. 그러케허고 인자 남자 관대보끄를 안해줘써. 그리떠니 그케 은그니 표육씨가 나드라고.{어, 시어른 것도 해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시어른 것 하는 사람은 하고 안하는 사람은 안했는데, 나는 이제 우리 시어른 것은 옷만 했었어. 옷만 하고서는, 그것은 앓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내 이불만 두 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남자 관대복을 안 해줬어. 그랬더니 그케 은근히 표시가 나더라고.}

10204 @ 뭐 베개, 뭐 이런 거뜰두 다 하구 그래써써요? {뭐 베개, 뭐 이런 것들도 다 하고 그랬었어요?}

10204 # 으르신네덜? {어르신네들?}

10204 # 으르신네덜 비개 가튼 건 안 해써.{어르신네들 베개 같은 건 안했어.}

10204 @ 양금 아네 인제 가치 하는 걸로?{양금 안에 이제 같이 하는 것으로?}

10204 # 응, 인자 거시기 히찌. 인자 신도 인자 저기 히찌. 신부가 인자 놓을 할 때 이불 양그믐을 헐다쏘리가 이부를 한채를 안코 두 채를 허능게 이불 양그미여.{응, 이제 거시기 했지. 이제 신도, 이제 저기 했지. 신부가 이제 놓을 할 때, 이불 양금을 한다는 소리가 이불을 한 채를 앓고 두 채를 하는 것이 이불 양금이야.}

10204 # 이불 양그미다가 논때야. 논때야이다가 요강. 그케 이불 양그미야. 이불 양그미 그케 이불 양그미야.{이불 양금에다가 돛대야 돛대야에다가 요강. 그케 이불 양금이야. 이불 양금이 그케 이불 그케 이불 양금이야.}

10204 @ 지금 말로 하면 세트구만.{지금 말로 하면 세트구만.}

- 10204 # 그러케 이불 양그미고, 뭐 관대보끄른 남자 오단벌 해 주는거.{그렇게 이불 양금이고, 뭐 관대복은 남자 옷 한 벌 해 주는 거.}
- 10204 @ 양보그로? 한보그로?{양복으로, 한복으로?}
- 10204 # 인저 양보그로 허지. 양보그로 인자 코트까지 허능게 그제 관대보끔이여. 남자 오단벌 싹 해서 빼는 게.{이제 양복으로 하지. 양복으로 이제 코트까지 하는게 그제 관대복이여. 남자 옷 한 벌 싹 해서 빼는 게.}
- 10204 # 근디 내 그거슬 안히따고. 우리가, 행퍼니 못뻬써써, 우리 아버지 도라가 시고 또 살림도 막 그르케 거시헌채미 그리서 그거슬 모대써써. 그때 그제 은 그니 누니 보이더라고.{그런데 내 그것을 안했다고, 우리가. 형편이 못 됐었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살림도 막 그렇게 거시기한 참이라. 그래서 그것을 못 했었어. 그런데 그것이 은근히 눈치가 보이더라고.}
- 10205 @ 시집을 딱 오니까 시댁 식꾸드른, 누구누구가 이씨씨요?{시집을 딱 오니까 시댁 식구들은 누구누구가 있었어요?}
- 10205 # 다 누구누구 인냐면, 시할매 시하라부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 다셋. 시아재하고 우리 영감허고 히서 아들 새명제. 그렇게 식꾸가 열씨식꾸지.{다 누구누구 있냐면,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 다섯. 시아재하고 우리 영감하고 해서 아들 삼 형제. 그러니까 식꾸가 열세 식꾸지.}
- 10205 @ 시부모, 시조부모, 시부모, 그 다메 시아재?{시부모, 시조부모, 시부모, 그 다음에 시아재?}
- 10205 # 시아재에다 우리 남편니다 형제, 식꾸가 나까지 허서 아마 열씨 식꾼가 베. 그쵸? 열씨 식구 만쵸?{시아재에다 우리 남편에다 하니까 식꾸가 나까지 해서 아마 열세 식구인가봐. 그렇쵸? 열세 식구 맞쵸?}
- 10205 # 그렇게 아치미는 밥또 헐라면 시간도 오래 걸려. 궁계 삼시때 밥 히먹꼬 빨래 해서 푸지허서 바느질 히서, 그제가 이리어씨, 나는. 오로지 그제만 이리어씨. 땅거 언제 되도라보고 온제 헐 시간도 우꼬. {그러니까 아침이면 밥도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려. 그러니까 삼시때 밥 해 먹고, 빨래 해서 풀질 해서 바느질 해서, 그것이 일이었어, 나는. 오로지 그것만 일이었었지. 다른 거 언제 되돌아보고 언제 할 시간도 없고.}
- 10205 # 그러고 아침밥 머그먼 또 청소해야지. 압뽀로 땡김서 다 청소 다 히야지. 지븐 또 켜써. {그리고 아침밥 먹으면 또 청소해야지. 앞뒤로 다니면서 다 청소 다 해야지. 집은 또 컸어.}

#### 1.2.4.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

- 10211 @ 그러면 이케 인제 그 뭐랄까, 지금 애길허면 신혼살림 차리는 그런 방은

따로 저든거요? 아니면 이쁜 방 그냥 써든거요?{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뭐랄까, 지금 얘기로 하면 신혼살림 차리는 그런 방은 따로 지었던 거예요? 아니면 있던 방 그냥 썼던 거예요?}

10211 # 신혼살림? 이쁜 방이지.{신혼살림? 있던 방이지.}

10211 # 이러케 하라버지 방이 아래, 우리방이 이러케, 내방이, 이게 위아래뽕이여, 궁게 저 문턱 하나 싸이지. 그러구인자 우리 시어머니 방은 이쪽 여페루 이씨. 여페루 인자 이케 위아래가 이씨씨, 우리 어머니 방은.{이렇게 할아버지 방이 아래, 우리방이 이렇게, 내 방이, 이게 위아래방이지, 그러니까 저 문턱 하나 사이지. 그리고 이제 우리 시어머니 방은 옆으로 있어. 옆으로 이제 이렇게 위아래가 있었어, 우리 어머니 방은.}

10211 # 그러면 인자 시아재는 여그서 자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아래서 자고, 그러케 하고 인자 시누드른 이케 가치 자구. 다 그르케 해서 자씨씨.{그러면 이제 시아재는 여기서 자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아래서 자고, 그렇게 하고 이제 시누들은 이렇게 같이 자고. 다 그렇게 해서 잤었어.}

10211 # 그러구 인자 할머니 하라버지 방에서 인자 저 시누들뚜 자고 그리드라고. 그러케들, 여하튼 식꾸드리 그러케 자씨. 그러케 하구, 여러 식꾸가 사리씨. {그리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방에서 이제 저 시누들도 자고 그러더라고. 그렇게들, 하여튼 식구들이 그렇게 잤어. 그렇게 하고, 여러 식구가 살았어.}

10211 # 궁게 언제 나는 뭐 바누질또 바매 꼭 그때는 한보글 다 이브시자나. 궁게 인자 우리 아버니른 그케 한복 어케 이브시든 안히씨. 나가셔서 인저 일하시니까. 근디 우리 할머니 하라버지여고 우리 어머니는 한보글 다 이브시자나. {그러니까 언제 나는 뭐, 바누질도 밤에, 꼭 그 때는 한복을 다 입으시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님은 그렇게 한복을 그렇게 입으시지는 안 했어. 나가셔서 이제 일하시니까. 그런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는 한복을 다 입으시잖아.}

10211 # 궁게로 인자 빠러가지고 푸지혀서 온 꼬매고 밥 해먹기가 이리어씨. 땅거 아무꺼뚜 무더.{그러니까 이제 빨아가지고 풀 먹여서 옷 꿰매고 밥 해 먹기가 일이었어. 다른 거 아무것도 못 해.}

10211 @ 새벽까치 이리나셔서?{새벽같이 일어나셔서?}

10211 # 이래야혀. 아치미두 익찍 이리나야돼. 그케 이리나서 히야고. 하튼 어트게 사려능가 나는 모르거씨. 시방 생가거면 어트게 사려나완나 시퍼. 그런 생개기 드러.{일해야 해.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야 돼. 그렇게 일어나서 해야하고. 하여튼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모르겠어.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나왔나 싶어. 그런 생각이 들어.}

10211 # 그보다두 인자 나더러 참 까마득허다겨, 어터게 사런냐고들 히씨.{그보다도 이제 나에게 참 까마득하다고 해. 어떻게 살았느냐고들 했어.}

10211 @ 다들 그러케, 그러쥬? 어터게 사런는가들{다들 그렇게. 그렇쥬? 어떻게



살았는가들.}

10211 # 그러케 세상을 나는 사러써. 그러다보니께 인자 이러케 늑꼬. 내가 인자 갈 때가 도냐나. {그러케 세상을 나는 살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늑고. 내가 인자 갈 때가 됐나.}

### 1.2.3. 전통 혼례식

10207 @ 그 옛날엔 전통, 이르게 옛날, 그 옛날시그로 혼례시글 할 때, 대개 어떤 거뜨를 준비를 하고 그래써써요? 준비할 때. {그 옛날엔 전통, 이렇게 옛날, 그 옛날식으로 혼례식을 할 때, 대개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하고 그랬었어요? 준비할 때?}

10207 # 과일, 밤. {과일, 밤.}

10207 @ 그 상을 이르게 차릴 때, 그 상보고 # 상이 커. @ 응, 무슨 상이라구 해 써써요? {그 상을 이렇게 차릴 때, 그 상보고 # 상이 커 @ 응, 무슨 상이라고 했었어요?}

10207 # 그게 그 상보고? {그게 그 상보고?}

10207 # 흘레, 흘레? {혼례, 혼례?}

10207 # 흘레쌍이라고 형거 까트네. {혼례쌍이라고 한 거 같으네.}

10207 @ 따루 이케 불룽거 가저는 안쿠요? {따로 이렇게 부른 것 같지는 않구요?}

10207 # 나 모르건네. 아니 이써쓸턴디 내가 모르건네. {나 모르겠네. 아니 있었을 텐데 내가 모르겠네.}

10207 @ 사이 이케 노파써써요? # 노판찌. {상이 이렇게 높았었어요? # 높았지.}

10207 # 이케 외트르머는 옛날 제사쌍 이짜너, 다리 달리는 거. 그런 상이야. 상을 그런 상이다 허노코. {이렇게 외틀면 옛날 제사상 있잖아, 다리 달린 거. 그런 상이야. 상을 그런 상에다 해 놓고.}

10207 @ 그런 상이 인저 머 올라가써써. {그런 상에 이제 뭐 올라갔었어요?}

10207 # 닥또 올라가고. 거그 인자 거시기 쌀도 이꼬, 짜레다 인저 대나무 꼬자노 차나. {답도 올라가고. 거기에 이제 거시기 쌀도 있고, 쌀에다 이제 대나무 꽃 아놓잖아.}

10207 @ 어, 왜 꼬자논는 거예요? {어, 왜 꽃아놓는 거예요?}

10207 # 궁게 물러, 그것또, 응 그리가꾸 거그다 청실온질 걸자너. 청실홍실, 응. 걸고, 대추, 인자 밤, 그런거 다 노코, 어 그러케 노코 인자 예를 지내지. {그러니까 몰라, 그것도. 응 그래갖고 거기에다 청실홍실 걸잖아. 청실홍실, 응. 걸고, 대추 이제 밤, 그런 거 다 놓고. 어, 그렇게 놓고 이제 예를 지내지.}

10207 @ 그럼, 그러머는 그거슨 인제 그 혼례시글 이케 주관하는 사라마 이써써요? {그럼, 그러머는 그것은 이제 그 혼례식을 이렇게 주관하는 사람이 있었어}

요?}

10207 # 인자 거시기허지, 실랑 입짱, 신부 입짱, 허는 사라미 이찌.{인자 거시기 하지, 신랑 입장, 신부 입장, 하는 사람이 있지.}

10207 @ 그 사라문 누가 하셔써썬요? 어르신 할 때는?{그 사람은 누가 하셨었어요? 어르신 할 때는?}

10207 # 동네 으르니 허셔썬. 동네 으른, 으르시니 히썬.{동네 어른이 하셔. 동네 어른, 어르신이 했어.}

10207 # 이쪽 여자편니는 인자 그 각썬 데리꾸 나갈 때는 양썬게 여자가 인자 두리 이썬썬. 이러케 이마이다 손들 언꼬 그러케 나가자나. 엽꾸리 끼고. 신랑은 이르케 기양 오지만 여자는 그러케허고 나가자나.{이쪽 여자편에는 이제 그 각시 데리고 나갈 때는 양썬에 여자가 이제 둘이 있었어. 이렇게 이마에다 손을 얹고 그렇게 나가썬아. 옆꾸리 끼고. 신랑은 이렇게 그냥 오지만 여자는 그렇게 하고 나가썬아.}

10207 # 남자가 인자 저러머는 여자가 나가서 인자 저러고. 남자가 먼저 저러지. {남자가 이제 절하머는 여자가 나가서 절하고. 남자가 먼저 절하지.}

10207 @ 예. 남자가 먼저 저라구.{예. 남자가 먼저 절하고.}

10207 @ 그때도 남자 한번 저라면 여자 두번 저라고 그래썬썬요?{그때도 남자 한번 절하면 여자 두 번 절하고 그랬어요?}

10207 # 아녀.{아니야.}

10207 @ 또까치 한번썬?{똑같이 한번썬?}

10207 # 한번썬 히썬. 거식혀서 한번썬 허구 말지 머더러 여자가 두번 절히썬.{한번썬 했어. 거시기 해서 한 번썬 하고 말지, 뭇하러 여자가 두 번 절 해썬.}

10207 # 여자가 이케 저를 허구 이러케 안즈머는, 예 이 거시기 고개를 수기는게 그케 궁게 두번 험다고 허는개며, 안즈머는 이케 고개를 수기니썬.{여자가 이렇게 저를 하고 이렇게 앓으며, 예 이 거시기 고개를 숙이는 게 그것이 그러니까 두 번 험다고 하는가봐. 앓으며 이렇게 고개를 숙이니까.}

10207 # 원사믈 이케 빙게 안보여. 이러케 허구서 허거던. 그케 하지.{원삼을 이렇게 보니까 안 보여. 이렇게 하고서 하거든. 그렇게 하지.}

10207 @ 그러, 그러구 나서, # 그거, 옛날 흘레시근 간판혀. 시방도 간판혀지만 옛날리도 간판혀.{그러, 그렇게 하고 나서, # 그것, 옛날 혼례식은 간단해. 지금도 간단하지만 옛날에도 간단해.}

10207 @ 폐배기라고 하는 거또 드러썬썬썬요?{폐백이라고 하는 것도 드렸었어요?}

10207 # 폐백썬. 폐배근 인자 거시기지, 기기튼날, 겨론식 허고 기 이튼날 시대게 와서, 시택 으른덜, 지반 으른덜 기양 인사 드리러 오자나. 그러면 그때 인자 피어노코 잡썬썬. 술 잡썬꾸, 폐백 그 음식형거 먹꼬.{폐백지. 폐백은 이제 거시기지, 그 이튼날, 결혼식 하고 그 이튼날 시택에 와서, 시택 어른들, 집안 어른들 그냥 인사 드리러 오썬아. 그러면 그때 이제 띄놓고 잡썬지. 술 잡썬

고, 폐백 그 음식한 것 먹고.}

10208 @ 그럼 그 음식글 친정에서 해줘썬요? {그럼 그 음식을 친정에서 해 줬어요?}

10208 # 친정에서 해가꼬지. 그거 음식글 인자 그 친정에서두 썬 이케 음식 잘한다는 양바니 허지.{친정에서 해 갖고 오지. 그거 음식을 이제 그 친정에서도 썬 이렇게 음식 잘한다는 양반이 하지.}

10208 @ 주로 무어를 해썬썬요?{주로 무엇을 했었어요?}

10208 # 주로 인자 고기 가통거, 이러케 인자 그 산자처럼 이러케, 옌나리는 산자가 이러케 칭칭칭칭 이썬썬. 색썬그로 물드려서 네모지게 혀가꼬, 그리고 위다 똥그라머게 이러케 노코, 그렇거 혀노코, 고기 혀서 이러케 노코. 저 거시기 문어빨, 문어빨, 문어빨 이러케 오려서 이러케 보기 조라고 이러케 혀노코 그런거 혀썬.{주로 이제 고기 같은 거, 이렇게 이제, 그 산자처럼 이렇게, 옛날에는 산자가 이렇게 층층층층 있었어. 색썬으로 물 들여서 네모지게 해갖고. 그렇게 하고 위에다 동그랗게 이렇게 놓고, 그런 거 해 놓고, 고기 해서 이렇게 놓고. 저 거시기 문어발, 문어발, 문어발 이렇게 오려서 이렇게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혀 놓고, 그런 것 했지.}

10208 @ 그러케 하고.{그렇게 하고}

10208 # 밤머고 대추허고 쪼려서 이케 저 거시기이다가, 하베다가 이케 담꼬, 밤머고 대추하고 쪼려서, 쪼려서, 썬이루 이러케 논는 거시 아니라 쪼려. 그리케 히서 인자.{밥하고 대추하고 조려서 이렇게 저 거시기에다가, 합에다가 이렇게 담고, 밤하고 대추하고 조려서, 조려서, 생으로 이렇게 놓는 것이 아니라 조려. 그렇게 해서 이제.}

10208 # 그 솜씨 조은 양반드리 허지 그렇거 인제 동네 으르니. 그러케 히서 인자 기이튼날 폐백 드리때 그케 허지.{ 그 솜씨 좋은 양반들이 하지, 그런 것, 동네 어른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튼날 폐백 드릴 때 그렇게 하지.}

10208 @ 그럼 인제 그거를 어디 머 바구리에다 다마요? @ 음. 바구리다 다머서 이르게 가꼬지.{그럼 이제 그것을 어디 뭐 바구니리에다 담아요? # 음, 바구니에다 담아서 이렇게 갖고 오지.}

10208 @ 그러면 이제 그 어, 그 폐백 음식 말고 인제 그 흘레시글 하면 일판 동네 잔치자나요. # 그르치, @ 그쵸. 그러면 동네 썬람들 인제, 머길, 메길려고 하는 음식또 썬 이썬꺼 아녀요?{그러면 이제 그 어, 그 폐백 음식 말고, 이제 그 혼레식을 하면 일단 동네 잔치잖아요? # 그렇지. # 그렇쵸. 그러면 동네 썬람들 이제, 먹일, 먹이려고 하는 음식도 썬 있을 것 아녀요?}

10208 # 거시기, 그저니는 국썬드를 마니 해썬. 어, 국썬들 마니 허고, 인자 그 떡썬 허는 썬람 별루, 별반 업썬썬. 그리고 인자 밥 먹꼬 그리썬. 국썬드를 주로 마니 썬머썬, 옌나레. {거시기, 그전에는 국썬들을 많이 했어. 어, 국썬들 많

이 하고, 이제 그 떡국 하는 사람 별로, 별반 없었어. 그리고 이제 밥 먹고 그랬지. 국수들을 주로 많이 삶았어, 옛날에는.}

10208 @ 그럼 국수 하고. 국수만 해요?{그럼 국수 하고. 국수만 해요?}

10208 # 국수 허고 인자, 저기 히야지. 국수물 가튼거또 만들고 그리야지. 어 그렇게 저집 국수 언제 주냐고 아녀. 저집 국수 언제 주냐고?{국수 하고 이제, 저기 해야지. 국수물 같은 것도 만들고 그래야지. 어 그러니까 저 집 국수 언제 주냐고 안 해, 저 집 국수 언제 주냐고?}

10208 @ 언제 시집 보내냐? 언제 장가를 보내냐? 그런거여.{언제 시집 보내냐? 언제 장가를 보내냐? 그런 거요?}

10208 # 그런거뜰 마니 바꼬 그래찌.{그런 것들 많이 받고 그랬지.}

10208 @ 그 옛날에 이러케 혼례식 하고 그럴 때 막 돼지 잡꼬 그런집또 이써써요?{그 옛날에 이렇게 혼례식 하고 그럴 때 막 돼지 잡고 그런 집도 있었어요?}

10208 # 이쪼. 돼지 잡꼬 그런 집 이쪼. 아들 여울라면 당여니 돼지 잡찌.{있쪼. 돼지 잡고 그런 집 있지. 아들 여의려면 당연히 돼지 잡지.}

10208 @ 그런 거예요?{그런 거예요?}

10208 # 그럼. 그리고 이바지 갈 때도 다 돼지다리 가고 그런 거시자나. 여자 편이 이바지 갈 때 돼지다리 다 느쿠 허자나.{그럼. 그리고 이바지갈 때도 다 돼지다리 가고 그런 것이잖아. 여자 편이 이바지갈 때 돼지다리 다 넣고 하잖아.}

10208 # 돼지다리 느쿠 떠거고 다 허서 다 느쿠, 그러케 다 허자나. 요마넨 바구리에다 다 느차나.{돼지다리 넣고 떡하고 다 해서 다 넣고, 그렇게 다 하잖아. 요만한 바구니에다 다 넣잖아.}

10208 @ 아까 그 폐배금시기라고.{아까 그 폐백 음식이라고.}

10208 # 어, 폐배근 틀리고,{응, 폐백은 틀리고.}

10208 @ 이바지?{이바지?}#

10208 # 아녀. 폐배근 이바지 아니, 저 {아녀. 폐백은 이바지 아니, 저}

10208 @ 그럼 이바지는 뭐예요?{그럼 이바지는 뭐예요?}

10208 # 이바지는 이런 바구리다가 떡뚜 해서 담꾸, 돼지다리로 허서 느쿠, 인자 뭐 인자 쌀두 해서 는는 사람 이꾸, 인저 그러케 허서 인자 가마이다 다머서 인자 보내야. {이바지는 이런 바구니에다가 떡도 해서 담고, 돼지다리로 해서 넣고, 이제 뭐 이제, 쌀도 해서 넣는 사람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가마니에다 담아서 이제 보내.}

10208 @ 시대그루?{시덕으로?}

10208 # 어 시대그루. 인자 저 거시기 남자네서 여자네지뚜 보내고, 여자네서 또 남자네뚜 보내구 그려.{어 시덕으로. 이제 저 거시기 남자네서 여자네집에도 보내고, 여자네서 남자네집에도 보내고 그래.}

10208 @ 아, 이바지 하라구, 잔치 하라구,{아, 이바지 하라고. 잔치 하라고.}

10208 # 왜냐머는 그거슬 한쪽만 하면 말썽이 마능게 양쪼기서 다 히야여. 자러나 모더나 다 히야여.{왜냐하면은 그것을 한쪽만 하면 말썽이 많으니까 양쪽에서 다 해야 해. 잘하나 못하나 다 해야 해.}

10208 # 그게. 그래 시방은 이바지덜 별로 안차나. {그것이. 그래 지금은 이바지들 별로 안하잖아.}

10208 @ 그러쥬. {그러쥬.}

10208 # 시방은 다 이바지 아녀. 그저니는 그 이바지가 꼭 이썬썬.{지금은 다 이바지 안 해. 그전에는 그 이바지가 꼭 있었어.}

10208 @ 그러머는 그러케 동네잔치가 되고 그러머는 인제, 뭐 뭐야, 이케 부치개도 하고 머, 나물도 무치고 {그러면은 그렇게 동네잔치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뭐, 뭐야 이렇게 부침개도 하고 뭐, 나물도 무치고.}

10208 # 부치개도 허고 나물도 허고 다 허서 다 철두 부치구 허서 다 손님들 오면 다 쓰러서 내고.{부침개도 하고 나물도 하고, 다 해서 다 철도 부치고 해서 다 손님들 오면 다 썰어서 내고.}

10208 @ 그럼 그건 누가 이를 다 해썬요?{그럼 그건 누가 일을 다 했어요?}

10208 # 동네 양반더리 다 허지. 인저 널썬 계론식 한다면 인자 오늘 모여서들 다 허지. 떡도 허고 그러거 부치개도 부치고. 다 허서두 인자 그날 계론식날 오시는 양반덜 다 잡숴꼬 그러자나. 다 그러지.{동네 양반들이 다 하지. 이제 내일썬 결혼식 한다면 이제 오늘 모여서들 다 하지. 떡도 하고 그런 거 부침개도 부치고. 다 해서도 이제 그날 결혼식날 오시는 양반들 다 잡숴고 그러잖아. 다 그러지.}

10210 @ 그 어르신 겨론할 때, 이러케 그 호닌할 때 말고, 동네에서 다른 사람 호닌하는 거 이러케 구경도 하고 그래썬요?{그 어르신 결혼할 때, 이렇게 그 혼인할 때 말고, 동네에서 다른 사람 혼인하는 거 이렇게 구경도 하고 그랬어요?}

10210 # 그럼 귀경도 가지.{그럼 구경도 하지.}

10210 @ 그러면 그러거 해보셔썬요? 구멍 뚫쿠 이러거.{그러면 그런 거 해 보셨어요? 구멍 뚫고 이런 거.}

10210 # 아이, 저 천날 저녁기 인저 헐 때나 그러거 귀경허지. 천날 저녁 잘 때나 문꾸녁 뚫쿠 볼라거지만, 우리가 머더러 그거슬 볼라고 허거썬.{아이, 저 첫날 저녁에 이제 할 때나 그런 거 구경하지. 첫날 저녁 잘 때나 문구멍 뚫고 보려고 하지만, 우리가 뿔하러 그것을 보려고 하겠어.}

10210 @ 그래두 누구야, 동네에서 누구야 오늘 천날뺨 지낸대드라.{그래도 누구야, 동네에서 누구야 오늘 첫날뺨 지낸다고 하더라.}

10210 # 저 지반 으른드리 인자 거식헌 사람드리, 게덕시런 양반더리 그거허지.

- 그거또 시방은 업써져짜나.{저 집안 어른들이 이제 거시기한 사람들이, 장난기가 많은 양반들이 그거 하지. 그것도 지금은 없어졌잖아.}
- 10210 @ 그러쵸. 지그른 뚜를 무니 엄는데 뭐. {그렇지요. 지금은 뚫을 문이 없는데 뭐.}
- 10210 @ 그 실랑 발빠닥 때리고 이러능거, 그러능거는 주로 누가 해써쵸요.{그 신랑 발바닥 때리고 이러는 것, 그런 것은 주로 누가 했었어요?}
- 10210 # 동네 싸람드리. 동지 청년드리 인자 뵈야가지고 실랑 다라먹짜, 인자 제향 가머는, 인자 새밀마니 제향 가자나, 처가찌비루. 그러면 인자 아무개 인자 실랑 와쵸게 오늘 찌녀기 실랑 다라먹짜, 혀가꾸는 가서 인자 그케 때리는 거야, 발빠닥 때리고.{동네 사람들이. 동네 청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신랑 달아먹자, 이제 제향 가머는, 이제 삼일 만에 제향 가잖아, 처갓집으로. 그러면 이제 아무개 이제 신랑 왔으니까 오늘 저녁에 신랑 달아먹자, 해갓고는 가서 이제 그렇게 때리는 거야. 발바닥 때리고.}
- 10210 @ 실랑은 어트케 허고.{신랑은 어떻게 하고.}
- 10210 # 띠, 띠 이짜나. 띠를 이케 다리 딱 무껴서 거뜨려, 이러케 어깨다. 그 얼마나 어이, 다리가 얼마나 아프거쵸. 그리구는 이 어이 발빠다글 때리는 거야. 딸 도둑질 히가따히서 때리는 거야.{띠, 띠 있잖아. 띠를 이렇게 다리 딱 묶어서 거꾸러뜨려, 이렇게 어깨에다. 그 얼마나 어이, 다리가 얼마나 아프겠어. 그렇게 하고는 이 어이 발바닥을 때리는 거야. 딸 도둑질 해 갔다고 해서 때리는 거야.}
- 10210 # 그래 시면 사람드른 엄청 마니 때려. 시면 사람드른. {그래 심한 사람들은 엄청 많이 때려. 심한 사람들은.}
- 10210 # 거식헌 사람드른. @ 그걸 장나느로 해야지. 그러케 시머게 때리면 어떠컨대. # 어 장나느로 허는 거신디. 그러케 심하게 때린 사람드른 다리 절뚝거리자나, 실랑이. {거시기한 사람들은. 그걸 장난으로 해야지. 그렇게 심하게 때리면 어떡한대. 어, 장난으로 하는 것인데. 그렇게 심하게 때린 사람들은 다리 절뚝거리잖아, 신랑이.}
- 10210 @ 장가 한번 가기 힘들구만.{장가 한번 가기 힘들구먼.}
- 10210 # 옴나레 진짜 장개 오면 그케 다 허능 거신지 알고 다 혀찌.{옛날에 진짜 장가 오면 그렇게 다 하는 것인 줄 알고 다 했지.}
- 10210 # 끈 이러케 딱 얼겨 땀 때 그 얼마나 아프거쵸.{끈 이렇게 얹어 땀 때 그 얼마나 아프겠어.}
- 10210 @ 꺼꿀루 매달린거 아냐? 그쵸? {거꾸로 매달린 거 아냐? 그렇쵸?}

#### 1.2.4.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

10212 @ 아이, 처다이를 가져쓸 때, 애기 가져쓸 때 어떠셔썬요? 기부는 어떠셔는 지?{아이, 첫아이를 가졌을 때, 아기 가졌을 때 어떠셨어요? 기분은 어떠셨는지?}

10212 # 나는 애기 가져쓸 때, 처대기를, 이케 입떠시 안 낭게 몰라썬. 지반 으른 델또 아무도 모르셔. 어떤 애기구 다 그리썬. 그리가꾸셔 내가 암때라두 인자 나 혼자만 생각허지. 인자, 그 생리가 안 오면 그새 애기 이따는거.{나는 아기 가졌을 때, 첫아이를 이렇게 입뎃이 안 나니까 몰랐어. 집안 어른들도 아무도 모르셔. 어떤 아기고 다 그랬어. 그래갖고서 내가 아무때라도 이제 나 혼자만 생각하지. 이제, 그 생리가 안 오면 그 사이 애기 있다는 거.}

10212 # 아흐, 나는 참 처대기 이쓸 때두 존지를 몰라썬. 막 너무나.{아휴. 나는 참 첫아기 있을 때도 좋은 줄을 몰랐어. 막 너무나.}

10212 @ 그 겨론하고 얼마 만에 처다기가 드러선 거예요?{그 결혼하고 얼마 만에 첫아기가 들어선 거예요?}

10212 # 게론하고, 그해.{결혼하고, 그해.}

10212 @ 며뒤레 참 겨혼, 아 호닌 하셔썬요? 며될 따레?{몇 월에 참 결혼, 아 혼인 하셨어요? 몇 월 달에?}

10212 # 스물세 사레.{스물세 살에.}

10212 @ 그니까 며될 따레. 보메, 여르메. # 시월.{그러니까 몇 월 달에. 봄에? 여름에? 시월.}

10212 # 시월 열이렌날, 음려그로 시월 열이렌날 게론시글 현는데, 기기듬해 동지 딸 초이렌날 애기를 나썬. 동지딸.{시월 열이렛날, 음력으로 시월 열이렛날 결혼식을 했는데, 그 이듬해 동짓달 초이렛날 아기를 낳았어. 동짓달.}

10212 @ 그럼 한, 한, 겨론한 지 한 네 달, 다선 딸 이케 지나셔.{그럼 한, 한, 결혼한 지 한 네 달, 다섯 달 이렇게 지나셔.}

10212 # 그리는가바. 그리가꾸 한때두 이케 배가 불르야 으른드리 자 애기 가전은 가보다거. 입떠또 안 나고, 뭐, 하나 뭐, 뭐 개리는 거시 업쓰니까. 그리가지고. 그러케 애기를 이썬는디.{그랬는가봐. 그래갖고 한때도 이렇게 배가 불러야 어른들이 재 아기 가졌는가보다고 해. 입뎃도 안 나고, 뭐, 하나 뭐, 뭐 가리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 가지고. 그렇게 아기가 있었는데.}

10213 # 그래, 그러케 해가꾸 처대기는 나썬, 내가 처대기는. 처대기 날 때가 썬 힘드러썬.{그래, 그렇게 해갖고 첫애기는 낳았어. 내가 첫아기는. 첫아기 날 때가 조금 힘들었지.}

10213 # 애기도 기양 참 쉴허게 나썬, 나는 애기두.{아기도 그냥 참 수월하게 낳았어. 나는 아기도.}

10213 # 두째 애기는, 처으메 인자 애기가 스능가 보데. 근디 보리를 인자 우리는 꼭 여르메, 이 보리를 쌀머서 바블 혀, 마른 보리를. 이케 당귀따 허는 거시

아니라. {둘째 애기는, 처음에 이제 아기가 서는가 보데. 그런데 보리를 이제 우리는 꼭 여름에, 이 보리를 삶아서 밥을 해. 마른 보리를. 이렇게 담궜다 하는 것이 아니라.}

10213 # 그에 왜냐머는 우리 시아버지가 보리밥만 잡쭈면 화장실 따니라 아무꺼뚜 모더셔. 그양 그 배쭈기 그 꺼식혀가꾸. 그렇게로 인자 우리 시아버지 바블 빼야여 언제든지. 딴 사라른 보리바블 머거도 우리 시아버지는 쌀바블 잡쭈야 돼.{그게 왜냐머는 우리 시아버지가 보리밥만 잡쭈면 화장실 다니느라고 아무 것도 못 하셔. 그냥 그 뱃속이 그 거시기 해갖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아버지 밥을 빼야 해 언제든지. 다른 사람은 보리밥을 먹어도 우리 시아버지는 쌀밥을 잡쭈야 돼.}

10213 그렇게로 인자, 그 쌀머야 그 싸리 이케 딱 노면 그대로 이찌. 저 당근 쌀로 이케 바블 허면 다 허터져 서꺼져 버려. 그러니까 꼭 새벽 네 시 되면 이러나서 바블 혀, 쌀머야돼, 보리쌀를.{그러니까 이제, 그 삶아야 그 쌀이 이렇게 딱 놓으면 그대로 있지. 저 당근 쌀로 이렇게 밥을 하면 다 흩어져 섞어져 버려. 그러니까 꼭 새벽 네 시 되면 일어나서 밥을 해. 삶아야 돼, 보리쌀을.}

10213 그먼 인자 내가 저너게 바느질 허고 헌 사라미 네 시에 이러나려면 얼마나 자미 오거쎄. 그렇게로 인자 그 시가네 몬 니러낭게 우리 시할머니가 꼭 오셔서 깨야, 나를. 막 이케 여페 와서, 야, 야, 이케 불려.{그러면 이제 내가 저녁에 바느질 하고 한 사람이 네 시에 일어나려면 얼마나 잠이 오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에 못 일어나니까 우리 시할머니가 꼭 오셔서 깨워, 나를. 막 이렇게 옆에 와서, 야, 야, 이렇게 불려.}

10213 그먼 인저 막 그때만 히도 시집사랑게 막, 정신이 파딱 나지. 나와서 인자 보리쌀 막 쌀므머는 우구르 인저 이케 보리싸리 끝차나요? 꼬르머는 그 보린 내가 으트게 막기 시룽가 저 바께트로 텅서 나가버려. 막 불 모라느꾸.{그러면 이제 막 그때만 해도 시집살이이니까 막, 정신이 펄떡 나지. 나와서 이제 보리쌀 막 삶으면은 위로 이제 이렇게 보리쌀이 끓잖아요? 끓으면은 그 보릿 내가 어떻게 말기 싫은가, 저 바깥으로 텅겨 나가버려. 불 몰아넣고.}

10213 # 그러면 인자. @ 두째여쭈 때? # 응 우리 큰 딸. @ 처째때는 앙그랜는 데?{그러면 이제, @ 둘째였을 때? # 응, 우리 큰 딸. @ 첫째 때는 안 그랬는데?}

10213 # 응, 처째때는 안그랜는디. 그리가지구는 기양 바까티루 튼짜 나가가꾸서 인자 그 지미 인자 딱 멈추면 인자 두워서 인자 그 때 안자서 인자 쌀 시쳐서 느꾸 인자 그러지.{응, 첫째 때는 안 그랬는데. 그래 가지고는 그냥 바깥으로 텅겨 나가갖고서 이제, 그 김이 이제 딱 멈추면, 이제 들어와서 이제 그 때 앉아서 이제 쌀 씻어서 넣고, 이제 그러지.}

10213 # 그리서 내가 가 슬 때가 그케 성가시러쎄. 그때 한번. 그리고 따내더른 하나 개리는 거시 업써쎄.{그래서 내가 그에 설 때가 그렇게 성가스러웠어.



그리고 다른 애들은 하나 가리는 것이 없었어.}

10213 @ 이 명는 거또?{이, 먹는 것도?}

10213 # 어, 명는 거또 안 개리고, 애기 날 때도 참 설허게 나썸. 우리 크내만 애기 나키 심드러서 욱 봐찌. 우리 두째두 그러구. {어, 먹는 것도 안 가리고, 애기 날 때도 참 수월하게 낳았어. 우리 큰애만 아기 낳기 힘들어서 욱 봤지. 우리 둘째도 그러고.}

10213 # 우리 시째는 저기 해찌. 제 외가집 가서 나찌. 친정이 다니러 간느디 그양, 파월딸 애긴질 알고 가떠니 치월딸 애기가 나와버려써. 그리갸꾸 친정에서 애기를 나썸. 나꼬 그런느디.{우리 셋째는 저기 했지. 제 외갓집 가서 낳았지. 친정에 다니러 갔는데 그냥, 팔월 딸 애기인 줄 알고 갔더니 칠월 딸 애기가 나와버렸어. 그래갸고 친정에서 애기를 낳았어. 낳았고 그랬는데.}

10213 @ 덕뿌네 좀 쉬, 쉬셔쨌네요?{덕분에 좀 쉬셨쨌네요?}

10213 # 세니레 간 뒤에 와찌. 그리갸꾸는 인자, 저기허고, 세째까지는 내가 그르케 난느디, 네째부터는 나 혼자 나썸. {세 이레 간 뒤에 왔지. 그래갸고는 이제, 저기하고, 셋째까지는 내가 그렇게 낳았는데, 넷째부터는 나 혼자 낳았어.}

10213 # 인저 따로 나와서 이르게 사르니까 뭐 애기 난나고 뭐 누구를 오라고러거써 뭐더거써, 실랑도 나가구 우꾸.{이제 따로 나와서 이렇게 사니까 뭐 아기 낳는다고 뭐 누구를 오라고 하겠어, 뭇하겠어. 신랑도 나가고 없고.}

10213 # 그 막 혼자 기양 애기 막, 옐날 찌비서 이케 사느디, 저런 시렁까래가 이썸썸. 시렁까래가 이썸느디 막, 막 애기 돌면 막 그 시렁까래로 막 내 침대로 작꾸 막 시를 주머는, 그르케 해갸꾸 애기를 내가 두를 나썸. 두를 혼자 나썸. 혼자 쌍개려서.{그 막 손자 그냥 애기 막, 옐날 집에서 이렇게 사는데, 저런 시렁 가래가 있었어. 시렁 가래가 있었는데, 막, 막 애기가 돌면 막 그 시렁 가래로 막 내 침대로 잡고 막 힘을 주면은, 그렇게 해갸고 애기를 내가 둘을 낳았어. 둘을 혼자 낳았어. 혼자 쌍 가려서.}

10213 @ 그러머는 그 뭐야, 애 인제 나꾸, 애 썸끼구 이런 거를 혼자 다 하셔썸요? # 응 다 해썸, 내가. 내가 다 혼자 다히썸.{그러머는 그 뭐야, 아기 이제 낳고, 애 썸끼고 이런 것을 혼자 다 하셔썸요? 응, 다 했어. 내가. 내가 혼자 다 했어.}

10213 # 그 유월, 유월 스무여쨌날 나꾸, 또 망내는 치월 초나흔날 나꾸히썸게. @ 다 여르메 나썸네요? {그 유월, 유월 스무엿썸날 낳고, 또 막내는 칠월 초나 혼날 낳고 했으니까. 다 여름에 낳썸네요? }

10213 # 여르믄 여르믄디.{여름은 여름인데.}

10213 그 우리 막내따른, 야튼 가들 나꾸는 내가 바루 나와서 밥또 혃먹꼬 내가 다 혃썸, 기양. 혼자 쌍 개려서 다 허고. 그럼자 실랑은 나가따가 인저 와서 보면 애기 나찌.{그 우리 막내딸은, 하여튼 그 아이들 낳고는 내가 바로 나와

서 밥도 해 먹고 내가 다 했어, 그냥. 혼자 싹 가려서 다 하고. 그러면 이제  
신랑은 나갔다가 이제 와서 보면 애기 낳았지.}

10213 # 유:깐 사람도 몰라. 소리를 안 질롱게. 막 그식 막 혼자 막 매달려가꾸 심  
만 쓰지. 그르키 해서 내가 두를 나써. 애기 다선 난는디 두른 그르케 나써.  
{이웃간 사람도 몰라. 소리를 안 지르니까. 막 그식 막 혼자 막 매달려갖고  
힘만 쓰지. 그렇게 해서 내가 둘을 낳았어. 아기 다섯 낳았는데 둘은 그렇게  
낳았어.}

10213 @ 대단하시네요.{대단하시네요.}

10213 # 아 그런데 그렇가 우리 막내딸 나쿠두 조리를 안해서 그러는가 이 찬바람  
낭게 허리가 어트게 아픈가 죽꼰뜨라고.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찬디다가는 대  
구 자들 모더거써. 그리서인지 여다 인지 전기장판이다 불 느쿠 자지.{아 그  
래서 그런가 우리 막내딸 낳고도 조리를 안 해서 그러는가, 이 찬바람 나니까  
허리가 얼마나 아픈가 죽꼰뜨라고.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찬 데다가는 대고  
자들 못하겠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 이제 전기장판에다 불 넣고 자지.}

10213 # 여르메는 그런지 몰란느디 찬바라미 낭게 그케 허리가 아프더라고. 그리  
가꼬 참 나도 참 지도거다고도 히써.{여름에는 그런 줄 몰랐는데, 찬바람이  
나니까 그렇게 허리가 아프더라고. 그래갖고 참 나도 참 지독하다고도 했어.}

10213 # 그 애기 두를 왜 혼자 그케 나써. 나가꼬 내가 다 히써. 피빨래 다치고.  
{그 애기 둘을 왜 혼자 그렇게 낳았어. 낳아갖고 내가 다 했어. 피빨래 다하  
고.}

10213 @ 그래도 나리 겨우리 아니어서 다행이언네.{그래도 날이 겨울이 아니어서  
다행이었네.}

10213 # 이-○감이 무른 지러다 주데. 피빨래 허는디.{영감이 물은 길어다 주데.  
핏빨래 하는데.}

10213 @ 그러며는 이제 지금도 그러지만 인지 애 나면 미역국 먹짜나요. 그럼 그  
런 거를 잘 드셔써요. 혼자서?{그러면은 이제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 이제 아  
기 나면 미역국 먹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잘 드셨어요? 혼자서?}

10213 # 인자 며근 인자 내가 거시기허지 엔나레 인자, 여르메 보리밥 해먹짜나.  
그러면 인자 그 양대기, 요마년 양대기가 이써. 저 양개기가 이쓰며는, 그 양  
대기에다 며글 시쳐가꼬, 인자 간장 너쿠 그르케 해서 인자 보리밥 허는디다  
이케 폭 찌, 미티다 이케 양대기에다 느:.{이제 먹은 이제 내가 거시기 하지.  
옛날에 이제 여름에 보리밥 해 먹잖아. 그러면 이제 그 양재기, 요만한 양재  
기가 있어. 저 양재기가 있으면은 그 양재기에다 미역을 씻어갖고, 이제 간장  
넣고 그렇게 해서 보리밥 하는 데다 이렇게 폭 찌, 밑에다 이렇게 양재기에다  
넣어.}

10213 # 미티다, 바버기다 언저. 언즈며는 그 보리배비 오래 퍼지야자나. 그렇게로  
이거. 따로 구글 안 끄려. 인자 여르메는 막 구까튼거 뜨정게 안 조아허자나.

궁게 내가 그르케 해서 한 삼사일 쟁도 먹찌.{밑에다, 밥 위에다 없어. 없으면  
은 그 보리밥이 오래 퍼져야 하잖아. 그러니까 익어. 따로 국을 안 끓여. 이제  
여름에는 막 국 같은 거 뜨거우니까 안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  
서 한 삼사일 정도 먹지.

10213 # 그리고 인자 기차느면 또 안 머거. 안 먹꼬. 그기 여름애기라 그르케 히서  
먹꾸 그리찌. 그리가꾸 인저 먹 까튼거는 미리 사다놓게. 그러케서 먹꼬.{그리  
고 이제 귀찮으면 또 안 먹어. 안 먹고. 그게 여름 애기라 그렇게 해서 먹고  
그랬지. 그래갖고 이제 미역 같은 것은 미리 사다 놓으니까. 그렇게 해서 먹  
고.}

10213 # 참 생가거면 그때 가트면 지방 왜 이케 아프거써, 퍼너구 현디. 그런디  
아퍼, 지방은 아퍼.{참 생각하면 그때 같으면 지금 왜 이렇게 아프겠어, 편하  
고 한데. 그런데 아파, 지금은 아파.}

10213 @ 그러면 그케 애 태어나고 이러면 금줄뚜 걸구 그러지 아나씨요? {그러면  
그렇게 아기 태어나고 이러면 금줄도 걸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0213 # 그르치.{그렇지.}

10213 @ 그런 거는 이제 그 어르신, 바깥어르신니 해 주신 거예요?{그런 것은 이  
제 그 어르신, 바깥어르신이 해 주신 거예요?}

10213 # 인저 꼬추랑 수시랑 인저 놔따가 인자 꼬자노치.{이제 꼬추랑 숯이랑 이  
제 놓았다가 이제 꽃아 놓지.}

10213 # 근디 그거또 나미 개려줘애지 나는 못개려. 나미 그 집 애기 놔따고 인자  
부정헌 사례미 안 가고 그리애지, 나는 못 개려. 동네 싸람드리 개려줘애지.  
그러닝게 물론 썸썸 거러노치. 썸썸 거러놔도 그 별별시런 사례미 또 다  
와.{그런데 그것도 남이 가려줘야지, 나는 못 가려. 남이 그 집 아기 낳았다고  
이제 부정헌 사람이 안 가고 그래야지, 나는 못 가려. 동네 사람들이 가려줘  
야지. 그러니까 물론 금줄은 걸어 놓지. 금줄은 걸어놓아도 그 별별스러운 사  
람이 또 다 와.}

10213 @ 썸썸리라뇨? # 썸썸리여, 그케 썸썸. @ 썸썸.{금줄이라뇨? # 금줄이여,  
그케 금줄. @ 금줄.}

10213 # 꼬추허고 인저 수더고 이케. {꼬추하고 이제 숯하고 이렇게.}

10213 @ 그케 여자 나쉴 때하고.{그케 여자 낳았을 때하고.}

10213 # 여자는 순만 허고.{여자는 숯만 하고.}

10213 @ 여자는 순만 너코.{여자는 숯만 넣고.}

10213 # 남자는 꼬추 찢러 너코 그리찌.{남자는 꼬추 찢러 넣고 그랬지.}

10213 @ 그러타면 실제로 동네 어른드리 챙겨 줘씨요? # 그리치. @ 인자 거식  
헌, 거식헌 양반드른 드룰라다가도 나가고 인자 몰르구 거식헌 사람드른 그리  
지.{그렇다면 실제로 동네 어른들이 챙겨 줬어요? # 그랬지. @ 이제 거시기  
한, 거시기한 양반들은 들어오려고 하다가도 나가고, 이제 모르고 거시기한

사람들은 그러지.}

10213 # 동네 양반드리 개려주지. 궁께 쉰니레 때까지는 개려 주거든. 근디 인자 저기헌 사람드른 망중 이레까지도 기양 그거 거러놔.{동네 양반들이 가려주지. 그러니까 세 이레까지는 가려 주거든. 그런데 이제 저기헌 사람들은 막육 이레까지도 그냥 그거 걸어놔.}

10213 # 망용니레면 사십꾸이런디. 이레 하나가 치릴씨깁게.{막육 이레면 사십구 일인데. 이레 하나가 칠일씩이니까.}

10213 @ 아, 그래서 망용니레구나. 칠, 칠리레는 안되고 인제 {아, 그래서 막육 이레구나. 칠, 칠 이레는 안 되고}

10213 # 천니레, 두니레, 쉰니레, 그러케 허다가 인저, 망중 이레지.{첫 이레, 두 이레, 세 이레,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막육 이레지.}

10213 @ 근데, 참 그, 그러케 애 나코 바로바로 가서 일하고 이러는 게 다른 사람들뚜 일반저그로 그래썬요?{그런데 참 그, 그렇게 아기 낳고 바로바로 가서 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그랬어요?}

10213 # 왜:. 거식헌 사람드른 참 오래 이르게 거시기, 몸조리덜 허썬. 그리도 모대도 저, 삼 주까지는 허지. 세니레 갈때까지는 허지. 나는 친정이서도, 친정에 이출 때는 참 세 니레까지 이따 와썬는디, 탄 애기드른 그르케 모대썬.{왜. 거식기한 사람들은 참 오래 이렇게 거시기, 몸조리들 했지. 그래도 못 해도 저, 삼 주까지는 하지. 세 이레 갈 때까지는 하지. 나는 친정에서도, 친정에 있을 때는 참, 세 이레까지 있다 왔었는데, 다른 아기들은 그렇게 못했어.}

10213 # 왜냐면 으른도 만코, 막 이른 거식허고 그렇게.{왜냐하면 어른도 많고, 막 일은 거시기하고 그러니까.}

10213 # 아휴. 우리 시어머니 절머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여. 그러니까 그러케 조리도 모더거떠라고. 그리가고 우리 둘째따른, 아이 저 큰따른 정월 초여덴나리 생이리거든. 정월 초여덴나렇게 참 그 막, 얼마나 출 때여. 였나렌 얼마나 추워썬. 궁께.{아휴. 우리 시어머니 젊어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여. 그러니까 그렇게 조리도 못 하겠더라고. 그래갖고 우리 둘째딸은, 아니 저 큰딸은 정월 초여드렛날이 생일이거든. 정월 초여드렛날이니까 참 그 막, 얼마나 출 때야. 옛날에는 얼마나 추웠어. 그러니까.}

10213 # 애기를 나쿠 인넌디, 새밀날 나와서 봉게로 그 지바폐가 샤미 이썬썬. 근디 그 삼무리 건수 들려서 이케 짜다고 허시드라고. 그리가고 겨우레도 이, 였나레도 삼무리 따따하자나요? 근디 차. 건썬 드른 무리라.{아기를 낳고 있는데, 삼일 날 나와서 보니까 그 집 앞애가 샘이 있었어. 그런데 그 샘물이 건수 들려서 이렇게 차다고 하시더라고. 그래갖고 겨울에도 이, 옛날에는 샘물이 따뜻하잖아요. 그런데 차. 건수 들은 물이라.}

10213 # 근디 막 나와서 보니까 이마넌 통이다가, 나무통, 였나레 그 나무통 이썬썬. 나무통이다가서는 나무를 뭇 나무를 그르케 마니 썬면는가, 썬머서 한 축

한 축 혀서, 두 통을 혀놔써. 싸미다가, 막 쌀머서 이케 당겨놔써.{그런데 막 나와서 보니까 이만한 통에다가, 나무통, 옛날에 그 나무통 있었지. 나무통에다가 나물을, 된 나물을 그렇게 많이 삶았는가, 삶아서 한 축 한 축 해서 두 통을 해놔어. 샘에다가, 막 삶아서 이렇게 담가놔어.}

10213 # 하이고, 메느리가, 장개비 이써, 뭐 이써. 메느리가 그거슬 보고 워트게 거식혀. 그리서 그누를 인저 다 행겨가지고 인자 물 가라서 다 당그고 그러구서 드뤄써.{하이고, 며느리가, 장갑이 있어, 뭐 있어. 며느리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거시기 해. 그래서 그놈을 이제 다 행겨가지고 이제 물 갈아서 다 담그고 그렇게 하고서 들어왔어.}

10213 # 아 그리떠니 떠리병이 난네, 저녁게. 아이구. 새밀라리면 제우 열하룬나리여. 공게 바로 보름 당허자나. 정월 보름. 그렇자 나무를 쌀마다 찬무리다 다 당구는 거여. 그리떠니 막 떠리병이 나가꾸 막 저녁게 막 죽케 악꾸 막 중는지 아라써.{아 그랬더니 떠리병이 났네, 저녁에. 아이구. 삼일날이면 겨우 열하룻날이여. 그러니까 바로 보름 당하잖아. 정월 보름. 그래서 나물을 삶아다가 찬물에다 다 담그는 거야. 그랬더니 막 떠리병이 나갔고 막 저녁에 막 죽도록 앓고 막 죽는 줄 알았어.}

10213 # 그리떠닌저 하룬가 인자 몬나가쨌, 내가. 몬나가떠니, 또 천니레까지는 쫘셔줘야 되는데, 춘 때고 그런디 그게 거시더라고. 그리선자 몬나가구서는 그냥 방아가 이써써. 방아가 이따가서는 인저, 나중이 인저 떠리 개고, 그런 뒤여 나가쨌. 나칸자 바배 먹고 그런디.{그랬더니 이제 하루인가 이제 못 나갔지, 내가. 못 나갔더니, 또 첫 이레까지는 좀 쉬어주어야 되는데, 추운 때고 그런데 그게 거시기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못 나가고서는 그냥 방에 있었어. 방에가 있다가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떠이 떨어지고, 그런 뒤에 나갔어. 나가자 인자 밥해 먹고 그랬는데.}

10213 @ 하루 지나니까 그 떠리병이. {하루 지나니까 그 떠리병이.}

10213 # 막 이불, 이불 둘러쓰고 막, 불 막 뜨겁게 막 때고 막, 할머니가 부를 뜨겁게 때 주시더라고. 그리가고 내 방 와서 자니라, 자니라 허더라고. 할매가 자꾸 하라버지랑 이 아랫목 뜨건데 와서 자라, 자거라 허더라고. 그리선자 막.{막 이불, 이불 둘러쓰고 막, 불 막 뜨겁게 막 때고 막, 할머니가 불을 뜨겁게 때 주시더라고. 그래갖고 내 방 와서 자거라, 자거라 하더라고. 할머니가 자꾸 할아버지랑 이 아랫목 뜨거운 데 와서 자라, 자거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막.}

10213 # 그 아랫목, 염치도 불구허고 막, 할머니 하라버지 계신디 막 거그가서 실컷 자쨌. 곧떠니 개더라고. 그리가고 내가 참 그 새끼 나면 조리혀 주안다는 거슬 아런네. 시방 싸람드른 뭐 그게 추운 거시, 헐 피료도 우꾸 그러지만 그 때만 해도 얼마나, 바끼서만 다 뒀슬 험랑게 얼마나 추워.{그 아랫목, 염치도 불구하고 막,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 데 막 거기에 가서 실컷 잤어. 그랬더니

개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참 그 새끼 나면 조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네. 지금 사람들은 뭐 그렇게 추운 것이, 할 필요도 없고 그러지만 그때만 해도 얼마나, 밖에서만 다 뭇을 하니까 얼마나 추워.}

10213 # 그래 가꼬 우리 큰딸 나꼬 내가 참 그 떠리병 나서 욱 봐써써. 그래가꼬 내가 무서. 시방도 무서.{그래 갖고 우리 큰딸 낳고 내가 참 그 떨이병 나서 욱 봤었어. 그래 갖고 내가 무서워. 지금도 무서워.}

10215 @ 그러케 이제, 저 자녀부니 다선명. 그럼 애기 돌잔치나 배길 잔치 이런 거뜰 하셔써써요?{그렇게 이제, 저 자녀분이 다섯 명. 그럼 아기 돌잔치나 백일잔치 이런 것들 하셨었어요?}

10215 # 배길 때는 아내주고 돌 때라구 떠개서는 노쿠, 뭐 연필, 뭐 재끼짱.{백일 때는 안 해주고 돌 때라고 떡해서는 놓고, 뭐 연필, 뭐 공책.}

10215 @ 어, 돌재비?{어, 돌잡이.}

10215 # 응, 뭐 그렇거인자 돌때라고 해서 이케 주더라고, 허더라고. 헤 나는 그런 거 관심도 업써써. 하이고 막 내가 막 이리 막 시달리는 사래미라 뭐 막 그런 거 관심도 업써써.{응, 뭐 그런 거 이제 돌 때라고 해서 이렇게 주더라고, 하더라고. 헤 나는 그건 것 관심도 없었어. 하이고, 막 내가 막 일이 막 시달리는 사람이라 뭐 막 그런 거 관심도 없었어.}

10215 @ 떡까튼건 해서 이러케 주변 이운찜또 돌리고. # 응, 이운찜도 돌리지 인자. 돌떡 머그라고.{떡 같은 것은 해서 이렇게 주변 이웃집도 돌리고. 응, 이웃집도 돌리지 이제. 돌떡 먹으라고.}

10215 @ 그럼 돌떠그로는 뭐해써서요? {그럼 돌떡으로는 무엇을 했었어요?}

10215 # 돌떠그로는 인저 대개 인절미 허구, 인저 수수망생이를 혀. 애더리 돌 때는 그 수수망생이라고, 그 저 거시기지. 수수를 인저 당귀따 빵귀서 저 거시기, 저 팍꼬명, 팍꼬명 이께, 시방은 거시기자녀. 그 뭐시라허까, 계다니라고 허까.{돌떡으로는 이제 대개 인절미 하고, 이제 수수망생이를 해. 애들이 돌 때는 그 수수망생이라고, 그 저 거시기지. 수수를 인저 담갔다가 빵아서 저 거시기, 저 팔고명, 팔고명 이렇게, 지금은 거시기잖아. 그 무엇이라고 할 까, 경단이라고 할까?}

10215 @ 경단? # 응, 경단이라고허까. {경단? 응, 경단이라고 할까?}

10215 # 그러키히가꼬 수수망생이를 인저 가리 이르게 만드러가꼬 물 팔팔끓른디 다 느. 느면 그케 익자나요? 익으면 인자 그 팍꼬명이다 무치지. 그케 인자 수수망생이야.{그렇게 해갖고 수수망생이를 이제 가루 이렇게 만들어갖고 물 팔팔 끓는 데다 넣어. 넣으면 그케 익잖아요? 익으면 이제 그 팔고명에다 무치지. 그케 이제 수수망생이야.}

10215 # 그르케해서 인자 애덜 삼, 거시기한다고 그케 살푸리 해준다고 그케 수수망생이를 허거든. 궁게 돌 때.{그렇게 해서 이제 애들 삼, 거시기한다고 그렇

게 살풀이 해준다고 그렇게 수수망생이를 하거든. 그러니까 돌 때.}

10215 @ 그거를, 수수망생이를 한번만 하구 마려썬요? 아니면 생일 때 며뻔 해 줘썬요?{그것을, 수수망생이를 한 번만 하고 말았어요? 아니면 생일 때 몇 번 해 줬어요?}

10215 # 아니썬 나는, 돌 때만 해주고.{안 했어 나는, 돌 때만 해 주고.}

10215 @ 돌 때만 해 주고.{돌 때만 해 주고}

10215 # 돌 때만 해주고 안히줘썬.{돌 때만 해 주고 안 해 줬어.}

10215 # 그리고, 그 수수망생이도 우리 크나들 때만 혀썬. 크나들 때만 혀고, 우리 큰딸두 안해주고 앙겔또 안히썬썬. 안히줘썬썬. 애기 돌 때도 앙겔또 안히썬. {그리고, 그 수수망생이도 우리 큰아들 때만 했어. 큰아들 때만 하고, 우리 큰 딸도 안 해 주고, 아무 것도 안 했었어. 안 해줬었어. 애기 돌 때도 아무것도 안 했어.}

10215 @ 그 뭐 어르신들 애기로는 뭐 수수망생이를 뭐 열살 머글 때까지 해주면 뭐 조타느니.{그 뭐 어르신들 애기로는 뭐 수수망생이를 뭐 열 살 먹을 때까지 해 주면 뭐 좋다느니.}

10215 # 공계 으르니 챙겨가고 혀주야 그거또 혀는 거시지. 내가 내 새끼 거시기 헌다고 그거슬 몬 챙기거떠만 그러네.{그러니까 어른이 챙겨갖고 해 주어야 그것도 하는 것이지. 내가 내 새끼 거시기 헌다고 그것을 못 챙기겠더만 그러네.}

10215 @ 그래두 인제 나중에 이러케 따루 나와서 사썬썬 때는.{그래도 이제 나중에 이렇게 따로 나와서 사썬썬 때는.}

10215 # 따루, 따루 나와서 사러썬 때도 안히줘썬, 내가. 그때두 안히줘썬.{따로, 따로 나와서 살았을 때도 안 해줬어, 내가. 그때도 안 해줬어.}

10215 @ 저희 친정찌븐 아, 저기 뭐야, 아드리 귀해서 그런지, 여덟째로 아드를 낳거니까 망내루. 그래서 울 엄마, 엄마가 열살때까지 그거를 해주드라구요. 귀한 아드리니까.{저희 친정집은 아, 저기 뭐야, 아들이 귀해서 그런지, 여덟 번째로 아들을 낳은 거니까 막내로. 그래서 우리 엄마, 엄마가 열 살 때까지 그것을 해 주더라구요. 귀한 아들이니까.}

10215 # 그런 정성이 이썬야여.{그런 정성이 있어야해.}

10215 @ 그래서 나는 남들뚜 다 그러케 열살 머글 때까지 해주나보다.{그래서 나는 남들도 다 그렇게 열 살 먹을 때까지 해주나보다.}

10215 # 참 보통 쟁성 아니시네. 보통 쟁성 아녀.{참 보통 쟁성 아니시네. 보통 쟁성 아니야.}

10215 # 그 수수망생 헌다는게 보통 이리 아녀. 그 시방은 방애칸에 가서 수수 물론 팔기도 하고, 찌키도 혀고, 인자 거시기허면 팔기도 혀는디, 그때만 해도 다 지비서 도구통으로다 찌야자나, 그거. 찌꾸 대끼구 다, 그거 히서 그거 히야자나 그거. 그게 보통일 아녀. 수수망생이 헌다는 거시.{그 수수망생이 한다

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야. 그 지금은 방앗간에 가서 수수 물론 팔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이제 거시기 하면 팔기도 하는데, 그때만 해도 다 집에서 절구 통으로 찢어야 하잖아, 그거. 찢고 대끼고 다, 그거 해서 그거 해야잖아 그거, 그게 보통일 아니야. 수수망생이 한다는 것이.}

10215 @ 그러니까요.{그러니까요.}

10215 # 시방은 애덜 돌 때 해주더라고. 돌 때 해주면 저기헌 사람더른 안히줘. 그게 시방 절문 사람드른 수수망생이 뭇신지도 몰라.{지금은 애들 돌 때 해주더라고. 돌 때 해 주면, 저기헌 사람들은 안 해줘. 그게 지금 젊은 사람들은 수수망생이 무엇인지도 몰라.}

10215 @ 그 저 친, 저기 시댁 시어르신, 시어른도, 시어머니도 이케 인제 손자자 나요. 해 주시드려고.{그 저 친, 저기 시댁 시어르신, 시어른도, 시어머니도 이렇게 이제 손자잖아요. 해 주시더라고.}

10215 # 그 손재 올매나 기엍꺼써. @ 저희는 안해도 된다고 그랜는디, 어머니는 또 해가지고 오시대요. # 아이, 그럼. 해 주지.{그 손자 얼마나 귀엽겠어. 저희는 안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어머니는 또 해가지고 오시대요. 아이 그럼. 해 주지.}

10215 # 궁게 으른드리 쟁기야 그르케 허지. @ 그리쵸. 가치 사는다. # 내 새끼라고, 음, 내 새끼라고 절때 몬 쟁겨.{그러니까 어른들이 쟁겨야 그렇게 하지. 그렇쵸. 같이 사는데. 내 새끼라고, 음, 내 새끼라고 절대 못 쟁겨.}

10215 # 왜 시방 절문 사람들 가툼사, 어머니 수수 파러다가 히야쵸, 어찌고 허지만, 그런 소리 허도 모더고. 우리네는 그런 소리 허지도 모대쵸. 으른 아페서.{왜 지금 젊은 사람들 같으면, 어머니 수수 팔아다가 해야쵸, 어찌고 하지만, 그런 소리 하지도 못하고. 우리네는 그런 소리 하지도 못했어. 어른 앞에 서.}

#### 1.2.5. 시집살이에 대한 경험담

10218 @ 그 뭐야, 그 시집싸리 그런, 그런 얘기하면 꼭 이런저런 이야기들 만차나요, 뭐. 뭐지? 뭐 병어리 삼 년, 귀머거리 삼 년.{그 뭐야, 그 시집살이 그런, 그런 이야기 하면 꼭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뭐. 뭐지? 뭐 병어리 삼 년, 귀머거리 삼 년.}

10218 # 궁게 부부가니도 그 혈때이 속거튼 소리 모더고 살자나.{그러니까 부부 간에도 그 절대 속같은 소리 못하고 살잖아.}

10218 @ 부부가네도?{부부 간에도?}

10218 # 어. 지금사람들 서로 통허고 이케 말허고 살자나. 그치만 옛날에는 소고 슌 쏘리를 모더는 거야, 부부가니도.{어. 지금 사람들 서로 통하고 이렇게 말



하고 살잖아. 그렇지만 옛날에는 속에 있는 소리를 못하는 거야, 부부 간에도.}

10218 @ 아, 부부가니는 해야지.{아, 부부 간에는 해야지.}

10218 # 그리도 모더. 부부가네도. 왜냐며는 이케 사라미 뭘 말 마는거뒤께 나다가 인자 애길 허면, 실랑이 인자 이버네는 각씨라고 인자 속거튼 쏘리 허짜나. 그러면 인자 그 소리 폭 허자나. 허면 시집싸리 경쟁이 사는 거야.{그래도 못 해. 부부 간에도. 왜냐하면은 이렇게 사람이 뭘 말 하는 거 뒤끝에 나다가 이제 하면, 신랑이 이제 이번에는 각시라고 이제 속깊은 소리 했잖아. 그러면 이제 그 소리 폭 하잖아. 하면 시집살이 굉장히 사는 거야.}

10218 @ 그러면 그건 결국 실랑이 가서 이케 일러바쳐따는 거네. # 아이 궁게 마를 이케 허다보면 이케 사라미 순간저그로 나오는 말도 이짜나요. 그렇게로 옛날에 으른드리 절때 내우가니래도 소검는 소리 허지 마려안다 허지 마려안다 그러고 하시거든. 그 난 게 뭘 소린가 해씨씨. 그리떠니 그게 그리터만 그러네.{그러면 그건 결국 신랑이 가서 일러바쳤다는 것이네. 아이,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허다보면 이렇게 사람이 순간적으로 나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절대 내외간이라고 해도 속없는 소리 하지 마라야 한다, 하지 마라야 한다 그러고 하시거든. 그 나는 그게 뭘 소리인가 해썩써어. 그랬더니 그게 그렇터만 그러네.}

10218 # 그리서 우리는 진짜 소검는 소리 무더구 기양 끝나버려씨. 내우가니.{그래서 우리는 진짜 속없는 소리 못 하고 그냥 끝나버렸어, 내외 간에.}

10218 @ 병어리 삼녀니언네.{병어리 삼 년이었네.}

10218 # 병어리도, 말허면 안 돼. 왜냐며는 인자, 물론 인저 시지비서 인저 시누드리 어찌구어찌구 허면 인자 마를 허자나. 그러면 그게 인자 숭이 되는 거야. {병어리도, 말하면 안 돼. 왜냐하면은 이제 물론 이제 시집에서 이제 시누들이 어찌구어찌구 하면 이제 말을 하잖아. 그러면 그게 이제 흥이 되는 거야.}

10218 # 무어세 드러두 기양 몬 뜨른체 허구, 귀머거리 삼 년, 병어리 삼 년, 그리짜나.{무슨 소리를 들어도 그냥 못 들은 체 하고, 귀머거리 삼 년, 병어리 삼 년. 그랬잖아.}

10218 @ 그러니까요. 귀머거리 삼 년, 병어리 삼 년, 또 뭐야 봉사 삼 녀니라나 뭐라나.{그러니까요. 귀머거리 삼 년, 병어리 삼 년, 또 뭐야 봉사 삼 년이라나 뭐라나.}

10218 # 옛날리는 그렇게 이씨씨. 근데 시방 싸람들 그케 살간? 안 살지.{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 그런데 지금 사람들 그렇게 살간? 안 살지.}

10218 @ 그러케는 몬 찰쥬.{그렇게는 못 살쥬.}

10218 # 몬찰지. 아이고. 하루도 몬싼다고지. 옛날엔 그거 이씨씨. 그케 그르구 현시리어씨꾸. 그르케 사러야 시집싸리를 이겨내는거야.{못 살지. 아이고. 하루도 못 산다고 하지. 옛날엔 그거 있었어. 그것이 그리고 현실이었었고. 그렇게

살아야 시집살이를 이겨내는 거야.}

10218 @ 혹시 그 시어머니미 뭐 이케 쫘 구바글 헐다든가 이런거는 업쓰셔썬요?  
뭐 모탄다고 또.{혹시 그 시어머니미 뭐 이렇게 쫘 구박을 한다든가 이런 것  
은 없으셨어요? 뭐 못한다고 또.}

10218 # 나는 땅거시 아니라, 인자 우리 저 거시기 이씨씨. 시이모 메느리, 나하고  
이케 가치 비스더게 어더꺼든. 어던는디 그 메느리는 참 거시기혀썬서, 살림  
욕씨미 마내가꼬 막 가마이도 짜고, 막 저녁기 미싱 바느질 히서 돈도 벌고  
그리썬서. 그 메느리는. 이유사촌 동서지.{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저 거시기 있었어, 시이모 며느리. 나하고 이렇게 같이 비슷하게 얻었거든. 얻  
었는데 그 며느리는 참 거시기 했었어, 살림욕심이 많해갖고 막 가마니도 짜  
고, 막 저녁에 미싱 바느질 해서 돈도 벌고 그랬었어. 그 며느리는. 이웃사촌  
동서지.}

10218 # 근디 나는 그런걸 안히썬. 언제 내가 가마이 짜고 언제 미싱 해서 돈버를  
시간도 업꼬. 으른덜 뒤빠라지 허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항상  
그 불만이어썬서. 나대러 욕썬 업따고.{그런데 나는 그런걸 안 했어. 언제 내  
가 가마니 짜고 언제 미싱 해서 돈 벌 시간도 업고. 어른들 뒷바라지 하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항상 그 불만이었었어. 나더러 욕썬 없다고.}

10218 # 가는 그르케 욕썬 마내가꼬 돈도 벌고 허는디 너는 어트게 그케 욕썬도  
업냐고 그러구 허면냥, 나는 기양 어머니가 허시건 어찌건 나는 기양 말대꾸  
가 업썬.{개는 그렇게 욕썬 많해갖고 돈도 벌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욕썬도 업냐고 그러고 하면은, 나는 그냥 어머니가 하시건 어찌건 나는 그냥  
말대꾸가 업어.}

10218 # 내가 어찌네 어찌내 말허면 그기또 말대다비자나. 그러니까 나는 마를 안  
는거야. 내가 헐릴만 허기도 바빠 주건는디 온제 가마이 짜고 미싱질 허고  
봐. 사라두 건너뛰 그러거썬.{내가 어찌네 어찌네 말하면 그것이 또 말대답이  
잖아. 그러니까 나는 말을 안 하는 거야. 내가 할 일만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가마니 짜고 미싱질 하고 봐. 살아도 건너뛰. 그러겠어.}

10218 # 그래 나더러 욕썬 업따고 우리 어머니가 항상 그케 불만이어썬서.{그래,  
나더러 욕썬 없다고 우리 어머니가 항상 그케 불만이었었어.}

10218 @ 너두 쫘 돈 쫘 버러라 이런 얘기연나보네. # 그치. 근디 아이고, 그르케  
돈 벌 사라미나, 나 돈 안 번 사라미나 똑까태.{너도쫘 돈쫘 벌어라 이런 얘  
기였나보네. # 그렇지. 그런데 아이고, 그렇게 돈 벌 사람이나, 나 돈 안 번  
사람이나 똑같아.}

#### 1.2.4.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

10216 @ 그러며는 그 이제 바깥 어르시니 이케 생화려기 아까 별루 업쓰시다고  
그러서짜나요. 그러며는 자식들 어트게 키우서때요.{그러면은 그 이제 바깥  
어르신이 이렇게 생활력이 아까 별로 없으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은 자  
식들 어떻게 키우셨대요?}

10216 # 어트게 키워요. 내가 막 그 악 허까구 키워찌. 애덜.{어떻게 키워요. 내가  
막 그 악 해갖고 키웠지. 애들.}

10216 @ 그까 아니 애들 학교를 가르칠라면 돈도 이써야 # 영. 나미집 까 돈도  
별고 막 그리써 내가. 그리키 히서. 응 그리키 해가꾸 애덜 다 가르쳐써.{그러  
니까 아니 애들 학교를 가르치려면 돈도 있어야. 영. 남의 집 가서 돈도 벌고  
막 그랬어, 내가. 그렇게 해서. 응 그렇게 해갖고 애들 다 가르쳤어.}

10216 # 그러케 해서 다 중해교도 가르치고 히써. @ 세상에 얼마나 # 그리가꼬.  
{그렇게 해서 다 중학교도 가르치고 했어. 세상에 얼마나. 그래갖고.}

10216 @ 한 둘도 아니고 다서시나.{한 둘도 아니고 다섯이나.}

10216 # 궁게 애들이 막 에미라면 끄찍케 해. 그래가꾸 우리 망내따른, 망내따리  
구 망내아드른 고등해교까지 가르친는디, 그 세슨 중해교까지뻘 못 가르쳐써.  
궁게 우리 큰따른 참 머리가 조아써꺼든. 근디 가를 못 가르쳐써.{그러니까  
애들이 막 어미라면 끄찍하게 생각해. 그래갖고 우리 막내딸은, 막내딸하고  
막내아들은 고등학교까지 가르쳤는데, 그 셋은 중학교까지밖에 못 가르쳤어.  
그러니까 우리 큰딸은 참 머리가 좋았었거든. 그런데 개를 못 가르쳤어.}

10216 # 지금도 후회돼서 혀. 나도 후해되야. 그도 그놈만 잘 가르쳐써두 쉬운디  
인저. 그런 생각뚜 허는데. 그리도 즈드리 고마운 지 알고 잘형게.{지금도 후  
회들 해. 나도 후회 되어. 그래도 그놈만 잘 가르쳤어도 쉬운데 이제. 그런 생  
각도 하는데. 그래도 저들이 고마운 줄 알고 잘 하니까.}

10216 @ 먹꾸 살기 힘드니까.{먹고 살기 힘드니까.}

10216 # 중해교만 내놔써도 다 즈드리 고마워 혀. 그러케 해서 애들 거시겨써. 우  
리 영가문.{중학교만 내놔서도 다 저들이 고마워 해. 그렇게 해서 애들 거시  
기했어. 우리 영감은.}

10216 @ 그러며는 이케 다른 지베, 다른 집 이를 하셔파는 거자나요. # 예, 따른  
집 일히써요. @ 다른 집 일, 무슨 일. # 가서 막, @ 바느질, 이런 거요? #  
아이, 식땅 가튼 디 가서 일도 허고 막 그리써, 내가. 그런디 가서 일도 마니  
히써요.{그러면은 이렇게 다른 집에, 다른 집 일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다  
른 집 일했어요. 다른 집 일, 무슨 일? 가서 막, 바느질 이런 거요? 아니, 식  
당 같은 데 가서 일도 하고 막 그랬어, 내가. 그런데 가서 일도 많이 했어요.}

10216 # 그리키 해가꼬 애덜 가르치고 머기고, 그리키 히써.{그렇게 해갖고 애들  
가르치고 먹이고, 그렇게 했어.}

10216 @ 지베서 이러케 살림만 하시다가 자식들 태어나서부터는 막. # 왜냐며는  
애드리 크니까 막 누니 화딱 뒤지버지더라망. 그래 가들 오토케서 자들 응,

국민해표래두 가르치랴 시프니까 정신이 파딱 나드라고. 그리가꾸 안디거떠라구. 그리서 그르케 내가 뛰어드른거지.{집에서 이렇게 살림만 하시다가 자식들 태어나서부터는 막. 왜냐하면은 애들이 크니까 막 눈이 화딱 뒤집어지더라고. 그래 개들 어떻게 해서 재들 응, 국민학교라도 가르치랴 싶으니까 정신이 파딱 나더라고. 그래갖고 안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내가 뛰어들은 거지.}

10216 @ 그럼 여기 가게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그럼 여기 가게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10216 # 어디? @ 여기서 인제 가게, 점, 아 이, 여기 가게를 하신 건 아니고 가게 찌브로 오신 거여썬요? {어디? 여기서 이제 가게, 아 이, 여기서 가게를 하신 건 아니고 가겟집으로 오신 거였어요?}

10216 # 어 영. 내가 왜 이 지베 어트게서 완냐면은 내가 내내 나가서 인자 이르게 사러꺼든. 인자 사런는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시누허고 여기서 사러썬. 이 지베서. 이지베서 사르션는데, 따리고도 몰쌀건는가보데. 그리가지고 나중이는 우리더러 두루라고시더라고, 우리 어머니가.{영, 내가 왜 이 집에 더허게 해서 왔냐면은 내가 내내 나가서 이제 이렇게 살았거든. 이제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시누하고 여기서 살았었어. 이 집에서. 이 집에서 사셨는데, 딸하고도 못 살겠는가보데.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우리더러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10216 # 그래 가지고 인자 우리가 여기다 두룬거지. 이 지비 그저네 이케 썬러져 썬. 궁게 이 지비. 막 말 혈꺼뚜 업썬. 근디 이 네 시앙 고치고 그러구 내가 두룬거지. 이르게 해서 두룬거지.{그래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 들어온 거지. 이 집에 그 전에 이렇게 쓰러졌었어. 그러니까 이 집이. 막 말 할 것도 없었어. 그런데 이 네 고치고 그렇게 하고 내가 들어온 거지. 이렇게 해서 들어온 거지.}

10216 @ 저는 여기서 가게를 하셔서 그러케 해서 자식들 가르치셨나 그래따가. {저는 여기서 가게를 하셔서 그렇게 해서 자식들 가르치셨나 그랬다가.}

10216 # 그 우리 어머니가 인자 그르케 인자 우리더러 두로라고히가꼬 글도 안 되 겠더라고 부모자식까닌디. 그도 어머니 어찌면 먼너니라도 퍼너게 사르시야겠 떠라고. 그래서 두루시, 두루라고 그러케 허시겠래 우리가 두룬거여.{그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더러 들어오라고 해갖고, 그래도 안 되겠더라고, 부모자식 간인데. 그래도 어머니 어찌면 몇 년이라도 편하게 사셔야겠더라고. 그래서 들어오시, 들어오라고 그렇게 하시길래 우리가 들어온 거야.}

10216 # 그래가꾸 내내 내가 인자 애들 다 인자 나가서 다 가르쳐썬. 내가. 가르쳐썬자 애들 다 여우사리 다 시키구 그리썬서.{그래갖고 내내 내가 이제 애들 다 이제 나가서 다 가르쳤지. 내가. 가르쳐서 이제 애들 다 결혼 다 시키고 그랬었어.}

### 1.2.5. 시집살이에 대한 경험담

10219 @ 그 이키 처으메 시집 와쓸 때 그 친정에 그 집, 지베서 이르게 해똥거랑 시대카고 먼가 이르게 다른 거뜨리 이짜나요. 그래서 좀 골란하고 그런 적 이 쓰셔썬요? 음식 만드는 거나, 머 이런 거.{그 이렇게 처음에 시집 왔을 때 그 친정에 그 집, 집에서 이렇게 했던 거랑 시대카고 뭔가 이렇게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곤란하고 그런 적 있으셨어요? 음식 만드는 거나, 머 이런 거.}

10219 # 우리 어머니는 참 음식 솜씨가 조아썬썬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음식 솜씨도 조코, 바느질또 자라시고. 욱썬도 만코, 참 우리 어머니는 진짜 남자 지짜너게 이케 부지런 허셔썬썬.{우리 어머니는 참 음식 솜씨가 좋았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음식 솜씨도 좋고, 바느질도 잘 하시고. 욱심도 많고. 참 우리 어머니는 진짜 남자 못지않게 이렇게 부지런 하셨었어.}

10219 # 그르디 나는 바느질또 그케 자란편도 아니고 음식 쪼케 자란 편도 아녀. 왜냐며는 친정에서 기양 이르게, 보통 기양 이르게 허서 먹꼬. 이리케 음식 가튼 거 이르게 자랄 때두 동네 으른드리 모여서 이르게 가치들 허고.{그런데 나는 바느질도 그렇게 잘 한 편도 아니고, 음식도 잘 한 편도 아니야. 왜냐하면은 친정에서 그냥 이렇게 보통 그냥 이렇게 해서 먹고. 음식 같은 거 이렇게 자랄 때도 동네 어른들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들 하고.}

10219 # 그러꿈 인자 특빠리 머 우리는 그러케 머 음식 꼬테 허서 머근 적뚜 읍꾸. 그리니까 크닐 칠 때는 다덜 와서덜 허고 그러니까 이제 가치 허고 그케 힌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케 참 자라시더라고.{그렇고 이제 특별이 뭐, 우리는 그렇게 뭐 음식 끝에 해서 먹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큰일 치를 때는 다들 와서들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같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케 참 잘하시더라고.}

10219 # 궁게 인저 내가, 그런 걸 인자 모더니까 우리 어머니가 썬 안조아히찌. 나는 양 참 귀머거리 삼 년, 병어리 삼 녀니라구야 우리 어머니 허시는 대루 따러가서 허찌. 따러서. 따러서만 허찌.{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런 걸 이제 못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좀 안 좋아했지. 나는 그냥 참 귀머거리 삼 년, 병어리 삼년이라고 해야 우리 어머니 하시는 대로 따러가서 했지. 따라서, 따라서만 했지.}

10219 # 그러니까 인저 불마니 엄는거여. 으른 허시는 대루 따러서 허니까. 인저 내 말대비라도 콩당콩당 허고 뭐 잘난 체라도 험사 이제 그케 불마닌디, 그러들 안하니까.{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없는 거야. 어른 하시는 대로 따라서 하니까. 이제 내 말대답이라도 콩당콩당 하고 뭐 잘난 체라도 하면 이제 그케 불만인데, 그러들 안하니까.}

- 10219 @ 그케 인자 저두 겨론하고나서 보니까 친정어서 이르게 머 하던 게 다르고 그러더라구요.{그케 이제 저도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친정에서 이렇게 뭐 하던 것이 다르고 그러더라구요.}
- 10219 # 짐치 담는 거뚜 다 틀러. 다 틀러. 궁게 으르니 허시면 기양 이르게 누느로 보면 돼.{김치 담는 것도 다 틀러. 다 틀러. 그러니까 어른이 하시면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면 돼.}
- 10219 # 허먼 말 대다비고. 그케 허실면 되여. 우리 어머니는 참 잘허셔써. 음식또 잘 허시고.{하면 말 대답이고. 그렇게 하면 돼. 우리 어머니는 참 잘 하셨어. 음식도 잘 하시고.}
- 10219 # 인저 특빠리 내기다 매끼든 안히써. 그런거.{이제 특별히 내게다 맡기지는 안 했어. 그런 거.}
- 10219 @ 그러며는 시집 오시기 저네는 머 밥 까튼 거 하고 이러는거 별루 안 하셔써요?{그러면은 시집 오시기 전에는 뭐 밥 같은 거 하고 이러는 거 별로 안 하셨어요?}
- 10219 # 혀찌. 혀 먹다 와찌. 혀 먹꾸 완는데 짐치 가튼 거 인저 어머이가 다 당꾸. 친정 어머이가. 그러면 인자 그리가꾸 뭐 반찬 만들 때두 인자 자그매 이꾸 형게 자그매가 만드러서 이케 허구. 머 별루 그케 내가 부어게 대서 신경을 안 써찌.{했지. 해 먹다 왔지. 해 먹고 왔는데 김치 같은 거 이제 어머니가 다 담고, 친정 어머니가. 그러면 이제 그래갖고 뭐 반찬 만들 때도 이제 작은엄마 있고 하니까 작은엄마가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뭐 별루 그렇게 내가 부억에 대해서 신경을 안 서 썼지.}
- 10219 # 어머이들 나가시면 내 바쁜 허고. 어, 인는 반찬이니까. 그르케 허고 인자 청소 허고 뭐 빨래 허고 그러거쯤 허다 시집 와찌. 이 시집 오니까 다 전부 내 채김이자나.{어머니들 나가시면 내 밥은 하고. 어, 있는 반찬이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청소 하고 뭐 빨래 하고 그런 것쯤 하다 시집 왔지. 이 시집 오니까 다 전부 내 책임이잖아.}
- 10219 # 그래 친정어서 다 히야돼.{그래, 친정에서 다 해야 돼.}
- 10219 @ 다 해야 돼.{다 해야 돼.}
- 10219 # 어트게, 어트게 생긴 지블 가야 혈찌 모룽게 다 히야돼. 머시고 다 배워야 돼.{어떻게, 어떻게 생긴 집을 가게 될지 모르니까 다 해야 돼. 무엇이고 다 배워야 돼.}
- 10219 @ 그 혹씨 제사 지내고 이러는 거뚜 친정하구 이르게 시댁하고 다르고 그러셔써요? {그 혹씨 제사 지내고 이러는 것도 친정하고 이렇게 시댁하고 다르고 그러셨어요?}
- 10219 # 달르데. 왜냐며는 우리 친정이는 이르게 음시글 부치구 다 허기는 혀. 다 인자 뵤밥, 이르게 국 끄리고 밥 허는 건 다 똑까튼데. 우리 친정이는 그러케 기양 이르게 막 부치개 가튼 거또 마니 안 해.{다르데. 왜냐하면은 우리 친정

에는 이렇게 음식을 부치고 다 하기는 해. 다 이제 메밥, 이렇게 국 끓이고 밥 하는 건 다 똑같은데. 우리 친정에는 그렇게 그냥 이렇게 막 부침개 같은 것도 많이 안 해.}

10219 # 이 지바는 널버도 이케 간판허게 히서 인자 지사 지낸 기 이튼날 저녁게 지반 으른들 오시라고 히서 가치 나뉘는 먹찌. 머거도 인자 그르케 해서 인자 간판허게 히서 지사를 지내는다. 그도 간판허게 헐다고 히도 그도 지금보다는 버런나 허지.{이 집안은 넓어도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이제 제사 지낸 그 이튼날 저녁에 집안 어른들 오시라고 해서 같이 나뉘는 먹지. 먹어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해서 제사를 지내는다. 그래도 간단하게 헐다고 해도 그래도 지금보다는 벌었나 허지.}

10219 # 시지브로 오니까 우리 어머니는 아침부터 처를 거르면 해 찰룽따구 허지만 저녁밥 머글 때까지 철질을 허는 거야.{시집으로 오니까 우리 어머니는 아침부터 철을 걸면, 해는 짧다고 하지만, 저녁밥 먹을 때까지 철질을 하는 거야.}

10219 # 왜냐면 별루 찌는 거시 읍씨. 그리고 다 생으루다 익꾸시는 거야. 생으루다 익꾸시는 거야, 처레다가. 그래니까 얼마나 더디냐구 이게. 그리구양 생선도 그케 마니 사 또. 과히도 사. 사가꾸는 애튼 기 이튼날 동네 잔치를 허능 거야.{왜냐하면 별로 찌는 것이 없어. 그리고 다 생으로 익히시는 거야. 생으로다 익히시는 거야, 철에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더디냐고, 이게. 그리고 그냥 생선도 그렇게 많이 사사 또. 과하게도 사. 사갖고는 하여튼 그 이튼날 동네 잔치를 하는 거야.}

10219 # 엔나레 지향도 얼마나 마니씨. 그때만히도 머글 만치 살고 그렇게. 그레가꾸 막 인저 우리 임씨더리 저거슬, 저짜 똥니서 살 때는 땀 임씨들 이씨씨. 엄청 마니씨, 동네가. 지그밍게 인자 태성바지드리 마니 드러와서 글지.{옛날에 제향도 얼마나 많이 있어. 그때만 해도 먹을 만큼 살고 그러니까. 그레갓고 막 이제 우리 임씨드리 저것을, 저짜 동네에서 살 때는 땀 임씨들 있었어. 엄청 많이 있어, 동네가. 지금이니까 이제 타성받이가 많이 들어와서 그렇지.}

10219 # 글치, 저짜 고개 너므면 저 무월령이라는 동네가 인는다, 거기도 임씨드리 마녀. 궁게 우리집또 제일 장소니어씨씨. 궁게 지향 모시머는 여그저그서 사무 모이는 거야. 삼사 동네서 다 모이는 거야. 이제 켈 으르신들 지향을 모싱게.{그렇지.저짜 고개 넘으면 저 문월령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도 임씨들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집도 제일 장손이었었어. 그러니까 제향 모시머는 여기저기서 사뭇 모이는 거야. 삼사 동네서 다 모이는 거야. 이제 제일 으르신들 제향을 모시니까.}

10219 # 그러면인자 방에 서서 인자 지향 모시는 사람들, 바께 마룽에가 족 서서 모시는 양반, 저짜 오뽕 가서 인자 또 서서 모시는 양반덜. 하튼, 방, 마루로 짹 차, 이러케.{그러면 이제 방에 서서 이제 제향 모시는 사람들, 밖에 마루에

가 죽 서서 모시는 양반, 저쪽 윗방 가서 이제 또 서서 모시는 양반들. 하여튼 방, 마루로 짝 차, 이렇게.}

10219 # 자, 그러면 기양 저너게 인자 지향 모시고 나서 인자 바블 다, 또 지사뺨 떨어 먹짜나. 상을 채려노면 어러가지고 더그르잉 미끄러지고, 더그르잉 미끄러지고, 하이고, 그 춘디 그냥 아무리 부어근 널롭꾸 허다기도 기양 금방 때서 놔도 기양, 먼저 놓 그르슨 저기 어러 미끄러지네.{자 그러면 그냥 저녁에 이제 제향 모시고 나서 이제 밥을 다, 또 제사밥을 먹잖아. 상을 차려 놓으면 얼어가지고 더그르잉 미끄러지고, 더그르잉 미끄러지고, 하이고, 그 추운 데 그냥 아무리 부엌은 넓고 하다고 해도 그냥, 금방 때서 놔도 그냥, 먼저 놓은 그릇은 저기 얼어 미끄러지네.}

10219 # 그러면 인자 나중이 인자 구거고 바버고 뜨끈뜨끈하게 히서 이케 상 디러 가찌.{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국하고 밥하고 뜨끈뜨끈하게 해서 이렇게 상 들여갔지.}

10219 # 잡순는 양반드리사 거시기허지만 뵈키서 허는 사라몬 죽꺼썬. 아우 기냥 자꾸 어러서 미끄러나갈게.{잡순는 양반들이야 거시기하지만 부엌에서 하는 삶은 죽겠어. 아우, 그냥 자꾸 얼어서 미끌어나가니까.}

10219 # 그, 그르케 해서나 해튼 다 상차리서 해노코, 다 히서 기이튼날 또 다 음식 다 인자 오시는 양반들, 오시라기서 또 식싸 대저버고, 또 다 이케 기양 다 인저 지찌마다 떠거고 싸서 인자 또 이르게 다 보내고 인자. 그 추운디 기양 우리집 시누들 기양 별벌 떨어댕기면서 다 날르는거야.{그, 그렇게 해서 하여튼 다 상 차려서 해 놓고, 다 해서 그 이튼날 또 다 음식, 다 이제 오시는 양반들 오시라고 해서 또 식사 대접하고, 또 다 이렇게 그냥 다 이제 집집마다 떡하고 싸서 이제 또 이렇게 다 보내고 이제. 그 추운데 그냥 우리집 시누들 그냥 별벌 떨어 다니면서 다 나르는 거야.}

10219 # 그렇게, 나는 기양 그케 죽건는거야. 아이고 쪼끔만 허가꼬 증말 잡수꼬 마르면 쓰건는디. @ 근디 워낙 서너 동네 사람드리 다 모이면.{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케 죽겠는 거야. 아이고 조금만 해갖고 정말 잡숫고 말면 되겠는데. 그런데 워낙 서너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면.}

10219 # 다 쓰주고 저러케 다 막 지이튼날 아침까지 또 저러케 그리가고, 어머니가 허싱께 암마또 안치. 구시나 보고 @ 그럼 시장보는 거는 누가 보셔썬. # 시장 보는 거는 우리 아번니미 다 봐놔, 아번님이.

10219 # 그민자 여그 지금 장에서. @ 대야장에서?{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장에서. 대야장에서?}

10219 @ 근데 옴나레는 그 상어가, 상어, 옴날 쌍어 마시썬. 시방 인자 상어도 마듭썬. 옴날 상어 막 이렌놈 사다가서나 그막 치기 역꼬 인자 꺾떼기 베끼거든. 그 꺾끄런거. 베끼가꾸서 그놈 포떼가꾸 부치머는 참 오져썬.{그런데 옛



날에는 그 상어가, 상어, 옛날 상어 마시셨어. 지금 이제 상어가 맛없지. 옛날 상어 막 이런놈 사다가 그막 치기 엮고 이제 꺾테기 벗기거든. 그 꺾끄러운 것. 벗겨갖고 그놈 포 떠서 부치면은 참 오졌었어.}

10219 # 홍어는 양쪽 볼 떠면 가운데 벨루 머글 꺼 읍찌만 상어는 이 머리만, 머리두 이케 포 떠가꾸 부치면 그거뚜 머글만혀써. 그렇게로 상어는 나갈 꺼 시 업써꺼든. 상어 뒤 마리만 사면 애튼 잔치혀. 이만뚜헌 놈 사면.{홍어는 양쪽 볼 떼면 가운데 벨루 먹을 것 없지만, 상어는 이 머리만, 머리도 이렇게 포 떠서 부치면 그것도 먹글만 했었어. 그러니까 상어는 나갈 것이 없었거든. 상어 두어 마리만 사면 하여튼 잔치해. 이만한 것 사면.}

10219 # 시방은 상어두 만뚜 업떠라고. 옛날에는 상어가 마시쨌는디.{지금은 상어도 맛도 없더라고. 옛날에는 상어가 맛있었는데.}

10219 @ 이 동네는 바다까라 그런 생서니 마니 올라가쥬 꺼 가타요. {이 동네는 바닷가라 그런 생선이 많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10219 # 그런 거 올라가고 홍어 올라가고 상어, 조기, 머 기본저그로 그런 거는 다 올라가지.{그런 거 올라가고 홍어 올라가고 상어, 조기, 뭐 기본적으로 그런 거는 다 올라가지.}

10219 @ 제사 음식 준비하고 이런거는 제사 며칠 전부터 해써야되젠네.{제사 음식 준비하고 이런 것은 제사 며칠 전부터 했어야 되겠네.}

10219 # 아, 인자 장날 되면 사다가 다 인자 손질히서 그놈 간해 놔따가 또 인자 기이튼날 너려서 말려가지고, 혀가지고 인자 내리 지향이라고 하면자 오늘 다 꼬지를 꿰어놔야돼.{아 이제 장날 되면 사다가 다 이제 손질해서 그놈 간 해놔다가 또 이자 그 이튼날 널어서 말려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내일이 제향이라고 하면 이제 오늘 다 꼬지를 꿰어놓아야 돼.}

10219 # 꼬쟁이인자, 다 꼬쟁이 썰꺼 꿰고 포 뜯꺼 포 뜨고 히서 다 여놔따가 기이튼날 아침부터 그거 부치는거여.{꼬쟁이 이제, 다 꼬쟁이 썰 거 꿰고, 포 뜯 것 포 뜨고, 해서 다 넣어 놓았다가 그 이튼날 아침부터 그것을 부치는 거야.}

10219 @ 그럼 그런 제사 음식 준비할 때, 그 친척 뿐들도 와서 가치 하고 그래써요?{그럼 그런 제사 음식 준비할 때 그 친척분들도 와서 같이 하고 그랬어요?}

10219 # 오지. 지반 인자 할머니랑 오셔가꼬 인자 가치들 혀고. 이제 그 양반덜 오칠 부게요, 그 철질만 좀 해주고 가면 끝나지. 그 뒤에 다 칠려봐.{오지. 집안 이제 할머니랑 오셔서 이제 같이들 하고. 이제 그 양반들 와서 그 철질만 좀 해주고 가면 끝나지. 그 뒤에 다 치우려고 해봐.}

10218 # 그 우리 큰아드를, 우리 징지할머니 모시고 나서, 초대썰나리 지사여써꺼든, 동지딸 초대썰날. 그런데 내가 초이렌날 가를 나썰. 그렇게 기양 그 배가

이르케 불른누를 가꾸서 그 제사를 모시고 나떠니 우리 대고모드리 그러드려 구, 너는 애기도 순산히도 순다, 순다, 나보고 그러고 허시드라고, 지향 모시러 와가꼬.{그 우리 큰아들을, 우리 증조할머니 모시고 나서, 초닷셋날이 제사였거든, 동짓달 초닷셋날. 그런데 내가 초이렛날 개를 낳았어. 그러니까 그냥 그 배가 이렇게 부른 놈을 갖고서 그 제사를 모시고 났더니 우리 대고모들이 그러드라고, 너는 아기도 순하게도 선다, 선다, 나보고 그러고 하시드라고, 제향 모시러 와서.}

10218 # 그리더니 초이렛날 내가 새버게 가를 나썸. 게 기양, 가 배가꼬 이케 일만 허서 그랜는가, 애가 쪼깐허더라고. 애가 지깐허더라고.{그리더니 초이렛날 내가 새벽에 개를 낳았어. 게 그냥, 개 배갖고 이렇게 일만 해서 그랜는가, 애가 조그맣더라고. 애가 조그맣더라고.}

10218 @ 얼마나 안쓰러워요.{얼마나 안쓰러워요.}

10218 # 그때는, 옌나리는 시집싸리가 아무리 편하디기히도 참 한 갈똥은 다 이썸 썸썸.{그때는 옛날에는 시집살이가 아무리 편하다고 해도 참 한 갈등은 다 있었어.}

10220 @ 그 저기 뭐야, 시아재들하고도 살, 이러케 한 지베서 처음부터 사러따고 하셔짜나요. # 처음에 사러썸. @ 그러면은 그, 뭐야 시어머니 시집싸리 이렇거 별루, 사시른 별루 그러케 만치는 아느셔썸는데, 그 시아재 눈치보고 이러는 거는 업썸썸요?{그 저기 뭐야, 시아주버니하고도 살, 이렇게 한 집에서 처음부터 살았다고 하썸썸아요. 처음에 살았지. 그러면은 그, 뭐야 시어머니 시집살이 이런 거 별로, 사실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았으썸는데, 그 시아주버니 눈치보고 이러는 것은 없었어요?}

10220 # 아이, 시아재들뚜 그게 뭐 그런 눈치는 업썸썸. 그런 눈치는 업썸는데, 내가 허서 메기고 이피기가 힘드러썸. 그게 힘드러썸.{아이, 시아주버니들도 그게 뭐 그런 눈치는 없었어. 그런 눈치는 없었는데, 내가 해서 먹이고 입히기가 힘들었지. 그게 힘들었지.}

10220 @ 구박 뽀구 이런거는 별루 업썸네요. # 응 그런 거는 업썸썸. 구박뽀구 그런 거는 업썸네디 @ 이리 만나서 # 응, 이리 만나서 인자 다, {구박 받고 이런 것은 별로 없었네요. 응, 그런 것은 없었어. 구박 받고 그런 것은 없었는데. 이리 많아서. 응, 일이 많아서 이제 다,}

10220 # 그때는 다 명주뵈 저서 물 디려서 다드머서, 우리 시누들또 다 바느장 거러서 다 그러케 해서 다 꾸며 이퍼썸. 다 다드머서, 노랑물 드리고 보랏물 드리고, 자준물 드리고 히서 다 바느장 껴서 그르케 다 바느질 따 허서 입퍼썸.{그때는 다 명주뵈 저서 물들여서 다듬어서, 우리 시누들도 다 반회장 걸어서 다 그렇게 해서 다 꾸며 입혔어 다 다듬어서 노랑물 들이고 보랏물 들이고, 자줏물 들이고 해서 다 반회장 껴서 그렇게 다 바느질 다 해서 입혔

어.}

10220 # 궁게 항상 그게 바쁜거야 그게. 항상. 그 명지 거슨 금방이나 뜨뜨래져? 밤새더락 뚜뜨리야 되는데. 그때만 히도 질쌘 허면서 다 오슬 입꼬 사러야하닌까, 명지뵈 나서 하고. 다 허더랑께. 우리 하라베 두르매기를 헐래바 주꺼찌.{그러니까 항상 그게 바쁜 거야, 그게. 항상. 그 명주 것은 금방이나 뜨뜨래져? 밤새도록 두드려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질쌘 하면서 다 옷을 입고 살아야 하니까. 명주베 나서 하고. 다 허렁강께. 우리 할아버지 두르매기를 하려고 해봐, 죽겠지.}

10221 @ 그 그때 어르시니 며느리로 그러케 해튼 생활하고 지금 며느리하고 이러케 비교해 보면 어떠세요?{그 그때 어르신이 며느리로 그렇게 했던 생활하고 지금 며느리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떠세요?}

10221 # 참 느드른 지금 존 때 태어나따. 내가 그러지. 참 존 세상 태어나따, 그러케 생각허지. 그러치 아니요? 얼마나 존 세상이여. 그럼.{참 너희들은 지금 좋은 때 태어났다. 내가 그러지. 참 좋은 세상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그럼.}

10221 # 근디 인자 우리는 인자 늘거가지고 인자, 그리도 우리도 느껴라도 이런 세상을 보니까.{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늙어서 이제, 그래도 우리도 늦게라도 이런 세상을 보니까.}

10221 @ 그래도 이러케, 이러케 가끔 며느리 볼 때 인제 며느리가 마메 안 드는 그런 부분드리 인제, 살다보면 이러닐 저러닐 인는 거 아니요? 그러면, 야 난 절물 때 이래따 이런 말씀 안하세요? # 아니아녀. 그런 소리 듣기 실치.{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가끔 며느리 볼 때 이제 며느리가 맘에 안 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살다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는 거 아니요? 그러면, 야 난 젊을 때 이랬다, 이런 말씀 안하세요? 안 해 안 해. 그런 소리 듣기 싫어하지.}

10221 # 그리고 각각 사르니까 헐 피료도 읍꾸. 어찌다 한번씩 만나는데 며. @ 나뿔 꺾뚜 엽꼬. # 그럼, 그럼. 즈는 즈대로 허서 먹꾸 사는데 며, 그런 소리 헐봐짜 매시 시어머니지 뭐여.{그리고 각각 사니까 할 필요도 없고. 어찌다 한번씩 만나는데 뭐. 나뿔 것도 없고. 그럼, 그럼.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해서 먹고 사는데 며, 그런 소리 해봤자 매시 시어머니지 뭐여.}

10221 @ 요즘도 또 시어머니 노릇 하시는 분들뚜 이짜나요? # 할 피료가 읍써. 거시기 조아허지도 안꾸. {요즘도 또 시어머니 노릇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할 필요가 없어. 거시기 좋아하지도 않고.}

10221 @ 조아하지는 안쵸. # 그럼, 하이구. @ 아이구, 조아하지는 아내두 그래두 그 뭐야, 내가 시집사리 할 때는, 이걸 이베 달구 다니시는 분들또 마너요. 요즘도. # 할 피료 엽써. 그런건 할 피료가 읍써. 할 피료가 읍써.{조아하지는 안쵸. 그럼, 하이구. 아이구 좋아하지는 안 해도 그래도 그 뭐야, 내가 시집살

이 할 때는, 이것을 입에 달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요. 요즘도. 할 필요 없  
더.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없어. 할 필요가 없어.}

10222 @ 며느리랑 딸 사위들 다 어르신 잘 하시고 그러죠?{며느리랑 딸 사위들  
다 어르신께 잘 하시고 그러죠?}

10222 # 진떨 뭐 와야 뭐 하루저녁 이틀저녁 자면 가는데. {집에들 뭐 와야 뭐 하  
룻저녁, 이틀저녁 자면 가는데.}

10222 @ 그래두 참 이러케 어디 갈 때 이때능게 참 조은 거 가타요. 보면.{그래도  
참 이렇게 어디 갈 데 있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보면.}

10222 # 예. 글구 즈드리 내가 일케 고생하고 사러파는 거슬 아러주니까, 그리서  
나는 조치. 뭐 땅 거 다 바랄 꺼 업써. 즈네 아버지 그르케 막 생활력 읍써가  
꼬 엄마가 고생해따고 해싸.{예. 그리고 자기들이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살았  
다는 것을 알아주니까, 그래서 나는 좋지. 뭐 다른 거 다 밭 것 없어. 자기 아  
버지 그렇게 막 생활력 없어서 엄마가 고생했다고 해.}

10220 @ 그럼 그 평생을 이를 안하셔떤 거예요? 바까더르니?{그럼, 그 평생을 일  
을 안하셨던 거예요? 바깥어른이?}

10220 # 안히씨요. 낙씨질만 다녀씨요. 아침 잡쑤머는 옛날 그 갠목 학또기나 빵  
귀가꼬, 그니께 꼭꼭 우겨, 낙씨빡. 꼭꼭 그 체이나 처가꼬. 그 갠모글 다 체  
이다 처요. 다 체이다 처가지고, 처가지고 일케 꼭꼭 뭉쳐가꼬, 그거 혀가꼬  
딱 도시락, 나더러 싸달라고 안혀. 당시니 딱 도시락 싸가꼬 딱 질머지고 나  
가면 끝나.{안 했어요. 낙씨질만 다녀었어요. 아침 잡수면은 옛날 그 갠목 학독  
에다 빵아서, 그러니까 꼭꼭 우겨, 낙씨밥. 꼭꼭 그 체에다 처서. 그 갠목을  
다 체에다 처요. 다 체에다 처서, 처서 이렇게 꼭꼭 뭉쳐서, 그거 해가지고 딱  
도시락, 나더러 싸달라고 안 해. 당신이 딱 도시락 싸갖고 딱 짹어지고 나가  
면 끝나.}

10220 @ 그럼 저녁때 오셔? # 엉.{그럼 저녁때 오셔요? 응.}

10220 # 처니 천말허고 마니 만말 히도 뒤 안도라봐. 그 양바는. {천 번 말을 하  
고 만 번 말을 해도 뒤 안 돌아봐. 그 양반은.}

10220 @ 그러며는 어르시니 이케 계속 얘기는 해씨요? {그러면은 어르신이 이러  
게 계속 얘기는 했어요?}

10220 # 내가? 아이고, 제발 아번님 고생하시능게 좀 도와줘, 도와줘. 안드러.{내  
가? 아이고, 제발 아번님 고생하시니까 좀 도와줘, 도와줘. 안 들어.}

10220 @ 아번니른 얘기 안하셔씨요? {아번님은 얘기 안하셨어요?}

10220 # 아이고, 우리 아번님 얼마나 화내시고 뭐라 헨다구. 그리서 결구그는 나  
간겨야. 여피서 막 화내셔싸서 모쌀거씨. 나까다 두:시면 화내셔싸서 모쌀거  
씨. { 아이고, 우리 아번님 얼마나 화내시고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간 거야. 옆에서 막 화내서 못 살겠어. 났다 들어오시면 화내셔서 못 살겠어.}

10220 @ 그럼 마를 안 드른거네 그럼. # 응.{그럼 말을 안 들은 거네, 그럼. 응.}

10220 # 공께 그제, 다기 허고 시폰대로만 허는 거여, 그러케. 그, 왜 낙씨질만 허냐구. 응 절르고 절른 나이에.{그러니까 그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거야. 그렇게. 그, 왜 낙씨질만 하냐고. 응, 젊고 젊은 나이에.}

10220 # 그러니까 나중에는 술만 잡쭈다가 도라가셔써. 술만 잡쭈서. 공께. @ 그럼 병드러 도라가셔써요? # 아니, 병, 뭐 그런 거슨 음는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술만 잡쭈다가 돌아가셨어. 술만 잡쭈서. 그러니까. 그럼 병들어 도라가셨어요? 아니. 병, 뭐 그런 것은 없는데.}

10220 # 그제 수를 잡쭈면 바블 안 잡쭈시더라고. 당신도 생각거면 지가 메키지. 마누라가 버려서 산다는 거시 거참 얼마나 그제 참 심난헌 이리어.{그렇게 술을 잡쭈면 밥을 안 잡쭈시더라고. 당신도 생각하면 기가 막히지. 마누라가 떨어져 산다는 것이 거참 얼마나 그제 참 심란한 일이야.}

10220 # 그리까꾸 인저 이케 바블 안 잡쭈고 술만 잡쭈니 도라가시더라고. 도라가시더라고. 기양 술도 기양 이케 커브로 잡쭈는 게 아녀. 막 한참 취허면 바끄르시고 뭐시고 상관 업써. @ 그냥 큰그르스로. # 응, 막 글케 잡쭈떠만.{그래서 이제 이렇게 밥을 안 잡쭈고 술만 잡쭈니 돌아가시더라고. 돌아가시더라고. 그냥 술도 그냥 이렇게 컵으로 잡쭈는 게 아녀. 막 한참 취하면 밥그릇이고 무엇이고 상관 없어. 그냥 큰그릇으로. 응, 막 그렇게 잡쭈더라고.}

10220 # 나두 술 예지간치 감취써써요. 글먼 그 술 냄새가 나능가. 안 땅 병도 술 냄새가 나는개벼. 응, 어트게 그제 용케 차저서 잡쭈는가 몰라. 용케 차저서 잡쭈더라고.{나두 술 어지간히 감취었어요. 그러면 그 술 냄새가 나는가. 안판 병도 술냄새가 나는가봐. 응, 어떻게 그렇게 용하게 찾아서 잡쭈는가 몰라. 용하게 찾아서 잡쭈더라고.}

10220 # 글먼 인자 내가 막 뭐라고 허지. 그 막 소주, 땅 거또 아니고 소주. @ 모메 조치도 아는. # 응. 당신 그르케. 육십다서시 도라가셔써. 열매 몰싸르셔짜나. 글케 도라가시더라고.{그러면 이제 내가 막 뭐라고 하지. 그 막 소주, 다른 것도 아니고 소주. 몸에 좋지도 않은. 응. 당신 그렇게. 육십다섯에 돌아가셨어. 얼마 못 사셨잖아. 그렇게 돌아가시더라고.}

10220 # 그르케 고생이 마느션네. {그렇게 고생이 많으셨네.}

## 1.2.6. 환갑잔치

10223 @ 그러케 인젠 사시고 환갑잔치 한 얘기 좀 한번, 환갑잔치 하셔써요? {그렇게 이제 사시고 환갑잔치 한 얘기 좀 한 번, 환갑잔치 하셨어요?}

10223 # 나는 항갑잔치는 안코, 내가 왜냐머는 그 항갑또 불항갑 머 그런거 찬뜨라고, 으르신들 보면. 그서 저 거시기 불항가븐 허면 안된다고더라고 나쁘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리서 인자 내가 항갑때는 안코, 칠순 때, 제주도 가따 와찌.{나는 환갑잔치는 앓고, 내가 왜냐면은 그 환갑도 불환갑 뭐 그런 거 찾더라고, 으르신들 보면. 그래서 저 거시기 불환갑은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나쁘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환갑때는 앓고, 칠순 때 제주도 갔다 왔지.}

10223 @ 그 옛날에 으르신 시집 오시기 저네 동네에서 이르게 항갑 잔치하고 그 래써 쓸 꺼 아네요? 그쵸? {그 옛날에 으르신 시집 오시기 전에 동네에서 이렇게 환갑잔치 하고 그랬었을 것 아네요? 그렇죠?}

10223 # 항갑 때? @ 예. # 떡국떨 꼬려가고 @ 떡국? # 음. @ 겨우리 아니어도? {환갑 때? 예. 떡국들 끓여서. 떡국? 음. 겨울이 아니어도?}

10223 # 아니 인자 겨으레 가튼때는 떡국, 여름에는 인자 국쭈허고 막. 여름에는 또 수박 가튼 거 과일 만차녀. 그러케허고 그런거 허서 동네 싸람덜 술 바다 노코서 잡썰꼬 놀고 춤추고 놀고 그리찌, 항갑때는. {아니, 이제 겨울 같은 때는 떡국, 여름에는 이제 국수하고 막. 여름에는 또 수박 같은 거 과일 많잖아. 그렇게 하고, 그런 거 해서 동네 사람들 술 받아놓고서 잡썰고 놀고 춤추고 놀고 그랬지. 환갑때는.}

10223 # 옛날에는 항갑잔치들 해써. 그때는. @ 그러니까 크게 해짜나요. # 응.{옛날에는 환갑잔치들 했어. 그때는. 그러니까. 크게 했잖아요.}

10224 # 그리카쿠 막 내우가니 인는 양반드른.{그래갖고 막 내외간이 있는 양반들은.}

10224 @ 큰 상도 바다쥬? 이만큼씩 고이고.{큰 상도 받았쥬? 이만큼씩 고이고.}

10224 # 탁 큰상 아페다 채려노코 그양 과일 가튼 거또 이케 수북수북 일케 해서 담자나. 떠기고 뭍시고 수북수북기 다머서 이르게 혀노코. 사진 찍꼬, 내우가니 안저서. 그이 혼자 인는 양반드른 잘 안하시데. 그거슬. {탁 큰상 앞에다 차려놓고, 그냥 과일 같은 것도 이렇게 수북수북 이렇게 해서 담잖아. 떡이고 뭍시고 수북수북이 담아서 이렇게 해놓고. 사진 찍고, 내외간에 앉아서. 그러니 혼자 있는 양반들은 잘 안 하시데. 그것슬.}

10224 @ 자식들 또 다 절하고.{자식들도 다 절하고.}

10224 # 다 절허구. 옛날 항갑잔치 그르케 해써. 근디 시방더른, 시방덜뚜 허는 사람 인는데, 벨루 항갑잔치는 안쿠 칠순 잔치덜 마니 허더라구.{다 절하고. 옛날 환갑잔치 그렇게 했어. 그런데 지금들은, 지금도 하는 사람 있는데, 별로 환갑잔치는 앓고 칠순잔치들 많이 하더라고.}

10224 @ 지그른 인저 항가비 아니고 절믄 나이닌까.{지금은 이제 환갑이 아니고 젊은 나이니까.}

10024 # 지그몬 칠순 잔치들 마니 허다 응당.{지금은 칠순잔치들 많이 하지, 응당.}

10224 # 제주도 양가쓰면 엄마 제주도 가자고더라고. 그래가꼬 제주도 가따와찌. {제주도 안 갔으면 엄마 제주도 가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주도 갔다왔지.}

10224 @ 그 옛날레 그 항갑쌍 차리고 그럴 때, 지그몬 그 이케 사진 찌글려고 이르케 바미랑 대추랑 쌍게 가짜로 이케 나오드라구요, 요즈몬. 가짜로 플라스틱으로. 금까 고거를 요케 노코 사지를 찌거요. 근데 옛날레는 그 진짜로 이르케 괴쥬? {그 옛날에 그 환갑상 차리고 그럴 때, 지금은 그 이렇게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밤이랑 대추랑 쌍은 것이 가짜로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요즈몬. 가짜로, 플라스틱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요렇게 놓고 사진을 찍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 진짜로 이렇게 괴쥬?}

10224 # 응. 다 괴쥬. 왜냐며는 @ 오치게 괴쥬요? 그거? # 밤가튼 거또 이케 딱 한 줄 이케 싸코, 그 아니다 종이를 오려서 느. 종이, 백지를 이르케 오려서. 왜냐며는 그거끼리만 다면 허러지니까. 이르케 해서 느쿠, {응, 다 괴쥬어. 왜냐며는. 어떻게 괴쥬어요? 그거? 밤같은 것도 이렇게 딱 한 줄 이렇게 쌍고, 그 안에다 종이를 오려서 넣어. 종이, 백지를 이렇게 오려서. 왜냐하면 그것끼리만 닿으면 헐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넣고서.}

10224 @ 응, 위에 올려논는거네.{응. 위에 올려놓는 거네.}

10224 # 음. 그러구서 또 인자 그 위에다 일케 또 싸.{음. 그러고서 또 이제 그 위에다 이렇게 또 싸.}

10224 # 그르고 또 인자 허고 또 이르케 허고. 또 이르케 싸코. 그르케 해서 이케. 그이 진짜로 썬는거야. 어 그르케 해서 막 싸노코. 인자 떡카는 거또 이케, 가래떡 이르케 허서 허노코.{그리고 또 이제 하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쌍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것이 진짜로 썬는 거야. 어, 그렇게 해서 막 쌍아 놓고. 이제 떡같은 것도 이렇게, 가래떡 이렇게 해서 해 놓고.}

10224 # 또 이르케 판 찌거서도 이르케 허노코, 인절미도 이르케 이르케 찢라서 크게크게 허서 노코. 그러케 다 허서 노코 사진 찍고 자손덜 절허고 다 그러케 허자나. {또 이렇게 판 찍어서도 이렇게 해 놓고, 인절미도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크게크게 해서 놓고. 그렇게 다 해서 놓고 사진 찍고 자손들 절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

10224 # 그 옛날레는, 시방은께 인저 사진 찌그러 그러케 헨능가 모르진는데, 옛날레는 그 다 싸쥬. 그리고 꼭,{그 옛날에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사진 찍으러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 다 쌍았어. 그리고 꼭.}

10224 @ 싸다가 너머지면 어트케?{쌍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해?}

10224 # 금케 기술짜지.{그러니까 기술자이지.}

10224 @ 아 그 썬는 사라미 따루 이쥬쥬요?{아, 그 썬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10224 @ 그럼. 그 허는 양반더리 따루 이쥬. 그리고 아무나 그거뚜 몰 싸. @ 그

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 어, 그러구.{그럼, 그 하는 양반들이 따로 있지. 그리고 아무나 그것도 못 쌓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어, 그리고.}

10224 # 글구, 그 무너빨. 무너. 거시기 이짜나. 오징어 오려서 다 이케, 다. @ 예쁘게. # 응, 다 이케 다 오린거야, 가위로. 다 히서 또 다 혀노코 그러자나. {그리고, 그 문어발. 문어. 거시기 있잖아. 오징어 오려서 다 이렇게 다. 예쁘게. 응, 다 이케 다 오린 것이야, 가위로. 다 해서 또 다 혀놓고 그러잖아.}

10224 @ 새 모양. 봉황.{새 모양. 봉황.}

10224 # 궁게, 옌나레 그, 그 허시는 양반드리 이써쓸꺼. 차, 이르게. 그런거또 잘 만들고 이케 싸키도 잘 싸코. 그런 양반들 뽀퍼다녀찌.{그러니까, 옛날에 그, 그 하시는 양반들이 있었을 것이야. 차, 이렇게. 그런 것도 잘 만들고 이렇게 쌓기도 잘 쌓고. 그런 양반들 뽀혀다녔지.}

10224 @ 그러쎄네요. 동네마다.{그랬쎄네요. 동네마다}

10224 # 궁게 다 해찌. 한 양반도 이써써, 옌나레.{그러니까 다 했지. 한 양반도 있었어, 옛날에.}

10223 # 그 술 먹꼬 하루전날 놀고 장구 치고 뽕매기 치고 춤 추고, 업꼬. 시방드른 인자, {그 술 먹고, 하루 종일 놀고, 장구 치고, 뽕파리 치고, 춤 추고, 업고. 지금은 이제.}

10223 @ 회갑, 환갑 마즈신 분 업꼬. # 응.{회갑, 환갑 맞으신 분 업꼬.}

10223 # 그 아들레드리 어버주고 그러자나. 그리고 시방드른 인자 식땅이서덜또 마니 허고 그러는데, 옌나레는 다 지비서 다 혀짜나.{그 아들네들이 업어주고 그러잖아.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식당에서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다 집에서 다 했잖아.}

10223 @ 지비서 다 그러케 할라면 동네 잔치가 될 쭉바께 업쎄네.{집에서 다 그렇게 하려면 동네 잔치가 될 수밖에 없쎄네.}

10223 # 동네잔치지 그게.{동네잔치지, 그게.}

10223 @ 그 동네싸람 다 메기고, 동네싸라미 와서 음식을 해써요? @ 응, 머글라고 다 허는건디 머.{그 동네사람 다 먹이고, 동네사람이 와서 음식을 했어요? 응, 먹으려고 다 하는 것인데 뭐.}

10223 # 그리고 인자 겨울가튼 때는 다 떡 쓰러서 떡꾸그로 이케 다 대저버고, 여름에는 국쭈 찢머서 이케 대저버고 다.{그리고 이제 겨울 같은 때는 다 떡 썰어서 떡국으로 이렇게 다 대접하고, 여름에는 국수 삶아서 이렇게 대접하고 다.}

10223 @ 소도 잡꼬 돼지도 잡꼬 그래요?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그래요?}

10223 # 돼지 잡지. 인자 소 잡는 사라문 벨루 엄는디 돼지더른 잡찌. 돼지 잡꼬 허지. 돼지, 대개 돼지 한 마리씨근 잡찌.{돼지 잡지. 이제 소 잡는 사람은 벨



로 없는데 돼지들은 잡지. 돼지 잡고 하지. 돼지, 대개 돼지 한 마리씩은 잡지.}

10223 # 키워서 잡는 사람도 이꼬, 인자 사서 잡는 사람도 이꼬. 그 돼지 팔아서 다 술덜 먹고 허는 재미로 그 지떨 허지.{키워서 잡는 사람도 있고, 이제 사서 잡는 사람도 있고. 그 돼지 삶아서 다 술들 먹고 하는 재미로 그 짓들 하지.}

10223 @ 그런거라도 이써야 한 더 푸지게 먹꼬.{그런거라도 있어야 한 더 푸지게 먹고.}

10223 # 돼지 그, 잔치 허네 허면 돼지야 벌써 한 마리 중는 거야.{돼지 그, 잔치 하네 하면 돼지야 벌써 한 마리 죽는 거야.}

10223 @ 그럼 그 돼지를 그냥 동네사람드리 자바써요? {그럼 그 돼지를 그냥 동네사람들이 잡았어요?}

10223 # 그럼, 동네사람드리 잡찌. 아호, 잘 혀. 이케 돼지를 자블라머는 크게 돼지 드러갈마닌 구덩이를 만드려.{그럼, 동네사람들이 잡지. 아호, 잘 혀. 이렇게 돼지를 잡으려면은 크게 돼지 들어갈 만한 구덩이를 만들어.}

10223 @ 땅을 파서? 아니면 나무로?{땅을 파서? 아니면 나무로?}

10223 # 아, 나, 저 그 땅을 파서 구덩이를 일케 생겨가꾸. 돼지를 꼭꼭 무껴서 그 소기에다 느코 뜨건 물 막 끄려가꾸서 부서버려. 그 막, 그 터리 후떡후떡 베껴지지. {아, 나, 저 그 땅을 파서 구덩이를 이렇게 생겨갖고. 돼지를 꼭꼭 묶어서 그 속에다 넣고 뜨거운 물 막 끓여서 부어버려. 그 막, 그 털이 훌쩍훌쩍 벗겨지지.}

10223 @ 산 채로? # 아이저, 탁 @ 주근 다오메? # 다리 무껴서 딱. 돼지까니서 딱 찢러가꾸 나와. 그러면 인자 가따 느쿠는 그르키 혀.{산 채로? 아이 저, 탁. 죽은 다음에? 다리 묶어서 딱, 돼지 외양간에서 딱 찢러서 나와. 그러면 이제 갖다 넣고는 그렇게 혀.}

10223 @ 그러면 그 털 그런 거 하고, 머 내장 발라 낸 그런 거뜰. 남자드리 해젠네.{그러면 그 털 그런 거 하고, 머 내장 발라 낸 그런 것들. 남자들이 했겠네.}

10223 # 그런 남자드리, 남자, 그런 건 남자드리 해야지. 글고 막 판 소티다 솜판지 막 큼지거니 거러 노코 거다 씹는거야.{그럼. 남자들이, 남자, 그런 건 남자들이 해야지. 그리고 막 다른 술에다 술단지 막 큼직하니 걸어놓고 거기에다 삶는 거야.}

10223 # 그러면 인자 거러노코 막 인저 저기 뜨더명은 사람도 이꼬. 그럼 저 거시기 찢어서 인자 다 발라서 다 혀서, 으른덜 다 대저버고 다 그러지.{그러면 이제 걸어놓고 막 이제 저기 뜯어먹는 사람도 있고. 그럼 저 거시기 찢 놓아서 이제 다 발라서 다 해서, 어른들 다 대접하고 다 그러지.}

10223 # 아튼 동네잔치여, 잔치. 엔나리는 그게 잔치여. 궁게 시방더른 뭇닐 이쓰

먼 저께 다 바께루 나가니까 동네는 별건 업써.{하여튼 동네잔치야, 잔치. 옛날에는 그게 잔치야.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일 있으면 저렇게 다 밖으로 나가니까 동네는 별 것 없어.}

10223 @ 이랄 싸라미 업쓰니까, 이 동네 식꾸 다 머글라면 # 그리구 여자덜뚜 그때는 다 허는 거신질 알고 허고,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 동네 식구 다 먹으려면. 그리고 여자들도 그때는 다 하는 것인 줄 알고 하고.}

10223 # 그리고 이르게 여자드리 나가서 도늘 안 버르니까, 지비서 다 살리마는 여자드렇게 동네일 당허면 다 가서 허는 거신지 알고 다 허자나. 그리고 지바네 뭇닐 당히따 허면 당여니 허는 거신지 알지.{그리고 이렇게 여자들이 나가서 돈을 안 버니까, 집에서 다 살림하는 여자들이니까 동네일 당하면 다 가서 하는 것인 줄 알고 다 하잖아. 그리고 집안에 뭇 일 당했다 하면 당연히 하는 것인 줄 알지.}

10223 # 엔나리는 태성바지드리 이케 와서 사르면 쫘 외루워써. 엔나리는 그런냐면 태성바지드르 잘 안 가자나. 동네라도 잘 안 가자나. 그리고 지바네 뭇닐 당허면 다 지반 거시기드리 막 가서 가치 해도 태성바지드르 잘 안 가자나. {옛날에는 타성받이들이 이렇게 와서 살면 쫘 외로웠어. 옛날에는. 왜 그랬느냐면 타성받이들은 잘 안 가잖아. 동네라도 잘 안 가잖아. 그리고 집안에 뭇 일 당하면 다 집안 거시기들이 막 가서 같이 해도 타성받이들은 잘 안 가잖아.}

10223 # 큰 맘 머꼬, @ 예저네는 가튼 성씨끼리. # 그럼, 궁게 엔나레는 이 성씨끼리 한 동네가 만히써. 마닌는디, 지그른 나도 친정으 가보면 모, 맨 모르는 사람드리여. 맨 모르는 사람드리여.{큰 맘 먹고. 예전에는 같은 성씨끼리. 그럼,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성씨끼리 한 동네가 많했지. 만했는데 지금은 나도 친정에 가보면 모, 맨 모르는 사람들이야. 맨 모르는 사람들이야.}

10223 # 그 저네 살던 사람들 다 어디로 간는가 몰라. 맨 모르는 사람드리여. 그리고 막 동네가 무슨 아파트 드러스고 형게 도데체 누네지비 누구네 지빙가도 모르거떠라고. 집떨도 개랑허고 허니까.{그 전에 살던 사람들 다 어디고 갔는가 몰라. 맨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막 동네가 무슨 아파트 들어서고 하니까 도데체 누구네 집이 누구네 집인가도 모르겠더라고. 집들도 개랑하고 하니까.}

10225 @ 근데 요즈믄 이르게 그 뭐, 겨론식 한다, 뭐 또 회갑씨니나, 칠쫘 잔치, 무슨 잔치 한다 그러며는 불려서 갈 때 가는 사람드리 도늘 봉투에다 너서 가서 인제 주자나요? 부조그므로. 엔나레는, 엔나레는 그런 거 이씨씨요?{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그 뭐, 결혼식 한다, 뭐 또 회갑식이나, 칠쫘 잔치, 무슨 잔치 한다 그러면은 불려서 갈 때 가는 사람들이 돈을 봉투에서 넣어서 가서 이제 주잖아요? 부조금으로. 옛날에는,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어요?}

10225 # 이씨씨. 부주 혀찌. 도느로, 봉투이다 이르게 다 느서 주자나.{있었어. 부조 했지. 돈으로, 봉투에다 이렇게 다 넣어서 주잖아.}

10225 @ 아 도느로 주어씨요? # 영.{아, 돈으로 주었어요? 응}

10225 # 도느로 이케 히서 다 부주허머는 인자 그거 다 저거봐따가 또 인자 그 집 일나면 또 각꼬. 시방처럼 그르케 해써, 부주는 다 해써.{돈으로 이렇게 해서 다 부조하면은 이제 그거 다 적어 놓았다가 또 이제 그 집 일 나면 또 각꼬. 지금처럼 그렇게 했어. 부조는 다 했어.}

### 1.2.7. 장례 절차에 대한 이야기

10226 @ 그 다메, 인제 사라미 주그머는, 살다가 인저, 사시다가 도라가시면 장례를 이르게 치르고, 그리고 또 보셔쥬? 어리쥬, 어리실 때.{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살다가 이제,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장례를 이렇게 치르고, 그리고 또 보셨쥬? 어리실 때.}

10226 # 봐찌.{봤지.}

10226 @ 그 어떤 순서로 하는지 혹시 아세요?{그 어떤 순서로 하는지 혹시 아세요?}

10226 # 그에이, 염혈 때?{그 염혈 때?}

10226 @ 염혈 때, 인제 사람 처음 도라가, 그니까 도라가시고 나서부터.{염혈 때, 이제 사람 처음 돌아가,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10226 # 딱 도라가시고 나머는.{딱 돌아가시고 나머는}

10226 @ 가장 먼저 허는 게 뭐여.{가장 먼저 하는 게 뭐여.}

10226 # 미티다가 거시기를, 시방은 그거시 아녀, 그 까러서 인자 딱 수조글 거더.{밑에다가 거시기를, 시방은 그것이 아니야, 그것을 깔아서 이제 딱 수족을 걷어.}

10226 @ 수조글 거더요?{수족을 걷어요?}

10226 # 영, 왜냐면 손바를 팍 뜨신게 해봐. 왜냐면 기양 봐두머는 기양 꼬부러지니까. 탁끄이 혀서 무꺼. 딱 인자 안 흐터지게.{응. 왜냐하면 손발을 팍 반듯이 해 놓아. 왜냐하면 그냥 봐두면은 그냥 꼬부러지니까. 탁 하니 해서 묶어. 딱 이제 안 흩어지게.}

10226 @ 뭇루 무꺼요?{뭇로 묶어요?}

10226 # 인자 그 저 거시기 인자 못, 거시기나 꼬니쓰면 인자 무꼬, 옌나리는 띠가튼거 이쓰면 무꺼씨, 띠 가튼 거.{이제 그 저 거시기 이제 못, 거시기나 끈 있으면 이제 묶고, 옛날에는 띠 같은 것 있으면 묶었어. 띠 같은 것.}

10226 @ 그 처느로 된 거.{그 천으로 된 것.}

10226 # 머니루, 먼느루 된 거. 그르케 해서 딱 히서 수족 거더봐. 거더봐따가서는

나중에 인자 그 칠성과니라구 이씨. 그러믄자 엔나레 지비서 초상을 치룽게 인자 이케 딱 칠성과를 가따가 미치다가 여러 개 네모지게 인자 이키 다리면 짐뭉치로 이르게 만드려.{면으로, 면으로 된 거. 그렇게 해서 딱 해서 수족 걷어 놔. 걷어놔다가 나중에 이제 그 칠성판이라고 있어. 그러면 이제 옛날에 집에서 초상을 치르니까 이제 이렇게 딱 칠성판을 갖다가 밑에다가 여러 개 네모지게 이제 이렇게 들이면, 짐뭉치로 이렇게 만들어.}

10226 # 만드려 가꾸, 칠성과늘, 그 칠성과늘 기양 노면 땅이가 이르게 다차나. 그렇게 인자 그 판자 이르게 필라고 그거를 만드려서 일케 놔. 노코는 그 위다 칠성과늘 놔.{만들어서, 칠성판을, 그 칠성판을 그냥 놓으면 땅에 이렇게 닿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판자 이렇게 괴려고 그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놓아. 놓고는 그 위에다 칠성판을 놓아.}

10226 # 칠성과늘 노코 그 위다 시체를 놔. 시체를 노코 인자 혼니불 딱 더퍼노코 인자 나중에 거시기혀지, 염혈 때까지 놔두지.{칠성판을 놓고 그 위에다 시체를 놔. 시체를 놓고 이제 홀이불 딱 덮어놓고 이제 나중에 거시기 하지, 염혈 때까지 놔두지.}

10226 @ 여믄 그러면 도라가시고 나서 얼마 정도 지나서 해요?{염은 그러면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정도 지나서 해요?}

10226 # 여믄 인자 그게, 나중이야. 왜냐믄는 인자 사뭇 출쌍을 한다든지 사일 출쌍을 한다든지, 근디 엔나레는 이게 보는 거시 이씨씨. 어디로 무슨 방향으로 댜, 무어시 단는다, 무어시 단는다 그게 이씨꺼든.{염은 이제 그게, 나중이야. 이제 3일 출상을 한다든지 4일 출상을 한다든지.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보는 것이 있었어. 어디로, 무슨 방향으로 댜, 무엇이 닿는다, 무엇이 닿는다. 그게 있었거든.}

10226 # 그리가꾸선자 그, 그 거시기를, 날짜를 피혀가지고 여믄 혀씨씨. 엔나레는.{그래서 그, 그 거시기를, 날짜를 피해서 염을 했었어.}

10226 @ 시간두 봐씨요?{시간도 봤어요?}

10226 # 궁게 여믄 인자 이트리면, 널 나갈 꺼 가트믄는, 궁게 시가늘 뵈는가 모르는데, 오늘 저녁때쯤 여믄 하더만. 널 인저 아치미 인저 나가믄는 오늘 오후에 여믄 허드라고.{그러니까 염을 이제 이틀이면, 내일 나갈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시간을 뵈는가 모르는데, 오늘 저녁때쯤 염을 하더만. 내일 이제 아침이 이제 나가면은 오늘 오후에 염을 하더라고.}

10226 # 여믄 허면 인자 딱 허니 인자 거시기혀지. 관 쏘기다 딱 느치.{염을 하면 이제 딱 하니 이제 거시기하지. 관 속에다 딱 넣지.}

10226 @ 염 하는 거 혹시 보셨씨요? # 아이구, 염 하는 거. 몰라 나 그거 안 봐씨. @ 아, 못 뵈셨씨요? # 영, 난 못 봐씨.{염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아이구, 염 하는 거. 몰라 나 그거 안 봤어. 아, 못 보셨어요? 응, 난 못 봤어.}

10226 @ 여믄 그럼 주로 인제 남자드리 # 남자드리 허지.@ 그럼 그 염하는 사라

미 정해져 이썬썬요? 아니면.{염은 그럼 주로 이제 남자들이. 남자들이 하지. 그럼 그 염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어요? 아니면.}

10226 # 어, 염하는 사라마 이썬썬. 거 혈찌 아는 사라마 대려. 여튼. 여 거꺼시 양반 잘혀, 장로 양반. 그 양반 염 잘혀.{응, 염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거 할 줄 아는 사람이 대어. 염은. 여기 저 양반 잘 해, 장로 양반. 그 양반 염 잘 해.}

10226 # 우리 영감 때두 그 양바니 염히썬. 그때만 해도 저러케 나가서 안히니까. 지비서 혈 때, 그 양바니 히썬. 그 양반 잘 해여.{우리 영감 때두 그 양반이 염했어. 그때만 해도 저렇게 나가서 안 하니까. 집에서 할 때, 그 양반이 했어. 그 양반 잘 해.}

10226 # 다 손싸개, 발싸개, 받툇 싸개, 다 이짜나. 그게 다 이썬. 받툇 싸는 거또 이꼬, 손툇 싸는 거또 이꼬. @ 요, 요리케 싸, 이결?{다 손싸개, 발싸개, 받툇 싸개, 다 있잖아. 그게 다 있어. 받툇 싸는 것도 있고, 손툇 싸는 것도 있고. 요, 요렇게 싸, 이결?}

10226 # 이 다 깍짜나 손툇, 받툇. 궁게 싸는 거시 다 이썬. 이 찌간허게 다 만들려져 이썬. 이꾸. 이케 손 싸는 거뚜 이꾸, 발 싸는 거뚜 이꾸. 다 이썬. 소게 인자 온 넘는 거야. 그 양반드리 잘 혀. 그 양바니 잘 아라.{이 다 깍잖아, 손툇, 받툇. 그러니까 싸는 것이 다 있어. 이 조그맣게 다 만들어져 있어. 있고. 이렇게 손 싸는 것도 있고, 발 싸는 것도 있고. 다 있어. 속에 이제 옷 입는 거야. 그 양반들이 잘 해. 그 양반이 잘 알아.}

10226 # 얼굴 덮는 거뚜 이꼬. 귀 망가지도 다 있어. 그르케 히가꾸 다 염꾸. 참 막대기만두 모더. 염해서 딱 해노면.{얼굴 덮는 것도 있고. 귀 막는 것도 다 있어. 그렇게 해서 다 염하고. 참 막대기만두 못 해. 염해서 딱 해 놓으면.}

10226 # 그리도 염히기 저니는 보쟁이라도 거치면 열구리라도 보지만 염히고 나면 다 싸서 관 쏘기다 딱 느코 묻질허면 끝나.{그래도 염하기 전에는 보자기라도 걸으면 얼굴이라도 보지만 염하고 나면 다 싸서 관 속에다 딱 넣고 묻질하면 끝나.}

10226 @ 그러머는 엔나레 이르케 그, 수미 딱 꼬너지시면, 제가 듣기로는, 저는 직접 묻 받는데, 뭐, 어떤 사라마 지붕에 올라가서 막 하얀 천을 흔들면서 머헌다는 얘기를 드린는데. # 그, 응, 거시기?{그럼은 옛날에 이렇게 그, 숨이 딱 끊어지시면, 제가 듣기로는, 저는 직접 못 봤는데, 뭐, 어떤 사람이 지붕에 올라가서 막 하얀 천을 흔들면서 뭐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10226 # 아이, 그거슨 몰르고. 사라마 숨 딱 떨어지면 온 까따 지붕으다 언저. 온 까따. 지붕으다 언저썬 엔나른. 시방은 그게 업짜나.{아이, 그것은 몰르고. 사람이 숨 딱 떨어지면 옷 가져다가 지붕에다 얹어. 옷 가져다가. 지붕에다 얹었어, 옛날은. 시방은 그게 없잖아.}

10226 @ 궁까 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던 거예요?}

10226 # 인자 혼 나가라고.{이제 혼 나가라고.}

10226 @ 아, 혼 나가라고{아, 혼 나가라고.}

10226 # 혼 나가라고. 그 사람 오단가지 가따 지병우다 언저버려. 등거리나 머 저 구리나 머 그런 거뜰.{혼 나가라고. 그 사람 옷 한가지 가져다가 지붕 위에다 얹어 버려. 등거리나 뭐 저고리나 뭐 그런 것들.}

10226 @ 그, 그부니 입뎀 업구.{그, 그분이 입뎀 옷?}

10226 # 시방은 그게 업짜나.{지금은 그게 없잖아.}

10226 @ 그르쵸. 지그믄 뭐 다 장례식장에서 다 해버리니까.{그렇쵸. 지금은 뭐 다 장례식장에서 다 해버리니까.}

10226 @ 그러면 그르케 인제 그, 뭐야, 관쑈게 드러가서 그르케 드러가따가 다음 날 인제 나가는 거쵸? 그러머는 상여, 생여 매고?{그러면 그렇게 이제 그, 뭐야 관쑈에 들어가서 그렇게 들어갔다가 다음날 이제 나가는 거쵸? 그러면은 상여, 상여 매고?}

10226 # 응, 생여 매고.{응, 상여 매고.}

10226 @ 그 생여는 누가 메쵸요?{그 상여는 누가 땀어요?}

10226 # 생여는 인자 동네사람드리 메찌. {상여는 이제 동네사람들이 메지.}

10226 @ 동네사람드리.# 응, 동네사람들이 메찌.{동네사람들이. 응, 동네사람들이 땀지.}

10226 # 시방은 생여 땀 사람도 업쵸. {지금은 상여 땀 사람도 업어.}

10226 @ 그러면 그르케 나갈 때, 나갈 때는 어트게 해야, 뭐 뭐 뭐 어떻게 하구 나가쵸 켜 아녀, 그냥 나가지는 안해쵸 켜 아녀.{그러면 그렇게 나갈 때,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뭐 어떤 것 하고 나갔을 것 아녀. 그냥 나가지는 안했을 것 아녀.}

10226 # 거시기여, 인저 나가기 저네, 상복제를 지나. {거시기여, 이제 나가기 전에 상복제를 지내.}

10226 @ 상복제?{상복제}

10226 # 응. 인자 음식글 채리노코 인저 문아케서 제를 지내. 제를 지낸 뒤여 인저 시체가 나가. {응. 이제 음식을 차려놓고 이제 문 앞에서 제를 지내. 제를 지낸 뒤에 이제 시체가 나가.}

10226 @ 아, 제를 지낸 다오메 그 과니 상여로 나간다구요. # 응, 나와. 상여, 생여 쑈그로 드러가. @ 생여 쑈그로 드러가요? # 엉.{아, 제를 지낸 다음에 그 관이 상여로 나간다구요. 응, 나와. 상여, 상여 속으로 들어가. 상여 속으로 들어가요? 엉.}

10226 # 그러고인자 그 거시기, 옴나레는 거시기여, 바가지도 어찌께이, 바가지 문아케다 어퍼노코 바가지 또 인자 깨틀고 가는 사람도 이꼬. 그케 방식, 켜 거시기 예뻑이라고대. 그르케 해서 가는 사람두 이꼬. 바가지 딱 바꼬 이케 가고 그리더만.{그리고 이제 그 거시기, 옛날에는 거시기여, 바가지도 어떻게 하

데, 바가지 문 앞에다 얹어놓고 바가지 또이제 깨드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제 방식, 저 거시기 예방이라고 하대. 그렇게 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바가지 딱 밟고 이렇게 가고 그러더만.}

10226 @ 생에 메는 사람, 아니 관 들고 가는 사라미? # 응, @ 그르케 하면 인제 그르케 그 생여, 그러면 생여가 떠나기 저네 그 아페서 다시 그{상여 메는 사람, 아니 관 들고 가는 사람이? 응. 그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그 상여, 그러면 상여가 떠나기 전에 그 앞에서 다시 그.}

10226 # 인자 거시기거지. 생인들 허고 인사한다고 거시기허자나. 메기자나, 그 생에 메기는 사라미 허지.{이제 거시기하자. 상인(喪人)들 하고 인사한다고 거시기 하잖아. 메기잖아. 그 상여 메기는 사람이 하지.}

10226 @ 지사는 안지내고?{제사는 안 지내고?}

10226 # 아, 안 지내. 인저 상복제 지내면 인자 나가는 거여. 그리서는 생에 나가는 상복제를 지내면 그제 인자 생에가 나가는 거여. 생에 나갈 때 상복제를 지내자나.{아, 안 지내. 이제 상복제 지내면 이제 나가는 거여. 그래서 상여 나가는 상복제를 지내면 그제 이제 상여가 나가는 거야. 상여 나갈 때 상복제를 지내잖아.}

10226 # 글구는 인자 생에 쪽 딱 드러가구는 인자 그 생에 미는 사라미 인자 그 메기는 소리가 이씨. 인자 생이, 그 생인허고 인사허는 거. 인자 그르케 허구서 인자 떠나지.{그리고는 이제 상여 속 딱 들어가서 이제 그 상여 메는 사람이 이제 그 메기는 소리가 있어. 이제 상인(喪人), 그 상인하고 인사하는 거. 이제 그렇게 하고서 이제 떠나지.}

10226 # 떠나구 인자 가다가 어디 다리 걸리면 인자 돈 거르라고 거그가 안 가자나.{떠나고 이제 가다가 어디 다리 걸리면은 이제 돈 걸으라고 거기서 안 가잖아.}

10226 # 다리, 인자 다리 건널 때는 세상 읍써두 안 가. 돈 거르라고. 생에에다. 금자 돈 거른놈 가꾸 자기네들끼리 멍는거야.{다리, 이제 다리 건널 때는 세상 없어도 안 가. 돈 걸으라고. 상여에다. 그러면 이제 돈 걸은 것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먹는 거야.}

10226 @ 음, 나중예. # 사무젠날. @ 아, 사무젠날 # 그제 다 멍는 거야.{음, 나중예. 삼우젯날. 아, 삼우젯날. 그제 다 먹는 거야.}

10226 @ 그러며는 그르케 인제 그 보통 그 지베서 그, 이케 묘, 묘 자리까지, 이제 무칠 끝까지, 지베서 무칠끝까지 생여로 가는 거자나요. 근데 그제 먼 경우에는 중가네 가다가 한번 쉬고 제도 지내고 그래따는 얘기도 드른 거 가튼데. 그런 게 이씨씨요?{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그 보통 그 집에서 그, 이렇게 묘, 못자리까지, 이제 묻힐 곳까지, 집에서 묻힐 곳까지 상여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제 먼 경우에는 중간에 가다가 한번 쉬고 제도 지내고, 그랬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었어요?}

- 10226 # 먼 거리? 그 제 지내, 나는 그거슨 몰르고, 쉬어따 가기는 허지, 머르면.  
{먼 거리? 그 제 지내, 나는 그것은 모르고, 쉬었다 가기는 하지, 멀면.}
- 10226 @ 쉬어따 가기는 하는데 제사를 지내지는 안코. # 응, 그 제사 가튼 거 지내는 거슨, 그런 소리는 나 못뜨려써.{쉬었다 가기는 하는데 제사를 지내지는 았고. 응. 그 제사 같은 거 지내는 것은, 그런 소리는 나 못 들었어.}
- 10226 @ 그러며는 그 이르게 가까울 때두 보며는 이르게 가까운 길루 안 가고 빙 도라가데요?{그러면은 그 이렇게 가까울 때도 보면은 이렇게 가까운 길로 안 가고 빙 돌아가데요?}
- 10226 # 거루 인자 거시기 허면 너머 가까면 저기 허니까, 그제 들가는 시가니 인는가 보더라구.{거기로 이제 거시기 하면, 너무 가까우면 저기 하니까. 그제 들어가는 시간이 인는가 보더라고.}
- 10226 @ 땅 소게 드러가는 # 응, 땅 소게 드러가는, 그 일테문 지파니 그 시가늘 딱 정해주는가 보드만. 뎡씨에 드로와고. 그러며는 그제가 저기허면 그러케 돌더만. 생애가, 바로 이케 직써느로 안 가고 일케 도라서 가더만.{땅 속에 들어가는. 응, 땅 속에 들어가는, 그 이를테면 지관이 그 시간을 딱 정해주는가 보더만. 몇 시에 들어오라고. 그러면은 거기가 저기하면 그렇게 돌더만. 상여가. 바로 이렇게 직선으로 안 가고 이렇게 돌아서 가더만.}
- 10226 # 그제 지파니 인자 허는 소리가 인는가보더라구.{그제 지관이 이제 하는 소리가 인는가 보더라고.}
- 10226 @ 그러면 이케 인제 상여가 인제 그 피짜리에 도차글 해써요. 그러며는 거기서 인제 관 내리고 그러카고 또 어트게 돼?{그러면 이렇게 이제 상여가 이제 그 뒗자리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관 내리고 그렇게 하고 또 어떻게 돼.}
- 10226 # 거거서 인자 따서 인자 내리구는, 여그는 지사 안 지나. 지사 안 지내고서 인자 다 거그를 파짜나. 파쓰머는 인자, 지그른 석판드룬 잘, 마니 허드만, 석판드룬, 그러면 인자 느를 빼버리고 살장을 허드만. 살장.{거기서 이제 따서 이제 내리고는, 여기는 제사 안 지내. 제사 안 지내고서 이제 다 거기를 땀잖아. 땀으면은 이제, 지금은 석관들을 잘, 많이 하더만, 석관들을. 그러면 이제 널을 빼버리고 살장을 하더만. 살장.}
- 10226 @ 그 땅쏘게 # 몸만 @ 땅쏘겐 이미 도리 이꼬? # 응, 돌로 인저 딱 이르게 허서 마취노코. 그 널 빼버리고 살장을 해버리드만 그러.{그 땅 속에. 몸만. 땅 속에 이미 돌이 있고? 응, 돌로 이제 딱 이렇게 해서 맞춰놓고. 그 널 빼버리고 살장을 해버리드만 그러.}
- 10226 # 그리카고 또. @ 그럼 그 돌 업쓸 때는 그냥 나무, 그 관째로. # 옴나레는 관채 현 사람드리 만히써. 옴나레는 그 관채 무든 사람드리 만해써써.{그래서 또. 그럼, 그 돌 업쓸 때는 그냥 나무, 그 관째로. 옛날에는 관채 한 사람들이 많았어. 옛날에는 그 관채 묻은 사람들이 많았었어.}



10226 # 근디, 궁게 뭐 관채 무드면 벌레 생기네 어찌네, 그런 소리덜또 이꼬 그 래꺼든. 근디 시방은 석파니묘덜 마니 형께 과늘 쏙 빼더만.{그런데, 그러니까 뭐 관채 묻으면 벌레 생기네 어찌네, 그런 소리들도 있고 그랬거든. 그런데 지금은 석관묘들 많이 하니까 관을 쏙 빼더만.}

10226 @ 그러며는 인제 생여가 도차카기 저네 거기 뽕짜리에 이미 사람드리 가서 다 파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상여가 도착하기 전에 거기 뽕짜리에 이미 사람들이 가서 다 파논는 거예요?}

10226 # 그르치. 미리 가서 다 일 다 혀노치.{그렇지. 미리 가서 다 일 다 해놓 지.}

10226 @ 응, 그래야 되건네 증말.{응, 그래야 되겠네. 정말.}

10226 # 그래 가꾸 인자 .{그래서 이제.}

10226 @ 그거는 누가 해써요? 동네사람드리 해써요? 그거뚜.{그것은 누가 했어요? 동네사람들이 했어요?}

10226 # 인자, 그, 그때는, 옴나리는 동네사람드리 해써. 근디 시방은 다 사서 혀 자나. 동네사람이 혀도 시방은 도늘 줘.{이제 그, 그때는, 옛날에는 동네사람들이 했어. 그런데 지금은 다 사서 하잖아. 동네사람이 혀도 지금은 돈을 줘.}

10226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226 # 옴나레는 다 동네사람들이 가서 이르게 하루씩 다 일 봐주는 거신지 아 러. 동네 일 나머는. 그게 다 그때 혀는 거신지 아는디, 시방 사람드른 다 돈 바더. 다.{옛날에는 다 동네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하루씩 다 일 봐주는 것인 줄 알아. 동네 일 나머는. 그게 다 그때 하는 것인 줄 아는데, 지금 사람들은 다 돈 받아.}

10226 @ 그러면 그렇게 인제 그 인제 파네다, 그 석파네다 너코, 그리고 흐그로 이르게 덩꼬, 그르케 하고 인제 끝나고, 내려올 때 제를 지내고 내려와요? 그 냥 내려와요?{그러면 그렇게 이제 그 이제 관에다, 그 석관에다 넣고, 그리고 흙으로 이렇게 덮고,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나고, 내려올 때 제를 지내고 내려 와요? 그냥 내려와요?}

10226 # 그, 저기허지. 인자 생인드리 인자 거시기, 인사허고 내려오지, 저리고. {그, 저기하지. 이제 상인(喪人)들이 이제 거시기, 인사하고 내려오지, 절하고}

10226 @ 거기에 그 인제 식꾸들뚜 다 가는 거 아냐, 가치.{거기에 그 이제 식구들 도 다 가는 거 아냐, 같이}

10226 # 옴나레는 여자드른 안 가써써. 여자드른 사니 안 따러 가써써, 옴나리는. 근디 여 중가네, 나두 우리 아브지 도라가셔서 가기는 가썬는디, 옴나리는 여 자드른 묻까는 거신 줄 아려써, 옴나리는.{옛날에는 여자들은 안 갔었어. 여자 들은 산에 안 따러 갔었어, 옛날에는. 그런데 이 중간에, 나두 우리 아버지 돌 아가셔서 가기는 갔었는데, 옛날에는 여자들은 못 가는 것인 줄 알았어.}

10226 # 그리가꾸 인자 중간부터. @ 그러면 지베서 끄시언네. # 그르치. 지베서

끄시지. 지벙서인자 생에 배웅허면 끝나는 거여, 여자드른.{그리서 이제 중간부터. 그러면 집에서 끝이었네. 그렇지. 지벙서 끝이지. 집에서 이제 상여 배웅하면 끝나는 거야, 여자들은.}

10226 # 시방드른 여자들뚜 따러가고 다 허드만. @ 예. 다 따라가요. 거기서 또 인자 이란 사람 또 밥 메기고, 이런 거 다 챙기고.{지금은 여자들도 따라가고 다 하더만. 예. 다 따라가요. 거기서 또 이제 일한 사람 또 밥 먹이고, 이런 거 다 챙기고.}

10226 # 그 인제, 그 상여 메는 사람드리 이르케 노래 부른다고 그래야 되나, 발 맞추려고, 그런 거뚜 그, 이꼬 그래쥬쥬?{그 이제, 그 상여 메는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 부른다고 그래야 되나, 발 맞추려고, 그런 것도 그, 있고 그랬었쥬?}

10226 # 응, 그 아페서 인자 생에 메기는 사람두 이꼬. 짤랑짤랑 허면서. 환청끼리 멀다 하더니 뭐. 무나페가 황천끼리라고. 그런 소리 허자나.{응, 그 앞에서 이제 상여 메기는 사람도 있고. 짤랑짤랑 하면서. 황천길이 멀다 하더니 뭐, 문 앞에가 황천길이라고. 그런 소리 하잖아.}

10226 @ 그거뚜 또 하는 사라미 따루 이쥬?{그것도 또 하는 사람이 따로 있쥬?}

10226 # 이쥬. 허는 사람, 그 메기는 사라미 이쥬. 생에.{있어. 하는 사람, 그 메기는 사람이 있어. 상여.}

10226 @ 그리고 그 뵈짜리 혹 더프면서도 땅을 이제 막 꼭꼭 밟아야 되자나요. {그리고 그 뵈짜리 흙 덮으면서 땅을 이제 막 꼭꼭 밟아야 되잖아요.}

10226 # 인저 사브루 이르케 투드리지. 딱딱딱딱 투드리지. 땅으로 이르케 히서. {이제 삽으로 이렇게 두드리지. 딱딱딱딱 두드리지. 땅으로 이렇게 해서.}

10226 # 엔나리는 그 근방써 떼를 따서 다 허자나. 근디 시방은 다 떼를 사잖아. 다 사서 다 뵈다 쓰자나.{옛날에는 그 근방에서 떼를 따서 다 했잖아. 그런데 지금은 다 떼를 사잖아. 다 사서 다 묘에다 쓰잖아.}

10226 @ 그러면서 그 이 뵈짜리 이르케 봉분 만들고 이러면서, 따둑따둑 하면서 이르케 부르는 그런 노래 그런 거는 업써쥬요? # 읊쥬.{그럼서 그 이 뵈짜리 이렇게 봉분 만들고 이러면서, 따둑따둑 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그런 노래 그 건 것은 없었어요? 없어.}

### 1.2.8. 제사에 대한 이야기

10230 @ 그르키 인제 도라가시고 나서 인제, 지산나리 도라오네. 예, 지산나리, 볼래 제산나른 도라가시 나리예요? 아니며는 도라가시기 바로 전나리예요? {그렇게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제삿날이 돌아오네. 예, 제삿날이, 본래 제삿날은 돌아가신 날이예요? 아니면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이예요?}

10230 # 전날.{전날}

10230 @ 전날. 그러니까 사라계신 날. # 사라계신 날 지사를 지내. @ 사라계신 날 제사를 지내요? # 사라계신 날 지내. @ 도라가시기 전날.{전날. 그러니까 살아계신 날. 살아계신 날 제사를 지내. 살아계신 날 제사를 지내요? 살아계신 날 지내. 돌아가시기 전날.}

10230 @ 제사 종류는 어떤 거시, 지사 종류는? 그 추석날 아치미나 슬날 아치메는 뭐 지낸다고 그리썬요?{제사 종류는 어떤 거시, 제사 종류는? 그 추석날 아침이나 설날 아침에는 뭐 지낸다고 그랬어요?}

10230 # 차례.{차례}

10230 @ 차례 지낸다고 그래썬요? {차례 지낸다고 그랬어요?}

10230 @ 그리고 도라가신, 도라가시기 전날 지내는 지산나른 따루 이름 이썬썬요?{그리고 돌아가신, 돌아가시기 전날 지내는 제삿날은 따로 이름 있었어요?}

10230 # 도라가시기 전날, 차례고. 지일 모신다고도 허고. @ 지일? # 기일. @ 기일? # 음. @ 기일 모신다고? # 음.{돌아가시기 전날, 차례고. 기일 모신다고도 하고. 기일? 기일. 기일? 음. 기일 모신다고? 음.}

10230 # 그러구 또 인제 기일 모시는 거는 대개, 그건 인제 바로 위에 하라버지나 뭐 아버지나 하라버지나 이런 부니고, 그 성씨 지반, 가튼 성씨, 가튼 사람드리 이르게 딱 또 가으레 모여서 지내는 거뚜 이꼬. # 그거는 시향 지낸다고지. 시향 지낸다고.{그리고 또 이제 기일 모시는 것은 대개, 그건 이제 바로 위에 할아버지나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이런 분이고, 그 성씨 집안, 같은 성씨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딱 또 가을에 모여서 지내는 것도 있고. 그것은 시향 지낸다고 하지. 시향 지낸다고.}

10230 # 자기 인자 거시기, 저기 성바지덜끼리 뵈야서 지내는 게 시향지낸다고지.{자기 이제 거시기, 저기 성받이들끼리 모여서 지내는 게 시향 지낸다고 하지.}

10232 @ 그림 이 시향 지낼 때는 음식이나 이런 걸 누가 준비해썬. 어떤 지바네서.{그림 이 시향 지낼 때는 음식이나 이런 걸 누가 준비했어. 어떤 집안에서.}

10232 # 거시기 이썬썬. 그저니는 산지기가 이썬썬. 재시레가 산지기가 이썬썬.{거시기 있어요. 그전에는 산지기가 있었어. 재실에 산지기가 있었어.}

10232 # 궁계 인자 산지기가 음는 사람드른 도라가면서 허고, 지쥼마다, 시향을. 인자 이 지비서 지내고 내녀네는 저 지베서 일케 도라가면서 허고.{그러니까 이제 산지기가 없는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하고, 집집마다, 시향을. 이제 이 집에서 지내고 내년에는 저 집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10232 # 대개 인자 거시기헌 지븐, 엔마닌 집떠른 다 산지기가 이썬. 그리가꾸 그

저 거시기가 이짜나. 산마기 다 이짜나, 엔나레. 그리갸꾸 그 산지기가 다 장만해. 산지기가.{대개 이제 거시기한 집은, 웬만한 집들은 다 산지기가 있지. 그래서 그 저 거시기가 있잖아. 산막이 다 있잖아, 옛날에. 그래서 그 산지기가 다 장만해. 산지기가.}

10232 @ 그러면 그 산지기한테 뭐 도늘 주고 그러는 거요?{그러면 그 산지기한테 뭐 돈을 주고 그러는 거예요?}

10232 # 인자 그 종종 도늘 주지. 그러든지 그 산지기더러 인자 농사 저먹꼬 글로 지내라고를 허던지 그러지.{이제 그 종종 돈을 주지. 그러든지 그 산지기에게 이제 농사 지어먹고 그것으로 지내라고들 하든지 그러지.}

10232 @ 땅을 주고?{땅을 주고?}

10232 # 영. 땅을 주고. 산지기 아프로 인자 땅을 주고 인자 그눔 농사 저서 저 거시기 시향 모시라고. 그르키 히씨씨.{응. 땅을 주고. 산지기 앞으로 이제 땅을 주고 이제 그것으로 농사를 저서 저 거시기 시향 모시라고. 그렇게 했었어.}

10232 # 우리두, 우리 친정이두 꼭 산지기가 히씨씨. 근디 이제 세상이 이르게 생겨서 또 그 산지기 노르슬 아널라고 나가드라고. 나간느디, 참 왜 이상하게 몬쌀데. 아녀 참 이상하게 몬쌀더만 그러네.{우리도, 우리 친정에도 꼭 산지기가 했었어. 그런데 이제 세상이 이렇게 생겨서 또 그 산지기 노릇을 안 하려고 나가더라고. 나갔는데 참 왜 이상하게 못 살데. 아녀, 참 이상하게 못 살더만 그러네.}

10232 # 그 제기나 거시기형게 산지기 면허고 나가쫓게, 그치 잘 썰턴디. 이 사람들 몬 쌀데. 그레갸꾸 우리 친정에서 시방, 시방도 그 산지기가 이씨. 그 우리 동네가 이씨.{그 적이나 거시기 하니까 산지기 면하고 나갔으니까, 그렇지, 잘 살텐데. 이 사람들 못 살데. 그래서 우리 친정에서 지금, 지금도 그 산지기가 있어. 그 우리 동네가 있어.}

10232 # 그리갸꾸 시제 모실 때 그러케 허고. 저그 충청도 한산 까서 지낼 때도 거 산지기가 이씨가꾸 허고 그러. 시방두 이씨.{그래서 시제 모실 때 그렇게 하고. 저기 충청도 한산 가서 지낼 때도 그 산지기가 있어서 하고 그래. 지금도 있어.}

10232 @ 그러면 그 산지기는 가튼 성이어씨요? 아니면 타성이어씨요? # 타성이지.{그러면 그 산지기는 같은 성이었어요? 아니면 타성이었어요?}

10232 # 타성바지드리 인자 얻는 사람드리 인자 그 거시기 히서, 와서 허는 거여. 미터서 사르면서. 지차저, 집 인자 @ 집 주고 땅주고 그러니까. # 응 그러니까. 그러면 저서 그러키 허서 하는 거여.{타성받이들이, 이제 없는 사람들이 이제 그 거시기 해서, 와서 하는 거야. 밑에서 살면서. 집 차지하고, 집 이제. 집 주고 땅 주고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그러면 저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거야.}

- 10232 @ 그러며는 음식 가튼 거 장마나고 이럴 때, 그, 그 사라한테 다 맡기며는 부족할 쯤도 이꼬. # 음, 궁게 인자 음식 인자 헐 때는 인자 지반 오르니 가서.{그러면은 음식 같은 것 장만하고 이럴 때, 그, 그 사람한테 다 맡기면은 부족할 수도 있고. 음, 그러니까 이제 음식 이제 할 때는 이제 집안 어른이 가서.}
- 10232 # 영, 가서까꼬 얼마얼마 혀라, 그르케 혀. 그러면 인자, 인자 산지기가 땡기면서 다 혀지. 그 저 장 봐다가, 인자 장도 남자 으른드리 메시인저 이케 가치 가서, 인저 옴나레는 다 지게 지고 날러짜나. 군산까지 장 봐도 다 지게 지고 와야자나. 궁게 이씨 다 히서 장봐다가 그르케 다 혀고 그리써서.{응, 가서서 얼마얼마 해라, 그렇게 해. 그러면 이제, 이제 산지기가 다니면서 다 하지. 그 저 장 봐다가, 이제 장도 남자 어른들이 몇이 이제 이렇게 같이 가서. 이제 옛날에는 다 지게 지고 날랐잖아. 군산까지 장 봐도 다 지게 지고 와야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다 해서 장 봐다가 그렇게 다 하고 그랬었어.}
- 10232 # 그런데, 시방더른 차 이썩게 뭐, 와따가따 부이잉 거시기허구 인는다, 그르케 다 혀서 혀고. 인자 그르케 시제를 지내고 나머는 다 또 이바지를 싸야자나.{그랬는데, 지금은 차 있으니까 뭐, 왔다갔다 부웅, 거시기 하고 있는데, 그렇게 다 해서 하고. 이제 그렇게 시제를 지내고 나머는 다 또 이바지를 싸야잖아.}
- 10232 # 으른덜 그 모글 다 싸야자나. 다 싸서 하나포 다 혀서 다히서 다 나너서 다 히서, 그 지슬 다 나너주양께. 그도 허넌디도 인자. {어른들 그 몫을 다 싸야잖아. 다 싸서 하나 앞에 다 해서 다 해서, 다 나뉘서 다 해서, 그 깃을 다 나뉘주워야 하니까. 그도 하는데도 이제.}
- 10232 @ 우리 어려쥬 때 그거 바드러 다녀써썩요.{우리 어렸을 때 그거 받으러 다녔었어요.}
- 10232 @ 얼마나 머글 께 푸짐해요? # 감 한 쪽, 뭐 배 한 쪽, 사과 한 쪽, 그르케 다 혀고 그냥 또 저기허면 막 조기 가튼 거또 한 마리씩 뇨코,{얼마나 먹을 것이 푸짐해요? 감 한 쪽, 뭐 배 한 쪽, 사과 한 쪽, 그렇게 다 하고 그냥 또 저기하면 막 조기 같은 것도 한 마리씩 넣고.}
- 10232 @ 저이 친정아버지는 그, 하나글 공부하시는 부니라 충무늘 쓰셔썩요. 충문 쓰시고 일꼬. 그러면 인제 축 썩 그거라고 해가지고 시사모기 디게 종게 마나 썩요.{저의 친정아버지는 그, 한학을 공부하시는 분이랴 축문을 쓰셨어요. 축문 쓰시고 읽고. 그러면 이제 축 쓰셨다고 시제 몫이 굉장히 좋은 것이 많았어요.}
- 10232 # 이자 다 통채 이꺼꾸만, 통채로.{이제 다 통채로 있겠구만, 통채로.}
- 10232 @ 그러면 누니 빠지게, 어떤 나른 아버지만 기다리는 거야. 그거 가져오니. # 마저.{그러면 눈이 빠지게, 어떤 날은 아버지만 기다리는 거야. 그거 가져오니. 맞아.}

10232 @ 얼마나 푸짐한데. # 궁게. @ 통채로, 통채로. {얼마나 푸짐한데. 그러니까. 통채로, 통채로.}

10232 # 그러서 우리 아버지가 더 살림을 실패본 거시 시제 모시러 가두 아드를 모떼리꾸 강게. 스소닝게 모떼리꾸 가는 거야. 궁게 더 거그서 스트레스를 바든 거야. 그리고 결구기는 살림을 다 읍씨드라고.{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더 살림을 실패본 것이 시제 모시러 가도 아들을 못 데리고 가니까. 서손이니까 못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더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은 거야. 그리고 결국에는 살림을 다 없애더라고.}

10232 # 엔나리는 스손 가도 모대씨. 아페 가 스도 모더. 거그 어리적꺼리도 무더. 장소니고 저 충청도로 시제 모시러 갈 때도 꼭 아버지가 가셔야 하거든.{옛날에는 서손 가지도 못했어. 앞에 가 서지도 못해. 거기 어기적거리지도 못해. 장손이고 저 충청도로 시제 모시러 갈 때도 꼭 아버지가 가셔야 하거든.}

10230 @ 그러면 그런 시제, 그리고 설나리나 추석날 아침에 지내는 거, 그 다ومه 기일 모시는 거, 그 다메 시향 지내는 거. 그리고 또 다른 또 제사 또 이씨씨요?{그러면 그런 시제, 그리고 설날이나 추석날 아침에 지낸 거, 그 다음에 기일 모시는 거, 그 답에 시향 지내는 거. 그리고 또 다른 또 제사 또 있었어요?}

10230 # 읍씨. 지사는 인저 그러케 허지.{없어. 제사는 이제 그렇게 하지.}

10233 @ 그러면 그 인제 기일 모시는, 지산날 모시는 거, 그 지사 지내는 순서, 이런 거 혹시 아세요? 혹시 제사, 지사에 여자들도 참석글 해씨요, 안해씨요? {그러면 그 이제 기일 모시는, 제삿날 모시는 거, 그 제사 지내는 순서, 이런 거 혹시 아세요? 혹시 제사, 제사에 여자들도 참석을 했어요, 안했어요?}

10233 # 안 히찌. @ 안 히씨요? # 응. @ 친정에서도 안 하고 시대게서도 안 하고? # 응. 안 히씨. 참석 안 해씨.{안 했지. 안 했어요? 응. 친정에서도 안 하고 시댁에서도 안 하고? 응. 안 했어. 참석 안 했어.}

10233 # 인자 음식만 만디러서 딱 디려노면 끝나. 남자 양반드리 다 채리고 드려. 그런디 시방더른 여자들도 다 채리자나.{이제 음식만 만들어서 딱 들여놓으면 끝나. 남자 양반들이 다 차리고 들어. 그런데 지금은 여자들도 다 차리잖아.}

10233 @ 절도 하고 그러데요. {절도 하고 그러데요.}

10233 # 우리는 절때 여자덜 절 모더요. 참석, 지사 지내는 데 참석 모더. 여자더른. 시방까지 그러. 그리고 인자 우리집 애덜또 오머는 이르게 바껴서 구경만 혀. {우리는 절대 여자들 절 못해요. 참석, 제사 지내는 데 참석 못해. 여자들은. 지금까지 그래. 그리고 이제 우리집 애들도 오면은 이렇게 밖에서 구경만 해.}

10233 # 그 아피가서 뭐 술잔 뭐 따라 올리고 그런 거 읍씨.{그 앞에 가서 뭐 술

잔 뭐 따라 올리고 그런 거 없어.}

10233 # 나 시집 오니까 우리 대고모가 우리 저 거시기 진자하라버지 도라가, 저 제산날 꼭 오셔서 저를 허시더라고, 우리 대고모들 두 부니. 거기, 그게 참 모마땅 허더라고. 내가 그 여자분들, 으르시니 꼭 그 당신네 아버지, 어머니 지산나리면 꼭 그러케 와서 저러더라고.{나 시집 오니까 우리 대고모가 우리 저 거시기 증조할아버지 돌아가, 저 제산날 꼭 오셔서 절을 하시더라고, 우리 대고모들 두 분이. 거기, 그게 참 못마땅하더라고. 내가 그 여자분들, 어르신이 꼭 그 당신네 아버지, 어머니 제산날이면 꼭 그렇게 와서 절하더라고.}

10233 # 그리서 내가, 아이고 막 어티기 이상하게 우리지븐 왜 고모님들 저렇게 지향을. 우리 시누들뚜 그게 모마땅히쁜가바. 그때 우리 시누들뚜 자 대 지사 지낼 때 거시기 안해. 술잔 안 올려.{그래서 내가, 아이고 막 어떻게 이상하게 우리집은 왜 고모님들 저렇게 제향을. 우리 시누들도 그것이 못마땅했던가봐. 그때 우리 시누들도 다 제사 지낼 때 거시기 안해. 술잔 안 올려.}

10233 # 그, 우리 고모들 징그럽게 사문시러써서. 우리 대고모드리.{그, 우리 고모들 징그럽게 사문스러웠었어. 우리 대고모들이.}

10233 @ 근데 지금 생각하기엔 어떠세요? 여자들뚜 그 머 해도 괜찬타고 생각해요?{그런데 지금 생각하기엔 어떠세요? 여자들도 그 뭐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10233 # 아녀. @ 아니예요? # 어, 지금도 여자드른 빠질쭈록 조치. @ 그래도 자식, 여자두 자식긴디 아버지 제쌍애. # 자식긴디, 근디 저 우리집 애떨뚜 그 르케 인자 이르게 처태만 보는데 시방 이케 쪼그마난 애떨, 우리 외손녀따리랑은 왜 지사 안 지내냐고혀.{아니야. 아니예요? 어, 지금도 여자들은 빠질쭈록 좋지. 그래도 자식, 여자두 자식인데 아버지 젓쌍애. 자식인데, 그런데 저 우리집 애들도 그렇게 이제 이렇게 처다만 보는데 지금 이렇게 쪼그만한 애들, 우리 외손녀딸이랑은 왜 제사 안 지내느냐고 해.}

10233 # 즈들뚜 지사 지낸다고 히싸코 그러더라고. 글먼 내가, 야 여자드른 지사 안 지내는게 조아, 그러. 아 똑까튼 자식인데요, 그러고 한다니까. 우껴 주껴 써.{자기들도 제사 지낸다고 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내가, 야 여자들은 제사 안 지내는 게 좋아, 그래. 아, 똑같은 자식인데요, 그러고 한다니까. 웃겨 죽겠어.}

10233 # 우리 외손주 따른 그러, 할머니 똑까튼 자식인데요, 그러.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왜 차별을 허네요. 아이 우긴다니까.{우리 외손주딸은 그래, 할머니 똑같은 자식인데, 그래.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왜 차별을 하네요. 아이, 웃긴다니까.}

10233 @ 아직도 쭈 참서카는 거 쭈 그래요? {아직도 쭈 참석하는 거 쭈 그리요?}

10233 # 아이, 난 쭈 그렇게 안 조아. 아 남자드리 술잔 올리고 지향 모시면 돼찌. 뭐 여자드리 와서 술잔 올리고.{아이, 난 쭈 그런 것이 안 좋아. 아 남자들이

술잔 올리고 제향 모시면 됐지. 뭐 여자들이 와서 술잔 올리고.}

10233 @ 저희도 인제 저희 친정집도 아버지가 인제 하나글 하시고 막 이런, 그런 거 마니 따지셔꺼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인제, 이르게 그 뭐 우여니 간는데 뭐 기이리고, 하라버지 기이리고 그러면, 야 너도 와쓰니까, 이왕이 와쓰니까 술 한 잔 올려라 그러시더라구요. {저희도 이제 저희 친정집도 아버지가 이제 한학을 하시고 막 이런, 그런 거 많이 따지셨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이제, 이렇게 그 뭐 우연히 갔는데 뭐 기일이고, 할아버지 기일이고 그러면, 야 너도 왔으니까, 이왕에 왔으니까 술 한 잔 올려라, 그러시더라고.}

10233 # 마니 바꾸셔꾸만. @ 예, 바뀌셔뜨라구. 어느 날 보니까 바뀌셔뜨라구요. {많이 바꾸셨구만 예, 바뀌셨더라구. 어느 날 보니까 바뀌셨더라구요.}

10233 # 몰라 인제 나 주그머는 인자 어쩔라나. 나 주그먼 지사를 지넬랑가 어쩔랑가.{몰라 이제 나 죽으면은 이제 어찌려나. 나 죽으면 제사를 지넬런가 어쩔런가?}

10233 @ 아 끔찍하게 생가카신다메, 자식뜨리, 그럼 또 허게쪼. 사시른 또 그런 일로 한번씩 형제뜨리 모이고 그러는 거 가태요.{아 끔찍하게 생각하신다면 서, 자식들이, 그럼 또 하겠쪼. 사실은 또 그런 일로 한번씩 형제들이 모이고 그러는 것 같아요.}

10233 # 그러, 내가, 나는 시방도 내가 주그먼 화장 시켜서 뿌리라고면, 어머니 도라가셔서 화장시켜서 뿌리고나면 우리가 모일 이리 업썬요, 그러고 한다니까. {그러. 내가, 나는 시방도 내가 죽으면 화장 시켜서 뿌리라고 하면, 어머니 돌아가셔서 화장시켜서 뿌리고 나면 우리가 모일 일이 없어요, 그러고 한다니까.}

10233 @ 그런 핑계로 일너네 한두번 더 만나고 그러는 거쪼.{그런 핑계로 일년에 한두 번 더 만나고 그러는 거쪼.}

10233 # 근디 술찌기 그러기는 그러. 이케라도 인저, 늘그니라도 이썬게 다 모이지.{그런데 술직히 그러기는 그러. 이렇게하도 이제, 늙은이라도 있으니까 다 모이지.}

10233 @ 생시니라고 모이고 명저리라고 모이고, # 나 업쓰면 누떨 모일 피료도 업꼰따, 그런 생각또 드러가기는 혀.{생신이라고 모이고 명절이라고 모이고. 나 없으면 너희들 모일 필요도 없겠다,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

10233 @ 그런 면에서 어르니 계시다는 게 참 중요한거 가태. # 그러.{그런 면에서 어른이 계시다는 게 참 중요한 거 같야.}

10233 # 지미여, 짐. 어르니 지미여 짐. {짐이야, 짐. 어른이 짐이야 짐.}

10233 @ 그건 다 뭐, 서로 모든 게 다 장단찌미 이쓰닝까.{그건 다 뭐, 서로 모든 게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10232 @ 제사 음시게서, 제사 음시근 주로 인제 어떤어떤 거뜨리 이썬썬요?{제사



음식에서, 제사 음식은 주로 이제 어떤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10232 @ 과일, 과일, 과실부터. {과일, 과일, 과실부터.}

10232 # 과일은 언제든지 밤, 대추, 사과, 배, 그건 안 빠지고. 저 꼬감. 그건 꼭 기보니고, 제사 지낼 때는. 그리고 생서는 조기, 명태, 홍어, 상어, 그런 거시 또 기보니고. 그래.{과일은 언제든지 밤, 대추, 사과, 배, 그건 안 빠지고. 저 꼬감. 그건 꼭 기본이고, 제사 지낼 때는. 그리고 생선은 조기, 명태, 홍어, 상어, 그런 것이 또 기본이고. 그래.}

10232 @ 나무른?{나물은?}

10232 # 나무른, 인저 나무른 세 가지. 헐라면 세 가지, 나물도. 인저 탕은 세 가지 안 헐라면 하나. 하나 할라면 허고 그라나면 세 가지야. 그래야 글케 도 ㅈ.{나물은, 이제 나물은 세 가지. 하려면 세 가지, 나물도. 이제 탕은 세 가지 안 하려면 하나. 하나 하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 가지야. 그래야 그렇게 돼.}

10232 @ 그러면 나무른 주로 뭐?{그러면 나물은 주로 뭐?}

10232 # 나무른 인자 철 나는 때로 허지. 시금치 나물두 이꼬, 배추 나물두 이꼬, 콩나물도 이꼬, 숙씨너물도 이꼬. 인저 그르케 나고. 저 거시기 탕 가튼 거슨 인자 버선포 이꼬. {나물은 이제 철 나는 대로 하지. 시금치 나물도 있고, 배추 나물도 있고, 콩나물도 있고, 숙주나물도 있고. 이제 그렇게 나고. 저 거시기 탕 같은 것은 이제 버섯도 있고.}

10232 # 고사리 가튼 거또 인자 탕을 헐라면 헐 쭈 이꼬, 인저 나물도 헐라면 헐 쭈 이꼬. 고사리도 그래. 그러구 고구마쭈 가튼 거 탕허고. 인저 그러케 되지.{고사리 같은 것도 이제 탕을 하려면 할 수 있고, 이제 나물도 하려면 할 수 있고. 고사리도 그래. 그리고 고구마쭈 같은 거 탕 하고. 이제 그렇게 되지.}

10232 @ 그리고 저는?{그리고 전은?}

10232 # 저는 인저, 부치개는 대개 인자 명태 부치개를 마니 허지. 그리고 명태 부치개 마니 허고, 상어도 일케 포 떠서 부치고. 글구 홍어는 인자 대부분 찌서 노코 그러치. 부치개는 인자 그런 거 들고.{전은 이제, 부치개는 대개 이제 명태 부치개를 많이 하지. 그리고 명태 부치개 많이 하고, 상어도 이렇게 포 떠서 부치고. 그리고 홍어는 이제 대부분 찌서 놓고 그렇지. 부치개는 이자 그런 거 들고.}

10232 @ 떡근?{떡은?}

10232 # 떡근 인자 언제든 시루떡기이지. 제사떡근 언제든 지표는 시루떡기여. {떡은 이제 언제든 시루떡이지. 제사떡은 언제든 지표는 시루떡이야.}

10232 @ 추석때도? {추석때도?}

10232 # 추석때에도 꼭 인자 지향을 모실라면 이르게 떠글 히야 하는디, 시방 싸람덜 귀차느니까 안차나.{추석 때에도 꼭 이제 제향을 모시려면 이렇게 떡을

해야 하는데, 지금 사람들 귀찮으니까 안하잖아.}

10232 @ 송편 안 해요? # 응, 송편. 옛날에는 즐편 요리케 딱 미티다 이르게 올리고 위에다 송편 이르게 면개 온지고 그리써. {송편 안 해요? 응, 옛날에는 절편 이렇게 딱 밑에다 이렇게 올리고 위에다 송편 이렇게 몇 개 얹고 그랬었어.}

10232 # 근디 지방 싸람드른 귀차느니까 송편만 허는거여.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귀찮으니까 송편만 하는 거야.}

10232 @ 그러면 제사상에 절때 올라가면 안되는 거또 이찌 아나씨요? 과일 가튼 거. {그러면 제삿상에 절때 올라가면 안 되는 것도 있지 않았어요? 과일 같은 거.}

10232 # 과일 가튼 거? 몰루건네. 안 올라가는 거슨, 글썸 이썸썸 꺼여. @ 이거, 이거 올리면 이거는 안 된다, 이런 거. # 응, 그게 이썸썸꺼여. 이썸썸건디 나는 그양 기보느로 그르케 제사때 그양 올리고 내가 사기도 그르케 사고. 그러니까 나 그거 모르건네, 제사상에 모듈리는 거. {과일 같은 거? 몰르겠네. 안 올라가는 것은, 글썸 있었을 거야. 이거, 이거 올리면 이것은 안 된다, 이런 거. 응, 그게 있었을 거야. 있었을 건데 나는 그냥 기본으로 그렇게 제사때 그냥 올리고 내가 사기도 그렇게 사고. 그러니까 나 그거 모르겠네. 제삿상에 못 올리는 거.}

10232 @ 제가 듣기론 복숭아 가튼 거. # 응, 그런 거치 안 올라가. @ 터리 이쓰면 안 된다. # 복숭아는 안 올라가. 옛날부터 복숭아는 안 올라가씨. {{제가 듣기로는 복숭아 같은 거. 응, 그런 것이 안 올라가. 털이 있으면 안 된다. 복숭아는 안 올라가. 옛날부터 복숭아는 안 올라갔어.}}

10232 # 게 제사쌍이 저 저쪽 아래로 가면 저 송어는 꼭 올리자나 또. {그게 제삿상에 저, 저쪽 아래로 가면 저 송어는 꼭 올리잖아 또.}

10232 @ 그거또 지역계 따라 쯔 달란나봐요. {그것도 지역에 따라 쯔 달랐나봐요.}

10232 # 송어는 꼭 그 짜게는 올라가드만 그러. {송어는 꼭 그 쪽에는 올라가드만 그러.}

10232 # 그게 지방은 저 장보는, 인자 장대 가튼 거또 사서 노코 그르케 허더라고. {그게 지금은 저 장보는, 이제 장대 같은 것도 사서 놓고 그렇게 하더라고.}

10232 @ 그 과, 과실 가튼 거 보면, 그 뭐야 요즘 뭐 빠나나도 올려노코 그러는데 그런 거는 어터게 보, 생가카세요? {그 과, 과실 같은 거 보면, 그 뭐야 요즘 뭐 바나나도 올려놓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 생각하세요?}

10232 # 글썸. 우리가 멍는 거싱게 올려도 괜찬커따, 그런 생가기 드러가. 근디 복숭아는 옛날부터, 그게 왜냐며는 구신드리 시러한다기씨씨. 그거슬. 그. 그리가꾸 우라니다가 복숭아 나무도 안 심어씨씨. 우라니다가. 복숭아 나무를 시믈라면 바끼다만 시므라거고 그런 얘기가 이썸썸. 옛날부터. {글썸 우리가 먹

는 것이니까 올려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 그런데 복숭아는 옛날부터, 그게 왜냐하면은 귀신들이 싫어한다고 했었어. 그것을. 그, 그래서 울 안에다가 복숭아 나무도 안 심어었어. 울 안에다가. 복숭아 나무를 심으려면 밖에다만 심으라고 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

10232 # 그게 물르거써. 인자 채게 다 나올 수 이능가는 모르건는데, 옌나레 으르드리 그리 말썸허서써써.{그게 모르겠어. 이제 책에 다 나올 수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어른들이 그리 말썸하였었어.}

10233 @ 그 제사를 지낼 때, 제사지낼 때, 댜 씨에 지내썸요? 옌나레는?{그 제사를 지낼 때, 제사지낼 때, 댜 시에 지냈어요? 옛날에는?}

10233 # 옌나레는 한 제사빠블 열씨썸 허서 올려. 열씨썸 허서 올리면 인자. 응, 바메. 열씨썸 허서 올리면 인자 제사 지내고 어찌고 그러면 열뚜시 되거든. 열뚜시 되머는 인자 한 시, 그 때썸 되면 인자 철쌍을 혀.{옛날에는 한 제사 밥을 열 시썸 올려. 열 시썸 해서 올리면 인자, 응, 밤에. 열 시썸 해서 올리면 이제 제사 지내고 어찌고 그러면 열두 시 되거든. 열두 시 되머는 이제 한 시, 그 때썸 되면 이제 철쌍을 해.}

10233 @ 그러면 한 세 시간? {그러면 한 세 시간?}

10233 # 인자 제사 지내고 인자 안저서덜 놀지 인자. 그러구는 인자 한 시썸 도냐서 철쌍허고 나면 인자 대기 울자나. 그러면 인자 그 때가 거시기를, 축 쏙거가따 태우자나. 다기 우르머.{이제 제사 지내고 이제 앉아서덜 놀지 이제. 그렇게 하고는 이제 한 시썸 돼서 철쌍하고 나면 이제 닭이 울잖아. 그러면 이제 그 때가 거시기를, 축 쏙 거 가져다가 태우잖아. 닭이 울면.}

10233 # 그러면 인자 대기 우르머 가신다 그거여. 기신드리 나간다 그거여.{그러면 이제 닭이 울면 가신다 그거여. 귀신들이 나간다 그거여.}

10233 @ 철쌍 한다는 게 상 치운다는 얘기쥬?{철쌍 한다는 게 상 치운다는 얘기쥬?}

10233 # 아이, 철쌍은 인자 물끼 허서 인자 수제 빼서 일케 허고, 인자 상 치워. 상 치우구나서네 인자 그 저 거시기를 안 떼. 추글. 안 띠구는 인자 닭 우르면 추근 떼서 가따가 불 살라.{아이, 철쌍은 이제 물그릇 해서 이제 수제 빼서 이렇게 하고, 이제 상 치워. 상 치우고 나서 이제 그 저 거시기를 안 떼어. 축을. 안 떼고는 이제 닭 울면 축은 떼서 갖다가 불 살라.}

10233 @ 지방 이러케 써서 부친 거? # 응, 지방, 쏙거, 축 써서 부친 거, 그거. {지방 이렇게 써서 붙인 것. 응, 지방 쏙 거. 축 써서 붙인 거. 그거.}

10233 @ 그러면 결국 일케 상을 올린다는 얘기네? # 그르치. @ 그때부터 이제 이르게 조상 혼령이 와따고 생가글 하는 거네요? # 인자 무너러노코. 그 지향을 모시는데.{그러면 결국 이렇게 상을 올린다는 얘기네. 그렇지.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조상 혼령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네요? 이제 문 열어놓고. 그 제

향을 모시는데.}

10233 # 시방 싸람들 누가 그르키 혀. 아오씨만 되면 바배서 다 그래씨바나.{지금  
사람들 누가 그렇게 해. 아홉시만 되면 밥 해서 다 .....}

10233 @ 어르신때근 어때요? 지금? # 나는 거시커찌.{어르신 닥은 어때요? 지금?  
나는 거기기했지.}

10233 # 한 아오씨 반쯤 바블 허기 시자개가꼬 인자, 채리고 어찌고 허면 여란시  
쫘 지내지.{한 아홉 시 반쯤 밥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차리고 어찌고 하면 열  
한 시쫘 지내지.}

10233 @ 여란시쫘?{열한 시쫘.}

10233 # 그러케 해서 인자 지향을 모시지. 글면 애더리 늑파고 히싸. 뽀더러 여란  
시, 열뚜시 되더락 어머니 그러냐구히싸.{그렇게 해서 이제 제향을 모시지. 그  
러면 애들이 늑다고 해. 뽀하러 열한 시, 열두 시 되도록 어머니 그러느냐고  
해.}

10233 @ 그러쥬.{그러쥬.}

10233 @ 그래두 어르신 나름대로 옛날 방식때로 하실려구 하시네. 안 바꾸시고.  
{그래도 어르신 나름대로 옛날 방식대로 하시려고 하시네. 안 바꾸시고.}

10233 # 아이, 나는 기양 아주 기양 우리 친정에서부터 제사로 찌른 사래미여. 아  
주 찌른 사래미여.{아이, 나는 그냥 아주 그냥 우리 친정에서부터 제사로 절  
은 사람이야. 아주 절은 사람이야.}

10233 @ 일녀네 뽀뽀니나 이씨씨요? {일년에 몇 번이나 있었어요?}

10233 # 봐요. 다 해. 지그믄 이케 한 날루 바더서 지내는 사람더리 만쥬? 옛날레  
는 다 각각 지내자나. 할머니 하라버지, 뽀 징잘머니, 징자라버지.{봐요. 다  
해. 지금은 이렇게 한 날로 받아서 지내는 사람들이 많쥬? 옛날에는 다 각각  
지내잖아. 할머니 할아버지, 뽀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10233 # 고조까지 모시자나요. 오대 봉사까지 허자나요. 어, 옛날레 다 오대 봉사  
를 혀씨씨요. @ 그거뽀 아버지로 오대 봉사 아냐?{고조까지 모시잖아요. 5대  
봉사까지 하잖아요. 어, 옛날에는 다 5대 봉사를 했었어요. 그것도 아버지로  
5대 봉사 아냐?}

10233 # 그러치. 인제 아버지로 오대 봉사를 허지. 그렇게 옛날레 옛날 으른덜 공  
게 지사를 한분씩 한분씩 지냉게 일년 내내 별루 빠지는 다리 업찌.{그렇지.  
이제 아버지로 5대 봉사를 하지. 그러니까 옛날에 옛날 어른들, 그러니까 제  
사를 한 분씩 한 분씩 지내니까 일년 내내 별로 빠지는 달이 없지.}

10233 # 그러우 막 차례 지사때는 한꺼번에 다 바블 올리자나. 그럼 막 상이 커야  
돼. {그리고 막 차례 제사때는 한꺼번에 다 밥을 올리잖아. 그럼 막 상이 커  
야 돼.}

10233 @ 뽀 쟁이어야 돼요?{뽀 상이어야 되요?}

10233 # 상이 막 커가꼬. 또 여페다 또 성주쌍 놔야지. 바께다 또 손쌍 놔야지. 그

- 러케 혀. 나 여그와서 손쌍 안 채려.{상이 막 커서. 또 옆에서 또 성주상 놓아야지. 밖에다 또 손님상 놓아야지. 그렇게 해. 나 여기 와서 손님상 안 차려.}
- 10233 # 그래가꾸. 그러케 다. 하-, 우리 아버지 참 지장 마니 보션네. 그르케 다 지내고. 지그른 우리 친정도 한 날 지내는 까터.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한 날 지내는 까트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다. 하-, 우리 아버지 참 지장 많이 보셨네. 그렇게 다 지내고. 지금은 우리 친정도 한 날 지내는 것 같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한 날 지내는 것 같더라고.}
- 10233 # 한번 지나가 완넌디, 누나 한날 모셔야건는디 어때, 그러더라구서, 아 너 생각때루 혀라. 그리써. 그러구서 시방 지향 모시러 한번두 안 간는데.{한 번 전화가 왔는데, 누나 한날 모셔야겠는데 어때?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너 생각대로 해라. 그랬어. 그러고서 지금 제향 모시러 한번도 안 갔는데.}
- 10233 # 우리 아버지 지향이 파월 열싸흔나리여. 그날루 허까, 그러드라고. @ 그럼 추석 바로 전날? @ 응. 그리서 내가 바빠서 모까보지.{우리 아버지 제향이 팔월 열사흘날이여. 그날로 할까? 그러더라고. 그럼 추석 바로 전날? 응, 그래서 내가 바빠서 못 가보지.}
- 10233 # 어머니는 오월 열리넨나리라 내가 꼭 다녀꺼든. 그날로 헐다거길래 시방 내가 모까봐찌. 가봐야 되는데, 그날 하루를 묻빠지네.{어머니는 오월 열이렛날이라 내가 꼭 다녀꺼든. 그날로 한다고 하길래 지금 내가 못 가봤지. 가봐야 되는데 그날 하루를 못 빠지네.}
- 10233 @ 명절 아피라 더 그렇거네? # 명절 아페라 더 묻깐당게.{명절 앞이라 더 그러는 거네> 명절 앞이라 더 못 간다니까.}
- 10233 # 나 그러케 해서 지향 모시고 그래찌. 시방드른 대개 한날로 다 모셔. 그리구 오대 봉사 허는 사람두 읍써. 시방. 오대고 다 시제로 다 올라가. {나 그렇게 해서 제향 모시고 그랬지. 지금들은 대개 한날로 다 모셔. 그리고 5대 봉사 하는 사람도 없어. 지금. 어디이고 다 시제로 다 올라가.}
- 10233 @ 그르치. 요즘 삼대봉사두. 그냥 하라버지만 지내게따는 이런 사람두. # 다 시제루 올라가드라구. {그렇지. 요즘 3대 봉사도. 그냥 할아버지만 지내겠다는 이런 사람도. 다 시제로 올라가더라고. }
- 10233 # 우리 임씨덜뚜, 시방, 우리 하라버지 향녀리 한부니 사러게서. 나하고 하라부지 향녀리. 근디 그 양바니 지금 구십 하낭가 된는디 안 도라가서써. 그렇게로 그 양반 위에, 일테면 우리 정자라버지를 내내 우리가 지향을 모셔써써.{우리 임 씨들도 지금, 우리 할아버지 향렬이 한 분이 살아게서. 나하고 할아버지 향령이. 그런데 그 양반이 지금 구십한 살인가 되는데 안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그 양반 위에, 이를테면 우리 증조할아버지를 내내 우리가 제향을 모셨었어.}
- 10233 # 근디 참 내가 손자가 이짜나. 근디 가하고는 볼썸 오대야. 그래니까 참 장년부터 시제로 올라가써. 그러케 시방 되야써.{그런데 참 내가 손자가 있잖

아. 그런데 그애하고는 벌써 5대야. 그러니까 참 작년부터 시제로 올라갔어. 그렇게 지금 되었어.}

10233 # 궁게 그 양바는 일테면 사추니지, 그 양바너고 사추닝게 이 양바는 시러 허는 거야. 당신 사추닝게 시러허는디, 그 저 거시기 아래 양반드리 올려써. {그러니까 그 양반은 이틀테면 사촌이지. 그 양반하고 사촌이니까 이 양반은 싫어하는 거야. 당신 사촌이니까 싫어하는데, 그 저 거시기 아래 양반들이 올렸어.}

10233 # 술짱 내리게 올라가안다고 올라가써. 왜냐면 우리 손자가 벌써 이쓰니까 올려도 된다고 올려버려써. 시방더른 시제도 그러케 거시기헐라고 형당게. {술장 내리니까 올라가야 한다고 올라갔어. 왜냐하면 우리 손자가 벌써 있으니까 올려도 된다고 올려버렸어. 지금들은 시제도 그렇게 거시기하려고 한다니까.}

10233 @ 요즈믄 시제도 뭐, 이렇게 음식뚜 인제 따루 준비할 싸람두 업짜나요. 그러니까 어디 음식 하는 데다 맡겨가지고 가져와서 하고 그러데. {요즘은 시제도 뭐, 이렇게 음식도 이제 따로 준비할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음식 하는 데다 맡겨가지고 가져와서 하고 그러데.}

10233 # 우리는 그도 인제 아직까지는 기양 우리가 모여서 혀. 글구 저기 저 재가도 지쿠 혀서 거서 모여서 허는디, 절믄 사لامي 업써. 업씨가꾸 맨 나이머근 사람드렇게 결구그는 그러케 될 꺼 가터, 우리도. {우리는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그냥 우리가 모여서 해. 그리고 저기 저 재실도 짓고 해서 거기서 모여서 하는데, 젊은 사람이 없어. 없어서 맨 나이먹은 사람들이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될 것 같아, 우리도.}

10233 @ 인제 고 고 세대로 지나가면 # 근디 그게 불러오면 참 자손드리 머글 꺼시 업써. {이제 그, 그 세대로 지나가면. 그런데 그게 불러오면 참 자손들이 먹을 것이 없어.}

10233 # 딱 일키 한상한상 히서 딱 올라오면 그게 머글 꺼시 업써. 글머는 모이면 글도 머시라도 먹꾸, 일케 거시기를 혀야 안저서 애기덜또 허고, 오래간마니 만나쓰니까 거시기헌디, 그거뚜 참 그러터라구. {딱 이렇게 한 상 한 상 해서 딱 올라오면 그게 먹을 것이 없어. 그러면은 모이면 그래도 뭇이라도 먹고, 이렇게 거시기를 해야 앓아서 애기들도 하고,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거시기 한데, 그것도 참 그렇더라고.}

10233 # 궁게 지비서 허면 인자 @ 푸짐하게는. 마슨 이쥬. # 거시기허더라고. {그러나 집에서 하면 이제. 푸짐하게는. 맛은 있쥬. 거시기 하더라고.}

10233 # 근디 아프로 그르케 될꺼여. 혈쑤 읍써. 절믄 사람드리 다 돈벌러 나가는데 어트게 혀. {그러나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할 수 없어. 젊은 사람들이 다 돈 벌러 나가는데 어떻게 해.}

10233 @ 마자요. 어휴. 오느른 어르신 일썬을 쭉 드런네. {맞아요. 어휴. 오늘은 어르신 일썬을 쭉 들었네.}

## 제2편 어휘

### 2.1. 농경

#### 2.1.1. 경작

20101 벼	나락; 벼
20102 이삭	모가지; 이삭
20103 벼씨	벼씨
20104 못자리	모짜리
20105 모판	모판
20106 쟁기	쟁기
20107 보습	보습
20108 벼	벼
20108-0-1 -이	베시
20109 극쟁이	바쟁기
20110 씨레	쓰레
20111 번지	판자질
20112 모내기	모를 찢다고; 모심끼; 모내기
20113 흙덩어리	덩이르
20114 고무래	당그래
20114-1 고무래(곡식용도)	당그래
20114-2 고무래(재 용도)	당그래; 재당그래; 부엌땅그래
20114-3 고무래(흙 용도)	당그래
20114-4 고무래(미는 데 사용)	×
20114-5 고무래(당기는 데 사용)	×
20115 쇠스랑	소스랑
20116 곡괭이	뿔괭이
20117 괭이	괭이; 꼬괭이
20118 삽	삽
20119 호미	호미; 호미짜루
20120 농기구	농기구
20121 김	김
20122 김매다	풀매기; 김매기
20123 애벌 매다	초벌맨다
20123-1 두벌 매다	재벌

20123-2 마지막(세벌) 김매기	만두리
20124 논두둑	논뚝
20125 밭둑	밭뚜렁; 밭뚜기
20126 밭두둑	둑; 두기
20127 밭고랑	골; 고랑
20128 밭이랑	이랑이
20128-1 (밭이랑을) 타다/갈다 /째다/파다	두글 만든다고; 밭꼬랑을 만든다; 밭꼬랑을 진는다
20128-2 이랑밟기	보리박끼; 호글 찌준다; 흑 저준다; 보리받 흑 찌준다
20129 보리	보리
20129-1 가을보리	가을뽀리
20129-2 봄보리	봄뽀리
20130 보리쌀	보리방아; 보리싸리
20131 가을갈이	가을가리
20132 꺾부기	꺾부기
20133 두엄	퇴비; 뒤엄
20134 거름	쇠명간; 소매준다구

### 2.1.2. 타작

20201 추수하다	추수한다; 거뒀드린다; 나락거뒀드린다; 나락빼기
20202 벼단	나락바심
20202-1 벼단(한 줌정도)	나락따발
20202-2 벼단(타작할 정도)	나락따발
20202-3 벼단(한 아름정도)	나락다발
20203 가리(積)	벼늘; 줄가리; 세벌가리
20204 가리다(積)	벼늘 싹는다고; 가리를 친다; 장자를 싹는다
20205 벼가리	벼늘
20206 날가리	짐늘
20207 타작	타작
20208 벼훅이	호룽기
20208-1 그네	홀테
20209 개상	개상질
20209-1 자리개	×
20209-2 자리개질	개상질



20210 도리깨	도리채
20210-1 도리깨장부	도리채자루
20210-2 도리깨열	도리채
20210-3 도리깨꼭지	도리채고리
20211 벧짚	지푸락; 짐눌
20211-0-1 -을	지푸락 가져와라
20211-0-2 -에	짐누레 불나따; 지푸락; 지푸라게; 지패; 지비라고
20212 새 췌기	술갱이
20213 쪽정이	쪽쟁이
20214 티	티
20215 까끄라기	꺼럭
20216 풍구	바람개비; 불무
20217 원두막	원두막
20218 허수아비	허수아비
20219 흥년	흥년
20220 머슴	머슴
20221 낚	일꾼; 낚
20221-0-1 -을	노븐는다고
20221-1 (낚을) 사다/얻다/부리다	노번는다
20222 품앗이	푸마시
20223 품삯	품쌉
20223-0-1 -으로	품싸글

### 2.1.3. 방아 찧기

20301 방아	방하찌러
20302 디딜방아	드딜뺑아
20303 방앗공이	×
20304 방아확	×
20305 물레방아	물레방아
20306 연자방아	연자맬
20307 절구	절구
20308 절구통	절구통; 도고통
20309 절굿공이	도구매
20310 절구질	절구질
20311 겨	저; 겨

20312 보릿겨  
20313 왕겨  
20314 등겨  
20315 검불  
20316 껍질

보리겨  
멥겨; 그 왕겨라구  
쌀겨  
검불  
껍씨를(+ 신); 껍떼기(+ 구)

#### 2.1.4. 곡물

20401 곡식  
20402 찹쌀  
20403 멥쌀  
20404 쌀보리  
20405 조  
20406 차조  
20407 메조  
20408 좁쌀  
20409 작다  
20410 조이삭  
20411 수수  
20411-1 붉은색 수수  
20411-2 장목수수  
20411-3 찰수수  
20411-4 메수수  
20412 수수짱  
20413 옥수수  
20413-1 찰옥수수  
20413-2 메옥수수  
20414 귀리  
20415 메밀  
20416 콩  
20417 콩깍지  
20418 메주  
20419 매달다  
20420 띄우다  
20421 곰팡이  
20422 강낭콩  
20423 콩기름

곡씨  
찹쌀  
멥쌀; 멥쌀  
꺼뽀리가; 메보리가 이꼬; 쌀보리고  
스늬; 조라고  
찰스늬  
메스늬  
스늬쌀  
잘찌  
스늬모가지  
수수  
빨강수수; 찰수수  
수수빈씨락  
찰수수  
메수수; 며수수  
짱내이가(+ 신); 단수수때  
옥썩수수  
찰옥썩수수  
메옥썩수수  
×  
메밀; 메밀묵  
메주콩  
콩깍찌  
메주를  
다래매와  
띄운다고지; 뜯다고러지  
곰팡이  
마늘받콩(+ 구); 강낭콩(+ 신)  
콩기름

20424 깨	깨
20424-1 참깨	참깨
20424-2 들깨	들깨
20425 고소하다	고소와

### 2.1.5. 채소

20501 채소	채소
20502 나물	나물
20502-1 "나물(밭 재료)"	반나물
20502-2 "나물(밭 반찬)"	나물
20502-3 "나물(들 재료)"	들나물
20502-4 "나물(들 반찬)"	나물
20502-5 "나물(산 재료)"	산나물
20502-6 "나물(산 반찬)"	나물
20503 푸성귀	푸성제(+ 구)
20504 다듬다	다듬는다
20505 반찬	반찬
20506 무	무; 무숙
20507 썰다	썬다
20508 무청	무이팔; 무수이팔; 무사구이팔
20509 시래기	시라구
20510 무말랭이	무우말랭이
20511 장다리무	장다리무수
20512 배추	배추
20513 고갱이	배추속
20514 오이	오이; 무뢰; 무로이; 외
20515 오이지	외장아치; 무뢰장아치
20516 오이소박이	오이김치(+ 신); 외김치(+ 신)
20517 가지(茄子)	까지
20518 호박	호박
20519 고구마	고구마
20520 감자	하지깎자
20520-1 잘다	
20521 우영	우영
20522 파	파
20523 고추	고추

20524	시금치	시금치
20525	미나리	미나리
20526	부추	솔
20527	상추	상추두
20528	마늘	마늘
20529	생강	생강(+ 신); 시양(+ 구)
20530	냉이	냉이
20531	달래	달롱개
20532	도라지	도라지
20533	더덕	더덕

## 2.2. 음식

### 2.2.1. 주식과 부식

20601	쌀밥	쌀밥
20602	찬밥	찬밥
20602-1	더운밥	따순밥
20603	조밥	쓰속밥
20604	누룽지	깜밥
20605	눌은밥	누름밥
20606	송냥	송님
20607	뜨물	뜸물
20608	김(蒸氣)	짐
20609	갱죽(羹粥)	느쿠 꼬리몬 시라구주이구; 무수주이구
20610	싱겁다	싱겁찌
20611	국수	국쭈
20612	칼국수	칼국쭈
20612-1	기계국수/틀국수	국쭈
20613	건더기	건덕찌
20613-1	국물	궁물
20614	고명	고명; 국수마리
20615	꾸미	×
20616	미역	미역쭈
20617	김(海苔)	김; 짐
20618	수제비	수제비

20619 끼니	끄니
20620 미음	미음
20620-1 (미음을) 끓이다/쭈다/삶다	미음 끄리서; 죽 끄린다
20621 엿기름	열찌름
20622 식혜(食醪)	시케; 감주
20623 식혜(食醪)	×
20624 달다(甘)	달지
20625 가루	가루
20625-0-1 -에	밀까리에다
20625-0-2 -을	밀가루 만지면
20625-0-3 -도	밀가루도
20626 밀가루	밀가루
20627 밀기울	밀찌울
20628 미숫가루	미숫가루

### 2.2.2. 반찬과 별식

20701 간장	간장
20702 된장	된장
20703 고춧가루	고춧가루
20704 고추장	꼬추장; 꼬창
20705 소금	소곰
20706 김치	김치; 짐치
20707 김장	김장; 짐장
20708 깍두기	쪼각찌; 깍때기; 석빱지
20709 나박김치	싱건지
20710 담그다	담는다
20710-0-1 -고	담꼬
20710-0-2 -어라	다머라; 다바라
20711 양념	양념
20712 버무리다	버무리라; 버무린다
20713 버섯	버션; 솔버션
20713-0-1 -이	버서시
20714 콩나물(재료)	콩나물
20714-1 콩나물(반찬)	콩나물무침
20714-2 숙주(나물)	녹두채; 녹두나물; 숙찌나물
20715 두부	두부

20716 비지	비지
20716-1 비지떡	비지떡
20717 달걀	달걀; 알난네
20718 가래떡	가래떡
20719 시루떡	시루떡
20720 송편	송편
20721 빻다	만든다
20722 흰떡	설기떡; 흰떡
20723 고물	고명
20724 팔죽	판죽; 동진죽
20725 새알심	시아시미
20726 백설기	백설기
20727 튀밥	튀밥
20728 술	술
20729 막걸리	약주; 막걸리
20730 소주	쏘주
20731 부침개	부치개

### 2.2.3. 부엌과 그릇

20801 부뚜막	부뚜막
20802 가마솥	가마솥
20802-0-1 -을	소솥
20802-0-2 -에	큰소치다 하고
20803 아궁이	아궁이; 부엌짜기라해찌
20803-0-1 -이	부엌 짜기서
20804 그을음	검장; ㄱ으름
20805 불쏘시개	불쏘시개
20806 연기	영기
20806-1 내(煙氣)	부리낸다그루지; ㄱ으른냄새지; ㄱ으른내져
20807 그을리다	ㄱ시러진거
20808 부지깥이	부진땡이
20809 부삽	부사비지; 부삽
20810 냄다	매와; 내와
20811 냄비	냄비
20812 그릇	반상기; 바ㄱ르
20812-0-1 -을	그르슬

20813	뚜껑	뚜껑
20814	주발 뚜껑	주발뚜껑
20815	사발 뚜껑	주발뚜꺼이
20816	술뚜껑	소당깨; 술뚜껑 열고
20817	밥주걱	주걱
20818	술가락	술까락
20819	젓가락	전까락(+ 신); 저부미라(+ 구)
20820	종지	종지; 깍찌이가(간장)
20821	보시기	종발; 보새기
20822	뚝배기	투가리
20823	접시	접씨
20824	조리	조랭이(+ 구); 조리라구(+ 신)
20825	이남박	옴박지; 바가지; 함박이지; 함박; 옴박지
20826	바가지	바가지
20827	행주	행주
20828	행구다	행긴다고; 행군다고
20829	설거지	설거지
20830	개숫물	설거진물이지; 꾸정물이지
20831	찌꺼기	찌끄레기
20832	화로	쇠화리
20833	화룻불	화린빨
20834	부젓가락	불찌깨; 불찜까락
20834-0-1	-이	불찌깨; 불찌개가
20834-1	불숟가락	불쭈걱; 화돌쭈걱
20835	다리쇠	삼바리
20836	석쇠	적썰
20837	도시락	벤또; 도시라근
20838	바구니	대바구리; 바구리
20839	뒤주	뒤지
20840	찬합	차납
20841	강판	강파이
20842	개다리소반	소반

## 2.3. 가옥

### 2.3.1. 방과 가구

20901 안방	암뺑; 사랑방; 가뺑
20902 벽	벽; 벼락뺑
20903 다락	다락
20904 벽장	벽짱
20905 감추다	감춰논는다
20906 흙	기스나따고; 혼찌비생겨따고; 상해져따
20907 돌찌귀	문돌추
20907-1 암짜	암돌추
20907-2 수짜	순똥추
20908 미단이	미다지
20909 여단이	여다지
20910 덧문	건문
20911 열다	열고
20912 문고리	문꼬리
20913 자물쇠	빈짱; 자불통
20914 갇히다	가쳐이찌
20915 열쇠	열쇠
20916 잠그다	장금다 잠가논는다
20917 구멍	문구멍
20917-1 쥐구멍	주구멍
20918 찢다	찢는다
20919 구들	구들짱
20920 흙받기	흑빠지
20921 흙손	쇠손
20922 흙칼	고대
20922-1 흙칼(나무로 만든 것)	막쏰
20922-2 흙칼(쇠로 만든 것)	쇠손
20923 바르다	바른다그러지; 쇠손지르한다
20924 장판	장판
20925 종이	종이
20926 도배	되비
20927 구석	귀탱이; 귀챙이; 구서기라구(+ 신)
20928 굽도리	×
20929 깨끗하다	깨끄허다
20930 문지방	문턱
20930-0-1 -에	문터게올라서지마라



20931 틈	문틈
20932 가장자리	방끈; 마루가생이; 가세
20933 가운데	방까운데
20934 시렁	시렁
20935 살강	살광
20936 선반	선반
20937 서랍	빠다지(+ 구); 서랍(+ 신)
20938 경대	체경; 증대
20939 거울	거울; 민경; 명경
20940 걸다	거우릴 거뤄와
20941 호롱	호롱등; 호롱뚱

### 2.3.2. 건물

21001 지붕	지붕
21001-0-1 -에	지붕에
21002 기와	기와
21003 기와집	기와집
21004 수키와	순끼와
21005 암키와	암끼와
21006 대들보	대들뽀
21007 서까래	서까래
21008 추녀	추녀
21009 처마	처마민
21010 오두막	오도막; 오도막째
21011 초가집	초가집
21012 이영	이영; 나래
21012-0-1 -에서	나래에서
21013 용마름	용마루라구
21014 기스락	지스락; 지스랑물; 지스라게서
21015 낙숫물	낙쭈
21015-1 기스락물	서근새물; 지스랑물; 썩도물
21016 사닥다리	사다리
21017 용마루	용마루
21018 토방	토방
21019 땃돌	×
21019-1 섬돌	×

21020 마루  
21020-0-1 -에  
21021 뿔마루  
21022 기둥  
21023 주춧돌  
21023-0-1 -을  
21024 굴뚝

마루  
마루에  
뿔마루  
기둥  
주춧돌  
주춧돌  
굴뚝

### 2.3.3. 마당

21101 뜰  
21102 마당  
21103 넓다  
21103-0-1 -어서  
21104 넓히다  
21105 곳간  
21106 외양간  
21107 마구간  
21108 광  
21109 헛간  
21110 쓰레기  
21111 장독대  
21112 장독 뚜껑  
21113 변소  
21113-1 똥장군  
21114 울타리  
21115 담  
21115-0-1 -에  
21115-0-2 -도  
21116 사립문  
21117 뒤꼍  
21117-0-1 -에  
21118 바깥  
21118-0-1 -에  
21119 모퉁이  
21120 모서리

정원; 뜨리 냇따; 집뜨리  
마당  
넌러; 널롭따; 냇따  
넌뤄서  
넌피먼; 넌리믄  
창고; 고까니리구  
외양간  
말구유; 마방  
광  
허간  
쓰레기  
장독때  
항아리뚜껑  
변소가(+ 신); 뒤깁(+ 구); 화장시리라구  
장구통; 똥통  
울타리  
담  
다메  
담도무너져따  
싸림문  
뒤양간  
뒤앙까네서  
울바께(+ 신); 바까테(+ 구)  
울바께  
모퉁이  
모서리

#### 2.3.4. 마을과 가게

21201 마을	동네; 부라글
21202 윗마을	위땀
21203 이웃	이운싸람인데
21203-0-1 -이	이우시조아
21203-0-2 -에	이운짚; 이우세 산다
21204 마을가다	마실
21205 우물	우물
21206 두레박	두레박
21207 샘(泉)	웅달샘; 시암
21208 가(邊)	간; 가슬
21208-0-1 -을	가슬 둘러본다
21208-0-2 -에	가세 노치 마러라
21209 물지게	물찌게
21210 가게	가게(1960년후) ; 점빵; 하꼬방은(6.25후)
21211 싸다	싸다
21212 비싸다	비싸다
21213 흥정	흥정
21214 중매인(거간꾼)	소개자; 중매인(+ 신); 흥정꾼; 거간꾸니
21215 잔돈	잔돈
21216 에누리	에누리 헤돌라; 에누리 업써; 까꺼돌라
21217 거스름돈	거스름또늘
21218 거스르다	내준다; 내돌라
21219 꾸다(借)	꾼다
21219-0-1 -어야	꾸어서
21220 구두쇠	놀부가튼넌 어치구; 고질배기; 자진고비라고
21221 맡기다	맡킨다
21222 나머지	나먼도늘; 나문걸; 나머지는
21223 텀	우수
21224 몫	니모기다
21224-0-1 -을	몫쓸
21225 빚	빚쟁이
21225-0-1 -을	비슬마이져
21225-0-2 -에	비세 쪼달려
21226 이자(利子)	이자를; 우또늘 언져준다고
21227 심부름	심부름

21228 두름	한두름
21228-1 축	축
21228-2 쾌	테
21228-3 접	한접
21228-4 씹	씹
21228-5 두름	한두름이라고하딩가
21228-6 단/뭇(작은 묶음)	한단
21228-6 단/뭇(작은 묶음)	한다발
21228-7 단/뭇(서너 개 묶음)	한단
21228-8 툇	한툇; 한토슨
21228-9 모숨	한모숨
21229 켄레	항켄레
21230 마지기	마지기
21230-1 한 마지기의 넓이	이백평
21231 꾸러미	한줄; 향꾸레미는
21232 그루	주; 향그루
21233 포기	한포기
21234 저울	저울
21235 자루(包袋)	푸대; 마대; 자루도
21235-0-1 -을	쌀푸대를 가지구와라
21235-0-2 -에	푸대에
21236 하나	하나; 하나가마나
21236-1 한-개	한개
21236-2 한-되	한되
21236-3 한-말	함말
21237 둘	둘; 두리마나
21237-1 두-개	두개
21237-2 두-되	두되
21237-3 두-말	두말
21238 셋	셋; 세시마나
21238-1 세-개	세개
21238-2 세-되	세되
21238-3 세-말	세말
21239 넷	넛; 네시마나
21239-1 네-개	네개
21239-2 네-되	네되
21239-3 네-말	네말

21240 다섯	다섯; 다서시마나
21240-1 다섯-개	다서개
21240-2 다섯-되	다섯되
21240-3 다섯-말	다섯말
21241 여섯	여섯; 여서시마나
21241-1 여섯-개	여서개
21241-2 여섯-되	여섯되
21241-3 여섯-말	여섯말
21242 일곱	일고; 일고비마나
21242-1 일곱-개	일곱개
21242-2 일곱-되	일곱되
21242-3 일곱-말	일곱말
21243 여덟	여달; 여다리마나
21243-1 여덟-개	여덜개
21243-2 여덟-되	여달되
21243-3 여덟-말	여덜말
21244 아홉	아홉; 아호비마나
21244-1 아홉-개	아홉개
21244-2 아홉-되	아홉되
21244-3 아홉-말	아홉말
21245 열	열; 여리마마
21245-1 열-개	열개
21245-2 열-되	열되
21245-3 열-말	열말
21246 스물	수물
21246-1 스무-개	스무개
21246-2 스무-되	스무되
21246-3 스무-말	스무말
21247 서른	서른
21247-1 서른-개	서른개
21247-2 서른-되	서른되
21247-3 서른-말	서른말
21248 마흔	마운
21248-1 마흔-개	마흔개
21248-2 마흔-되	마운되
21248-3 마흔-말	마운말
21249 쉰	쉬운

21249-1 원-개	쉬웁개
21249-2 원-되	쉬웁되
21249-3 원-말	쉬웁말
21250 예순	애순
21250-1 예순-개	애순개
21250-2 예순-되	애순되
21250-3 예순-말	애순말
21251 일흔	이른
21251-1 일흔-개	이른개
21251-2 일흔-되	이른되
21251-3 일흔-말	이른말
21252 여든	여든
21252-1 여든-개	야등개
21252-2 여든-되	야든되
21252-3 여든-말	야든말
21253 아흔	아흔
21253-1 아흔-개	아흔개
21253-2 아흔-되	아흔되
21253-3 아흔-말	아흔말
21254 백	백
21254-1 백-개	백개
21254-2 백-되	백되
21254-3 백-말	백말
21255 이백	이백; 이배기되다
21256 한둘	하나둘
21256-1 한두-개	한두개
21256-2 한두-되	한두되
21256-3 한두-말	한두말
21257 두셋	둘썬; 두세시라고
21257-1 두세-개	두세개
21257-2 두세-되	두세되
21257-3 두세-말	두세말
21258 두서넛	두서넛
21258-1 두서너-개	두서너개
21258-2 두서너-되	두서너되
21258-3 두서너-말	두서너말
21259 서넛	서너시라고도; 썬네시로허지

21259-1 서너-개	서너개
21259-2 서너-되	서너되
21259-3 서너-말	서너말
21260 네댓	너댓개
21260-1 네댓-개	너대개머는; 너댓개
21260-2 네댓-되	너대되
21260-3 네댓-말	너댄말
21261 대여섯	대여섯개
21261-1 대여섯-개	대여섯개
21261-2 대여섯-되	대여섯되도
21261-3 대여섯-말	대여섯말
21262 예닐곱	야닐고개
21262-1 예닐곱-개	육칠개; 야닐고개
21262-2 예닐곱-되	야닐곱되
21262-3 예닐곱-말	야닐곱말
21263 일여덟	×
21263-1 일여덟-개	칠팔개
21263-2 일여덟-되	×
21263-3 일여덟-말	×
21264 여덟아홉	×
21264-1 여덟아홉-개	×
21264-2 여덟아홉-되	×
21264-3 여덟아홉-말	×
21265 여남은	
21265-1 여남은-개	여나뭇개
21265-2 여남은-되	여나무되
21265-3 여남은-말	여나무말

## 2.4. 의복

### 2.4.1. 복식과 장식

21301 치마	치마
21302 길이	기리; 기장이여; 지럭찌
21303 저고리	저고리
21304 색동저고리	쌌똥저고리

21305 두렁이	두렁치
21306 무늬	무누
21307 꼬쟁이	단소꼰; 꼬쟁이는
21308 바지	바지
21309 두루마기	두루마기
21310 의복	으보근
21311 구겨지다	꾸그적꺼런다고
21312 옷고름	오꼬름
21313 단추	단추
21314 동정	동전
21315 겹	건
21315-0-1 -에	거시
21315-0-2 -을	껍떼기; 거시맘
21316 홑옷	혼꺼
21317 겹옷	적껌
21318 잠방이	잠뱅이; 등거리
21319 누더기	느테기 ; 느더기
21320 거지	동냥아치; 그지라고
21321 구걸	동냥달라고; 구거른;
21322 조끼	조끼; 쪼끼지
21323 내의	내복; 난냉구; 소꼰; 내이라구
21324 끼입다	찌임는다고
21325 소매	소매
21326 주머니	주머니
21327 호주머니	호주머니라고; 개가짬
21328 허리띠	허리띠
21329 땡기	땡기
21330 도포	도복
21331 샷갓	산까슨
21331-0-1 -에	산께슨
21332 고깔	피깔
21333 사모	사모관대
21334 유건	×
21335 대님	댄님
21336 감발	×
21337 짚신	집썬 신코
21338 미투리	미트리



21338-1 (죃신을) 삼다/만들다/ 트다/결다	신 삼는다고
21339 나막신	나무끼는
21340 설피	×

#### 2.4.2. 바느질과 세탁

21401 명주	명주
21401-1 명주실	명주시리지
21402 목화	모화
21402-1 목화다래	모화다래
21403 무명	명뵈
21403-1 무명실	명실
21404 씨아	시아틀
21405 자새	자새
21406 물레	물레
21407 베	베짖다고
21408 길쌈	질쌈
21409 골무	골무; 골맹이
21410 반진고리	명주; 바느직끄를
21411 가위	가새로
21411-0-1 -을	가새를
21411-0-2 -에	가새한티
21412 마르다(裁)	버선 뽀뽀다고
21412-0-1 -고	×
21412-0-2 -어라	비어라
21413 형겅	홍겅
21413-0-1 -을	홍거블
21413-0-2 -에	×
21414 바늘	바늘
21415 꿰다	편다고지
21415-0-1 -고	시를 꿰고 인따 그루지
21415-0-2 -어라	꿰도가; 꿰달라게야지
21416 바느질	바느질 힐따고
21417 재봉틀	자방틀
21418 끈	끈
21419 노끈	노끈

21420 참바	동아줄
21421 매듭	매답; 매듭
21421-1 (매듭을)맺다/짓다/엮다/묶다	매답 맨든다
21422 보자기	보재기
21423 이불	이불
21424 솜	소옴; 소케
21425 포근하다	폭신그린다; 포근허다
21426 홑이불	혼니불
21427 겹이불	점니불
21427-1 솜이불	솜니불
21428 누비이불	누비이불; 누비오시
21429 베개	벼개
21430 베갯잇	비갠니
21430-0-1 -에	벼갠니에; 비갠니에
21431 목침	목침
21432 퇴침	퇴침
21433 방석	방석
21434 담요	담뇨; 빠래
21435 빨래하다	빨래
21436 빨랫방망이	빨래뽕맹이
21437 빨래터	빨래뜩
21438 빨랫줄	빨래쥬
21439 다리미	대리미
21439-1 다림질	대리미질
21440 인두	인두
21441 다듬잇방망이	다디미뽕맹이
21442 다듬잇돌	다딤독
21443 다듬이질	다디미질

## 2.5. 민속

### 2.5.1. 세시 풍속

21501 설날	설랄
21502 설	설원다
21503 선달 그믐날	선딸그믐; 선딸그믐날로

21504	묵은세배	×
21505	올해	올해; 오래; 오래; 금녀네
21505-0-1	-는	오래는; 오래는
21505-1	작년	장년
21505-2	재작년	재장년
21505-3	내년	명년; 내년; 후년
21505-4	후년	후맹년
21505-5	내후년	내후년
21506	작은설	스:딸그뭍날
21507	웃	웁
21507-0-1	-을	유슬
21507-0-2	-에	유시
21507-1	웃놀이	웁노리
21508	웃가락	웁카라글; 유까락
21508-1	도	토
21508-2	개	개
21508-3	걸	걸
21508-4	웃	웁; 수시라고
21508-5	모	모
21509	단동	마
21509-1	외동무니	×
21509-2	두동무니	보까서간다; 두동산
21509-3	석동무니	석똥산
21509-4	넉동무니	막똥산
21509-5	막동	막깁다그루지
21509-6	단동무니	×
21510	보름	보름
21510-1	삭망	×
21511	추석	추석
21512	망월	망월노리
21513	쥐불놀이	쥐불로리
21514	자치기	자치기라구
21514-1	작은막대	자치기
21514-2	긴막대	자치기 때
21515	수수꺼끼	수수꺼끼
21516	호미씻이	술머기; 술메기
21517	팽과리	팽과리

21518 장구	장구; 소구
21519 결두리	새끼; 새참; 참
21520 무당	당골래; 무당이나
21520-1 박수	점쟁이
21521 고수레	꼬시래
21521-1 고수레!	꼬시래
21522 점쟁이	점쟁이
21523 상여(喪輿)	생여
21524 굴건	권; 굴권
21525 제사	제사
21526 제기	목끼
21527 귀신	귀신; 구신이라구
21528 도깨비	도깨비

## 2.5.2. 농경용품

21601 고삐	꼬피 폴린 망아지
21602 굴레	굴레
21603 멍에	멍에
21604 길마	질마
21605 부리망	망을 씨운다
21606 구유	구시라구리지; 소죽통
21607 작두	작뚜
21608 풀	풀비러간다
21609 여물	여물
21610 쇠죽	소주글 씹는다
21611 쇠죽바가지	두레바가지
21612 수레	구루마; 달구지
21613 끝다	끝코간다
21613-0-1 -고	끝코
21614 바퀴	발통; 바퀴
21615 새끼(繩)	새끼; 사내끼
21615-1 새끼(짐승의)	쇄끼
21616 망태기	망대; 망대구럭; 구러기라고
21617 떡등구미	섬:
21618 거적	거저그로; 거저근; 거저기라고
21619 가마니	가마니

21619-1 가마니틀	가마이틀
21620 돛자리	돛짜리
21621 자리틀	돛짜리틀
21621-1 (자리를) 짜다/치다/ 만들다/견다	짠다; 짜자; 짜라
21622 왕골	왕골
21623 삼태기	짬쏘쿠리
21623-1 짚 삼태기	산태미; 짬쏘쿠리
21623-2 짜리 삼태기	짜리 산태미
21624 명석	명석
21625 어레미	사래 (구멍크기에 따라서 사래>얼맹이>체)
21625-1 고운체	체
21625-2 굵은체	얼맹이; 사래
21626 대장장이	대장쟁이
21627 대장간	대장간
21628 풀무	풀무; 불무
21629 모루	×
21630 모루채	×
21631 갈퀴	갈퀴
21632 집게	집게
21633 장도리	장두리
21633-1 노루발	장도리 날
21634 툇	툇
21634-0-1 -에	툇날
21635 도끼	도끼
21636 자루(柄)	도끼짜루
21636-0-1 -을	자루를
21636-0-2 -에	손자비
21637 갈고리	갈뿌리; 갈꾸리
21638 췌기	췌베기
21639 송곳	송곳
21639-0-1 -에	송고세
21640 뽕죽하다	뽕죽
21641 솥돌	수뿔; 술독
21641-0-1 -에	수또레; 술또게
21642 맷돌	맷돌; 맷뿔
21642-1 수쇠	멧뿔추

21642-2 암쇠	×
21643 지게	지게
21644 발채	바작
21645 지게 작대기	작때기
21646 막대기	막때기
21647 몽둥이	몽둥이

### 2.5.3. 생활용품

21701 빗자루	비; 대비찌락
21702 광주리	광:주리
21703 소쿠리	소쿠리
21704 함지	함:지
21705 풀비	풀삐
21705-1 귀얄	×
21706 독	또가니
21706-0-1 -에	도게
21707 물독	물똥이
21708 항아리	항아리
21709 단지	단지
21710 물동이	물동이
21711 빠리	똥아리
21712 옹기	질그릇
21713 표주박	바가지 ; 쪽빠가지
21714 키(箕)	치
21715 떡살	떡판
21716 다식판	×
21717 시루	시루
21717-0-1 -을	시루두껍
21717-0-2 -에	시루에
21718 시룻밑	시루바닥
21718-0-1 -에	시루미테
21719 시룻번	시루땀
21720 부싯돌	부시
21720-0-1 -을	부시 가지고와라
21721 부시	부시
21722 부싯깃	부시 솜

21723 담배	담배
21724 담뱃대	담뱃때
21725 담배설대	담뱃때
21726 담배통	알통; 담배통
21727 물부리	물뿌리
21728 담배쌈지	쌈지; 담배쌈지
21729 부채	부채
21730 토시	토손; 팔갱기
21731 벼루	벼루
21732 가락지	반지; 까락지
21733 비녀	비녀
21734 참빗	얼기빔; 참빔
21734-0-1 -을	참빔가지고와라
21734-0-2 -에	참비세
21735 얼레빗	×
21736 세숫대야	세숫때야
21737 비누	비누
21738 도투마리	×
21739 활대	×
21740 잉앗대	×
21741 부티	×
21742 도롱이	도랭이

## 2.6. 인체

### 2.6.1. 얼굴과 머리

21801 이마	니마
21802 이마빼기	니마빡
21803 눈자위	×
21804 검은자위	거믄창
21805 흰자위	싯창; 싯창
21806 눈꺼풀	눈커풀
21807 거적눈	꺼정눈
21808 눈썹	눈썹
21808-0-1 -이	눈썹미

21809 속눈썹	송눈썹
21809-0-1 -이	송눈썹비
21810 눈두덩	눈탱이
21811 안경	안경
21812 안경집	안경집
21813 돋보기	도뽀기
21814 주름살	주름살
21814-0-1 -이	주름싸리
21815 앳되다	절머보인다; 어려보인다
21816 수염	수염
21817 구레나룻	불레쉬염; 굴레쉬염
21817-0-1 -을	굴레쉬여물 깎꺼다
21818 코	코
21818-0-1 -이	코가
21819 콧수염	코쉬염
21820 코딱지	코딱찌
21821 콧구멍	코꾸멍
21821-0-1 -을	코꾸머글
21821-0-2 -에	코꾸머게서
21822 콧물	콩물
21823 입술	입술
21823-0-1 -에	입수레
21824 다물다	오므리다; 다물다
21825 어금니	아금니
21826 덧니	빠드렁니
21827 휘파람	훼파람; 회파람
21828 침	침
21829 삼키다	치물 생킨다
21830 가래(痰)	가래
21831 빨다	뵈는다
21832 혀	혀
21833 헛바늘	선빠늘; 혀빠늘
21834 귓볼	귀밥
21835 귀고리	귀고리
21835-1 귀걸이	귀바개
21836 귀지	귓뺨
21837 귀이개	귀주개



21838 소리	소리
21839 엇듣다	엇듣는다
21840 귀청	귀청
21841 귀밑	귀밑
21841-0-1 -을	귀미테; 귀미세
21842 관자놀이	×
21843 기미	기미
21844 주근깨	주경깨
21845 턱	턱
21846 턱수염	턱쉬염
21847 뺨	뺨
21847-1 볼	볼테기
21848 가름하다	자르:머게 예쁘다
21849 보조개	보조개
21850 머리카락	머리털; 머리카락
21851 비듬	비듬
21852 기계총	기계뚝; 도장뺨
21853 정수리	정수리
21854 대머리	대머리
21855 고수머리	곱쓸머리
21856 가르마	가르매
21856-1 가르마 타다/가르다/하다	가르매탄다
21857 가마	가마
21857-1 가마(鼎)	가마
21857-2 가마(轎)	가:마
21857-3 가마(질그릇)	가:마
21857-4 가마(가마니)	×
21858 뒤통수	뒤통수
21859 뒷덜미	뒤통덜미
21860 목	목
21861 먹살	먹쌀

## 2.6.2. 생체

21901 어깨	어깨
21902 밀치다	민다; 친다
21903 겨드랑	겨드랑

21904 등	등
21905 가슴	가슴
21906 걸리다	걸리고
21907 갈비뼈	갈비뼈; 갈빈때
21908 허파	폐; 허:파
21909 쓸개	쓸개
21910 콩팥	콩팥
21910-0-1 -에	콩파시; 콩파세
21910-0-2 -을	콩파틀; 콩파슬
21911 팔	팔
21912 팔꿈치	팔꿈치
21913 팔짱끼다	팔짱을 끼고이따
21914 손뚝	손뚝
21915 오른손	오른손
21916 왼손	왼손
21917 다르다	틀리게
21917-0-1 -아서	틀리게해서
21917-1 틀리다	틀리지; 틀리다
21918 왼손잡이	왼손자비
21919 엄지손가락	엄지손꺼락
21920 집게손가락	두째손꺼락
21921 가운데손가락	가운데손까락
21922 약손가락	약손까락
21923 새끼손가락	새끼손까락
21924 생인손	소나리
21925 사마귀	사마귀
21926 손아귀	손아귀; 아구 씹이썰다
21927 손목	팔목
21928 뺨	뺨
21929 허리	허리
21930 지팡이	지팡이
21931 옆구리	옆꾸리
21932 간지럽다	간지럽따; 간지름; 간지럼
21934 잔허리	잔허리
21935 근육	그늑
21936 배꼽	배꼬
21937 목물	등매길; 등매기

### 2.6.3. 하체

22001 복사뼈	복상뼈
22002 발가락	발까락
22003 발바닥	발빠닥
22004 발톱	발톱
22005 냄새	남새
22006 고린내	꼬랑냄새
22007 굳은살	굉이가 배긴다; 공이가 배긴다
22008 정강이	정갱이
22009 종아리	종아리
22010 장딴지	장판지
22011 회초리	회초리
22012 무릎	무릅
22012-0-1 -을	무르블
22012-0-2 -에	무루베
22013 오금	오금쟁이
22014 엉덩이	방둥이
22015 궁둥이	궁둥입
22016 볼기	볼기 짹
22017 멍	멕
22018 몽울	몽울
22019 가랑이	가지랭이
22020 사이	새.; 사이
22021 살	사탄
22021-0-1 -이	사타니 물런따
22021-0-2 -을	사타닐
22022 사타구니	사타구니
22023 가래톳	가래또리
22023-0-1 -을	가래또리를 만져보아따
22024 허벅다리	허벅따리
22025 넓적다리	너벅따리
22026 가부좌(跏趺坐)	발개; 발개치다
22026-1 가부좌(跏趺坐) 치다/앉다/ 트다/꼬다/하다	발개를 치고 안저이따

#### 2.6.4. 질병과 생리

22101 감기	고풀; 감기
22102 기침	기침
22103 재채기	재채기
22104 사례	사례
22104-1 (사례) 들리다/만나다/걸리다	사례들리다
22105 딸꾹질	빠꾹찐; 따꾹찐
22106 트림	트름
22107 콧보	곤보
22108 천연두	호녀
22109 여드름	여드름; 이드름
22110 학질	초악; 초학
22110-1 하루거리	하루살이 걸런따
22110-2 이틀거리	×
22110-3 매일 앓는 학질	초학
22111 홍역	호녀꼬; 호녀꼴; 홍녀글 알치
22112 볼거리	볼거리
22113 땀띠	땀띠; 땀띠기
22114 두드러기	두드러기
22115 버짐	버듬
22115-1 마른버짐	마른 버듬
22115-2 진버짐	진버듬
22115-3 도장 버짐	도장뺨
22116 문둥이	문둥뺨자; 나병환자; 문둥이
22116-1 문둥병	문둥뺨
22117 부스럼	부스럼
22117-1 종기	종기
22118 고름	고름
22119 곱기다	곱만따; 곱겂따; 설곱반네
22120 난쟁이	난쟁이; 짱똥이
22121 사팔뜨기	학뿐다; 사팔띠기
22122 언청이	째보
22123 소경	소경; 맹인; 봉사
22123-1 당달봉사	날봉사
22124 애꾸	외짱눈; 애꼬; 애꼬눈
22125 눈곱	눈꼬

22126 다래끼	다래께
22126-1 다래끼(눈 위쪽)	다래께
22126-2 다래끼(눈 아래쪽)	다래께
22127 절름발이	절름바리; 절뚝빠리
22128 곱사등이	곱새; 곱추
22129 귀머거리	귀머거리
22130 말더듬이	말더듬배기
22131 병어리	버버리; 병어리
22132 잠꾸러기	잠꾸레기
22133 줄리다	줄리다
22134 하품	하품
22135 졸음	조름
22135-0-1 -을	조르물
22135-0-2 -에	조르배; 조르메; 자메
22136 잠꼬대	군소리; 잠꼬대

## 2.7. 육아

22201 입덧	입덧
22201-0-1 -을	입더슨
22202 갓난아이	깁나니
22203 어린아이	애기; 어른내
22204 경기(驚氣)하다	풍끼
22205 눕히다	눅여; 눅핀다
22206 계집아이	지지배; 가시내
22207 예쁘다	예쁘다
22208 사내아이	머스마
22209 아우	아그탄다
22209-1 아우보다	아수분다
22209-2 아우 타다	×
22210 야위다	야윌파
22211 쌍둥이	쌍둥이
22212 오줌	오죤
22213 똥	똥
22214 기저귀	지저구
22215 뉘다(排便)	오죤쨌다

22216 방귀	방구
22216-1 꺾다	뚱뽀다; 방구뽀다
22217 구린내	군내; 구른내
22218 구리다	지독허다
22219 포대기	퍼대기
22220 기지개	지지개
22220-1 기지개를 켜다/하다/ 쓰다/퍼다	지지개쓴다
22221 거짓말	거린말
22222 남부끄럽다	넴부끄럽따
22223 겁쟁이	겍쟁이
22224 불쌍하다	안씨럽다; 치근허다
22225 죄암죄암	잠잠
22226 곤지곤지	찌깡찌깡
22227 따로따로	고네고네
22228 도리도리	도리도리
22229 짹짹	짜짜쿵
22230 부라부라	불모벌모
22231 걸음마	거름마
22232 아장아장	아장아장
22233 넘어지다	넘어져따
22234 곤두박질	머리쳐배꼰따
22235 안기다	앵긴다
22236 바람개비	팔랑개비
22237 호드기	버들피리; 꽤때기; 호때기
22238 숨바꼭질	수머깍질
22239 소꿉놀이	바꿈살이
22240 사금파리	새금바리
22241 연	연; 여:니라고
22241-1 방패연	방패연
22241-2 가오리연	가오리연
22242 걸리다	걸려; 걸런따
22243 고누	고니
22244 땅뺏기	땅빼끼
22245 팽이	뽡이; 팡이
22246 딱지치기	양니친다; 양니점는다
22247 구슬	구실치기

22248 그네	건네
22248-1 그네를 뛰다/타다/구르다	건네탄다
22249 밑신개	발판
22250 굴렁쇠	둥글테; 둥글폐
22251 굴리다	둥글면서; 둥글려감서; 궁글림서
22251-0-1 -고	궁굴리고 일따; 굴리고
22251-0-2 -어야	둥글려감서
22252 자전거	자전거; 자전거
22253 목말	꼰빠더준다
22254 말타기	말탄다
22255 달음박질	다름질; 담막찢
22256 썰매	스케트; 썰매
22256-1 얼음을(썰매를) 지치다/타다	어름타네
22256-2 송곳	꼬챙이
22257 엄살	엄살핀다; 허겁시럽다
22257-1 (엄살)부리다/피우다/ 떨다/하다	엄살도 떠러싼네
22258 부아	부에난다

## 2.8. 친족

22301 아버지	아버지
22301-1 아버지(호칭)	아버지
22302 어머니	어머니
22302-1 어머니(호칭)	엄마; 어머니
22303 할아버지	하라바지
22303-1 할아버지(호칭)	하라버지
22304 할머니	할머니
22304-1 할머니(호칭)	할머니
22305 남편	남편; 임자; 애기아빠
22305-1 남편(호칭)	여보; 당신
22306 아내	처; 안시꾸; 짜꿍
22306-1 아내(호칭)	여보
22307 형	형님
22307-1 형(호칭)	형님
22308 아우	제; 아우

22308-1 아우(호칭)	동생
22309 누나	누나
22309-1 누나(호칭)	누나; 누님
22310 누이	여동생
22310-1 누이(호칭)	×
22311 자식	자녀; 남매
22312 맏아들	장남; 큰아들
22313 맏딸	큰딸; 장녀
22314 막내	막둥이
22315 오빠	오빠
22315-1 오빠(호칭)	오빠
22316 언니	언니
22316-1 언니(호칭)	언니
22317 아버지	아버지
22317-1 아버지(호칭)	아버지
22318 어머니	니안시꾸; 니쳐; 니사라미
22318-1 어머니(호칭)	아가
22319 손자	손자
22320 손녀	손녀
22321 사위	사위
22321-1 사위(호칭)	서방
22322 외손자	외손자
22323 외손녀	외손녀
22324 꾸짖다	호늘친다
22324-0-1 -고	호늘치고 계신다
22324-1 나무라다	야다늘 친다; 꾸짖는다
22325 총각	총각
22326 처녀	처녀
22327 혼인	혼인
22327-1 혼인식	홀례시
22328 혼인 잔치	혼인잔치
22329 장가가다	장가간다
22329-1 시집가다	시집간다
22330 혼숫감	홀레품
22331 함	하암
22332 겹사돈	접싸돈
22333 새색시	새색씨; 새아씨



22333-1 새 색시(호칭)	새남자; 새 색씨
22334 시아버지	시아버지
22334-1 시아버지(호칭)	시아버지
22335 시어머니	시어머니
22335-1 시어머니(호칭)	시어머니
22336 비위	비우
22337 아주머니	아주범
22337-1 아주머니(호칭)	아주범
22338 서방님	서방님
22338-1 서방님(호칭)	서방님
22339 도련님	도련님
22339-1 도련님(호칭)	도련님
22340 형님	형님
22340-1 형님(호칭)	형님
22341 시누이	시누이
22341-1 시누이(호칭)	시누
22341-2 아가씨	시누이
22341-3 아가씨(호칭)	아가씨
22342 올케	올케
22342-1 올케(호칭)	올케
22343 매형	매:양; 매향; 매부
22343-1 매형(호칭)	매양
22344 매제	매제
22344-1 매제(호칭)	매제
22345 큰아버지	큰아버지
22345-1 큰아버지(호칭)	큰아버지
22345-2 (아버지의 둘째 형)	자근크나버지; 둘째 크나버지
22345-3 (아버지의 셋째 형)	셋째크나버지
22346 큰어머니	크너머니
22346-1 큰어머니(호칭)	크너머니
22346-2 (아버지의 둘째 형의 아내)	두째크너머니
22346-3 (아버지의 셋째 형의 아내)	세째크너머니
22347 큰집	큰집
22348 작은아버지	자그나버지
22348-1 작은아버지(호칭)	자그나버지
22349 작은어머니	제수
22349-1 작은어머니(호칭)	제수씨

22350 삼촌	삼촌
22350-1 삼촌(호칭)	삼촌
22351 아저씨	아저씨
22351-1 아저씨(호칭)	아저씨
22352 아주머니	아주머니
22352-1 아주머니(호칭)	아주머니
22353 조카	조카
22354 조카딸	조카따리나 질녀
22355 고모	고모
22355-1 고모(호칭)	고모
22356 고모부	고모부
22356-1 고모부(호칭)	고모부
22357 고종	내사촌
22358 이모	이모
22358-1 이모(호칭)	이모
22359 이모부	이모부
22359-1 이모부(호칭)	이모부
22360 이종	이종사촌
22361 외삼촌	외삼촌
22361-1 외삼촌(호칭)	외삼촌
22362 외숙모	외승모
22362-1 외숙모(호칭)	외승모
22363 외종	외사촌
22364 외할아버지	외하라버지
22364-1 외할아버지(호칭)	외하라버지
22365 외할머니	외할머니
22365-1 외할머니(호칭)	외할머니
22366 장인	친정아버지
22366-1 장인(호칭)	아버지
22367 장모	친정어머니
22367-1 장모(호칭)	어머니
22368 처남	처남
22368-1 처남(호칭)	소나래처남(나이가 적을 때); 소뉘에 처남 (나이가 많을 때)
22369 처남댁	처나므댁
22369-1 처남댁(호칭)	처나므댁
22370 할아버	할애비

22371 홀어미	과부
22372 계모	계모
22372-1 계부	새아빠; 새아버지
22373 아저씨	아저씨
22373-1 아저씨(호칭)	새권아저씨
22374 아주머니	아줌마
22374-1 아주머니(호칭)	아줌마
22375 사나이	장정
22376 영감	영감
22376-1 할망구	자네; 저노브여자; 계집
22377 나이	나이
22377-0-1 -를	나이를 멎는다
22378 환갑	회갑
22378-1 환갑 잔치	회갑잔치; 쇠연
22379 사투리	사투리

## 2.9. 동물

### 2.9.1. 물에 사는 동물

22401 물고기	물꼬기; 물찌기
22402 민물고기	민물찌기
22403 피라미	피레미
22404 지느러미	날감지
22405 아가미	아가미
22406 창자	창시
22407 송사리	송사리
22408 헤엄	시험치고
22409 메기	미기
22410 자라	남생이; 자래
22411 거북	거부기
22412 미꾸라지	미끄라지
22413 개구리	개구리; 참개구리; 깨구락찌
22414 올챙이	올챙이
22415 두꺼비	두꺼비; 두께비
22416 거머리	그마리

22417 다슬기	다슬기; 고동
22418 우렁이	우렁
22419 고동	고동
22420 달팽이	달팽이
22421 새우	새우
22421-1 새우(민물 대)	민물새우
22421-2 새우(민물 소)	새웅개; 새비
22421-3 새우(바다 대)	큰새우; 대하
22421-4 새우(바다 소)	바단새우
22422 새우젓	새우젓; 육젓(6월에 담는 것); 추젓
22422-0-1 -이	새우저순
22423 가재	가재
22424 갈치	갈치
22425 고등어	고등어
22426 가오리	가오리
22427 가자미	광어
22428 멸치	멸치; 뿔치
22429 명태	명태
22429-1 동태	동태
22429-2 황태	황태
22429-3 노가리	노가리(+ 신)
22429-4 북어	북어
22429-5 생태	생태
22430 조기	조기; 조구
22431 도미	도미
22432 뱀장어	뱀장어
22433 낙시	낙씨
22434 미끼	낙씨뺨
22435 낙싯대	낙싯때
22436 얼레	연짜새
22437 조개	조개
22438 소라	소라

## 2.9.2. 곤충과 벌레

22501 벌레	버럭찌(+ 구); 벌레(+ 신)
22502 날벌레	날벌레

22503	파리	퍼리
22503-1	쉬파리	쉬퍼리
22504	쉬슬다	버럭찌가 시런따; 쉬시러난따
22505	가시	까시
22506	진딧물	진떠물
22506-1	(진딧물 이) 끼다/얹다/생기다	진떠물찌따
22507	잠자리	잠자리
22508	방아깨비	왕치
22508-1	암컷	암컨
22508-2	수컷	수컨
22509	메뚜기	메띠기
22510	여치	지름치
22511	사마귀	수꾸락도동눔
22512	벌	벌
22512-1	(벌을) 치다/기르다/키우다	벌 키운다; 벌 쳐
22513	땅벌	땅뻔; 온빠시
22514	나비	나비; 나부
22515	하루살이	날타리; 하루사리
22516	풍뎡이	푼딩이
22517	모기	모기; 모구
22518	장구벌레	장구벌레
22519	매미	매미
22520	개똥벌레	개똥불
22521	반딧불	개똥불
22522	거미	거무
22523	굼벵이	굼빙이
22524	구더기	고자리; 고자리
22525	노래기	노내기
22526	그리마	시렁이
22527	지네	지네
22528	개미	개미
22529	바구미	바그미
22530	진드기	찢지기; 찢디기
22531	벼룩	벼룩; 베틀
22532	이	이
22532-1	서캐	서캐
22532-2	빈대	빈대

22533 송충이	송충이; 송칭이
22534 귀뚜라미	귀뚜라미
22535 누에	누에
22536 고치	봉고지
22537 번데기	본디기
22538 지렁이	그시락
22539 회충(蛔蟲)	회충
22540 소금쟁이	소금쟁이
22541 방개	물광구; 물뿡구

### 2.9.3. 가축

22601 가축	짐성
22602 암소	암소
22603 송아지	송아지; 송아치
22604 송아지 부르는 소리	왜; 왜
22605 황소	황소; 순쏘
22606 길들이다	질드린다
22606-1 소 모는 소리(앞으로 가라)	이라쫄쫄쫄쫄
22606-2 소 모는 소리(그 자리에 서라)	와와와와와
22606-3 소 모는 소리(오른쪽으로 돌아)	저라저라
22606-4 소 모는 소리(왼쪽으로 돌아)	저라저라
22606-5 소 모는 소리(뒤로 물러나라)	저라저라저라
22607 쇠고기	소고기; 쇠계기
22608 고기(肉)	몹소
22609 들치	고재
22610 꼬리	꼬리
22611 망아지	말새끼
22612 당나귀	쫄랑말
22613 갈기	돼지; 도애지
22614 돼지	멧돼지
22614-1 멧돼지	멧돼지
22615 주둥이	조동아리
22616 돼지 머리	돼지머리
22617 돼지우리	돼지막

22617-1 오래오래	오르래 오르래
22618 개(犬)	개
22618-1 수캐	수캐
22618-2 암캐	암캐
22619 강아지	개새끼
22620 염소	염소; 염소
22621 고양이	괭이; 고양이
22621-1 수고양이	숨늬; 수괭이
22621-2 암코양이	암늬; 암괭이
22622 토끼	토끼; 퇴괭이
22623 거위(鵞)	뺨까우; 거위
22624 암탉	암탁; 수탁
22625 병아리	병아리; 뺨아리
22626 모으다	메야드룽게
22627 수탉	장닥
22627-0-1 -이	장대기 우르면
22628 벼슬(鷄冠)	벼실
22629 부리	주둥아리
22630 모이	모시
22630-0-1 -을	모시를
22630-1 모이다	모여
22631 닭털	닥털
22632 닭똥	닥똥; 달기똥
22633 어리	가리; 닥까리
22634 닭장	해장
22635 둥우리	해
22636 날개	날감지; 날개
22637 깃	꽁지; 긴털
22637-0-1 -을	긴터를; 기시라고

#### 2.9.4. 들짐승과 날짐승

22701 호랑이	호랭이
22702 살쾨이	살가지
22703 여우	여수
22704 원숭이	원숭이; 원생이
22705 사슴	사스미; 사시미

22706 노루	노루
22706-0-1 -이	노루가
22706-0-2 -를	노루를
22707 고슴도치	고슴도치
22708 두더지	두지기
22709 족제비	족제비
22710 뱀	배암; 비암
22711 도마뱀	동애뱀
22712 구렁이	구렁이
22713 살모사	독새
22714 생쥐	쥐새끼; 사시랑쥐
22715 박쥐	박쥐
22716 거꾸로	꺼꾸로
22717 다람쥐	다람쥐
22718 새(鳥)	새
22719 꿩지	꿩지
22720 솔개	호리개
22721 독수리	덕쭈리; 독쭈리
22722 제비(燕)	제비; 지비
22723 두루미	황새; 두루미
22724 소쩍새	소쩍새
22725 꿩	꿩
22726 장끼	수꿩; 쟁끼
22727 까투리	암꿩; 까토리
22727-1 꺼병이	꿩새끼
22728 종달새	종달새
22729 빼꾸기	빼꼭새; 빼꾸기
22730 기러기	기러기
22731 뜸부기	뜸배기; 뜸부기; 뜸보기
22732 올빼미	올빼미
22733 까치	까치
22734 딱따구리	딱딱새
22735 텃	텃
22735-0-1 -을	더슬
22736 올가미	치; 올개미



## 2.10. 식물

### 2.10.1. 꽃과 풀

22801 진달래꽃	진달래
22802 철쭉꽃	철쭉꽃
22803 민들레	민들레
22804 맨드라미	맨드라미
22805 봉선화	봉숭아
22806 파리	파리
22807 해바라기	해바래기
22808 꽃봉오리	꽃뽕오리
22809 시들다	시드러절따
22810 질경이	뱀쟁이; 질겅이
22810-1 질경이(식물이름)	뱀쟁이
22810-2 질경이(식용이름)	뱀쟁이
22811 빨기	빨기
22812 비름	비딘나물
22813 쇠비름	쇠비름; 소비름
22814 썸바귀	썸바구; 싸랑부리
22815 고들빼기	꼬들빼기
22815-1 고들빼기(식물이름)	꼬들빼기
22815-2 고들빼기(식용이름)	꼬들빼기
22816 고사리	고사리
22817 고비	팬사리
22818 도깨비바늘	진지차리
22819 도꼬마리	진지차리
22820 억새	억따리
22821 갈대	갈때
22822 이끼	이끼
22823 아주까리	아주까리
22824 담쟁이	담장풀
22825 수세미	수세미
22826 덩굴	넝쿨
22827 덩불	덤풀
22827-1 가시덤불	까시나무가 덩풀절따
22827-1 가시덤불	찔렁나무

22828 잔디

뛰; 잔디

## 2.10.2. 나무

22901 소나무

소나무; 솔낭구

22902 솔방울

솔뽕울

22903 관솔

솔뽕이; 삭쫑개비

22904 솔가리

솔까루

22905 그러모으다

글그머는; 글거서; 글거

22906 뽕나무

뽕나무

22907 오디

오데

22908 도토리

도토리

22909 떡갈나무

도토리나무

22910 상수리

상수리

22911 옻

칠; 온나무

22911-0-1 -으로

온탄다

22912 버드나무

버드나무; 버들피리; 뽕뽕나무; 호띠기

22913 느티나무

정기나무

22914 그림자

그림자

22914-1 그늘

그늘

22915 숲

습전따

22915-0-1 -을

수풀; 습쏘글

22915-0-2 -에

수폐; 수베

22916 시원하다

시원허다

22917 짙레

짙루; 짙룽나무

22918 칙

칙꾸리; 칭나무; 칭녕쿨

22918-0-1 -에

치게

22919 가지(枝)

가지; 가쟁이

22920 끝

끝

22920-0-1 -이

꼬툼머리; 꼬시

22920-0-2 -에

꼬슬

22920-0-3 -을

꼬트리

22921 삭정이

삭쫑개비

22921-1 삭정이를 따다/꺾다/하다

삭쫑개비 꼬너따

22922 나무

연목; 지동나무

22922-0-1 -을

나무를

22922-0-2 -에

낭구; 낭구에

22923 나무하다	나무허리간다
22924 그루터기	밑뚝가리; 나무그루; 나무밑통
22924-1 그루터기(베어내고 남은 부분)	수수밑또리; 밑떠리
22925 등걸	등걸
22926 장작	장적; 장자건
22927 패다	짜깁다; 팬:다; 쪼깁다
22928 부스러기	부시래기
22929 솥	솥
22929-0-1 -이	수시
22929-0-2 -을	수슬
22929-0-3 -에	수세
22930 불잉걸	불이 잉글잉글
22931 싹	싹; 움트네; 땡넙
22932 잎	이파리
22932-0-1 -을	입싸구를
22932-1 잎사귀	입싸구
22933 가랑잎	가랑넙
22934 뿌리	뿌랭이; 뿌렁이; 뿌리; 지동뿌리

### 2.10.3. 과일과 열매

23001 능금	사과; 배; 능금
23002 돌배	독배; 아그배
23003 복숭아	복썰아; 복쌍; 개복쌍
23004 귤감	꼬감
23005 홍시	홍수; 홍시감
23006 고욤	돌감; 괴염
23007 살구	살구
23008 앵두	앵두
23009 자두	자두
23010 오얏	외얏니
23010-0-1 -을	×
23011 석류	성노
23012 모과	모과
23013 과일	과실
23014 꼭지	꼭찌

23015 밤	밤
23015-1 밤송이	밤송이
23015-2 꽃밤	폰뽕
23015-3 알밤	알밤
23015-4 쌍동밤	쪽뽕
23016 보늬	본디기
23017 호두	추자
23018 가래(楸子)	×
23019 개암	개금
23020 머루	머루
23021 다래	다래
23022 청미래덩굴	맹감
23023 으름	으름; 개안하다
23024 참외	차외
23025 딸기	딸구
23025-1 "딸기(밭 재배)"	딸기
23025-2 "딸기(밭 야생)"	×
23025-3 "딸기(들 재배)"	×
23025-4 "딸기(들 야생)"	비암딸기
23025-5 "딸기(산 재배)"	×
23025-6 "딸기(산 야생)"	산딸기
23026 뱀딸기	비암딸기
23027 마름(菱)	마름

## 2.11. 자연

### 2.11.1. 산과 들

23101 산꼭대기	봉오리; 산뽕오리
23102 기슭	산민
23102-0-1 -에	산미티
23103 골짜기	비탈길; 살꼴쟁기
23103 골짜기	산꼴짜
23104 메아리	메아리; 산울림
23105 고함	고함
23105-1 (고함) 치다/지르다/하다	고함지른다

23106 묘	외똥; 묘지
23107 뿔자리	명당; 뿔자리
23107-1 광중	광중
23108 구덩이	구덩이
23109 비탈	비탈길
23110 가파르다	빈탄저서; 가판진다
23111 언덕	잔뿔이; 엉덕
23112 낭떠러지	구렁창; 낭떠러진다
23113 들(野)	들판
23113-0-1 -에	들파니 간다; 드레 간다
23114 벌	난들; 벌판
23115 갈림길	갈림길
23116 헤어지다	헤어진다; 떨어져간썬
23117 바위	바위; 바우
23117-0-1 -을	바우를
23117-0-2 -에	바우에
23118 돌(石)	돌; 돌팍
23118-0-1 -을	돌파글
23118-0-2 -에	돌파게
23119 자갈	자갈
23120 모래	모래; 모새
23120-0-1 -를	모새를
23121 진흙	진흙; 지늬
23121-1 찰흙	차룩; 차르근

## 2.11.2. 강과 바다

23201 물	물
23202 거품	버큼
23203 개운하다	시언하다; 개운허다
23204 도랑	꼴짜; 꼬랑
23204-1 봇도랑	또랑
23205 둑	뚝
23206 잠기다	빠겔따; 쟁겔따
23207 개울	샌똥; 대똥
23208 내(川)	넌물
23209 미역 감다	멕 까르러 가자

23210	발가숭이	깨벌썰이
23211	목욕하다	등뻘
23212	수채	꼬랑; 수채구녕
23213	개골창	꼬랑
23214	시궁창	시금창
23215	웅덩이	웅덩이
23216	수렁	수렁
23217	늪	느비라고
23217-0-1	-에	느베가자
23218	배(船)	배; 똑딱배; 중선배; 나르배
23219	나루터	나루터; 부두
23220	돛	도시라고; 돛판비
23220-0-1	-에	도선
23221	돛대	도때
23222	돛배	도판배
23223	돛 줄	돛줄
23224	돛 줄	바줄
23225	거루	목써
23226	상앗대	노
23227	개(펄)	간사지; 개빨
23228	물	육찌; 육찌 싸람
23228-0-1	-으로	×
23229	밀물	민물
23230	썰물	썰물
23231	가라앉다	가란찌; 가란꼬
23232	그물	망; 고기망; 그물
23233	해너	해너

### 2.11.3. 시후

23301	새벽	새벽
23302	새벽밥	새벽밥
23303	아침	아침
23304	아침밥	아침밥
23305	점심	점심밥; 점심때
23306	저녁	저녁밥; 저녁때
23307	설빔하다	해다간다; 설푸더다

23308	노을	노을; 저녁노을
23308-0-1	-을	노으릴
23309	불그레하다	북따고
23310	해거름	해거름; 해거르며
23311	땅거미	땅거미
23312	봄	봄
23313	여름	여름
23314	더위	날뜨겁따; 더웁따; 무더위가; 찜통더위가
23315	추위	추위; 추위가
23316	가을	가을; 가실
23316-0-1	-에	가으레허자너; 가으레; 가시리
23317	겨울	겨을
23317-0-1	-에	겨을
23317-0-1	-에	즐기
23318	얼음	어름
23319	오늘	오늘
23320	내일	내일
23321	모레	모레; 모리
23322	글피	글피
23323	그글피	그글피
23324	어제	어저꼬
23325	그저께	그저꼬
23326	그그저께	그꼬저꼬
23327	훗날	나중에; 후제
23328	하룻날	초하룬날
23329	이튿날	초이틀; 초이튼날
23330	사흘날	초사흔날
23331	나흘날	초나흔날
23332	닷셋날	초단쨌날
23333	엿셋날	초여쨌날
23334	이렛날	초이렌날
23335	여드렛날	초여드렌날
23336	아흐렛날	초아흐렌날
23337	열흘날	초여를랄
23338	하루	하루
23339	이틀	이틀
23340	사흘	사흘

23341 나흘	나흘
23342 닷새	단새
23343 엿새	열새
23344 이레	이레
23345 여드레	여드레
23346 아흐레	아으레
23347 열흘	여를
23348 한나절	한나잘
23348-1 반나절	반나잘
23349 그믐	그믐날; 그믐; 아으래그믐
23349-1 그믐께	그믐끼
23350 지금	시방; 지금
23351 아직	아직
23352 이제	인자
23353 이미	이미
23354 요즈음	연대; 여저끼; 요새
23355 금방	금방

#### 2.11.4. 날씨와 방향

23401 별	별
23401-0-1 -이	베시
23401-0-2 -을	베티서
23402 따스하다	따습찌; 따숨네
23403 아지랑이	아지랭이
23404 응달	응산; 응산저따; 응달
23405 양달	양달; 양지
23406 비(雨)	비
23407 가랑비	가랑비
23408 이슬비	이슬비
23409 안개	양개
23410 눈개	무란개;
23411 무지개	무지개
23412 소나기	쏘내기
23413 갑자기	갑째기
23414 홍수	홍수
23415 번개	병개



23416	천둥	천둥
23417	벼락	벼락; 벵락
23418	무섭다	무섭따
23419	함박눈	함방눈
23420	싸락눈	싸래기눈
23421	발자국	발짜꼭
23422	진눈깨비	진드깨비
23423	우박	우박
23424	고드름	고드름
23425	햇무리	헨머리
23426	달무리	달머리
23427	둥글다	둥글지
23428	은하수	으나수
23429	금성	새뻔
23430	가뭄	가뭄
23431	마르다	말른다
23431-0-1	-어서	말리고
23432	위	위에; 우예
23433	아래	아래
23434	왼쪽	왼쪽
23435	오른쪽	오른쪽
23436	결	전
23436-0-1	-에	저티
23437	회오리바람	쇠소리바람; 회오리바람
23438	북풍	북풍
23439	남풍	남풍
23440	동풍	동풍
23441	서풍	서풍

## 제3편 음운

### 3.1. 음운 체계

#### 3.1.1. 단모음

31001-0-1	테(輪)-이/가	테두리가
31001-0-2	테(輪)-보다	테두리보다
31002-0-1	태(胎)-이/가	태가
31002-0-2	태(胎)-보다	태보다
31003-0-1	떼(群)-이/가	떼가
31003-0-2	떼(群)-보다	떼보다
31004-0-1	때(時)-이/가	때가
31004-0-2	때(時)-보다	때보다
31005-0-1	틀(機)-이/가	트리
31005-0-2	틀(機)-보다	틀보다
31006-0-1	털(毛)-이/가	터리
31006-0-2	털(毛)-보다	털보다
31007-0-1	글(文)-이/가	그리
31007-0-2	글(文)-보다	글보다
31008-0-1	걸(𨮒)-이/가	거:리
31008-0-2	걸(𨮒)-보다	걸:보다
31009-0-1	기(旗)-이/가	길빠리; 기가
31009-0-2	기(旗)-보다	길빨보다; 기보다
31010-0-1	귀(耳)-이/가	귀가
31010-0-2	귀(耳)-보다	귀보다
31011-0-1	시(生時)-이/가	시가
31011-0-2	시(生時)-보다	시보다
31012-0-1	쉬(蠅卵)-이/가	쉬가
31012-0-2	쉬(蠅卵)-보다	쉬보다
31013-0-1	쇠(鐵)-이/가	쇠가
31013-0-2	쇠(鐵)-보다	쇠보다
31014-0-1	외:국(外國)-이/가	외구기
31014-0-2	외:국(外國)-보다	외국뿐다
31015-0-1	왜국(倭國)-이/가	왜노미
31015-0-2	왜국(倭國)-보다	왜놈보다

31016-0-1 쉬:-(休)-지 -고 -더라	×
31016-0-2 쉬:-(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쉬애지; 쉬여라
31017-0-1 쇠:-(설을~)-지 -고 -더라	쇠다; 쉬다
31017-0-2 쇠:-(설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1018-0-1 베(布)-이/가	삼베가
31018-0-2 베(布)-보다	삼베보다
31019-0-1 배(船)-이/가	배가
31019-0-2 배(船)-보다	배보다
31020-0-1 배(腹)-이/가	배
31020-0-2 배(腹)-보다	배보다
31021-0-1 (떡)메-이/가	메가
31021-0-2 (떡)메-보다	메보다
31022-0-1 매(鞭)-이/가	매가
31022-0-2 매(鞭)-보다	매보다
31023-0-1 메:-(擔)-지 -고 -더라	메고
31023-0-2 메:-(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1024-0-1 매:-(繫)-지 -고 -더라	짬매다; 짬맨다
31024-0-2 매:-(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1025-0-1 떼:-(分離)-지 -고 -더라	띤다
31025-0-2 떼:-(分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1026-0-1 때:-(炊)-지 -고 -더라	땨다
31026-0-2 때:-(炊)-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1027-0-1 베:-(切斷)-지 -고 -더라	×
31027-0-2 베:-(切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여
31028-0-1 배:-(孕胎)-지 -고 -더라	×
31028-0-2 배:-(孕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배:따구
31029-0-1 세:-(算)-지 -고 -더라	×
31029-0-2 세:-(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여
31030-0-1 새:-(漏泄)-지 -고 -더라	×
31030-0-2 새:-(漏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새:야
31031-0-1 뒤(後)-이/가	뒤:가
31031-0-2 뒤(後)-보다	뒤보다
31032-0-1 되(升)-이/가	되:가
31032-0-2 되(升)-보다	되보다
31033-0-1 게:-(蟹)-이/가	거:가
31033-0-2 게:-(蟹)-보다	거:보다
31034-0-1 개:-(犬)-이/가	개:가

31034-0-2 개:(犬)-보다

개:보다

### 3.1.2. 이중모음

31035-0-1 여럿(多)-이/가

여러시

31035-0-2 여럿(多)-보다

여럿보다

31035-0-3 여럿(多)-을/를

여러슬

31036-0-1 물결(波)-이/가

물껴리

31036-0-2 물결(波)-보다

물결보다

31036-0-3 물결(波)-을/를

물껴를

31037-0-1 예:의(禮儀)-이/가

예이가

31037-0-2 예:의(禮儀)-보다

예이보다

31037-0-3 예:의(禮儀)-을/를

예이를

31038-0-1 계:획(計劃)-이/가

계호기

31038-0-2 계:획(計劃)-보다

계혹보다

31038-0-3 계:획(計劃)-을/를

계호글

31039-0-1 규칙(規則)-이/가

규치기

31039-0-2 규칙(規則)-보다

규칙보다

31039-0-3 규칙(規則)-을/를

규치글

31040-0-1 휴일(休日)-이/가

휴이리

31040-0-2 휴일(休日)-보다

휴일보다

31040-0-3 휴일(休日)-을/를

휴이를

31041-0-1 교통(交通)-이/가

교통이

31041-0-2 교통(交通)-보다

교통보다

31041-0-3 교통(交通)-을/를

교통을

31042-0-1 효:자(孝子)-이/가

효:자가

31042-0-2 효:자(孝子)-보다

효:자보다

31042-0-3 효:자(孝子)-을/를

효:자를

31043-0-1 웬일(何事)-이/가

웬니리

31043-0-2 웬일(何事)-보다

웬닐보다

31043-0-3 웬일(何事)-을/를

웬니를

31044-0-1 궤:(絜)(櫃)-이/가

궤:짜기

31044-0-2 궤:(絜)(櫃)-보다

궤:짜보다

31044-0-3 궤:(絜)(櫃)-을/를

궤:짜글

31045-0-1 왜란(倭亂)-이/가

왜라니

31045-0-2 왜란(倭亂)-보다

왜란보다

31045-0-3 왜란(倭亂)-을/를

왜라늘

31046-0-1	헛대(鷄架)-이/가	헛대
31046-0-2	헛대(鷄架)-보다	헛대보다
31046-0-3	헛대(鷄架)-을/를	헛대를
31047-0-1	원망(怨望)-이/가	원망이
31047-0-2	원망(怨望)-보다	원망보다
31047-0-3	원망(怨望)-을/를	원망을
31048-0-1	권:투(拳鬪)-이/가	권투가
31048-0-2	권:투(拳鬪)-보다	권투보다
31048-0-3	권:투(拳鬪)-을/를	권투를
31049-0-1	의논(議論)-이/가	의논이
31049-0-2	의논(議論)-보다	의논보다
31049-0-3	의논(議論)-을/를	의논을
31050-0-1	무늬(紋)-이/가	무늬가
31050-0-2	무늬(紋)-보다	무늬보다
31050-0-3	무늬(紋)-을/를	무늬를
31051-0-1	왕(王)-이/가	왕이
31051-0-2	왕(王)-보다	왕보다
31051-0-3	왕(王)-을/를	왕을
31052-0-1	과자(菓子)-이/가	과자가
31052-0-2	과자(菓子)-보다	과자보다
31052-0-3	과자(菓子)-을/를	과자를

### 3.1.3. 장모음·성조

31053-0-1	일(一)-이/가	이리
31053-0-2	일(一)-보다	이리
31054-0-1	일:(事)-이/가	이:리
31054-0-2	일:(事)-보다	일:보다
31055-0-1	매(鞭)-이/가	매가
31055-0-2	매(鞭)-보다	매보다
31056-0-1	매:(驚)-이/가	매가
31056-0-2	매:(驚)-보다	매보다
31057-0-1	밤(夜)-이/가	바미
31057-0-2	밤(夜)-보다	밤보다
31058-0-1	밤:(栗)-이/가	바:미
31058-0-2	밤:(栗)-보다	밤:보다
31059-0-1	눈(眼)-이/가	누니

31059-0-2	눈(眼)-보다	눈보다
31060-0-1	눈:(雪)-이/가	누:니
31060-0-2	눈:(雪)-보다	눈:보다
31061-0-1	말(馬)-이/가	마리
31061-0-2	말(馬)-보다	말보다
31062-0-1	말(斗)-이/가	한 마:리
31062-0-2	말(斗)-보다	한 말:보다
31063-0-1	말:(言)-이/가	마:리
31063-0-2	말:(言)-보다	말:보다
31064-0-1	손(客)-이/가	손니미
31064-0-2	손(客)-보다	손님보다
31065-0-1	손(手)-이/가	소니
31065-0-2	손(手)-보다	손보다
31066-0-1	손:(孫)-이/가	소:니
31066-0-2	손:(孫)-보다	손:보다
31067-0-1	배(梨)-이/가	배가
31067-0-2	배(梨)-보다	배보다
31068-0-1	배:(倍)-이/가	배가
31068-0-2	배:(倍)-보다	배보다
31069-0-1	벌(罰)-이/가	버리
31069-0-2	벌(罰)-보다	벌보다
31070-0-1	벌:(蜂)-이/가	버:리
31070-0-2	벌:(蜂)-보다	벌:보다
31071-0-1	솔(松)-이/가	소리
31071-0-2	솔(松)-보다	솔보다
31072-0-1	솔:(刷)-이/가	소:리
31072-0-2	솔:(刷)-보다	솔:보다
31073-0-1	줄(鉉)-이/가	주리
31073-0-2	줄(鉉)-보다	줄보다
31074-0-1	줄:(연장)-이/가	주:리
31074-0-2	줄:(연장)-보다	줄보다
31075-0-1	돌:(石)-이/가	도:리
31075-0-2	돌:(石)-보다	돌:보다
31076-0-1	담(牆)-이/가	다미
31076-0-2	담(牆)-보다	담보다
31077-0-1	담:(膽)-이/가	다:미
31077-0-2	담:(膽)-보다	담:보다

31078-0-1 들:(野)-이/가	드:리
31078-0-2 들:(野)-보다	들:보다
31079-0-1 달-(懸)-고	달고
31079-0-2 달-(懸)-더라	달더라
31080-0-1 달-(甘)-고	달고
31080-0-2 달-(甘)-더라	달더라
31081-0-1 달:-(熱)-고	테:리고
31081-0-2 달:-(熱)-더라	테:리더라
31082-0-1 갈-(換)-고	갈더라
31082-0-2 갈-(換)-더라	갈더라
31083-0-1 갈-(磨)-고	갈고
31083-0-2 갈-(磨)-더라	갈더라
31084-0-1 갈:-(耕)-고	갈:고
31084-0-2 갈:-(耕)-더라	갈더라
31085-0-1 걷-(收)-고	거꼬
31085-0-2 걷-(收)-더라	거더라
31086-0-1 걷:-(步)-고	걷:꼬
31086-0-2 걷:-(步)-더라	걷:떠라
31087-0-1 적-(書)-고	적꼬
31087-0-2 적-(書)-더라	적떠라
31088-0-1 적:-(小)-고	적:꼬
31088-0-2 적:-(小)-더라	적:떠라

## 3.2. 음운 과정

### 3.2.1. 활용

32001-0-1 막-(防)[ㄱ]-지	막찌
32001-0-2 막-(防)[ㄱ]-고	막꼬
32001-0-3 막-(防)[ㄱ]-더라	막떠라
32001-0-4 막-(防)[ㄱ]-으니까	마궁게
32001-0-5 막-(防)[ㄱ]-아/어(았/었다)	마곶따
32002-0-1 흐르-(流)[ㅡ]-지	흐르지
32002-0-2 흐르-(流)[ㅡ]-고	흐르고
32002-0-3 흐르-(流)[ㅡ]-더라	흐르더라
32002-0-4 흐르-(流)[ㅡ]-으니까	흐릉게

32002-0-5 흐르-(流)[ㅡ]-아/어(왔/었다)	흘렀따
32003-0-1 오-(來)[ㄴ]-지	오지
32003-0-2 오-(來)[ㄴ]-고	오고
32003-0-3 오-(來)[ㄴ]-더라	오더라
32003-0-4 오-(來)[ㄴ]-으니까	ونغ게
32003-0-5 오-(來)[ㄴ]-아/어(왔/었다)	왔따
32004-0-1 듣-(聞)[ㄷ변]-지	듣찌
32004-0-2 듣-(聞)[ㄷ변]-고	듣꼬
32004-0-3 듣-(聞)[ㄷ변]-더라	듣떠라
32004-0-4 듣-(聞)[ㄷ변]-으니까	드릉게
32004-0-5 듣-(聞)[ㄷ변]-아/어(왔/었다)	드렀따
32005-0-1 많:-(多)[ㅁ]-지	만:치
32005-0-2 많:-(多)[ㅁ]-고	망:코
32005-0-3 많:-(多)[ㅁ]-더라	만터라
32005-0-4 많:-(多)[ㅁ]-으니까	마능게
32005-0-5 많:-(多)[ㅁ]-아/어(왔/었다)	마:너따
32006-0-1 말-(任)[ㅌ]-지	만찌
32006-0-2 말-(任)[ㅌ]-고	만꼬
32006-0-3 말-(任)[ㅌ]-더라	만떠라
32006-0-4 말-(任)[ㅌ]-으니까	마릉게
32006-0-5 말-(任)[ㅌ]-아/어(왔/었다)	마터따
32007-0-1 알:-(知)[ㄹ]-지	알지
32007-0-2 알:-(知)[ㄹ]-고	알고
32007-0-3 알:-(知)[ㄹ]-더라	알더라
32007-0-4 알:-(知)[ㄹ]-으니까	아릉게
32007-0-5 알:-(知)[ㄹ]-아/어(왔/었다)	아렀따
32008-0-1 감:-(閉眼)[ㅁ]-지	감:찌
32008-0-2 감:-(閉眼)[ㅁ]-고	감:꼬
32008-0-3 감:-(閉眼)[ㅁ]-더라	감:떠라
32008-0-4 감:-(閉眼)[ㅁ]-으니까	가릉게
32008-0-5 감:-(閉眼)[ㅁ]-아/어(왔/었다)	가머따
32009-0-1 벗-(脫)[ㅅ]-지	벗찌
32009-0-2 벗-(脫)[ㅅ]-고	버꼬
32009-0-3 벗-(脫)[ㅅ]-더라	벗떠라
32009-0-4 벗-(脫)[ㅅ]-으니까	버승게
32009-0-5 벗-(脫)[ㅅ]-아/어(왔/었다)	버섰따
32010-0-1 옳-(可)[ㄹ]-지	올치



32010-0-2	옴-(可)[ㄹㅎ]-고	올코
32010-0-3	옴-(可)[ㄹㅎ]-더라	올터라
32010-0-4	옴-(可)[ㄹㅎ]-으니까	오릉게
32010-0-5	옴-(可)[ㄹㅎ]-아/어(왔/었다)	오란따
32011-0-1	입-(着衣)[ㅂ]-지	입찌
32011-0-2	입-(着衣)[ㅂ]-고	입꼬
32011-0-3	입-(着衣)[ㅂ]-더라	입떠라
32011-0-4	입-(着衣)[ㅂ]-으니까	이봉게
32011-0-5	입-(着衣)[ㅂ]-아/어(왔/었다)	이번따
32012-0-1	바꾸-(換)[ㄷ]-지	바꾸지
32012-0-2	바꾸-(換)[ㄷ]-고	바꾸고
32012-0-3	바꾸-(換)[ㄷ]-더라	바꾸더라
32012-0-4	바꾸-(換)[ㄷ]-으니까	바꿈게
32012-0-5	바꾸-(換)[ㄷ]-아/어(왔/었다)	바뀔따
32013-0-1	덮-(覆)[ㄷ]-지	덱찌
32013-0-2	덮-(覆)[ㄷ]-고	덱꼬
32013-0-3	덮-(覆)[ㄷ]-더라	덱떠라
32013-0-4	덮-(覆)[ㄷ]-으니까	더풍게
32013-0-5	덮-(覆)[ㄷ]-아/어(왔/었다)	더펼따
32014-0-1	묻:-(問)[ㄷ변]-지	묻:찌
32014-0-2	묻:-(問)[ㄷ변]-고	묵:꼬
32014-0-3	묻:-(問)[ㄷ변]-더라	묻:떠라
32014-0-4	묻:-(問)[ㄷ변]-으니까	무릉게
32014-0-5	묻:-(問)[ㄷ변]-아/어(왔/었다)	무ړ따
32015-0-1	낫:-(癒)[ㅅ변]-지	낫:찌
32015-0-2	낫:-(癒)[ㅅ변]-고	나:꼬
32015-0-3	낫:-(癒)[ㅅ변]-더라	낫:떠라
32015-0-4	낫:-(癒)[ㅅ변]-으니까	나웅게; 나승게
32015-0-5	낫:-(癒)[ㅅ변]-아/어(왔/었다)	나섣따
32016-0-1	닫-(閉)[ㄷ]-지	닫찌
32016-0-2	닫-(閉)[ㄷ]-고	닥꼬
32016-0-3	닫-(閉)[ㄷ]-더라	닫떠라
32016-0-4	닫-(閉)[ㄷ]-으니까	다등게
32016-0-5	닫-(閉)[ㄷ]-아/어(왔/었다)	다덜따
32017-0-1	쫓-(追)[ㅈ]-지	쫓찌
32017-0-2	쫓-(追)[ㅈ]-고	쫓꼬
32017-0-3	쫓-(追)[ㅈ]-더라	쫓떠라

32017-0-4	쫓-(追)[츠]-으니까	쫓층게
32017-0-5	쫓-(追)[츠]-아/어(왔/었다)	쫓찬따
32018-0-1	베:-(枕)[궤]-지	비:지
32018-0-2	베:-(枕)[궤]-고	비:고
32018-0-3	베:-(枕)[궤]-더라	비:더라
32018-0-4	베:-(枕)[궤]-으니까	빙게
32018-0-5	베:-(枕)[궤]-아/어(왔/었다)	비열따
32019-0-1	깨:-(破)[ㅼ]-지	깨:지
32019-0-2	깨:-(破)[ㅼ]-고	깨:고
32019-0-3	깨:-(破)[ㅼ]-더라	깨:더라
32019-0-4	깨:-(破)[ㅼ]-으니까	깁게
32019-0-5	깨:-(破)[ㅼ]-아/어(왔/었다)	깁따
32020-0-1	펴-(伸)[ㅅ]-지	피:지
32020-0-2	펴-(伸)[ㅅ]-고	피:고
32020-0-3	펴-(伸)[ㅅ]-더라	피:더라
32020-0-4	펴-(伸)[ㅅ]-으니까	핑게
32020-0-5	펴-(伸)[ㅅ]-아/어(왔/었다)	피열따
32021-0-1	밝-(明)[ㄹ]-지	박찌
32021-0-2	밝-(明)[ㄹ]-고	박꼬
32021-0-3	밝-(明)[ㄹ]-더라	박떠라
32021-0-4	밝-(明)[ㄹ]-으니까	발궁게
32021-0-5	밝-(明)[ㄹ]-아/어(왔/었다)	발건따
32022-0-1	삶:-(烹)[ㄹ]-지	쌈:찌
32022-0-2	삶:-(烹)[ㄹ]-고	쌈:꼬
32022-0-3	삶:-(烹)[ㄹ]-더라	쌈:떠라
32022-0-4	삶:-(烹)[ㄹ]-으니까	쌀몽게
32022-0-5	삶:-(烹)[ㄹ]-아/어(왔/었다)	쌀몐따
32023-0-1	읔:-(吟)[ㄹ]-지	×
32023-0-2	읔:-(吟)[ㄹ]-고	×
32023-0-3	읔:-(吟)[ㄹ]-더라	×
32023-0-4	읔:-(吟)[ㄹ]-으니까	×
32023-0-5	읔:-(吟)[ㄹ]-아/어(왔/었다)	×
32024-0-1	밟:-(踏)[ㅼ]-지	밟:찌
32024-0-2	밟:-(踏)[ㅼ]-고	밟:꼬
32024-0-3	밟:-(踏)[ㅼ]-더라	밟:떠라
32024-0-4	밟:-(踏)[ㅼ]-으니까	발붕게
32024-0-5	밟:-(踏)[ㅼ]-아/어(왔/었다)	발몐따

32025-0-1	하-(爲)[ㅏ 변]-지	허지
32025-0-2	하-(爲)[ㅏ 변]-고	허고
32025-0-3	하-(爲)[ㅏ 변]-더라	허더라
32025-0-4	하-(爲)[ㅏ 변]-으니까	형게
32025-0-5	하-(爲)[ㅏ 변]-아/어(왔/었다)	헐따
32026-0-1	맺-(結)[ㅈ]-지	맏찌
32026-0-2	맺-(結)[ㅈ]-고	맏꼬
32026-0-3	맺-(結)[ㅈ]-더라	맏떠라
32026-0-4	맺-(結)[ㅈ]-으니까	매증게
32026-0-5	맺-(結)[ㅈ]-아/어(왔/었다)	매저따
32027-0-1	없:-(無)[ㅁ]-지	업찌
32027-0-2	없:-(無)[ㅁ]-고	업꼬
32027-0-3	없:-(無)[ㅁ]-더라	업떠라
32027-0-4	없:-(無)[ㅁ]-으니까	업쑥게
32027-0-5	없:-(無)[ㅁ]-아/어(왔/었다)	업썸따
32028-0-1	앉-(坐)[ㄴ]-지	안찌
32028-0-2	앉-(坐)[ㄴ]-고	앙꼬
32028-0-3	앉-(坐)[ㄴ]-더라	안터라
32028-0-4	앉-(坐)[ㄴ]-으니까	안증게
32028-0-5	앉-(坐)[ㄴ]-아/어(왔/었다)	안절따
32029-0-1	비비-(刮)[ㅣ]-지	비비지
32029-0-2	비비-(刮)[ㅣ]-고	비비고
32029-0-3	비비-(刮)[ㅣ]-더라	비비더라
32029-0-4	비비-(刮)[ㅣ]-으니까	비빙게
32029-0-5	비비-(刮)[ㅣ]-아/어(왔/었다)	비뵤따
32030-0-1	ㄹ-(消)[ㅡ]-지	ㄹ지
32030-0-2	ㄹ-(消)[ㅡ]-고	ㄹ고
32030-0-3	ㄹ-(消)[ㅡ]-더라	ㄹ더라
32030-0-4	ㄹ-(消)[ㅡ]-으니까	끔게
32030-0-5	ㄹ-(消)[ㅡ]-아/어(왔/었다)	꼰따
32031-0-1	꺾-(折)[ㄱ]-지	꺾찌
32031-0-2	꺾-(折)[ㄱ]-고	꺾꼬
32031-0-3	꺾-(折)[ㄱ]-더라	꺾떠라
32031-0-4	꺾-(折)[ㄱ]-으니까	꺼끔게
32031-0-5	꺾-(折)[ㄱ]-아/어(왔/었다)	꺼꺼따
32032-0-1	신:-(履)[ㄴ]-지	신:찌
32032-0-2	신:-(履)[ㄴ]-고	신:꼬

32032-0-3	신:-(履)[ㄴ]-더라	신:떠라
32032-0-4	신:-(履)[ㄴ]-으니까	시:능게
32032-0-5	신:-(履)[ㄴ]-아/어(왔/었다)	시:너따
32033-0-1	보-(視)[ㄱ]-지	보지
32033-0-2	보-(視)[ㄱ]-고	보고
32033-0-3	보-(視)[ㄱ]-더라	보더라
32033-0-4	보-(視)[ㄱ]-으니까	봉게
32033-0-5	보-(視)[ㄱ]-아/어(왔/었다)	봐:따
32034-0-1	추-(舞)[ㅈ]-지	추지
32034-0-2	추-(舞)[ㅈ]-고	추고
32034-0-3	추-(舞)[ㅈ]-더라	추더라
32034-0-4	추-(舞)[ㅈ]-으니까	충게
32034-0-5	추-(舞)[ㅈ]-아/어(왔/었다)	추얼따
32035-0-1	피우-(吸煙)[ㅍ]-지	피지
32035-0-2	피우-(吸煙)[ㅍ]-고	피고
32035-0-3	피우-(吸煙)[ㅍ]-더라	피더라
32035-0-4	피우-(吸煙)[ㅍ]-으니까	핑게
32035-0-5	피우-(吸煙)[ㅍ]-아/어(왔/었다)	피얼따
32035-0-5	피우-(吸煙)[ㅍ]-아/어(왔/었다)	펼따
32036-0-1	서-(立)[ㅅ]-지	서지
32036-0-2	서-(立)[ㅅ]-고	서고
32036-0-3	서-(立)[ㅅ]-더라	서더라
32036-0-4	서-(立)[ㅅ]-으니까	승게
32036-0-5	서-(立)[ㅅ]-아/어(왔/었다)	설따
32037-0-1	기-(匍腹)[ㄱ]-지	기:지
32037-0-2	기-(匍腹)[ㄱ]-고	기:고
32037-0-3	기-(匍腹)[ㄱ]-더라	기:더라
32037-0-4	기-(匍腹)[ㄱ]-으니까	깁게
32037-0-5	기-(匍腹)[ㄱ]-아/어(왔/었다)	결:따
32038-0-1	이-(戴)[ㅇ]-지	이:지
32038-0-2	이-(戴)[ㅇ]-고	이:고
32038-0-3	이-(戴)[ㅇ]-더라	이:더라
32038-0-4	이-(戴)[ㅇ]-으니까	잉:게
32038-0-5	이-(戴)[ㅇ]-아/어(왔/었다)	열:따
32039-0-1	아니-(否)[ㅇ]-지	아니지
32039-0-2	아니-(否)[ㅇ]-고	아니고
32039-0-3	아니-(否)[ㅇ]-더라	아니더라

32039-0-4	아니-(否)[ㅣ]-으니까	아닝게
32039-0-5	아니-(否)[ㅣ]-아/어(왔/었다)	아넬따
32040-0-1	되-(升)[니]-지	되지
32040-0-2	되-(升)[니]-고	되고
32040-0-3	되-(升)[니]-더라	되더라
32040-0-4	되-(升)[니]-으니까	되게
32040-0-5	되-(升)[니]-아/어(왔/었다)	되얏따
32041-0-1	있-(有)[쓰]-지	인찌
32041-0-2	있-(有)[쓰]-고	익꼬
32041-0-3	있-(有)[쓰]-더라	인떠라
32041-0-4	있-(有)[쓰]-으니까	이썩게
32041-0-5	있-(有)[쓰]-아/어(왔/었다)	이썰따
32042-0-1	놓-(放)[ㅎ]-지	노치
32042-0-2	놓-(放)[ㅎ]-고	노코
32042-0-3	놓-(放)[ㅎ]-더라	노터라
32042-0-4	놓-(放)[ㅎ]-으니까	노웅게
32042-0-5	놓-(放)[ㅎ]-아/어(왔/었다)	놔따
32043-0-1	훔-(擧)[ㅌ]-지	훔찌
32043-0-2	훔-(擧)[ㅌ]-고	훔꼬
32043-0-3	훔-(擧)[ㅌ]-더라	훔터라
32043-0-4	훔-(擧)[ㅌ]-으니까	후통게
32043-0-5	훔-(擧)[ㅌ]-아/어(왔/었다)	훔턴따
32044-0-1	굽:-(麗)[ㅂ변]-지	굽:찌
32044-0-2	굽:-(麗)[ㅂ변]-고	굽:꼬
32044-0-3	굽:-(麗)[ㅂ변]-더라	굽:떠라
32044-0-4	굽:-(麗)[ㅂ변]-으니까	고웅게
32044-0-5	굽:-(麗)[ㅂ변]-아/어(왔/었다)	고왈따
32045-0-1	쥐:-(握)[ㄱ]-지	쥐:지
32045-0-2	쥐:-(握)[ㄱ]-고	쥐:고
32045-0-3	쥐:-(握)[ㄱ]-더라	쥐:더라
32045-0-4	쥐:-(握)[ㄱ]-으니까	징게
32045-0-5	쥐:-(握)[ㄱ]-아/어(왔/었다)	쥐열따
32046-0-1	가-(去)[ㅏ]-지	가지
32046-0-2	가-(去)[ㅏ]-고	가고
32046-0-3	가-(去)[ㅏ]-더라	가더라
32046-0-4	가-(去)[ㅏ]-으니까	강게
32046-0-5	가-(去)[ㅏ]-아/어(왔/었다)	갈따

32047-0-1 "먹-(食)-지 -고 -더라"	먹꼬
32047-0-2 "먹-(食)-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머건따
32048-0-1 "뜯-(摘)-지 -고 -더라"	뜯꼬
32048-0-2 "뜯-(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뜨덜따
32049-0-1 "갈-(如)-지 -고 -더라"	갈꼬
32049-0-2 "갈-(如)-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터따
32050-0-1 "얕-(淺)-지 -고 -더라"	약꼬
32050-0-2 "얕-(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야따
32051-0-1 "흩-(散)-지 -고 -더라"	헉꼬
32051-0-2 "흩-(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허터따
32052-0-1 "날-(飛)-지 -고 -더라"	날고
32052-0-2 "날-(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나랏따
32053-0-1 "울-(泣)-지 -고 -더라"	울:고
32053-0-2 "울-(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우리따
32054-0-1 "일-(洶)-지 -고 -더라"	일:고
32054-0-2 "일-(洶)-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런따
32055-0-1 "얼-(凍)-지 -고 -더라"	얼:고
32055-0-2 "얼-(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런따
32056-0-1 "넘-(越)-지 -고 -더라"	넘:꼬
32056-0-2 "넘-(越)-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머따
32057-0-1 "숨-(隱)-지 -고 -더라"	숨:꼬
32057-0-2 "숨-(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수:머따
32058-0-1 "쉽-(易)-지 -고 -더라"	쉽:꼬
32058-0-2 "쉽-(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쉬어써
32059-0-1 "눹-(臥)-지 -고 -더라"	눹찌 말라
32059-0-2 "눹-(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누워
32060-0-1 "깁-(縫)-지 -고 -더라"	지코
32060-0-2 "깁-(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연따
32061-0-1 "밉-(憎)-지 -고 -더라"	밉꼬
32061-0-2 "밉-(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미웁따
32062-0-1 "높-(高)-지 -고 -더라"	놉꼬
32062-0-2 "높-(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노판따
32063-0-1 "짓-(作)-지 -고 -더라"	잘 지코
32063-0-2 "짓-(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절따
32064-0-1 "붓-(腫)-지 -고 -더라"	북꼬
32064-0-2 "붓-(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엌따; 부:서
32065-0-1 "웃-(笑)-지 -고 -더라"	우:꼬

32065-0-2 "웃:-(笑)-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우:설파
32066-0-1 "짖:-(吠)-지 -고 -더라"	짖꼬
32066-0-2 "짖:-(吠)-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지설파
32067-0-1 "꽂:-(插)-지 -고 -더라"	꽂꼬
32067-0-2 "꽂:-(插)-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꼬잔파
32068-0-1 "낳:-(産)-지 -고 -더라"	나코
32068-0-2 "낳:-(産)-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나:알파
32069-0-1 "땅:-(辯)-지 -고 -더라"	따코
32069-0-2 "땅:-(辯)-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따알파
32070-0-1 "끊:-(切)-지 -고 -더라"	꿍코
32070-0-2 "끊:-(切)-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끄너파
32071-0-1 "괜찮:-(無妨)-지 -고 -더라"	괜찬코
32071-0-2 "괜찮:-(無妨)-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괜차날파
32072-0-1 "읽:-(讀)-지 -고 -더라"	익꼬
32072-0-2 "읽:-(讀)-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일건파
32073-0-1 "뺨:-(澁)-지 -고 -더라"	뜨르꼬
32073-0-2 "뺨:-(澁)-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뜨런파
32074-0-1 "옮:-(遷)-지 -고 -더라"	옴:꼬
32074-0-2 "옮:-(遷)-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올:말파
32075-0-1 "뚫:-(貫)-지 -고 -더라"	뚫:코
32075-0-2 "뚫:-(貫)-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뚜:런파
32076-0-1 "꿇:-(跪)-지 -고 -더라"	꿇코
32076-0-2 "꿇:-(跪)-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꾸런파
32077-0-1 "닿:-(扞 연필 심이)-지 -고 -더라"	달코
32077-0-2 "닿:-(扞 연필 심이)-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다런파
32078-0-1 "닿:-(煎 술에서 장이)-지 -고 -더라"	달코
32078-0-2 "닿:-(煎 술에서 장이)-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다러파
32079-0-1 "짜:-(鹽)-지 -고 -더라"	짜고
32079-0-2 "짜:-(鹽)-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짤파; 짜서
32080-0-1 "말:-(捲)-지 -고 -더라"	말고
32080-0-2 "말:-(捲)-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마러파
32081-0-1 "쓰:-(書)-지 -고 -더라"	쓰고
32081-0-2 "쓰:-(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썬파
32082-0-1 "오르:-(登)-지 -고 -더라"	오르고
32082-0-2 "오르:-(登)-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올랄파

32083-0-1 "바쁘-(忙)-지 -고 -더라"	바쁘고
32083-0-2 "바쁘-(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바빻파
32084-0-1 "고프-(餓)-지 -고 -더라"	고프고
32084-0-2 "고프-(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판파
32085-0-1 "쏘-(射)-지 -고 -더라"	쏘고
32085-0-2 "쏘-(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쏘안파; 쏘:파
32086-0-1 "꾸-(夢)-지 -고 -더라"	꾸고
32086-0-2 "꾸-(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펼파
32087-0-1 "머무르-(留)-지 -고 -더라"	머물고
32087-0-2 "머무르-(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머무ړ파
32088-0-1 "다듬-(整)-지 -고 -더라"	다듬찌; 다듬꼬
32088-0-2 "다듬-(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드먼파
32089-0-1 "견디-(忍)-지 -고 -더라"	전디고
32089-0-2 "견디-(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전덜파
32090-0-1 "말리-(裁)-지 -고 -더라"	×
32090-0-2 "말리-(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091-0-1 "끼-(烟鎖 안개가)-지 -고 -더라"	끼고
32091-0-2 "끼-(烟鎖 안개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꼰파; 양개 쥘파
32092-0-1 "마시-(飲)-지 -고 -더라"	마시고
32092-0-2 "마시-(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셜파
32093-0-1 "세:-(強)-지 -고 -더라"	시:고
32093-0-2 "세:-(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열파; 시미 쥘파
32094-0-1 "포개-(重疊)-지 -고 -더라"	포개고
32094-0-2 "포개-(重疊)-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포깁파
32095-0-1 "두드리-(敲)-지 -고 -더라"	뚜드리고
32095-0-2 "두드리-(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뚜드ړ파
32096-0-1 "켜-(點燈)-지 -고 -더라"	키고; 쓰고
32096-0-2 "켜-(點燈)-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컬파; 썸파
32097-0-1 "썰:-(바람을)-지 -고 -더라"	썰:고
32097-0-2 "썰:-(바람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썰:안파
32098-0-1 "쇠-(老)-지 -고 -더라"	쇠고
32098-0-2 "쇠-(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쇠안파
32099-0-1 "쉬:-(饅)-지 -고 -더라"	쉬:고
32099-0-2 "쉬:-(饅)-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쉬:열파
32100-0-1 "희-(白)-지 -고 -더라"	히고
32100-0-2 "희-(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히열파



32101-0-1 "볶-(炒)-지 -고 -더라"	복꼬
32101-0-2 "볶-(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보깁따
32102-0-1 "안-(抱)-지 -고 -더라"	양:꼬
32102-0-2 "안-(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날따
32103-0-1 "묻-(埋)-지 -고 -더라"	묵꼬
32103-0-2 "묻-(埋)-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무턴따
32104-0-1 "불-(吹)-지 -고 -더라"	불:고
32104-0-2 "불-(吹)-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런따
32105-0-1 "빨-(洗濯)-지 -고 -더라"	빨고
32105-0-2 "빨-(洗濯)-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빠라따
32106-0-1 "죽-(死)-지 -고 -더라"	죽꼬
32106-0-2 "죽-(死)-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겸따
32107-0-1 "걸-(步)-지 -고 -더라"	걱:꼬
32107-0-2 "걸-(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거런따
32108-0-1 "가물-(旱)-지 -고 -더라"	가물고
32108-0-2 "가물-(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무런따
32109-0-1 "졸-(睡)-지 -고 -더라"	졸:고
32109-0-2 "졸-(睡)-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조란따
32110-0-1 "쓸-(掃)-지 -고 -더라"	쓸고
32110-0-2 "쓸-(掃)-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쓰러따
32111-0-1 "감-(捲)-지 -고 -더라"	감:꼬
32111-0-2 "감-(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마따
32112-0-1 "더듬-(摸)-지 -고 -더라"	더듬꼬
32112-0-2 "더듬-(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더드머따
32113-0-1 "굽-(炙)-지 -고 -더라"	구:꼬
32113-0-2 "굽-(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구월따
32114-0-1 "무겁-(重)-지 -고 -더라"	무겁꼬
32114-0-2 "무겁-(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무거
32115-0-1 "잇-(連)-지 -고 -더라"	이:꼬
32115-0-2 "잇-(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선따
32116-0-1 "빗-(梳)-지 -고 -더라"	빈꼬
32116-0-2 "빗-(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선따
32117-0-1 "까맣-(黑)-지 -고 -더라"	까마코
32117-0-2 "까맣-(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까마서
32118-0-1 "넣-(入)-지 -고 -더라"	너코
32118-0-2 "넣-(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넌따
32119-0-1 "고:(煮)-지 -고 -더라"	고:꼬

32119-0-2 "고:-(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알따
32120-0-1 "엎-(載)-지 -고 -더라"	엎꼬
32120-0-2 "엎-(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엎전따
32121-0-1 "귀창-(囨)-지 -고 -더라"	귀창코
32121-0-2 "귀창-(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귀창타; 귀차네서
32122-0-1 "바르-(剔 생선 뼈를)-지 -고 -더라"	발르고
32122-0-2 "바르-(剔 생선 뼈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발런따
32123-0-1 "맑-(淸)-지 -고 -더라"	막꼬
32123-0-2 "맑-(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말갈따
32124-0-1 "굵:-(膿)-지 -고 -더라"	곰:꼬
32124-0-2 "굵:-(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골:만따
32125-0-1 "굵:-(太)-지 -고 -더라"	국:꼬
32125-0-2 "굵:-(太)-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굴:걸따
32126-0-1 "얇:-(薄)-지 -고 -더라"	야:꼬
32126-0-2 "얇:-(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야툰따
32127-0-1 "쫘-(春)-지 -고 -더라"	실코
32127-0-2 "쫘-(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런따
32128-0-1 "잃-(失)-지 -고 -더라"	일코
32128-0-2 "잃-(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러따
32129-0-1 "핥-(舐)-지 -고 -더라"	할코
32129-0-2 "핥-(舐)-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할툰따
32130-0-1 "짧-(短)-지 -고 -더라"	째꼬
32130-0-2 "짧-(短)-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째번따
32131-0-1 "놀라-(驚)-지 -고 -더라"	놀래고
32131-0-2 "놀라-(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놀란따
32132-0-1 "자-(宿)-지 -고 -더라"	자고
32132-0-2 "자-(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잔따
32133-0-1 "못:하-(不爲)-지 -고 -더라"	모더고
32133-0-2 "못:하-(不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모덴따
32134-0-1 "모르-(不知)-지 -고 -더라"	모르고
32134-0-2 "모르-(不知)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몰란따
32135-0-1 "아프-(痛)-지 -고 -더라"	아프고
32135-0-2 "아프-(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판따
32136-0-1 "크-(大)-지 -고 -더라"	크고
32136-0-2 "크-(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큰따
32137-0-1 "꼬-(索 새끼를)-지 -고 -더라"	꼬고

32137-0-2	"꼬-(索 새끼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판:따
32138-0-1	"쭈-(造粥)-지 -고 -더라"	쭈고
32138-0-2	"쭈-(造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쭈엠타
32139-0-1	"맞추-(組合)-지 -고 -더라"	맞추고
32139-0-2	"맞추-(組合)-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맞춰타
32140-0-1	"데우-(煑)-지 -고 -더라"	디:고
32140-0-2	"데우-(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덜:따
32141-0-1	"이:-(盖 지붕을)-지 -고 -더라"	김니:고
32141-0-2	"이:-(盖 지붕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열:따
32142-0-1	"갈기-(打)-지 -고 -더라"	갈기고
32142-0-2	"갈기-(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갈곶따
32143-0-1	"기다리-(待)-지 -고 -더라"	지달리고
32143-0-2	"기다리-(待)-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다련따
32144-0-1	"세:-(算)-지 -고 -더라"	시:고
32144-0-2	"세:-(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설:따
32145-0-1	"빼-(拔)-지 -고 -더라"	빼고
32145-0-2	"빼-(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뺨따
32146-0-1	"켜-(搥을)-지 -고 -더라"	썰고
32146-0-2	"켜-(搥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쓰런따
32147-0-1	"되:-(硬)-지 -고 -더라"	되:고
32147-0-2	"되:-(硬)-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되:얇따
32148-0-1	"쉬:-(休)-지 -고 -더라"	쉬:고
32148-0-2	"쉬:-(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쉬:어따
32149-0-1	"할퀴-(搔)-지 -고 -더라"	할키고
32149-0-2	"할퀴-(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할곶따
32150-0-1	"늑:-(焦)-지 -고 -더라"	늑:꼬
32150-0-2	"늑:-(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누린따
32151-0-1	"깨닫-(覺)-지 -고 -더라"	깨닫꼬
32151-0-2	"깨닫-(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깨다란따
32152-0-1	"마렵-(오줌이)-지 -고 -더라"	매랍꼬
32152-0-2	"마렵-(오줌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매라서
32153-0-1	"부끄럽-(恥)-지 -고 -더라"	넘부끄럽꼬
32153-0-2	"부끄럽-(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끄러서
32154-0-1	"가깝-(近)-지 -고 -더라"	가깝꼬
32154-0-2	"가깝-(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깝따
32155-0-1	"깊-(深)-지 -고 -더라"	집꼬; 깊꼬
32155-0-2	"깊-(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편따

32156-0-1 "긋:-(割)-지 -고 -더라"	긋꼬
32156-0-2 "긋:-(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그섰파
32157-0-1 "씻-(洗)-지 -고 -더라"	씻꼬
32157-0-2 "씻-(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씨섰파; 씨철파
32158-0-1 "쪼:-(搗)-지 -고 -더라"	쪼꼬
32158-0-2 "쪼:-(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쪼얼파
32159-0-1 "잡:-(搔)-지 -고 -더라"	×
32159-0-2 "잡:-(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160-0-1 "굶:-(飢)-지 -고 -더라"	굶:꼬
32160-0-2 "굶:-(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굴:뎡파
32161-0-1 "닮:-(似)-지 -고 -더라"	담:꼬
32161-0-2 "닮:-(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판파
32162-0-1 "싫:-(厭)-지 -고 -더라"	실꼬
32162-0-2 "싫:-(厭)-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렁파
32163-0-1 "끓:-(𩪖)-지 -고 -더라"	×
32163-0-2 "끓:-(𩪖)-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164-0-1 "붓:-(注)-지 -고 -더라"	북:꼬
32164-0-2 "붓:-(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섰파
32165-0-1 "타:-(乘)-지 -고 -더라"	타고
32165-0-2 "타:-(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탈파
32166-0-1 "마르:-(乾)-지 -고 -더라"	마르고
32166-0-2 "마르:-(乾)-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말런파
32167-0-1 "쓰:-(苦)-지 -고 -더라"	쓰고
32167-0-2 "쓰:-(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썰파
32168-0-1 "슬프:-(哀)-지 -고 -더라"	슬프고
32168-0-2 "슬프:-(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슬핀파
32169-0-1 "기쁘:-(喜)-지 -고 -더라"	기쁘고
32169-0-2 "기쁘:-(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기뻡파
32170-0-1 "쏘:-(蜇 벌이)-지 -고 -더라"	쏘고
32170-0-2 "쏘:-(蜇 벌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쏘안파
32171-0-1 "주:-(與)-지 -고 -더라" 주고	×
32171-0-2 "주:-(與)-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웁파
32172-0-1 "키우:-(飼育)-지 -고 -더라"	키우고
32172-0-2 "키우:-(飼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키웁파
32173-0-1 "가두:-(囚)-지 -고 -더라"	가두고
32173-0-2 "가두:-(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웁파
32174-0-1 "부수:-(碎)-지 -고 -더라"	부시고

32174-0-2 "부수-(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설파
32175-0-1 "나누-(分)-지 -고 -더라"	나누고
32175-0-2 "나누-(分)-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나눠파
32176-0-1 "속이-(欺)-지 -고 -더라"	쇠기고
32176-0-2 "속이-(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소결파
32177-0-1 "끼-(插)-지 -고 -더라"	끼고; 찌고
32177-0-2 "끼-(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끼얼파; 찌얼파
32178-0-1 "튀-(跳)-지 -고 -더라"	튀고
32178-0-2 "튀-(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튀얼파
32179-0-1 "괴:-(淳)-지 -고 -더라"	고이고
32179-0-2 "괴:-(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열파
32180-0-1 "여위-(癯)-지 -고 -더라"	야위고
32180-0-2 "여위-(癯)-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야윽파
32181-0-1 "맵-(辛)-지 -고 -더라"	매웁꼬
32181-0-2 "맵-(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매윽파
32182-0-1 "뀌:-(屁)-지 -고 -더라"	뀌:고
32182-0-2 "뀌:-(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뀌:얼파
32183-0-1 "고치-(改)-지 -고 -더라"	고치고
32183-0-2 "고치-(改)-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첸파
32184-0-1 "싯:-(載)-지 -고 -더라"	싯:코
32184-0-2 "싯:-(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ړ파
32185-0-1 "얻:-(得)-지 -고 -더라"	눔 얻꼬
32185-0-2 "얻:-(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턴파
32186-0-1 "빡-(粉碎)-지 -고 -더라"	빡구고
32186-0-2 "빡-(粉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빡귄파
32187-0-1 "과랴-(碧)-지 -고 -더라"	과라코
32187-0-2 "과랴-(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과랴파
32188-0-1 "다르-(異)-지 -고 -더라"	다르고
32188-0-2 "다르-(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ړ파
32189-0-1 "푸-(汲)-지 -고 -더라"	푸고
32189-0-2 "푸-(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핀파
32190-0-1 "누-(尿)-지 -고 -더라"	눔꼬
32190-0-2 "누-(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누얼파
32191-0-1 "더:ړ-(汚)-지 -고 -더라"	드ړ꼬; 드ړ파
32191-0-2 "더:ړ-(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드러서
32192-0-1 "거두-(收)-지 -고 -더라"	거두고
32192-0-2 "거두-(收)-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거윽파

32193-0-1 "끓-(沸)-지 -고 -더라"	끓코
32193-0-2 "끓-(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끄ړ따
32194-0-1 "이기-(勝)-지 -고 -더라"	이기고
32194-0-2 "이기-(勝)-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결따
32195-0-1 "부시-(照)-지 -고 -더라"	시고
32195-0-2 "부시-(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쉴:따
32196-0-1 "자빠지-(後倒)-지 -고 -더라"	자빠지고
32196-0-2 "자빠지-(後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빠절따
32197-0-1 "일으키-(使起)-지 -고 -더라"	이리씨고
32197-0-2 "일으키-(使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리쉴따
32198-0-1 "당기-(引)-지 -고 -더라"	당기고
32198-0-2 "당기-(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당결따
32199-0-1 "버리-(捨)-지 -고 -더라"	버리고
32199-0-2 "버리-(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버렐따
32200-0-1 "훔치-(盜)-지 -고 -더라"	훔치고
32200-0-2 "훔치-(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훔쉴따
32201-0-1 "지-(負)-지 -고 -더라"	지고
32201-0-2 "지-(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절:따
32202-0-1 "외:-(暗誦)-지 -고 -더라"	외:고
32202-0-2 "외:-(暗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외얏따
32203-0-1 "사귀-(交際)-지 -고 -더라"	사귀고
32203-0-2 "사귀-(交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사결따
32204-0-1 "썩-(腐)-지 -고 -더라"	썩꼬
32204-0-2 "썩-(腐)-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썩결따
32205-0-1 "질-(泥)-지 -고 -더라"	질고
32205-0-2 "질-(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질다; 지러서
32206-0-1 "까불-(箕)-지 -고 -더라"	까불고
32206-0-2 "까불-(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까부ړ따
32207-0-1 "드물-(稀)-지 -고 -더라"	드물고
32207-0-2 "드물-(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드물다
32208-0-1 "줄:-(縮)-지 -고 -더라"	줄고
32208-0-2 "줄:-(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ړ따
32209-0-1 "심:-(植)-지 -고 -더라"	심:꼬
32209-0-2 "심:-(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멸따
32210-0-1 "쓰다듬-(撫)-지 -고 -더라"	쓰다듬꼬
32210-0-2 "쓰다듬-(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쓰다드멸따
32211-0-1 "사:납-(猛)-지 -고 -더라"	싸:납꼬

32211-0-2 "사:납-(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싸:나서
32212-0-1 "가볍-(輕)-지 -고 -더라"	가볍꼬; 개법꼬; 개법따
32212-0-2 "가볍-(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벼워서; 개벼우니까
32213-0-1 "젓:-(撈)-지 -고 -더라"	저:꼬
32213-0-2 "젓:-(撈)-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저:세따
32214-0-1 "두껍-(厚)-지 -고 -더라"	두껍꼬; 두텁따
32214-0-2 "두껍-(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두텁게; 두꺼운 거지
32215-0-1 "무르-(軟)-지 -고 -더라"	물르고
32215-0-2 "무르-(軟)-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물렷따
32216-0-1 "분지르-(折)-지 -고 -더라"	분질고
32216-0-2 "분지르-(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분지렷따; 분지러서
32217-0-1 "배우-(學)-지 -고 -더라"	배:고
32217-0-2 "배우-(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배:월따
32218-0-1 "다리-(躰)-지 -고 -더라"	대리고
32218-0-2 "다리-(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대렷따
32219-0-1 "후비-(空 귀를)-지 -고 -더라"	쭈시기고; 휘비고
32219-0-2 "후비-(空 귀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쭈세따; 휘뵈따
32220-0-1 "아리-(痛)-지 -고 -더라"	애리고
32220-0-2 "아리-(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애렷따
32221-0-1 "그리-(畫)-지 -고 -더라"	그리고
32221-0-2 "그리-(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그렷따
32222-0-1 "저리-(癡)-지 -고 -더라"	저리고
32222-0-2 "저리-(癡)-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저렷따
32223-0-1 "불리-(增)-지 -고 -더라"	불리고
32223-0-2 "불리-(增)-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불렷따
32224-0-1 "뜨시-(溫)-지 -고 -더라"	따습꼬; 뜨시고
32224-0-2 "뜨시-(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췌서; 뜨세따
32225-0-1 "끓이-(使沸)-지 -고 -더라"	끄리고
32225-0-2 "끓이-(使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끄렷따
32226-0-1 "누비-(縫)-지 -고 -더라"	누비고; 뉘비고
32226-0-2 "누비-(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누뵈따; 뉘뵈따
32227-0-1 "구기-(皺)-지 -고 -더라"	꾸기고
32227-0-2 "구기-(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꾸겨절따
32228-0-1 "비:-(空)-지 -고 -더라"	비:고
32228-0-2 "비:-(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얼따
32229-0-1 "식히-(使冷)-지 -고 -더라"	시키고
32229-0-2 "식히-(使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퀸따

32230-0-1 "매-(除草)-지 -고 -더라"	매고
32230-0-2 "매-(除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맬따
32231-0-1 "매:-(結)-지 -고 -더라"	짬매고
32231-0-2 "매:-(結)-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짬맬따
32232-0-1 "뛰-(走)-지 -고 -더라"	뛰고
32232-0-2 "뛰-(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뛰얼따
32233-0-1 "담:-(盛)-지 -고 -더라"	담:꼬
32233-0-2 "담:-(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めん따
32234-0-1 "가렵-(癢)-지 -고 -더라"	개랴꼬; 개랴따
32234-0-2 "가렵-(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개라서
32235-0-1 "때리-(打)-지 -고 -더라"	때리고
32235-0-2 "때리-(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때련따
32236-0-1 "어둡-(暗)-지 -고 -더라"	어둡꼬
32236-0-2 "어둡-(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두윳따; 어뒤서
32237-0-1 "잡-(執)-지 -고 -더라"	잡꼬
32237-0-2 "잡-(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발따; 자바서
32238-0-1 "차-(蹴)-지 -고 -더라"	차고
32238-0-2 "차-(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찬따
32239-0-1 "모자라-(不足)-지 -고 -더라"	모자라고
32239-0-2 "모자라-(不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모자랄따
32240-0-1 "부르-(呼)-지 -고 -더라"	불르고
32240-0-2 "부르-(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불련따
32241-0-1 "따르-(注)-지 -고 -더라"	딸고
32241-0-2 "따르-(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련따
32242-0-1 "쪼:-(啄)-지 -고 -더라"	조사먹꼬; 찌거먹꼬
32242-0-2 "쪼:-(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조산따; 쪼사먹꼬; 찌겸따
32243-0-1 "두-(置)-지 -고 -더라"	두고
32243-0-2 "두-(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뒤라; 두윳따
32244-0-1 "시키-(使)-지 -고 -더라"	시키고
32244-0-2 "시키-(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컬따
32245-0-1 "지리-(漏 오줌을)-지 -고 -더라"	지리고
32245-0-2 "지리-(漏 오줌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련따
32246-0-1 "던지-(投)-지 -고 -더라"	던지고; 던저
32246-0-2 "던지-(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던절따; 던진따
32247-0-1 "모이-(集)-지 -고 -더라"	모이고; 뵈고



32247-0-2 "모이-(集)-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모엿따; 뵈얏따
32248-0-1 "만지-(拵)-지 -고 -더라"	만지고
32248-0-2 "만지-(拵)-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만젼따
32249-0-1 "쫼:-(-囁)-지 -고 -더라"	쫼:고
32249-0-2 "쫼:-(-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쫼얏따
32250-0-1 "비틀-(捻)-지 -고 -더라"	비틀고
32250-0-2 "비틀-(捻)-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트ړ따
32251-0-1 "돕:-(-助)-지 -고 -더라"	도:꼬
32251-0-2 "돕:-(-助)-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도왓따
32252-0-1 "썩-(咀)-지 -고 -더라"	썩꼬
32252-0-2 "썩-(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썩뵈따
32253-0-1 "미끄림-(滑)-지 -고 -더라"	미끌고
32253-0-2 "미끄림-(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미끄ړ따; 미끄러서
32254-0-1 "닿-(接)-지 -고 -더라"	다치안꼬
32254-0-2 "닿-(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닫따
32255-0-1 "누르-(壓)-지 -고 -더라"	눌르고
32255-0-2 "누르-(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눌ړ따
32256-0-1 "주무르-(揉)-지 -고 -더라"	주물고
32256-0-2 "주무르-(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무리; 주무ړ따
32257-0-1 "메우-(填)-지 -고 -더라"	미:고
32257-0-2 "메우-(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미엿따
32258-0-1 "꼬시-(香味)-지 -고 -더라"	꼬습꼬; 꼬습따
32258-0-2 "꼬시-(香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꼬와서
32259-0-1 "내리-(降)-지 -고 -더라"	내리고
32259-0-2 "내리-(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내ړ따
32260-0-1 "구르-(轉)-지 -고 -더라"	굴르고
32260-0-2 "구르-(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굴ړ따
32261-0-1 "만들-(作)-지 -고 -더라"	만들고; 맨들고; 맹글고
32261-0-2 "만들-(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만드ړ따; 맨드ړ따; 맹그ړ따
32262-0-1 "늙-(老)-지 -고 -더라"	늙꼬
32262-0-2 "늙-(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늘건따
32263-0-1 "앓-(痛)-지 -고 -더라"	알:꼬
32263-0-2 "앓-(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랴따
32264-0-1 "따르-(隨)-지 -고 -더라"	따르고
32264-0-2 "따르-(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ړ따
32265-0-1 "사-(買)-지 -고 -더라"	사고

32265-0-2 "사-(買)-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삼따
32266-0-1 "치우-(除)-지 -고 -더라"	치:고
32266-0-2 "치우-(除)-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치:얼따; 철:따
32267-0-1 "부러지-(被折)-지 -고 -더라"	부러지고
32267-0-2 "부러지-(被折)-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뿐지러지고; 뿐지런따; 뿌러져써
32268-0-1 "다치-(傷)-지 -고 -더라"	다치고
32268-0-2 "다치-(傷)-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다철따
32269-0-1 "느리-(緩)-지 -고 -더라"	느리고
32269-0-2 "느리-(緩)-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느런따
32270-0-1 "무치-(和 나물을)-지 -고 -더라"	무치고
32270-0-2 "무치-(和 나물을)-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무철따
32271-0-1 "죄:-(締)-지 -고 -더라"	죄:고
32271-0-2 "죄:-(締)-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죄안따
32272-0-1 "팔-(賣)-지 -고 -더라"	팔고
32272-0-2 "팔-(賣)-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파런따
32273-0-1 "뽑-(選)-지 -고 -더라"	뽑꼬
32273-0-2 "뽑-(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뽑따; 뽑단따
32274-0-1 "뒤지-(索)-지 -고 -더라"	뒤:고; 뒤지고
32274-0-2 "뒤지-(索)-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뒤:얼따; 뒤절따
32275-0-1 "마치-(終)-지 -고 -더라"	마치고
32275-0-2 "마치-(終)-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끈마철따
32276-0-1 "절이-(鹽)-지 -고 -더라"	저리고
32276-0-2 "절이-(鹽)-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저런따
32277-0-1 "휘-(曲)-지 -고 -더라"	휘고
32277-0-2 "휘-(曲)-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휘얼따
32278-0-1 "줍:-(拾)-지 -고 -더라"	죽:꼬
32278-0-2 "줍:-(拾)-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주섰따
32279-0-1 "빼앗-(奪)-지 -고 -더라"	빼꼬
32279-0-2 "빼앗-(奪)-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빼섰따
32280-0-1 "기울-(傾)-지 -고 -더라"	기우리고
32280-0-2 "기울-(傾)-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기울런따
32281-0-1 "아깝-(惜)-지 -고 -더라"	아깝꼬; 아깝따
32281-0-2 "아깝-(惜)-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아까 주견네
32282-0-1 "반갑-(歡)-지 -고 -더라"	방갑꼬; 방갑따
32282-0-2 "반갑-(歡)-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방가워서; 방가서

32283-0-1 "찌-(蒸)-지 -고 -더라"	찌고
32283-0-2 "찌-(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찼따
32284-0-1 "노랑-(黃)-지 -고 -더라"	노라코
32284-0-2 "노랑-(黃)-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노렐따; 노란따; 노란혀서
32285-0-1 "푸르-(靑)-지 -고 -더라"	새푸랑코
32285-0-2 "푸르-(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새푸란허다; 새푸란타
32286-0-1 "서두르-(忙)-지 -고 -더라"	서들고
32286-0-2 "서두르-(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서두렐따
32287-0-1 "서투르-(不熟)-지 -고 -더라"	스틀고
32287-0-2 "서투르-(不熟)-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스트렐따
32288-0-1 "게으르-(怠)-지 -고 -더라"	게우르고
32288-0-2 "게으르-(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게우렐따
32289-0-1 "따뜻하-(溫)-지 -고 -더라"	따습꼬
32289-0-2 "따뜻하-(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쉬서
32290-0-1 "춡-(寒)-지 -고 -더라"	춡꼬
32290-0-2 "춡-(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추윰따
32291-0-1 "뜨겁-(極熱)-지 -고 -더라"	뜨겁꼬; 뜨겁따
32291-0-2 "뜨겁-(極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뜨거서
32292-0-1 "미지근하-(微溫)-지 -고 -더라"	메지근하고
32292-0-2 "미지근하-(微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메지근형게
32293-0-1 "차갑-(寒)-지 -고 -더라"	차고; 차겁꼬
32293-0-2 "차갑-(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찬따; 차거윰따
32294-0-1 "부럽-(羨)-지 -고 -더라"	불겁꼬
32294-0-2 "부럽-(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불견따; 불거워
32295-0-1 "얇밋-(憎)-지 -고 -더라"	미웁꼬; 밋꼬
32295-0-2 "얇밋-(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미윰따
32296-0-1 "비슷하-(類似)-지 -고 -더라"	비스다고
32296-0-2 "비슷하-(類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슬비스더서
32297-0-1 "새롭-(新)-지 -고 -더라"	새롭따
32297-0-2 "새롭-(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새로완따
32298-0-1 "서:럽-(悲痛)-지 -고 -더라"	서럽꼬
32298-0-2 "서:럽-(悲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서러윰따
32299-0-1 "까다롭-(難)-지 -고 -더라"	까탈스럽꼬; 까다랍따
32299-0-2 "까다롭-(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까탈시러서
32300-0-1 "외롭-(孤)-지 -고 -더라"	외롭꼬; 외롭따
32300-0-2 "외롭-(孤)-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외로워

32301-0-1 "아쉽-(不滿)-지 -고 -더라"	아쉽꼬
32301-0-2 "아쉽-(不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수어; 아쉽따
32302-0-1 "단단하-(固)-지 -고 -더라"	판판하고
32302-0-2 "단단하-(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판판헐따; 판판헹게
32303-0-1 "늦-(晚)-지 -고 -더라"	늦꼬
32303-0-2 "늦-(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느절따
32304-0-1 "남:-(餘)-지 -고 -더라"	남:꼬
32304-0-2 "남:-(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나:면따
32305-0-1 "남기-(使餘)-지 -고 -더라"	냉기고; 남기고
32305-0-2 "남기-(使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냉결따; 남결따
32306-0-1 "넘어뜨리-(使倒)-지 -고 -더라"	넙기고
32306-0-2 "넘어뜨리-(使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넙기버리고; 넙결따
32307-0-1 "쭈그러뜨리-(使凹)-지 -고 -더라"	쭈그리고
32307-0-2 "쭈그러뜨리-(使凹)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쭈그러절따; 쭈그런따
32308-0-1 "견주-(比)-지 -고 -더라"	
32308-0-2 "견주-(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견주어바라
32309-0-1 "외우-(誦)-지 -고 -더라"	외:고
32309-0-2 "외우-(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외얏따
32310-0-1 "문지르-(摩)-지 -고 -더라"	문지르고
32310-0-2 "문지르-(摩)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문질런따
32311-0-1 "가리키-(指)-지 -고 -더라"	가르치고
32311-0-2 "가리키-(指)-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르첼따
32312-0-1 "가르치-(敎)-지 -고 -더라"	가르치고
32312-0-2 "가르치-(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르첼따
32313-0-1 "겨누-(照準)-지 -고 -더라"	고누고
32313-0-2 "겨누-(照準)-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날따
32314-0-1 "겨루-(競)-지 -고 -더라"	겨누고
32314-0-2 "겨루-(競)-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겨날따
32315-0-1 "달래-(慰撫)-지 -고 -더라"	달래고
32315-0-2 "달래-(慰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랜따
32316-0-1 "본받-(效)-지 -고 -더라"	뵤보고; 본받꼬
32316-0-2 "본받-(效)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뵤봐:라; 뵤바:라; 반바다라
32317-0-1 "어지르-(散)-지 -고 -더라"	어지르고
32317-0-2 "어지르-(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지런따; 어지러와서
32318-0-1 "달리-(走)-지 -고 -더라"	당막짬하구

32318-0-2 "달리-(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당막찔헛따
32319-0-1 "우기-(拗)-지 -고 -더라"	위기고
32319-0-2 "우기-(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위겻따
32320-0-1 "중얼거리-(獨言)-지 -고 -더라"	쫑얼거리고
32320-0-2 "중얼거리-(獨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쫑어렘따; 쫑얼거렘따
32321-0-1 "지껄이-(騷)-지 -고 -더라"	찌꺼리고
32321-0-2 "지껄이-(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찌꺼렘따
32322-0-1 "다니-(行)-지 -고 -더라"	다니고; 킁길로 땡기고
32322-0-2 "다니-(行)-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넬따; 땡겻따
32323-0-1 "떨어뜨리-(使落)-지 -고 -더라"	떠러티고
32323-0-2 "떨어뜨리-(使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떠러티렘따
32324-0-1 "깨-(覺)-지 -고 -더라"	깨:지
32324-0-2 "깨-(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깼따
32325-0-1 "시-(酸)-지 -고 -더라"	시고
32325-0-2 "시-(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다
32326-0-1 "숫-(湧)-지 -고 -더라"	속꼬
32326-0-2 "숫-(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소삼따
32327-0-1 "좋:-(好)-지 -고 -더라"	조:코
32327-0-2 "좋:-(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조안따
32328-0-1 "빨강-(赤)-지 -고 -더라"	빨가케; 빨감코
32328-0-2 "빨강-(赤)-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빨가서; 빨개서
32329-0-1 "끌:-(曳)-지 -고 -더라"	끌코
32329-0-2 "끌:-(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끄렘따
32330-0-1 "얹:-(薄)-지 -고 -더라"	넙꼬
32330-0-2 "얹:-(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넬뵈따
32331-0-1 "하얗-(白)-지 -고 -더라"	히고; 하야코
32331-0-2 "하얗-(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히열따; 하야서; 하예서

### 3.2.2. 곡용

32332-0-1 국(羹)-이/가	구기
32332-0-2 국(羹)-을/를	구글
32332-0-3 국(羹)-에(서)	구게
32332-0-4 국(羹)-으로	구그로
32332-0-5 국(羹)-도	국또
32333-0-1 논(沓)-이/가	노니
32333-0-2 논(沓)-을/를	노늘

32333-0-3 논(沓)-에(서)	노네
32333-0-4 논(沓)-으로	노느로
32333-0-5 논(沓)-도	논도
32334-0-1 쌀(米)-이/가	싸리
32334-0-2 쌀(米)-을/를	싸를
32334-0-3 쌀(米)-에(서)	싸레
32334-0-4 쌀(米)-으로	쌀로
32334-0-5 쌀(米)-도	쌀도
32335-0-1 봄(春)-이/가	보미
32335-0-2 봄(春)-을/를	보믈
32335-0-3 봄(春)-에(서)	보메
32335-0-4 봄(春)-으로	보므로
32335-0-5 봄(春)-도	봄도
32336-0-1 집(家)-이/가	지비
32336-0-2 집(家)-을/를	지블
32336-0-3 집(家)-에(서)	지베
32336-0-4 집(家)-으로	지브로
32336-0-5 집(家)-도	집또
32337-0-1 옷(衣)-이/가	오시
32337-0-2 옷(衣)-을/를	오슬
32337-0-3 옷(衣)-에(서)	오세
32337-0-4 옷(衣)-으로	오스로
32337-0-5 옷(衣)-도	온또
32338-0-1 방(房)-이/가	방이
32338-0-2 방(房)-을/를	방을
32338-0-3 방(房)-에(서)	방에
32338-0-4 방(房)-으로	방으로
32338-0-5 방(房)-도	방도
32339-0-1 낮(晝)-이/가	나지
32339-0-2 낮(晝)-을/를	나슬
32339-0-3 낮(晝)-에(서)	나제
32339-0-4 낮(晝)-으로	나스로
32339-0-5 낮(晝)-도	날또
32340-0-1 낯(顔)-이/가	나시
32340-0-2 낯(顔)-을/를	나슬
32340-0-3 낯(顔)-에(서)	나제
32340-0-4 낯(顔)-으로	나스로

32340-0-5	낯(顔)-도	낯또
32341-0-1	부엌(廚)-이/가	부어기
32341-0-2	부엌(廚)-을/를	부어글
32341-0-3	부엌(廚)-에(서)	부어께; 부어케
32341-0-4	부엌(廚)-으로	부어그로
32341-0-5	부엌(廚)-도	부엌또
32342-0-1	밭(田)-이/가	받치
32342-0-2	밭(田)-을/를	바틀
32342-0-3	밭(田)-에(서)	바테
32342-0-4	밭(田)-으로	바트로
32342-0-5	밭(田)-도	받또
32343-0-1	앞(前)-이/가	아피
32343-0-2	앞(前)-을/를	아플
32343-0-3	앞(前)-에(서)	아페
32343-0-4	앞(前)-으로	아프로
32343-0-5	앞(前)-도	압또
32344-0-1	넋(魂)-이/가	너기
32344-0-2	넋(魂)-을/를	너글
32344-0-3	넋(魂)-에(서)	너게
32344-0-4	넋(魂)-으로	너그로
32344-0-5	넋(魂)-도	넉또
32345-0-1	흙(土)-이/가	호기
32345-0-2	흙(土)-을/를	호글
32345-0-3	흙(土)-에(서)	호게
32345-0-4	흙(土)-으로	호그로
32345-0-5	흙(土)-도	흑또
32346-0-1	여덟(八)-이/가	여다리
32346-0-2	여덟(八)-을/를	여다를
32346-0-3	여덟(八)-에(서)	여다레
32346-0-4	여덟(八)-으로	여달로
32346-0-5	여덟(八)-도	여답또
32347-0-1	돌(週歲)-이/가	도리
32347-0-2	돌(週歲)-을/를	도를
32347-0-3	돌(週歲)-에(서)	도레
32347-0-4	돌(週歲)-으로	돌로
32347-0-5	돌(週歲)-도	돌도
32348-0-1	값(價)-이/가	갑씨

32348-0-2	값(價)-을/를	갑쓸
32348-0-3	값(價)-에(서)	가베
32348-0-4	값(價)-으로	갑쓰로
32348-0-5	값(價)-도	갑또
32349-0-1	속:(內)-이/가	소:기
32349-0-2	속:(內)-을/를	소:글
32349-0-3	속:(內)-에(서)	소:게
32349-0-4	속:(內)-으로	소:그로
32349-0-5	속:(內)-도	속:또
32350-0-1	돈:(錢)-이/가	도:니
32350-0-2	돈:(錢)-을/를	도:늘
32350-0-3	돈:(錢)-에(서)	도:네
32350-0-4	돈:(錢)-으로	도:느로
32350-0-5	돈:(錢)-도	돈:도
32351-0-1	발(足)-이/가	바리
32351-0-2	발(足)-을/를	바를
32351-0-3	발(足)-에(서)	바레
32351-0-4	발(足)-으로	발로
32351-0-5	발(足)-도	발도
32352-0-1	짐(荷物)-이/가	지미
32352-0-2	짐(荷物)-을/를	지믈
32352-0-3	짐(荷物)-에(서)	지메
32352-0-4	짐(荷物)-으로	지므로
32352-0-5	짐(荷物)-도	짐도
32353-0-1	입(口)-이/가	이비
32353-0-2	입(口)-을/를	이블
32353-0-3	입(口)-에(서)	이베
32353-0-4	입(口)-으로	이브로
32353-0-5	입(口)-도	입또
32354-0-1	낫(鎌)-이/가	나시
32354-0-2	낫(鎌)-을/를	나슬
32354-0-3	낫(鎌)-에(서)	나세
32354-0-4	낫(鎌)-으로	나스로
32354-0-5	낫(鎌)-도	낫또
32355-0-1	강(江)-이/가	강이
32355-0-2	강(江)-을/를	강을
32355-0-3	강(江)-에(서)	강에



32355-0-4 강(江)-으로	강으로
32355-0-5 강(江)-도	강도
32356-0-1 젓(乳)-이/가	저시
32356-0-2 젓(乳)-을/를	저슬
32356-0-3 젓(乳)-에(서)	저세
32356-0-4 젓(乳)-으로	저스로
32356-0-5 젓(乳)-도	전또
32357-0-1 꽃(花)-이/가	꼬치; 꼬시
32357-0-2 꽃(花)-을/를	꼬출; 꼬슬
32357-0-3 꽃(花)-에(서)	꼬체; 꼬세
32357-0-4 꽃(花)-으로	꼬츠로; 꼬스로
32357-0-5 꽃(花)-도	꼰또
32358-0-1 팔(赤豆)-이/가	파시
32358-0-2 팔(赤豆)-을/를	파슬
32358-0-3 팔(赤豆)-에(서)	파세
32358-0-4 팔(赤豆)-으로	파스로
32358-0-5 팔(赤豆)-도	판또
32359-0-1 옆(側)-이/가	여피
32359-0-2 옆(側)-을/를	여플
32359-0-3 옆(側)-에(서)	여페
32359-0-4 옆(側)-으로	여프로
32359-0-5 옆(側)-도	엽또
32360-0-1 샀(賃金)-이/가	품싸기
32360-0-2 샀(賃金)-을/를	품싸글
32360-0-3 샀(賃金)-에(서)	품싸게
32360-0-4 샀(賃金)-으로	품싸그로
32360-0-5 샀(賃金)-도	품싸또
32361-0-1 닭(鷄)-이/가	다기
32361-0-2 닭(鷄)-을/를	다글
32361-0-3 닭(鷄)-에(서)	다게
32361-0-4 닭(鷄)-으로	다그로
32361-0-5 닭(鷄)-도	닥또
32362-0-1 밖(外)-이/가	바끼
32362-0-2 밖(外)-을/를	바끌
32362-0-3 밖(外)-에(서)	바께
32362-0-4 밖(外)-으로	바끄로
32362-0-5 밖(外)-도	박또

## 제4편 문법

### 4.1. 대명사

#### 4.1.1. 인칭대명사

40101 나	나라고
40101-0-1 내-가	내가 머걸따고 혀
40101-0-2 내	내 물건
40101-0-3 나-를	나를
40101-0-4 나-에게	나한테
40101-0-5 나-와	나허고
40101-0-6 나-는	나만; 나자신만
40101-0-7 나-도	나도 알고
40102 저/제-가	저
40102-0-1 저-가	제가 다녀왔씀니다; 제가 하겜씀니다
40102-0-2 저-의	제꼐
40102-0-3 저-을/를	저럴
40102-0-4 저-에게	저한테 주세요
40102-0-5 저-와/과	저와
40102-0-6 저-는	저넌
40102-0-7 저-도	저도
40103 우리	우리 아버지
40104 저희	저에아버지
40105 너	너
40105-0-1 -가	니가
40105-0-2 -의	니꼐
40105-0-3 -을/를	너널
40105-0-4 -에게	너한테
40105-0-5 -와/과	너와
40105-0-6 -는	너넌
40105-0-7 -도	너도
40106 자네	자네
40107 당신	당신
40108 너희	너이아버지; 너이
40109 개	저아이; 가:는
40109-1 애	애 허고; 애; 야는

40109-2 재	저애; 자:는
40110 자기	자기말만
40111 당신	×

#### 4.1.2. 의문대명사

40112 누구-요/누구십니까	누구세요; 누구냐
40112-0-1 누-가	누가 켜나
40112-0-2 누구-의	뉘 도니냐
40112-0-3 누구-를	누구를
40112-0-4 누구-에게	누구한테
40112-0-5 누구-와	누구와 게론하냐
40113 무엇-이냐/입니까	무어시 인냐; 무어시 이쨌요
40113-0-1 무엇-이	무어시 인냐
40113-0-2 무슨	무슨 일하냐? 머:선
40113-0-3 무엇-을	무어슬 하냐
40113-0-4 무엇-과	무얼 갸따; 무어파 갸따

#### 4.1.3. 그 밖의 의문사

40114 어디	너 어테 가냐; 너 어디 가냐
40115 언제	언제 완냐
40116 어느	어느 지비
40117 왜	왜 우냐
40118 얼마나	얼마나 걸리냐
40119 어떻게	어떠께

#### 4.1.4. 지시대명사, 지시부사

40120 이것	이건
40121 그것	그거슨
40122 저것	저건
40123 여기	여기
40124 거기	거기
40125 저기	저기
40126 이리	이리 오라
40127 그리	그:리

40128 저리

저리

## 4.2. 조사

### 4.2.1. 격조사

40201 -이/가

이 물거니

40202 -이/가

코가 크다

40203 -을/를

빠를; 귀를; 코를 때리다

40204 -을/를

무를 주야

40205 -에 게/게

나한테

40206 -보고/더러

나보고

40207 -보고/더러

누구보고

40208 -에

나 지배 가; 지배간다

40209 -에

다으메 또 만나자; 나중에

40210 -에서

큰지배서

40211 -에서

서우레서 만나자

40212 -에서

이고세서; 여기서

40213 -으로

쌀로

40214 -으로

지푸라그로

40215 -으로

새끼로도 목꼬

40216 -으로

어디로 가냐

40217 -와/과

수박파 차피를

40218 -와/과

나와

40219 -보다

정보다

40220 -처럼

돼지처럼

40221 -만큼

너만큼

40222 -만큼

머글만치

40223 -아/야

봉나마

40224 -아/야

복남이

40225 -아/야

아 영수야

40226 -아/야

누님

40226-1 -예

×

40227 -아/야

하라버지

40227-1 -요

×

40228 -이랑

술과 고기를 잘머건따;

40229 -커녕	수리랑 고기랑 머건따 술커녕 고기커녕 아무것도
-----------	------------------------------

#### 4.2.2. 보조사

40230 -은/는	수른 머거도 담배는 피지 안는다
40231 -만	딸만
40232 -도	키도 크고 얼굴도 잘 생겼따
40233 -마다	날마다
40234 -부터	오늘부터
40235 -까지	내일까지
40236 -조차	마실 물도; 마실 물조차 읍따
40236-1 -할라	×
40237 -이야/야	말은 잘해; 마리아 조아
40238 -을랑	그런 소리는 다시는 하지 말게
40239 -이라도	부자라고 해서; 부자라도
40240 -밖에	너뿐니다; 너바께 업따
40241 -가지고	싸서; 싸서 갇따; 싸갇꼬 갇따; 싸가지고 갇따

#### 4.2.3. 문장 뒤 조사

40242 오라-고 한다	오라고 하니까
40243 알았어-요	아란써요
40244 했지-요?	해써요; 해찌요

### 4.3. 종결어미

#### 4.3.1. 명령법

40301 -아라	이리 안자; 안저; 안즈라니까; 안저라
40302 -게	안쏘; 안께
40303 -으오	안즈세요; 안저요
40304 -으십시오	안즈세요
40305 -세요	안즈세요

#### 4.3.2. 청유법

40306 -자	가치 가자
40307 -세	가세; 가새
40308 -으오	갑썌다; 가치 가요
40309 -십시다	가치가시죤; 가십썌다
40310 -세요	가십썌다; 갑썌다

#### 4.3.3. 의문법

40311 -니	오냐
40312 -나	비가 오능가
40313 -오	옴니까
40314 -습니까	비가 옴니까
40315 -나요	비가 옴니까
40316 -니	어디 가냐
40317 -나	어데 가능가
40318 -시오	어디 가세요
40319 -십니까	가십니까
40320 -세요	가십니까

#### 4.3.4. 서술법

40321 -는다	명는다
40322 -네	명는다
40323 -오	잘 머거요
40324 -습니다	머거요
40325 -네요	머거요
40326 -다	작따
40327 -네	장네
40328 -소	자가요
40329 -으십니다	저거요; 자가요
40330 -으세요	자가요; 저거요

#### 4.3.5. 반말

40331 -아	어데 아프냐; 어데가 아퍼
----------	----------------

40332 -지

갈꺼야?

#### 4.3.6. -이다

40333 -이다

생이리다

40334 -이니

생이린지 아냐; 생일이냐; 생이리야

40335 -이네

자네 생이리여; 생이리네

40336 -인가

생이린가

40337 -이오

생이리여; 생이리오

40338 -이오

생이릅니까; 생이리여; 생이레요

40339 -입니다.

생일입니다

40340 -입니까

생신입니까; 생이릅니까

40341 -이시지요

생이릅니다; 생시드립니다

40342 -이시지요

생이릅니까

40343 -이냐?

너 그게 무어냐; 무어시냐

40344 -인가?

무어신가

40345 -이오?

무어십니까

40346 -입니까?

무어십니까

40347 -인가요?

무어십니까

40348 -이야?

무어신가

40349 -어어요?

무어시여

#### 4.3.7. 그 밖의 종결어미

40350 -습니다

만네요; 만썸니다

40351 -습디다

차가 마나요; 마니 이썸요

40352 -는구나/구나

잘 명네; 잘 머거; 잘명느만; 명는구나

40353 -는구먼/구먼

잘 명느만; 잘 명네; 명는구만

40354 -일세

오랜마니네; 오랜마녀

40355 -으마

가쁘께; 가플께

40355 -으마

꼭 가퍼; 가플쳐

40356 -음세

가플께

40357 -을라

다칠까 조심하라; 다친다 조심하라

#### 4.4. 연결어미

40401 -고/-고서	먹꼬
40402 -으면서	보면서
40403 -어/-어서	추워서
40404 -으니 /-으니까	따뜻 하니까; 따수니까
40405 -관테	무슨 닐로; 뭇때무네
40406 -다가	지베 오다가
40407 -거든	그 사람 만나면
40408 -더라도	만나더라
40409 -으려고	머글랴고; 드를려고
40410 -도록	새도록; 빠지도록; 죽또록
40411 -을수록	노플쭈록
40412 -듯이	물쓰드끼; 쓰드시 한다
40413 -지	본다; 보제

## 4.5. 주체 존대

40501 -셔	어 이리 와; 오게; 이리 와요; 이리 오세요; 드러가셔
40502 -셨소	모내기 다 해쏘?

## 4.6. 시제

40601 웃는다	운는다
40602 기어간다	긴다; 기어간다
40603 크다	크다
40604 생일이다	생이리다
40605 오고 있다	온다; 오고이따
40606 먹었니?/잡수셨습니까?	머건냐?; 머건니?; 잡쭈셔썬요?; 잡쭈썬썬니까?
40607 왔었다	와썬따
40608 먹더라	먹뜨라
40609 먹더냐	먹뜨냐?
40610 만나는 친구	만나는 칭구
40611 만난 친구	만난 칭구
40612 만났던 친구	만난사람



40613	만날 친구	만날 칭구
40614	큰 아이	키크나이
40615	크던 아이	크던
40616	켰던 아이	컨턴

## 4.7. 부정

40617	마시지 않겠다	안켄따
40618	비가 오겠다	오켄따
40701	안 먹었어/먹지 않았어	안 머겔써
40702	안 좋다/좋지 않다	안 조아; 날씨가 안 조타
40703	안 깨끗하다/깨끗하지 않다/ 깨끗 안 하다	깨끄더지 안타
40704	장가 안 갔다/장가가지 않았다	아직 장가 양가써; 아직 장가 안 드런써
40705	만나 보지 않았다/안 만나 보았다/만나 안 보았다	나 안 만나써
40706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먹찌 안코
40706-1	먹도 않고	먹찌도 양코
40707	못 마신다/마시지 못한다	몬 마신다
40708	맞잖소?/안 맞소?	내마리 올치; 내마리 마찌

## 4.8. 사동과 피동

### 4.8.1. 사동

40801	살리다	살리야지
40802	늘리다	학쌩쭈를 늘린다고 하고
40803	말리다1	말려
40804	말리다2	말기야지; 말겨; 싸우믈 말긴다고지
40805	열리다	열려
40806	녹이다	노겨; 노긴다고해지
40807	싱기다	싱겨야지
40808	보이다	보여주능게 자랑시키는 거지
40809	알리다	알리주는거지; 소시글 알려주능거싱게

40810 입히다  
40811 앉히다  
40812 벗기다  
40813 웃기다  
40814 씹히다  
40815 숨기다  
40816 굶기다  
40817 깨우다  
40818 돋우다

이퍼주야지  
안쳐 놔  
베껴  
운겨  
썩은단 마리지  
승겨 놔  
궁겨  
깨야; 깨라; 깨워라  
불또다준다

#### 4.8.2. 피동

40819 잡히다  
40820 깎이다  
40821 끼이다  
40822 떼이다  
40823 채이다  
40824 닫히다  
40825 들리다  
40826 업히다  
40827 바뀌다  
40828 씹히다  
40829 얹히다  
40830 찍히다  
40831 놀리다  
40832 실리다  
40833 꿇기다  
40834 굶히다

재핀거지  
깨곶따구두혀  
치열따고허지; 문틈 새이가 곶따고  
띠어따고; 돈 떠따고그루지  
뒤빠레 채여따고 허지  
다쳐따고허지  
안 디킨다고허지; 안 디껴  
어퍼따고허지  
바뀌져따고; 바곶따오고  
씨핀다고  
언쳐따구지  
발똥 찌켜따구르지  
눌러서  
구급차에 실려가따구지  
끈쳐따구여  
글켜따고 혀

#### 4.9. 보조용언

40901 싶다  
40902 싫다  
40903 보다  
40904 버리다  
40905 대다

뭐 빠꼬심냐  
멍는가십떠니  
이버보셔요 그러지  
떠글 다 머거버런네; 다 머거 치어버려꾸만  
종일 소리만 질러싼네; 우러덴다고도허고

40906 -나/는가 보다  
40907 -나/는가 보다  
40908 -나/는가 보다

비올랑갑뽀다고지  
잘랑가보다고지; 자드리 이제 잘랑가뵈  
충가뵈

## 4.10. 부사

41001 실컷  
41002 많이  
41003 너무  
41004 조금  
41005 자주  
41006 빨리  
41007 얼른  
  
41008 기어코  
41009 가끔  
41010 먼저  
41011 나중에  
41011 나중에  
41012 가득  
41013 몽땅  
41014 모조리

실컷 머거라  
마니 머거라  
너무; 너무나 막  
쪼끔만 머거라; 쪼끔만 머거도  
자주 간다고  
빨리 와따 그래요  
빨리 머그라고; 후딱 머거; 얼름얼름 머거;  
언능언능 머거  
기어이 가따그루지; 기어니 가따그루지  
가끔 멍능다고  
먼저 가  
나중에 주기루하구; 낭중에 준다구(+ 구)  
낭중에 준다구(+ 구)  
하나; 향아리다가 물 하나 채워난네  
썩 따 가꼬라고지; 몽땅; 몽땅 가져가버런네  
썩 따 벼벼려따고해야지; 썩 따 벼벼런네;  
모조리는(+ 신)

41015 혼자  
41016 항상  
41017 똑똑히

혼자 나며찌; 나 혼차 나먼네  
늘 바빠; 항상(+ 다)  
똑빠로; 너이거 자생이 바(+ 다);  
똑또키 보라 쏘리도 하지; 똑또기(+ 다)

41018 겨우  
41019 늘

간시니 차믄네  
항상 잠만 잔다고; 항상; 늘;  
맨날 소리가(+ 다)

41020 저절로  
41021 자꾸  
41022 설마  
41023 하마터면  
41024 함께  
41025 걸핏하면

제절루 나와; 자꾸 사탕만 달라구 한다구  
자꾸  
설마 그리쓰까  
깨딱허면; 하마트라면  
함께 가따고; 함께 가따고  
툅허면 소가지만 내고; 깨딱허면 그양

41025 걸핏하면	걸피더면
41026 공연히	매름씨; 매름씨 와서 트짐만 자버싼네; 꽤니 와서
41027 그냥	기양 오지; 그냥 와따고
41028 매우	경장이; 경장이
41029 곧장	바루 지비루 오니라; 후딱 오라고지; 후딱 오니라
41030 벌써	벌써 끈넌냐; 벌써 핵교 끈나고 완냐
41031 가장	최고로 잘한다구지; 젤루 잘혼다; 가장 잘한다(+ 소); 젤 잘한다다(+ 다)
41032 가만히	가마니 야 안자끄라
41033 미리	미리; 가끔; 어찌다 한번씩 현다; 이따금 함번씩

## 4.11. 관용적 표현

### 4.11.1. 관용구

41101 여보	여보라고; 지어매; 누구네 아버지
41102 여보세요	여보세요
41103 들어가세요	드러가세요
41104 수고하세요	아저씨 수고하세요; 아저씨 욱뽕세요; 욕뽕쇼
41105 오랜만에 만난 친구 사이의 인사말	너 오래간마이다; 오랜마이다
41106 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동네 어른에게 하는 인사말	아저씨 안녕하쎄쎄요; 아저씨 진지 잡수쎄쎄요
41107 오랜만에 찾아 뵈 어른에게 큰절을 올리면서 하는 말	하라버지 안녕하쎄쎄요; 건강허신냐고
41108 여기 있습니다	돈 여깁쎄요; 아줌마 돈 여깁쎄요
41109 예	어; 머겔따; 예; 밤 머겔쎄요
41110 아니	아뇨
41111 아무렇지도 않다	암시랑안타
41112 내버려 뒀	나를 좀 놔도가; 내빼려뒀; 내빼리뒀
41113 개나 소나	개나거리나

#### 4.11.2. 속담

41114 밭 빠진 독에 물 붓기  
41115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41116 아니 뎌 굴뚝에 연기 나라

밭빠진 도게 물 분끼  
바늘 도두기 황소도둑 된다고  
아니뎌 굴뚜게 연기나라



##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 추진 위원회

- ◆ 위 원 장 이 기 갑 (목 포 대 학 교)
- ◆ 위 원 강 영 봉 (제 주 대 학 교)
- ◆ 위 원 김 무 식 (경 성 대 학 교)
- ◆ 위 원 김 봉 국 (부산교육대학교)
- ◆ 위 원 김 정 대 (경 남 대 학 교)
- ◆ 위 원 박 경 래 (세 명 대 학 교)
- ◆ 위 원 소 강 춘 (전 주 대 학 교)
- ◆ 위 원 한 영 목 (충 남 대 학 교)
- ◆ 자문위원 최 명 옥 (서 울 대 학 교)
- ◆ 자문위원 홍 윤 표 (연 세 대 학 교)

